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2025~2027) 수립 연구 보고서

2024. 8. 31.

(재)인천문화재단

제 출 문

인천문화재단 귀하

본 연구물을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2025~2027)』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8월 31일

(주)문화디자인자리 대표 최혜자

연구에 참여한 분들

주관기관 (주)문화디자인자리

책임 연구

 최혜자 (주)문화디자인자리 대표

공동 연구

 전민주 (주)문화디자인자리 이사

연구 보조

 문성희 (주)문화디자인자리 사업팀장

 추일범 (주)문화디자인자리 연구원

 유리나 (주)문화디자인자리 연구원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자문위원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부교수
박영정	前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최영화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그룹인터뷰 참여자

곽은비	로컬크리에이터
선우은실	문학평론가
이재상	극장가 겸 연출가
진기환	문학평론가
고동희	前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박소현	인천문화재단 홍보협력팀장
송소민	인천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주임
정시윤	인천연수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김수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 예술지원실장
박슬기	경기문화재단 예술본부 예술교육팀장
송수경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 예술지원팀장
최기현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예술지원팀장

목 차

연구요약	
I. 연구개요	0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03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06
3. 연구 절차와 방법	08
4.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0
II. 예술인 복지제도의 배경과 흐름	13
1. 현대사회 예술 및 예술인에 대한 담론의 흐름	15
2. 해외 예술인 정책의 현황	20
3.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제도와 제1차 기본계획의 내용	30
4. 타 시·도 예술인 정책의 현황과 사례	40
III. 인천 예술인 플랜 설계를 위한 기초 분석	51
1. 인천 예술인 플랜의 맥락과 전개	53
2. 2023년 예술인 실태조사의 분석 및 주요 이슈	72
3. 인천 예술인 플랜 관계자 그룹인터뷰 결과분석	100
IV. 인천 예술인 플랜에 대한 의견 수렴	113
1. 델파이 조사 설계	115
2. 델파이 조사 분석	119
V.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	131
1.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을 위한 종합분석	133
2.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비전 및 목표	139
3.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추진사업	144
4.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성과관리	167
5.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추진	172
참고문헌	179
부록	183
1. 인천시 문화환경 분석	185
2. 델파이 조사지 양식	218

표 목차

<표 I-1> 인천 예술인 플랜 추진과정	04
<표 I-2>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05
<표 I-3> 인천 예술인 플랜의 주요 방향	05
<표 II-1>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유네스코 초기 활동	16
<표 II-2> 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	16
<표 II-3>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의 예술가 개념	17
<표 II-4>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가 제시한 예술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의 범위	17
<표 II-5>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이후 각 국가의 접근방식 유형	18
<표 II-6>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의 범위에 따른 우리나라 예술인복지 정책 사업 비교	19
<표 II-7> 해외 예술인 정책 및 사업 사례 조사 개요	20
<표 II-8> 해외 예술인 정책 주요 사례	20
<표 II-9> 예술가와 문화전문가를 위한 개인 이동지원 프로그램 개요	22
<표 II-10> 예술가와 문화전문가를 위한 개인 이동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23
<표 II-11> 호주 공연예술 투자 프로젝트 사업 내용	24
<표 II-12> 호주 공연예술 투자 프로젝트 지원금 사용 용도	25
<표 II-13> 토카스 레지던시 프로그램 내용	26
<표 II-14> 씨때 공모선정 방식에 따른 입주 기준	28
<표 II-15> 씨때 주요공간 소개	28
<표 II-16> 「예술인 복지법」 제정 흐름	30
<표 II-17> (문화)예술과 예술인의 법적 정의	31
<표 II-18>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 경과	32
<표 II-19> 202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주요사업내용	33
<표 II-20>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성과	35
<표 II-21>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개선과제	35
<표 II-22>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방향	36
<표 II-23> 제1차 예술인 복지제도 추진전략 및 과제	37
<표 II-24> 17개 광역시·도 예술인복지 관련 조례	40
<표 II-25> 주요시·도 예술인 복지정책 관련 현황	41
<표 II-26> 서울시 예술인복지증진 계획의 변화	42
<표 II-27> 2024 서울문화재단 예술인 지원 관련 사업	43
<표 II-28> 2024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추진사업	45
<표 II-29>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제도 현황	46
<표 II-30> 2024년 부산 예술인복지 증진계획	48
<표 II-31> 부산예술인 퍼실리테이터와 부산예술인 행복플랫폼 요약	49
<표 III-1> 인천 예술인 지원 경과	53
<표 III-2>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내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근거 조항	53
<표 III-3>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제1차, 제2차 주요 내용	54
<표 III-4> 2024년 인천문화재단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54
<표 III-5> 2023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주요사업 내용	56

<표Ⅲ-6> 제1차 예술인복지 플랜 비전 및 목표	56
<표Ⅲ-7> 제1차 인천 예술인복지 플랜 추진 사업(2019~2021)	57
<표Ⅲ-8> 제1차 인천 예술인복지 플랜 성과 분석	58
<표Ⅲ-9> 제1차 인천 예술인복지 플랜 한계 분석	58
<표Ⅲ-10>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추진과제 및 추진 경과	60
<표Ⅲ-11> 예술인의 예술활동증진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	61
<표Ⅲ-12> 예술인의 예술생태계 정착과 성장 촉진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 ..	62
<표Ⅲ-13> 예술인의 교류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	63
<표Ⅲ-14>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향상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	64
<표Ⅲ-15>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가치확산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 ..	65
<표Ⅲ-16> 예술인의 삶의 기반강화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	66
<표Ⅲ-17> 예술인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	67
<표Ⅲ-18> 예술인 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67
<표Ⅲ-19> 제2차 예술인 플랜에서 효과성이 높은 사업	69
<표Ⅲ-20> 인천 예술인 플랜 미추진 사업	70
<표Ⅲ-21> 전국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현황	72
<표Ⅲ-22> 인천시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연령대	73
<표Ⅲ-23> 인천시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분야별 현황	73
<표Ⅲ-24> 3차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74
<표Ⅲ-25> 2018년, 2021년, 2023년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항목	74
<표Ⅲ-26> 3차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항목	75
<표Ⅲ-27> 그룹인터뷰 개요	100
<표Ⅲ-28>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그룹인터뷰 참여자	101
<표Ⅲ-29> 그룹인터뷰에서 제기된 예술인 플랜 추진의 필요 여건	110
<표Ⅳ-1> 델파이 조사 개요	116
<표Ⅳ-2> 델파이 조사대상 선정 방식	117
<표Ⅳ-3> 델파이 조사 내용	117
<표Ⅳ-4> 델파이 조사 참여 현황	119
<표Ⅳ-5> 예술인 플랜 수립에 대한 기타 의견	129
<표Ⅴ-1> 예술인 플랜 수립 주기의 문제	133
<표Ⅴ-2> 예술인 플랜 수립 주기의 변경방안	134
<표Ⅴ-3> STEEP 분석 내용	134
<표Ⅴ-4> 인천시 향후 10년을 기준으로 한 STEEP 분석	135
<표Ⅴ-5>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의 방향	140
<표Ⅴ-6>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사업 구성표	145
<표Ⅴ-7>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사업 예산표	166
<표Ⅴ-8>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기대성과 도출을 위한 환경 점검	167
<표Ⅴ-9>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성과관리체계의 과제	168
<표Ⅴ-10>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전략과 추진과제에 따른 성과정리	168
<표Ⅴ-11>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사업 성과 평가 지표 구성안	170
<표Ⅴ-12>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사업 성과평가 방법	171
<표Ⅴ-13>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사업 성과평가 유형	171
<표Ⅴ-14> 예술인 플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174

<표 V-15> 예술의 가치와 역할에 관한 논의 흐름	175
<표 V-16> 예술인 플랜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 역할	176
<표 V-17> 주요 광역문화재단 2023년 경상비 및 사업비	177
<표 V-18> 2024년 주요시도 출연금 예산 현황	177
<표-부록-1> 인천시 도시발전 연혁	185
<표-부록-2> 전국 광역시·도 면적 대비 인천시 면적(2023년 12월 말 기준)	187
<표-부록-3> 인천시 용도지역 현황 (2021년 기준)	188
<표-부록-4> 인천시 철도시설 현황	189
<표-부록-5> 전국 광역시·도 인구 대비 인천시의 인구(2022.12 기준)	190
<표-부록-6> 인천시의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2022년 기준)	191
<표-부록-7> 인천시의 행정구역별 순이동 인구수	192
<표-부록-8> 전국 광역시·도 별 평균연령 현황(2024.6 기준)	192
<표-부록-9> 인천시 행정구역별 평균연령 현황(2023 기준)	193
<표-부록-10> 전국 광역시·도 별 고령인구 현황(2024.06 기준)	194
<표-부록-11> 인천시 행정구역별 고령인구 현황(2024.6 기준)	194
<표-부록-12> 전국 광역시·도 별 1인 세대 현황(2022년 기준)	196
<표-부록-13> 전국 지역내총생산 추계결과 현황(GRDP)	197
<표-부록-14> 인천시 산업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2022년 기준)	197
<표-부록-15> 인천시 사업체 규모(2022년 기준)	198
<표-부록-16> 전국 남녀 고용률 (2023년 기준)	199
<표-부록-17> 인천시 4대 시정방침 및 10대 정책	201
<표-부록-18> 인천시 문화예술 분야 공약	202
<표-부록-19> 인천시 재정 규모	203
<표-부록-20> 인천시 조직별 예산 현황	204
<표-부록-21> 최근 5년간 인천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205
<표-부록-22> 인천문화재단 부서별 주요 업무	207
<표-부록-23> 2024년 인천문화재단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208
<표-부록-24>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209
<표-부록-25> 인천시 문화기반시설 현황	209
<표-부록-26> 전국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현황(2018, 2021, 2024)	213
<표-부록-27> 지역문화 종합지수의 하위요소 지수 개념	214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의 절차와 과정	08
(그림 II-1) 예술정책에서 예술인 대상 정책의 위상	19
(그림 II-2) 토카스 레지던시 공간 사진	27
(그림 II-3) 씨떼 공간 사진	28
(그림 II-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비전 및 미션	33
(그림 II-5)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체계	37
(그림 II-6) 서울 예술인 플랜(2016) 예술인 지원 계획방향	43
(그림 II-7) 경기 예술인·예술단체DB 현황	45
(그림 II-8) 경기문화재단 조직도 시행 부서	46
(그림 II-9) 부산문화재단 조직도 시행 부서 부분	48
(그림 III-1) 인천예술인지원센터 구조	55
(그림 III-2)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전략 방향	59
(그림 III-3)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기본 구상	59
(그림 III-4) 인천시 예술인 1년간 주요 활동지역 추이	77
(그림 III-5) 타 지역 활동 희망·계획의 이유 추이	77
(그림 III-6) 최근 1년간 예술작품 발표횟수 추이	78
(그림 III-7)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추이	78
(그림 III-8)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 활동 종사 추이	78
(그림 III-9) 지난 1년간 예술인사회보험 지원 경험 추이	79
(그림 III-10) 예술인패스 카드 발급 추이	79
(그림 III-11) 예술인 의료비 지원 추이	79
(그림 III-1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추이	79
(그림 III-13) 정부 또는 기업이나 개인 후원자의 창작활동 지원 경험 추이	79
(그림 III-14) 창작활동 관련 평균 지원 금액 추이	80
(그림 III-15)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 보유 추이	80
(그림 III-16) 개인 창작공간 소유 형태 추이	81
(그림 III-17) 공유 창작공간 입주 활동 의향 추이	81
(그림 III-18) 공유 창작공간 입주하고 싶지 않은이유(2023년)	81
(그림 III-19) 예술활동 전업 추이	82
(그림 III-20) 예술 분야 고용형태 추이	82
(그림 III-21) 계약 체결 여부 추이	83
(그림 III-22)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이유 응답 추이	83
(그림 III-23)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추이	84
(그림 III-24)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대처 방안 인식 추이	84
(그림 III-25) 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폭행) 발생 추이	85
(그림 III-26) 예술계 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센터 운영 인식 추이	85
(그림 III-27) 예술계 성폭력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 응답 추이	86
(그림 III-28) 경력 단절 경험 여부 추이	86
(그림 III-29) 경력 단절의 이유 추이	86
(그림 III-30)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비율 추이	87
(그림 III-31)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인지 추이와 경험 추이	87

(그림Ⅲ-32) 최근 2년간 실업급여 수급(2023년)	87
(그림Ⅲ-33) 몸이 아팠지만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 추이	88
(그림Ⅲ-34) 몸이 아팠지만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이유 추이	88
(그림Ⅲ-35) 예술활동 시 스트레스 정도 추이	88
(그림Ⅲ-36) 예술활동 시 스트레스 주요 요인 추이	89
(그림Ⅲ-37) 예술활동증명 신청 추이	90
(그림Ⅲ-38)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추이	90
(그림Ⅲ-39)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예술인 복지정책 발전 기여도 정도 인식 추이	90
(그림Ⅲ-40) 인천시의 예술사업 및 지원에 대한 동의 추이	91
(그림Ⅲ-41) 최근 인천시에서 추진된 사업별 인지 정도 추이	92
(그림Ⅲ-42) 최근 인천시에서 추진된 사업별 필요성 응답 추이	92
(그림Ⅲ-43) 예술활동 관련 정보가 필요한 항목	92
(그림Ⅲ-44)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응답 추이	93
(그림Ⅲ-45)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추이	94
(그림Ⅲ-46) 인천시 예술인 이음카드 보유 여부	94
(그림Ⅲ-47) 인천시 예술인 이음카드 필요성 긍정 여부	94
(그림Ⅲ-48)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 사업	95
(그림Ⅲ-49) 전업 예술활동의 주된 수입원 추이	95
(그림Ⅲ-50) 예술(창작)활동 측면 소득만족도 추이	96
(그림Ⅲ-51) 생계 및 생활(경제) 측면 소득만족도 추이	96
(그림Ⅲ-52) 예술가로 활동 시, 부족 비용 충당 방법 추이	97
(그림Ⅲ-53) 인천 예술인 FGI 모습	101
(그림Ⅲ-54) 인천 예술인지원사업 실무자 FGI 모습	106
(그림Ⅳ-1) 각 분석을 통한 시사점 진단	115
(그림Ⅳ-2) 응답자 성비	119
(그림Ⅳ-3) 응답자 연령대	119
(그림Ⅳ-4) 응답자 거주지	120
(그림Ⅳ-5) 응답자 직업 분포	120
(그림Ⅳ-6) 응답자 종사 기간	120
(그림Ⅳ-7) 자신의 예술인 플랜 인지도	121
(그림Ⅳ-8) 직업별 예술인 플랜 인지도	121
(그림Ⅳ-9) 예술인이 예술인 플랜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	121
(그림Ⅳ-10)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비전과 미션 추진과제의 적절성 비교	122
(그림Ⅳ-11)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보완점과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에서의 강화 지점 비교	122
(그림Ⅳ-12) 지난 3년 간 예술인 활동 증진사업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사업	123
(그림Ⅳ-13) 지난 3년 간 예술생태계 정착과 촉진 사업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사업	124
(그림Ⅳ-14) 지난 3년 간 예술인의 교류활성화 사업에서 가장 의미있었던 사업	124
(그림Ⅳ-15)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이 추구해야 할 방향	125
(그림Ⅳ-16)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125
(그림Ⅳ-17) 청년예술인의 활동 촉진 방안	126
(그림Ⅳ-18) 인천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 방안	126
(그림Ⅳ-19)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공간 마련	127
(그림Ⅳ-20) 예술계의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127

(그림IV-21) 예술인의 사회보장제도 가입 확대 방안	128
(그림IV-22) 예술인의 낮은 소득과 예술노동 기회에 관한 문제 대응	128
(그림V-1)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을 위한 SWOT분석	137
(그림V-2)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을 위한 문제의식	139
(그림V-3)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비전	140
(그림V-4)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미션	141
(그림V-5)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가치	141
(그림V-6) 제3차 예술인 플랜 수립의 전략	142
(그림V-7)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전략의 맥락	142
(그림V-8)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비전 체계	143
(그림V-9)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사업의 구성 개념도	144
(그림V-10)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연차별 목표	172
(그림V-11)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연간 운영 방안	173
(그림V-12) 인천 예술인 플랜의 장기적 방향	174
(그림-부록-1) 연도별 인천시 도시 발전 과정	186
(그림-부록-2) 인천시 지도	186
(그림-부록-3) 행정구역 지도	186
(그림-부록-4) 인천 행정구역 개편 지도	187
(그림-부록-5) 인천시 간척 현황	188
(그림-부록-6) 인천 섬지도	188
(그림-부록-7) 인천시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2022년 기준)	189
(그림-부록-8) 인천시 철도망 현황	190
(그림-부록-9) 인천시 인구 현황 추이(내국인, 2022.12 기준)	191
(그림-부록-10) 인천시 연령별 인구 현황(내국인, 2022.12 기준)	193
(그림-부록-11) 인천시 연도별 고령인구 추이(2022.12 기준)	195
(그림-부록-12) 인천시 청년 인구 추이(2022 기준)	195
(그림-부록-13) 인천시 연도별 1인 가구 추이(2021.12 기준)	196
(그림-부록-14) 인천시 사업체 수 추이	198
(그림-부록-15) 인천시 종사자 수 추이	199
(그림-부록-16) 인천시 시정 비전	201
(그림-부록-17) 인천시 조직도	202
(그림-부록-18) 인천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추이(최근 5년)	205
(그림-부록-19) 인천문화재단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206
(그림-부록-20) 인천문화재단 조직도	206
(그림-부록-21) 성별 인천시 예술활동증명 현황	213
(그림-부록-22) 연령별 인천시 예술활동증명 현황	213
(그림-부록-23) 분야별 인천시 예술활동증명 현황	214
(그림-부록-24) 전국 지역문화 종합지수	215
(그림-부록-25) 전국 지역문화 하위지수(문화정책)	216
(그림-부록-26) 전국 지역문화 하위지수(문화자원)	216
(그림-부록-27) 전국 지역문화 하위지수(문화활동)	216
(그림-부록-28) 전국 지역문화 하위지수(문화향유)	216

연구요약

연구개요

II 과업명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2025~2027) 수립 연구

II 과업기간 : 4월 9일(착수일)~ 8월 31일

II 연구범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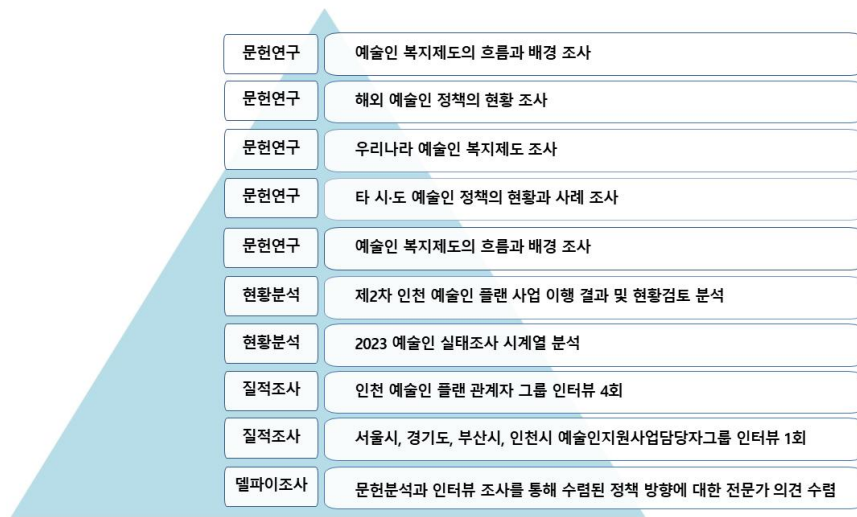
구분	내용	비고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관내	
시간적 범위	• 계획연도 2025년~2027년	• 현행 3년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
내용적 범위	•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추진성과 점검 및 평가 • 인천시 예술인 실태조사(2023년) 활용한 예술인 플랜 시사점 도출 • 타 시도의 예술인 지원정책 우수사례 발굴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	

II 연구의 필요성 :

구분	내용
2011년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정책 수립 필요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6년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조례는 예술인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수립 의무화 • 이에, 2018년 제1차 인천 예술인 복지 플랜, 2021년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 추진 • 2차 계획이 2024년 종료함에 따라 제3차 예술인 플랜(2025년~2029년)을 수립할 필요
인천광역시 실정에 맞는 예술인 지원정책 필요	• 인천시는 서울경기와와의 접근성으로 인해 예술가들의 이탈 우려 • 이탈이 계속 일어날 경우 새로운 예술생태계가 조성되기 어려운 환경이 우려 • 이에, 복지 중심의 예술인 플랜을 넘어, 인천의 종합적인 예술생태계를 촉진 계획필요

1

연구 방법



2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 방안

II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기대효과

효과1. 인천 예술생태계 활성화의 기반 제공

-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1,2차 예술인 플랜의 연속적 설계
- 인천시 문화환경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체계로 안정적 운영 추구

효과2. 인천 예술인의 권리와 처우의 개선

- 예술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실질적 창작 여건과 사회적 처우의 개선 지향
- 예술인 당사자의 참여와 담론 확장으로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구축에 기여

효과3. 글로벌 미래도시에서의 예술의 공공 가치 향상

- 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맥락과 국제적 흐름을 통해 정책 근거 강화 모색
- 글로벌 미래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문화와 예술 발전지로서의 위상 강화

II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활용방안

활용1. 인천시 예술생태계 현안 기반의 정책적 근거

- 예술인 플랜의 수립을 위한 각종 정세와 실태의 종합적인 체계적 분석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을 넘어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범용 자료

활용2. 인천시 예술생태계 증진을 위한 정책 모델

- 예술인 플랜의 보완 과정을 통해 광역시 예술정책의 정밀도 향상 단서 발견
- 예술인 플랜 활성화로 지역예술생태계 성장 기반의 정책 모델로 활용

활용3. 국내 예술정책의 선도와 예술의 가치 확산 촉진

- 종합적인 예술인 정책으로 도시 가치를 높이는 선도 도시로 브랜딩
- 인천 예술도시 구축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촉진하는 도시 이미지 확장

3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추진 경과 분석

II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주요 내용

계획 기간	2022~2024
비전	예술인이 존중 받고 성장하는 도시, 인천
목표	- 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속성 증대 - 예술인의 자위와 권리 증진 - 예술인의 사회안정망 확대 - 예술인 정책의 기반 강화
추진 전략	1. 예술활동 :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 2. 정착성장 : 예술인의 예술생태계 정착과 성장 3. 네트워크 : 예술인의 교류 활성화 4. 예술환경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향상 5. 예술가치 : 예술인 사회적 지위 향상과 가치 확산 6. 생활기반 : 예술인의 삶의 기반 강화 7. 소통협력 : 예술인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8. 추진기반 : 예술인의 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II 추진경과

추진전략	세부과제	진행상황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	1-1 청년예술인 성장 지원 확대	○
	1-2 인천형 예술인지원 체계강화	○
	1-3 예술활동 공간 지원	○
예술인의 예술생태계 정착과 성장	2-1 장르별 예술생태계 정착지원	○
	2-2 예술인 코칭 피칭 프로그램 운영	△
	2-3 예술활동수당 도입 방법과 효과 분석	△
예술인의 교류 활성화	3-1 예술인 연구 공동체 지원	△
	3-3 예술인 네트워크 워크숍 및 캠프 운영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향상	4-1 국내외 예술인 교류 지원	△
	4-2 예술인 신고 상담 지원	△
	4-3 예술인의 자위와 권리 보장 제도 보완	△
예술인 사회적 지위 향상과 가치 확산	5-1 예술인활동증명 및 예술인 고용보험 상담지원	△
	5-2 사회적 참여적 예술기획 지원	△
	5-3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	△
예술인의 삶의 기반 강화	6-1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예술인 역할 포럼 운영	△
	6-2 예술인 주거 안정 지원	-
	6-3 예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지원	△
예술인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7-1 예술인 금융 안전망 구축	-
	7-2 예술인 자원사업 플랫폼 운영	△
	7-3 예술인 패널 구축과 활용	-
예술인의 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8-1 예술인이 참여하는 부서협력형 예술인정책위원회 운영	-
	8-2 인천 예술인지원센터 위상강화	-
	8-3 예술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8-4 예술인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

4

인천 예술인 플랜의 주요 분석 결과

II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성과

성과1. '예술인복지'가 아닌 '예술인정책'으로 접근 • 제2차 예술인 복지플랜은 '예술인복지'를 넘어선 포괄적인 예술인 정책지향 • 이러한 정책 설계는 인천지역 예술생태계 구축하는데 중요한 관점이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긍정적	성과2. 예술인 이음카드, 건강검진 등 사업 효과성 증명 • 인천시 예술인 관련 사업 중 구조의 안정성과 실제적 효용감을 주는 사업은 예술인 이음카드로 확인 • 통합 건강지원사업 역시 사업 취지와 효과성은 물론, 예술인의 참여도가 높으며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가 된 사업	성과3. 현장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 제1~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이 팬데믹 상황 중 추진되었음에도 신속히 대응하는 현장성 돋보임 • 인천시는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개발하여 지원하였으며, 이후에 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
--	--	---

II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한계(해결과제)

과제1. 예술인 플랜 추진과정에서 미추진사업 문제노출 • 제2차 예술인 플랜은 추진과정에서 통합-일원화 현상과 일부 사업 미추진 현상이 다수 발생 • 미추진 사업은 대체로 재원확보와 인력충원이 있어야 가능한 영역이라는 특징	과제2. 예술인 플랜 사업추진 체계의 혼선 • 예술인 플랜은 인천시가 수립하는 계획이지만, 실행사업 대부분은 인천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이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통합 또는 일원화 등 확장 및 축소되는 현상을 낳음	과제3. 사업 구조파악과 성과분석 난해 • 제2차 예술인 플랜 추진과정에서 같은 사업이 각각 다른 카테고리에 편입되는 등 중복 배치되어 다소 혼란한 구성 • 예술인 정책의 포괄성을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예술인 플랜 본연의 사업영역과 연계 지점이 투명성 확보 필요
--	---	---

5

의견수렴 결과

II 그룹인터뷰 개요 및 시사점

목적 : 예술인 정책의 현황과 밀착된 기초 의견 수렴
대상 : 3그룹 12인
(인천예술인 / 인천사업담당자 / 서울·경기·부산·인천 사업담당자)
항목 : 그룹별 정책 평가, 추진현장의 특이사항, 지역별 현황 등

예술지원과 예술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중요성 인식 필요

예술인 플랜 추진의 여건 조성 필요

예술인 당사자 간의 교류와 참여 방식의 전환 필요

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환류하는 시스템의 체계화 필요

문화기반 시설 조성과 다양한 공간 확보 필요

장기적으로 광역재단과 기초재단의 역할 정립 필요

II 델파이 조사 개요 및 시사점

목적 : 문헌분석과 인터뷰 조사결과를 통해 정리된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대상 : 총 90명을 인천시 예술인 / 예술행정가/ 정책연구자 비례 선정
방식 : 그룹인터뷰/실태조사/기타 문헌 분석 내용 제공 후 온라인 조사
항목 : 2차 플랜의 평가와 3차 플랜의 방향에 관한 7개 영역 30문항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따른 정책의 연속성 강화 필요

인천시의 현재 여건을 고려한 사업체계와 추진기반의 강화 필요

청년문화창작소 등 예술가치 순환에 일조한 사업구조의 확장 방안 모색 필요

예술인이음카드, 의료지원 등 제감도와 만족도가 돋보이는 사업 지속 필요

성평등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상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필요

'생태계적 접근', '핵심 사업 확장', '예술인 당사자' 등 종합적 관점 반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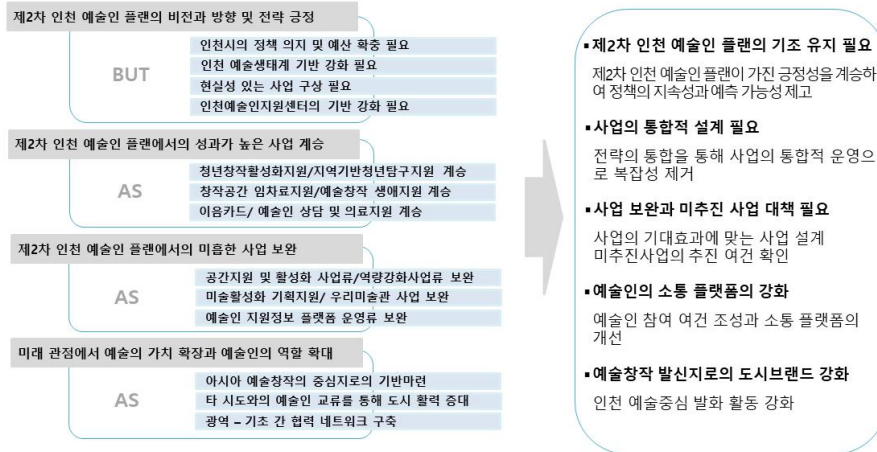
6

인천 예술인 플랜 추진의 환경 분석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SWOT분석	외부 환경	
	Opportunity(기회)	Threat(위기)
	• 동북아 관문이 되는 지리적 위치 • 교통의 중심지 • 인구의 꾸준한 증가 •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의 꾸준한 증가 • 문화예산 3% 증액 공약 • 문체부 종합적 예술인계획 발표	• 청년인구의 꾸준한 감소 • 신도시와 원도심 간 도시 불균형 • 예술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 비율 낮음 • 문화정책 중립지수 낮음 • 전반적 문화기반 시설의 부족 • 예술과 예술인의 역할에 대한 공론화 부족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 포괄적인 예술인 정책 운영 경험 • 예술지원 및 예술인지원의 예술인 긍정반응 상승 • 청년예술인 지원체계 활성화 • 예술인의 꾸준한 증가 • 이음카드 등 정책 효과성 증대	• 문화정책의 낮은 위상 • 예술인 창작, 교류 공간 부족 • 문화예산 지속적 감소 • 예술인지원센터 인력의 부족 • 예술인들간 네트워크 체계 미흡 • 예술인 소득과 생활여건의 불안정	
내부 환경	외부 환경	
	SO전략(강점-기회전략)	ST전략(강점-위협전략)
	• 종합적인 예술인 지원을 위한 광역-기초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타 시도와 예술인 교류로 다양성기반한 도시활력 증대 • 해외예술인 교류로 인천 예술생태계를 확장하여 아시아 예술창작의 중심지로 발돋움	• 도시 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예술인 파견 노동제도의 도입 • 예술의 일상화를 위한 동네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 예술인의 역할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론화 및 캠페인 전개
	WO전략(약점-기회전략)	WT전략(약점-위협전략)
• 인천예술인지원센터의 구조를 체계화하고 예산과 인력 확충 • 예술인 교류 및 정보공유를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예술창작 활동을 인연 오늘날의 예술인으로 지지하고 주목하는 제도 마련	• 예술인 심리치료, 건강검진 제도의 체계화확장 및 사회안전망 조성 • 예술인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체계 마련 • 예술인들의 안정적 발표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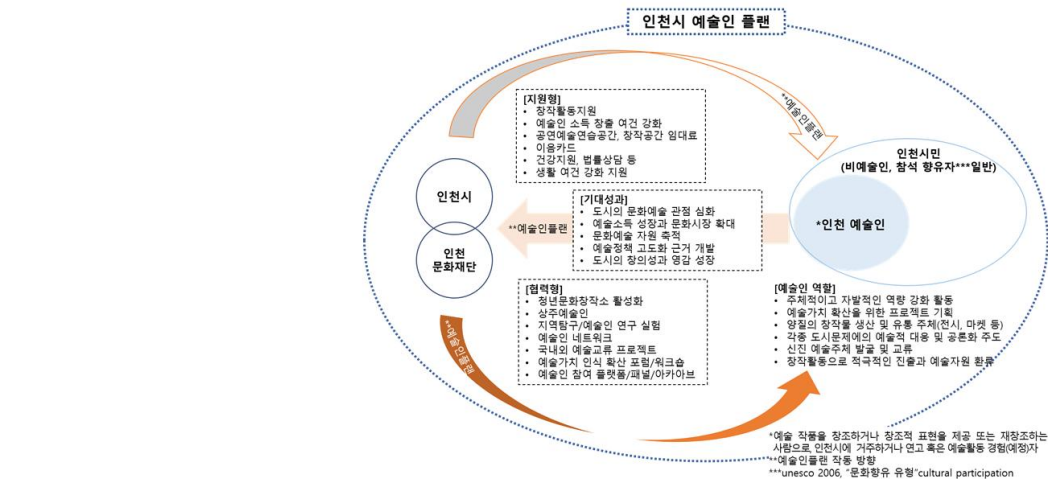
7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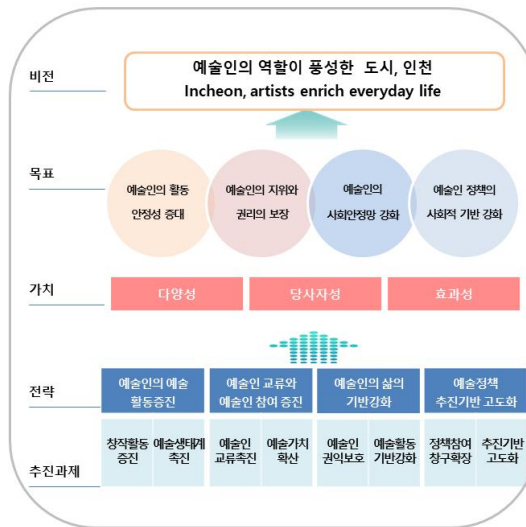
8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사업 구성 개념



9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비전 체계



10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전략별 세부사업 일람

전략1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	추진과제1	창작활동증진	세부사업
	세부사업1	예술창작지원	1) 예술창작지원(일반/진중) 2) 예술생애지원(청년/생애처음/원로)
	세부사업2	예술공간지원	1) 공연예술연습공간 지원 2)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3)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세부사업3	장예예술 다각화	1) 창작활동 및 발표 지원 2)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 3)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회 개최 지원 4) 인천시 장예예술 연구
	추진과제2	예술생태계 촉진	세부사업
	세부사업4	새예술 아카데미	1)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 연구 2) ART_WORK_IN 예술인 취창업 아카데미
전략2 예술인의 교류와 사회참여 증진	세부사업5	예술창작 플랫폼 강화	1) 청년문화창작소 2) 인천아트플랫폼 3)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
	세부사업6	미술활성화 기획지원	1) 인천미술은행 2) 인천 아트 아카이브 확장 3) 미술시장 활성화
	추진과제3	예술인 교류 촉진	세부사업
	세부사업7	예술인 네트워크 지원	1) 인천시 예술인 네트워크 2) 예술인 네트워크 워크숍
	세부사업8	문화예술 축제 지원	1) 인천시 예술 축제 지원 2) 인천시 예술 축제 지원 3) 인천시 예술 축제 지원 4) 인천시 예술 축제 지원
	세부사업9	예술인 국내외 창작교류 지원	1) 국내외 예술인 레지던시 운영 2) 예술인 캠프
전략3 예술인의 삶의 기반 강화	추진과제4	예술가치 확산	세부사업
	세부사업10	예술가치 캠페인	1) 캠페인 브랜딩 2) 온/오프라인 캠페인
	세부사업11	예술실험 지원	1) 예술실험 모임 지원 2) 예술가치 확산을 위한 다원예술 프로젝트 지원(단체)
	세부사업12	인천형 예술인발전 지원	1) 인천형 예술인발전 지원 '인천 예술인'
	추진과제5	예술인 권익보호	세부사업
	세부사업13	예술인 건강지원	1) 예술인 종합건강검진 2) 심리상담 3) 상해보험
전략4 예술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세부사업14	예술인 권익보호	1) 법률상담 2) 예술인 권익보호 지원 (구 예술인 행정지원) 3) 예술계 성폭력(성희롱·성추행) 예방 및 대응
	추진과제6	예술활동 기반강화	세부사업
	세부사업15	예술인 활동지원	1) 인천시 예술인 이용카드 2) 예술인 DB 구축
	세부사업16	예술인 생활안정 지원	1) 예술인 매입임대주택 사업 시행 2) 창작자금 융자 지원 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지원 4) 예술인 돌봄 지원
	추진과제7	정책참여 장구확장	세부사업
	세부사업17	예술인 참여 확대	1) 인천시 예술정책 모니터링단 구성 및 역량 강화 2) 예술인 플랜 모니터링
	세부사업18	인천시 예술인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인천시 예술정책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추진과제8	추진기반 고도화	세부사업
	세부사업19	인천예술인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인력증원	1) 인천예술인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인력증원 2) 인천예술인 플랜 수립 기획연구
	세부사업20	기초·광역 예술인정책 네트워크 구축	1) 광역기초재단 네트워크 운영 2) 광역예술인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11

전략1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 사업

전략1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	추진과제1	창작활동증진	세부사업
	세부사업1	예술창작지원	1) 예술창작지원(일반/진중) - 일반: 문학, 시각, 공연, 문화일반(국제교류, 문화예술 연구/서평/출판) 집중: 리서치, 역량강화 등 창작의 과정 포함 연속 지원사업(2년)
			2) 예술생애지원(청년/생애처음/원로) - 청년: 인천 연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창작자 대상 - 생애처음: 예술인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인 대상의 창작지원 - 원로: 만 70세 이상, 일정 기준 이상의 활동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의 창작지원
			3) 공연예술연습공간 지원: 공연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공연기획지원 공연예술연습공간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세부사업2	예술공간지원	2)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공연장/작은공연장 상주단체 주니어공연장상주단체 - 공공 공연장 및 민간 공연장 지원 검토 및 확대 3)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세부사업3	장예예술 다각화	1) 창작활동 및 발표 지원: 예술분야별 장애인 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에 관한 포괄적 지원(일반지원 수준으로 분야의 집중 확대)
			2)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 장애인 창작자/단체가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
			3)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회 개최 지원: 인천시 소재 장애인 예술인 창작자/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소규모 발표회 개최 지원
	추진과제2	예술생태계 촉진	세부사업
	세부사업4	새예술 아카데미	1)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 연구: 예술노동 활성화 연구 예술인의 역량 강화 연구 예술인 플랜의 참여예술인 임팩트 연구
			2) ART_WORK_IN 예술인 취창업 아카데미: 예술 관련 노동에 대응하는 단계별 아별 교육 공간기반 창업 및 소득창출 실험 지원
			1) 청년문화창작소 - 새예술 아카데미 / 청년예술창작지원 / 예술실험연구 지원 추진 인천 문화예술 큐레이션 및 아카이브 공간 공간 이전 및 기능 강화
	세부사업5	예술창작 플랫폼 강화	1) 인천아트플랫폼: 예술인 레지던시 / 창작 및 실험 지원 / 지원 작가 대상 비평 매칭 상호학습 / 공개프로그램 개최 지원 결과 아카이브 3)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 시민일상과 밀접한 공간의 창작자 집적 공간운영자 과정/성과공유회 개최
	세부사업6	미술활성화 기획지원	1) 인천미술은행: 인천미술은행인 미술품 매입과 소장품 관리 관공 거점 기반의 전시 기획·작품 전시처와 미술은행 간 작품 유통망 구축
			2) 인천 아트 아카이브 확장: 인천 아트 아카이브 대상 예술인의 연혁/유형 확대 인천시 미술자문 활용방안 논의 태이블 구축
			3) 미술시장 활성화: 팝업갤러리 Art Pop Incheon 유관 도시와의 도시이슈 기획

12

전략2 예술인의 교류와 사회참여 증진 사업

전략2 예술인의 교류와 사회참여 증진	추진과제3	예술인 교류 촉진	세부사업
	세부사업7	예술인 네트워킹 지원	1) 인천시 예술인 네트워크: 분야·장르·자유업의 활발 네트워크 추진 예술인 일거리매칭 프로그램 도입 2) 예술인 네트워킹 워크숍: 연 5회 예술인 의제 도출 리운드테이블 운영 도출 의제 중심 워크숍 3회
	세부사업8	문화예술 축제 지원	1) 인천시 예술 축제들을 위한 추진단 운영: 인천문화재단, 인천시 예술인 축제 총괄 감독하는 단체 등시 참여 추진단 구성 2) 인천시 예술 축제 진행: 연간 주제와 콘셉트에 따른 예술축제 추진 인천 예술인 플랜 아카이브 부스 운영 3) 인천문화재단 인천축제 브랜드화
	세부사업9	예술인 국내·외 창작교류 지원	1) 국내외 예술인 레지던시 운영: 국내외 예술인 대상 입주작가 확대 비평가 매칭 지역연구 오픈랩 프로젝트 2) 예술인 캠프: 예술인 네트워크 캠프 예술창작역량 강화 캠프
	추진과제4	예술가치 확산	세부사업
	세부사업10	예술가치 캠페인	1) 캠페인 브랜드: 인천시에서의 예술가치 확산 캐치프레이즈 등 상징물 개발 2) 온/오프라인 캠페인: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 확산 캠페인 진행 예술가치 및 예술인정책 온라인 홍보 뉴스타터와 광고 진행
	세부사업11	예술실험 지원	1) 예술실험 모임 지원 (개인/단체) - 인천시 도시의제에 관한 예술적 대응 및 창작환경을 개선을 위한 소규모 팀/개인 단위의 소규모 실험 프로젝트 지원 2) 예술가치 확산을 위한 다원예술 프로젝트 지원(단체) - 예술단체 대상, 문화적자, 다원성 증진, 저출생 등 사회의제 관련 예술 프로젝트 지원 ※ 예술실험 공모 시, 인천시 예술계 성평등 인식 확산 주제 설정
	세부사업12	인천형 예술인파견 지원	1) 인천형 예술인파견 지원 '인천 예술로' - 기업 제언 예술 관련 프로젝트 수행 인천시 자원 활용 예술인 기획 프로젝트 수행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13

전략3 예술인의 삶의 기반 강화 사업

전략3 예술인의 삶의 기반 강화	추진과제5	예술인 권익보호	세부사업
	세부사업13	예술인 건강지원	1) 예술인종합건강검진: 종합건강검진 지원 지속 및 협약 기관 확대 검토 2) 심리상담: 예술인의 개인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 지원 지속 및 협약 기관 확대 검토 3) 상해보험: 예술인 특화 상해보험상품 개발 및 가입 지원
	세부사업14	예술인 권익보호	1) 법률상담: 예술노동 관련 법률 전문가 상담 지원 2) 예술인 권익보호 지원 (구 예술인 행정지원): 전문 대응 청구 운영 예술인고용보험 캠페인 운영 3) 예술계 성폭력(성희롱·성추행) 예방 및 대응: 외부기관 연결 지원 성평등인식 확산 실험 모임/프로젝트 지원 연계
	추진과제6	예술활동 기반강화	세부사업
	세부사업15	예술인 활동이음 지원	1) 인천시 예술인이음카드: 가입/인규 발급자 별 예술인DB 등록 시스템 연계 인천시 대표 행사 할인율 도입 검토 2) 예술인DB 구축: 예술인DB 기초자료 채집 예술인DB 활성화 연구 예술인DB 구축 및 활성화
	세부사업16	예술인 생활안정 지원	1) 예술인 매입임대주택 사업 시행: 인천시/인천도시공사 업무 협약체결로 2) 창작자금 융자 지원: 인천 내 금융기관 업무 협약체결로 창작자금 지원 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지원 4) 예술인 돌봄 지원: 인천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업무 협약 체결

14

전략4 예술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사업

전략4 예술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추진과제7	정책참여 청구확장	세부사업
	세부사업17	예술인 참여 확대	1) 인천시 예술정책 모니터링단 구성 및 역량 강화 - 인천시 예술인, 인천시민, 인천시 외부 문화예술전문가로 예술인정책 모니터링단 구성 모니터링단 역량강화 세미나 2) 예술인 플랜 모니터링 - 예술인 플랜 현장 모니터링 진행 모니터링 결과 공유회 진행
	세부사업18	인천시 예술인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인천 예술정책 위원회 구성 및 회의 - 문화·예술 관련 기관, 예술인, 행정 전문가 등으로 예술정책 위원회 구성 실무위원회 별도 구성으로 모니터링단 소통
	추진과제8	추진기반 고도화	세부사업
	세부사업19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1) 인천예술인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인력 증원 - 예술인지원센터 발전전략 수립 지원센터로서의 독립성 강화와 인력 증원 2) 인천예술인 플랜 수립 기획연구 - 예술인 플랜 모니터링 결과 및 사업별 성과 지표 집계 예술인 실태조사 연구 인천 예술인 플랜 추진 종합평가 연구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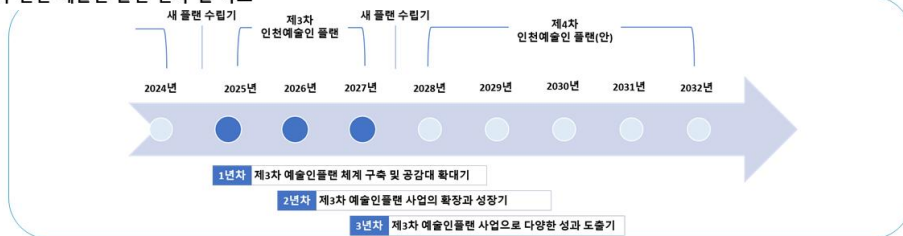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평가 지표(안)

구분	영역	평가지표	세부항목	배점
운영환경 (20)	목표설정	목표의 타당성과 현실성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비전과 미션, 가치 등이 타당하고 현실성이 있었는가?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설계의 타당성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사업의 구체성	10
	정책여건	정책 여건의 적절성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여건과 환경이 적절하였는가? ·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의 업무 협력의 원활성 · 재원 확보와 운영의 적절성	10
운영체계 (20)	추진체계	추진체계의 적절성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추진 주체는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절한가? · 인천문화재단의 업무 구조 및 의사소통 구조의 민주성 · 업무를 수행 인력 규모의 적절성	10
	추진역량	추진역량의 전문성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추진 주체의 업무 전문성은 적절한가? · 인천문화재단 예술정책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 인천문화재단 예술정책 역량강화 체계의 효과성	10
추진내용 (40)	전략1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	예술창작 활성화를 통해 인천 예술생태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는가? · 다양한 예술지원제도의 활성화 · 예술실험과 예술거점의 활성화	15
	전략2	예술인의 교류와 사회참여 증진	예술인 교류와 참여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의 확장에 진전이 있는가? · 예술인 교류 활성화 · 예술과 예술인의 역할 확장	15
	전략3	예술인의 삶의 기반강화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으로 예술인의 삶의 기반 강화에 기여하였는가? · 예술인의 권리 보호 효과 증진 · 예술인 활동기반 개선	15
	전략4	예술정책 추진 기반 고도화	예술정책의 체계화 및 민주성 강화를 통해 기반이 강화되었는가? · 예술인 참여 기회 확장 · 예술인 플랜 인지도 상승	15
	합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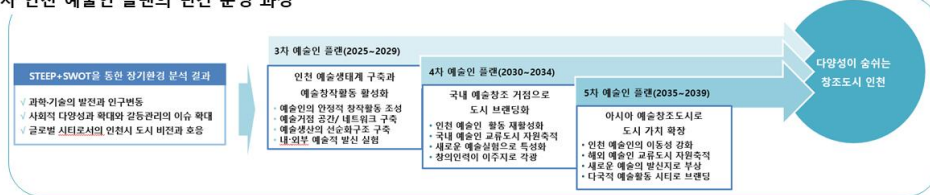
16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연차 별 목표와 향후 방향

II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연차 별 목표



II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연간 운영 과정



17

예술인 플랜의 추진을 위한 제언

II 예술인 플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정책의지	· 정부 의존도가 높은 국내 현실 · 예산의 예술활성화는 정책 의지가 중요	· 인천시의 도시적 자원의 결단 필요 · 인천시 내 기업체와 연계방안 모색
재원마련	· 예술지원 예산의 결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재원조성에 의해 추동	· 장기적 플랜에서 예술지원 체계화 · 시민 캠페인으로 사회적 공감 필요
추진체계	· 인천문화재단의 업무 체계의 합리화 필요 · 관행에서 전략적 지원으로 체계화 필요	· 행정을 넘어 기획으로 전술부서의 전문화 · 지원구조에서 설계구조로 전환
예술인 참여	· 예술인 플랜에 대한 설명, 홍보 강화 · 예술인정책 설계, 평가 등에 참여 기회 제공	· 예술인의 알 권리 보장 · 예측가능한 정책으로 신뢰자본 형성 필요

II 인천시 예술주체의 역할

예술인의 자각과 성장 필요	· 예술인은 자기 정체성 강화와 함께 예술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공적 지원제도의 책무감을 공유하는 과정과 기회 필요 ·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확장 과정으로서 예술인 플랜 추진 필요
인천시의 역할	· 세계적인 도시는 예외 없이 문화예술의 중심 발전지의 임무를 수행 · 도시 브랜딩을 위한 문화와 예술의 역할 인식 제고 · 인천시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규모와 정도에서 도시적 실험이 필요
인천문화재단의 역할	· 인천문화재단의 사업 운영 환경과 관리방안의 개선 ① 충분한 예산 확보 (현재 고유사업에 위한 예산비율 약 18%) ②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구조 ③ 예술인이 예측 가능한 정도의 사업의 일관성 유지 ④ 사업의 지속적 진단과 개선을 위한 평가체계 운영

18

I

연구개요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 예술,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립

- 인류 역사와 함께 만들어진 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사회와 문화적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같은 시대에서도 예술 영역에 따라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고 있음.
- 예술의 탄생은 인류문화의 보편적인 성격이나, 예술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것에 대한 필요로 지원한다는 개념은 권력의 탄생과 관련이 있음. 이 또한 어느 문화권에 서나 존재하였던 현상임.
- 예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16~17세기 근대국가 체계가 일찌감치 완성된 서구사회에서도 예술에 대한 지원과 예술인의 처우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하게 된 것은 20세기에 가능해짐.

■ 우리나라 예술인정책의 출발

- 서구사회의 영향을 받은 우리 사회는 1970년대까지 문화예술진흥의 관점에서 예술지원정책이 추진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예술계 내에서 예술지원의 방식, 영역, 예술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발화하기 시작함.
-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새로운 예술에 대한 문제의식은 2005년 『새로운 예술의 힘』으로 정리되어 공론화되었는데, 정작 예술인의 사회적 처우에 대한 대응은 2010년 고 최고은 작가의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촉발함.
-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양극화로 외곽으로 밀린 예술가의 삶이, 비단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닌 부실한 사회적 안전망의 일면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됨.

■ 예술인 정책의 체계화와 확장

- 예술인의 사회적 처우와 열악한 현실은 사회적 충격을 안기었고 급기야 2011년 「예술인 복지법」 제정으로 이어졌음.
- 「예술인 복지법」상에 예술인 복지시책 마련 조항에 따라,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이하 광역 지자체)는 정부 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예술인

복지정책을 수립함.

-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는 2016년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실태조사와 함께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예술인 플랜)을 수립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함.
- 이에, 2019년 1차, 2022년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예술인지원정책의 초점이 예술인복지에서 포괄적인 예술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함에 따라 적극적인 예술인 플랜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임.

2) 연구의 필요성

■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만료에 따른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의 필요

- 2021년 수립된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은 인천연구원이 연구하였고 이는 조례에 의해 추진기간을 2022년부터 2024년인 3년으로 규정함.
- 인천시는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만료를 앞두고 2023년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24년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을 준비함.

<표 1-1> 인천 예술인 플랜 추진과정

구분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인 플랜 수립연구	예술인 플랜 수립
제1차 인천 예술인복지증진계획	2018년 통합수행 (인천연구원)		제1차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2019-2021) 확정
제2차 인천 예술인복지증진계획	2021년 통합수행 (인천연구원)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2022-2024) 확정
제3차 인천 예술인복지증진계획	2023년 별도 추진	본 연구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2025-2027) 확정예정

■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정책 근거 자료 마련 필요

- 인천시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예술인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례 제정과 함께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함.
- 조례에서는 3년에 1회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시 예술생태계와 예술인 현황을 꾸준히 분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의 근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표 I-2>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구분	조사개요	문항 구분
2018년 1차 예술인 실태조사	- (조사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예술인 - (유효표본) 1,000명 - (표본추출) 활동분야 고려한 비례할당표본추출 -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면접 전화 온라인 조사 병행	- 예술활동 (6문항) - 예술환경 (6문항) - 예술노동 (7문항) - 생활 및 복지 (5문항) - 예술정책 및 만족도 (4문항) - 평균소득 (4문항)
2021년 2차 예술인 실태조사	- (조사대상) 인천거주자 및 인천이 주 활동 지역인 예술인 - (유효표본) 1,012명 - (표본추출) 조사대상자 중 무작위추출 -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및 전화 조사 병행	- 예술활동 (7문항) - 예술환경 (2문항) - 예술노동 및 예술계 부당대우 (8문항) - 사회보장 및 건강 (7문항)
2023년 3차 예술인 실태조사	- (조사대상) 인천 예술인이름카드 등록 예술인 - (유효표본) 1,010명 - (표본추출) 조사대상자 중 무작위추출 -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전화조사 및 온라인 조사 병행	- 예술정책·사업 수요 및 만족도 (11문항) - 생활여건 및 소득 (7문항)

출처: 최영화 외,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인천문화재단, 2018, 35쪽, 재구성
 민경선 외, 「인천 예술인 플랜(2022~2024) 수립연구」, 인천문화재단, 2021, 62쪽, 재구성
 「2023년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인천문화재단, 2023, 3쪽, 재구성

■ 인천시 지역 환경에 맞는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탐구 필요

- 인천시의 예술인 정책은 초기 복지증진이라는 과제로부터 출발하여 권리와 처우개선 및 창작활동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으로 과제를 확장하고 있음.
- 인천시는 제1차 계획수립 시부터 ‘예술인을 위한 기회의 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으로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넘어 도시에서의 예술인의 삶과 활동을 담고자 함.
- 2차 계획수립 시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예술인이 존중받고 성장하는 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증진을 통해 안전망과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함.
- 2023년 문체부에 의해 발표된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단편적 복지정책에서 종합적 예술인 정책으로의 발전, 현물 지원 복지정책에서 사회보험 강화 등 지원정책 다양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표 I-3> 인천 예술인 플랜의 주요 방향

구분	비전	주요방향
제1차 인천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예술인을 위한 기회의 도시, 인천	예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넘어 도시에서의 예술인의 삶과 활동 지원

구분	비전	주요방향
제2차 인천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예술인이 존중받고 성장하는 도시, 인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증진을 통해 안전망과 지속성을 강화
제3차 인천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예술인의 역할이 풍성한 도시, 인천	예술생태계 기반의 가치확산과 성장으로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강화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연구 목적

■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과 정책 자료 구축

- 인천 예술인의 활동 여건과 활동 실태, 복지 수요 등을 파악하여 인천 예술인 복지증진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활용

■ 지역 현실에 맞는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

- 인천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2차 예술인 플랜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예술인 지원정책 과제 발굴을 통한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효용성 증대를 위한 제언 도출

- 제3차 예술인 플랜의 효용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 설계와 기관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제언 마련

2) 연구 범위

■ 대상범위

- 인천시 예술인 (조례상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서는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을 규정

- 예술인 :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 예술인 중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관내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3년
- 계획연도 : 2025년~2027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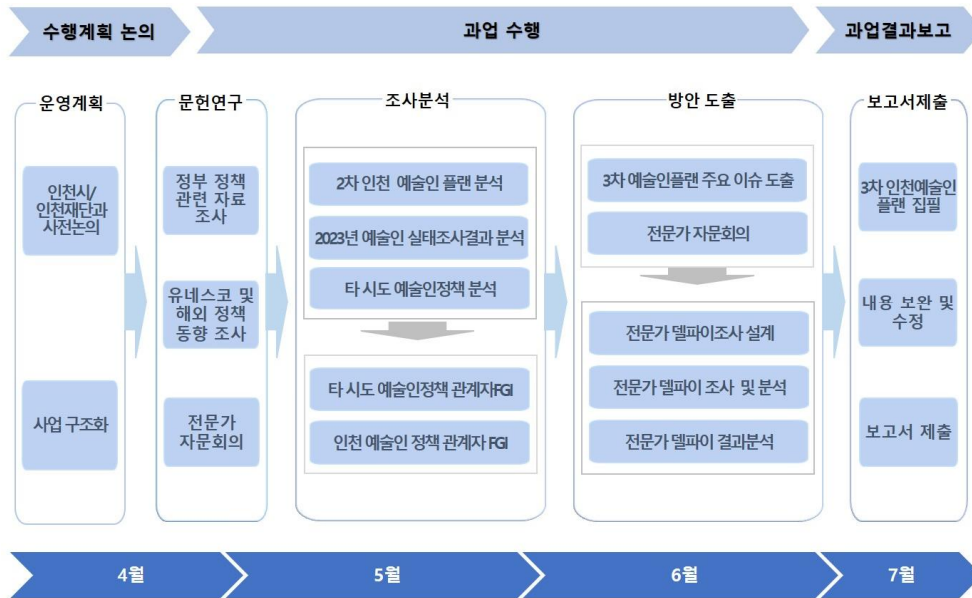
■ 내용적 범위

순서	과업 범위	내용
1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추진성과 점검 및 평가	- 제2차 예술인 플랜 제안사업 이행현황 조사 - 제2차 예술인 플랜 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 지난 3년간 인천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
2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2023년) 활용한 예술인 플랜 시사점 도출	- 2021년 실시한 예술인 실태조사와 2023년 실시한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3	타시도의 예술인 지원정책 우수사례 발굴	- 타시도의 예술인 지원계획 수립 및 현황 검토 - 타시도의 예술인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굴
4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정책 여건 종합 분석을 통한 비전 및 목표 수립 - 인천 정책 여건에 부합하는 분야별 추진사업 발굴 및 소요예산, 추진일정 제시

1) 현재 인천 예술인 플랜의 수립주기는 3년이나, 본 연구는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관리의 안전성, 5년의 추진 기간을 설정한 문체부의 「제1차 예술인복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향후 예술인 플랜의 시간적 범위를 5년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3. 연구 절차와 방법

1) 연구 절차



(그림 1-1) 연구의 절차와 과정

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중앙정부의 예술인 정책의 추진과정과 제도화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예술인 복지 중심에서 활동 보장을 중심으로 변화한 정책의 전환과 환경 분석
- 유네스코 등 세계적인 예술인 정책 환경에 대한 분석

■ 조사 분석

- 인천 예술인 정책의 환경과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성과와 과제 분석
- 2023년 조사된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타 시도 예술인 정책 현황 조사 및 우수사례 분석

■ 인터뷰 조사

- 인천 예술인 플랜 관계자(2개 그룹)를 대상으로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평가와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내용 탐색
- 타 시·도 예술인 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요 이슈와 우수사례 탐구

구분	대상	내용	비고
인천 예술인 플랜 관계자 FGI	인천 예술인 플랜 관계자 4명 예술가 4명	-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평가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제안	2회
타 시·도 예술인지원 담당자 FGI	주요 시·도 예술인지원정책 담당자 4명	- 각 시·도의 정책 상황과 현황 - 우수사례 발굴	1회

■ 델파이 조사

- 문헌 연구와 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방향과 이슈를 중심으로 2차에 걸친 인천시 예술인과 관계자 델파이 조사 운영

구분	대상	주요 내용
1차 조사	인천 예술인, 정책 관계자 등 12명	- 전문가 그룹인터뷰 내용으로 대체
2차 델파이 조사	사전 추천된 인천 예술인 플랜 관계자 50명	- 제2차 예술인 플랜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의견 수렴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비전과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 제3차 예술인 플랜의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방향 정립을 위한 사전자문회의와 과제도출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

구분	자문위원	주요 내용
사전자문회의	문화예술 및 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전문가 3인	- 예술인 정책의 동향과 정책방향 검토 - 인천 예술인 플랜의 방향에 대한 논의
과제자문회의	인천 현실에 맞는 과제도출을 위한 전문가 4인	- 인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예술인 플랜 비전 및 방안에 대한 논의

4.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연구의 기대효과

■ 인천 예술생태계 활성화의 기반 제공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은 인천 예술생태계의 과제를 제1차,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연속선 상에서 제기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인천 예술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연결되는 계획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의 문화 여건과 현실에 맞추어 과업 수행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였으며, 체계화를 통해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안정적 운영을 추구함.
- 이는 사업 체계화에 일조하는 동시에 이를 추진하는 정책적 기반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임.

■ 인천 예술인의 권리와 처우의 개선에 기여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은 두 차례 실시된 예술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예술인의 실질적 창작여건 개선과 사회적 처우개선을 위한 방향을 담고 있음.
- 따라서, 연구에서는 예술인 플랜의 내용과 예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연동하여 읽어 나가면서 예술인의 처우와 여건을 개선하도록 설계함.
- 이는 예술인 당사자의 참여와 지역 예술 담론을 확장하고, 인천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임.

■ 글로벌 미래도시에서 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

- 예술과 예술인의 인식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국제적 사안으로서의 문화예술 지원의 흐름을 살핍으로써 예술인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고 인천시 예술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함.
- 본 과정에서 채집된 주요 해외 예술인 정책과 관련 내용은 인천의 미래방향과 정합성이 높은 사례로서 계획의 구체성을 높일뿐더러 인천시 예술정책을 확장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음.
- 나아가 국내 문화예술 관련 정책의 분석과 추이를 살피는 것으로 글로벌 미래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인천에서 예술의 역할을 확장하는 담론의 근거가 될 것을 기대함.

2) 연구의 활용방안

■ 인천시 예술생태계의 현안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

- 본 연구는 예술생태계에 조응하는 예술인 플랜의 수립을 위해서 예술인 정책을 둘러싼 정세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함.
- 이에 '제1차 예술은 복지 플랜'과 '제2차 예술인 플랜'의 성과분석,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의 시계열적 분석, '인천시 도시문화환경' 조사, 예술정책의 추진 주체 및 대상자의 그룹인터뷰 등을 통해 인천시 예술생태계의 현안을 분석함.
- 위 조사과정의 기록과 분석 내용은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수립은 물론 향후 예술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지속해서 활용될 것을 기대함.

■ 인천시 예술생태계 증진을 위한 정책 모델로 활용

- 인천시 예술생태계에서 예술인 플랜의 위상과 기능의 정의, 개선과 보완을 통한 전개과정을 통해 광역시 예술정책의 정밀도를 높이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나아가 이는, 예술인 플랜의 지속적인 수립과 경험의 누적이 지역 예술정책의 고도화를 견인하고, 결과적으로 예술생태계가 성장하는 데에 일조함의 근거로 작용할 것임.

■ 국내 예술정책의 선도적 실천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 성장의 촉진제로 활용

- 인천시는 광역 지자체로서 예술인 관련 조례 제정의 수립과 예술인복지에 국한하지 않는 포괄적인 예술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내 예술정책을 선도하던 도시 중 하나임.
- 이런 경험은 예술인 건강검진 지원 체계 구축, 지역화폐를 활용한 예술인 지원 다각화 등의 실험적이면서도 실효성 높은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일을 촉진해옴.
- 이에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기반한 예술생태계의 증진과, 이를 위한 인천시 예술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촉진제로써 본 연구를 활용될 수 있음.

II

예술인 복지제도의 배경과 흐름

II. 예술인 복지제도의 배경과 흐름

1. 현대사회 예술 및 예술인에 대한 담론의 흐름

1) 예술, 예술인 지원의 역사와 흐름

■ 예술의 탄생과 역할

- 예술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인간 활동과 그 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됨(다음사전). 물론, ‘아름다움’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있더라도 예술은 ‘아름다움’에 대한 지식이자 기술의 성격을 가짐.
- 동양 사회의 전통적 가치에서 예술(藝術)의 예(藝)는 본래 ‘무엇인가를 심는다’는 의미에서 파생되었으며, 술(術)은 형이상학적 원리를 표현하고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예술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기원을 담는 특정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와 인간의 본성과 삶 속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또 다른 견해로 나뉨(J·해리슨, 1996, 218쪽).
- 어떤 경우라도 예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인간의 삶과 정신을 표현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점은 다르지 않음. 특히, 예술(ars)과 기술(techne)이 분리된 16~17세기 이후에도 예술은 인간의 삶을 표현하거나 영감을 주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예술의 영향은 점점 증대하고 있음.

■ 문화예술 지원과 예술인 인식의 맥락

- 예술의 탄생은 당연히 예술을 담당하는 사람의 출현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범주의 설정에 따라, 보편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장인은 물론, 종교인, 지식인 등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음.
- 동서양을 막론하고 권력 집단이나 종교 행위의 의례를 담당하는 특정 집단이 있었지만, 권력이나 종교 의례가 아닌 하나의 업(業)으로서 예술인을 특정하게 된 것은 근대예술(fine art)의 정립과 관련이 있음. 당시, 예술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은 사회적 후원에 힘입어 생계를 유지함.
- 이후 근대 국가체계의 완성은 다양한 국가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정책은 1930년~1940년대에 이르러 제기되기 시작함. 바로 1936년 프랑스

인민전선정부의 문화정책과 1946년 영국 예술위원회의 설립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예술을 생산하는 예술인에 관한 관심과 처우, 사회적 역할에 관한 논의로 까지 확장되는 것은 1970년에 들어서야 가능하게 됨.

■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국제사회의 각성

- 1970년대 창작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으로 예술인에 관한 최초의 관심이 태동하고, 이내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로 이어짐(박영정, 2006, 14쪽).
- 급기야 1980년 제2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국제사회가 해야 할 역할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Artist)」를 채택함으로써 각 국가의 각성을 촉구함.

<표II-1>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유네스코 초기 활동

구분	예술인 권리의 초점	내용
1970년대 초반	창작과 표현의 자유, 정치적 억압으로의 자유에 초점	2차 대전 종전 이후 예술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억압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짐
1970년대 중반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문제로 전환	예술인 노동환경 및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동일 수준의 지위와 권리보장 기대
1980년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채택	예술인의 예술창작 활동이 갖는 사회적 의의를 전제로 예술인의 고용조건, 창작환경,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내용

출처: 박영정,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14쪽 재구성

-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술의 역할에 관한 인식 증진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인의 지위와 생활에 관한 공적 관심임.

<표II-2> 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

구분	내용
예술에 관한 인식	- 개인적 차원 : 미적 취향 형성과 창조력·상상력의 원천, 정서적 안정, 자존감 형성 - 대인적 차원 : 커뮤니케이션 역량 향상, 세계관의 확장과 수용성 증진 - 사회적 차원 : 사회 유대감과 소속감 증진, 사회자본의 형성, 시민의식, 산업기반
예술인에 관한 인식	- 예술창작과 생산의 담당자로서 생활 여건 열악 - 창작과 생활환경의 보장 없이 지속가능한 예술 생산자로서의 역할 수행 어려움

- 이때, 예술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예술인에 관한 다양한 논의의 근간을 마련하였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기준을 제공함.
-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예술인 개념은 정책적, 법률적 인식보다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술인의 정체성과 창작의 자유는 물론, 존재로서 권리 개념을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음.

<표II-3>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의 예술가 개념

예술작품을 창조하거나 창조적 표현을 제공 또는 재창조하는 사람, 예술적 창조를 자기 삶의 본질적 부분으로 여기는 사람, 이를 통해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 그리고 고용되어 있거나 협회에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고 있거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2) 예술인 지위와 권리에 대한 실천 전개

■ 예술인 지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의 내용은 크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유네스코 권고 이후 세계 각국이 자국의 환경과 여건에 맞춘 영역별 권고 관제를 시행하고 있음.

<표II-4>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가 제시한 예술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의 범위

영역	주요 추진과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 예술인의 인권, 기본 자유권, 사회적 존중과 권리를 보장 -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정책 및 입법 체계 구축 - 직업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경제적 보호 제공 - 소득과 사회보장에 관한 보호 제공(생명, 건강, 노동환경의 보호 등)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	- 예술인을 위한 문화정책과 노동정책의 형성 - 예술인의 고용 장려, 유급작업 기회 증대 - 예술인의 직업 안내 정책 - 다른 분야에 예술인의 활동 장려 및 지원
예술인을 위한 예술활동 여건 지원	-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의해 정의된 노동 및 고용조건에 관한 법적 보호를 예술인에게도 확대 적용(노동시간, 주간휴일, 유급휴가 등) - 예술인의 실질적 소득을 보호하는 이윤 분배 제도 - 예술활동 기구를 통한 보조금 지원, 예술기금의 설립 - 예술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등의 개발 장려 - 예술활동에 과하는 간접세의 경감 등을 통한 활성화 고려
예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예술적 재능과 사명을 자극하기 위해 의도된 교육 제공 - 장학제도 및 유학 지원

영역	주요 추진과제
	-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정책 및 프로그램 - 국가 간 상호협조를 통한 직업 안내 및 훈련정책
예술인 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결성 지원	- 예술인의 이익을 대변·방어할 수 있는 노조·직업적 조직 결성 인정
예술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 지원	- 예술인의 국제적 직업이동의 보장, 국제여행과 교류 장려 - 예술인의 외국에서의 활동 장애요인 제거(이념, 인종, 편견 등) - 유연성 있는 관세 조정과 수입관세, 일시적 수입에 대한 양보 조치 등

출처 : 차민경,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연구」, 20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7쪽, 재인용

■ 예술인 지위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의 실천 형태

- 유네스코는 1980년 결의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의 20주년을 앞두고 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이행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함.
- 2019년에 진행한 권고안 이행의 조사 연구는 국가별로 예술인의 지위 향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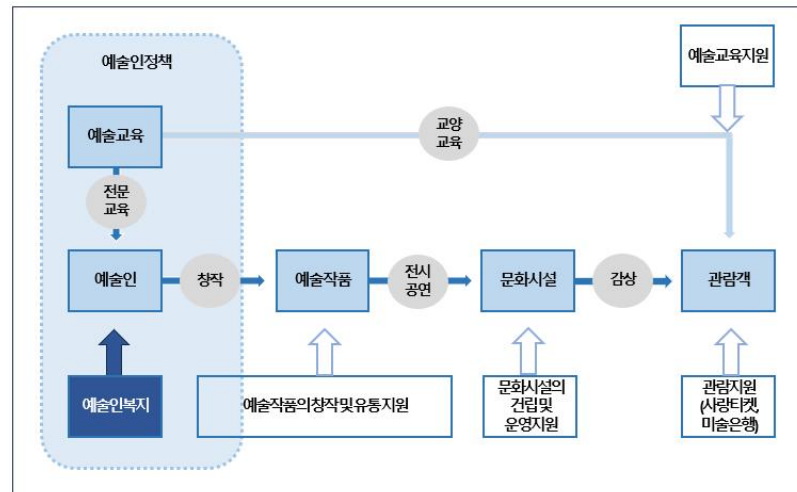
<표II-5>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이후 각 국가의 접근방식 유형

접근방식	내용	비고
방식1	예술인 지위 및 복지뿐만 아니라, 저작권, 표현의 자유, 교육지원, 특별세 등을 포함한 특화된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	우리나라 방식
방식2	별도의 법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조세나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에 예술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 조항을 반영하는 방법	
방식3	국가 문화예술 정책의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 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법	

출처 : 차민경,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0, 27~28쪽, 재구성

■ 우리나라에서의 실천

- 우리나라에서 예술인 지위와 복지 등에 관한 논의가 제기된 것은 유네스코 권고가 나온 지 20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임.
-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인 지위와 권리에 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술인복지정책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 수단을 개발하기 시작함.



(그림II-1) 예술정책에서 예술인 대상 정책의 위상

출처 : 박영정,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145쪽.

- 그러나 이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임.
- 법률의 제정으로 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어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사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표II-6>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의 범위에 따른 우리나라 예술인복지정책 사업 비교

영역	주요 추진과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예술인 산재보험 - 예술인 의료비 지원 - 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디딤돌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	-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로
예술인을 위한 예술활동 여건 지원	- 표준계약서 제작 및 보급 - 예술인 신문고 - 예술인 성폭력 예방 지원 -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 - 예술인 심리상담 -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 예술인 패스
예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예술인 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결성 지원	-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조합 결성가능
예술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 지원	- 없음

출처 : 차민경,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0, 29쪽,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추가 기재

2. 해외 예술인 정책의 현황

1) 해외 예술인 정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해외 예술인 정책 조사 개요

- 예술인 지위와 권리에 대한 유네스코 권고안 이후 세계 각국은 다양한 예술인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함.
- 해외 예술인 정책 사례는 인천시에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국가 단위 사례보다는 시도 단위의 정책 및 사업 위주로 조사함.
- 유네스코의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가 제시한 예술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의 범위로 구분해 정책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레지던시 사업은 별도로 조사함.

<표II-7> 해외 예술인 정책 및 사업 사례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24. 5. 20. ~ 2024. 6. 4. (15일간)
조사방법	1차 : 구글 검색을 통한 검색 / 2차 : 1차 수집한 정보에 대한 세부 조사
조사범위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가 제시한 정책 및 사업 범위
조사영역	인천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 위주로 조사하되 일부 국가 사례 포함

- 해외 예술인 정책은,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가 제시한 정책 범위의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표II-8> 해외 예술인 정책 주요사례

구분	지역	사업명	내용
활동여건 지원 - 공간 지원	캐나다 (밴쿠버)	Artist Studio Award Program	- 밴쿠버 2020-2029 문화계획 내 문화기반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 - 밴쿠버 기반 예술가에게 6개의 스튜디오 공간을 3~4년간 저비용 또는 무상으로 제공
	캐나다 (밴쿠버)	Permit Fee Assistance for Cultural Spaces	- 문화공간 보조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영리문화공간의 개조, 건설, 용도변경에 드는 건축허가 수수료 지원
	독일 (베를린)	The Workspace Program	- 베를린은 문화예술공간 구축을 예술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베를린 예술가들에게 지속 가능한 작업공간 제공 - 이에 직간접적 공간 운영 및 제공, 정부 담보 공간 제공, 공간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하게 진행

구분	지역	사업명	내용
국제적 이동지원	유럽 (EU)	Individual Mobility for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 거주국이 아닌 타 유럽국가 파트너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이동 활동 지원 - 프로젝트는 탐색, 창조, 학습, 연결 중 두 가지 이상의 목적에 맞아야 함.
	영국	International Touring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Fund	- 덴마크, 노르웨이 예술위와 협력해 영국-덴마크-노르웨이 공연예술단체의 투어를 지원 - 기후위기 상황에 따라 저탄소 미래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 공유 수단의 모색을 의도로 한 사업
이동권	호주	Playing Australia Project Investment	- 공연예술 그룹이 호주 전 지역을 순회할 수 있도록 이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훈련 지원	캐나다 (밴쿠버)	Cultural Learning and Sharing Grant Program	-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게 기술, 지식, 관계, 경험 등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최대 2천6백만 원 지원 - 지원사례는 성소수자를 위한 예술경영 멘토십 진행, 난치성 질환을 겪는 무용수를 위한 프레임워크 사례 등
	호주	Professional Development Fellowship	- 새로운 작업, R&D, 실험, 협업, 전문적인 개발, 훈련, 거주, 멘토십(자문) 등의 활동을 지원 - (법률)전문가활용, 건물 개조, 통역 등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작업에 활용 가능
	캐나다 (토론토)	TAC Leaders Lab	- 토론토의 문화예술 부문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가와 문화예술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 제공 - 교육 이수 후 토론토 예술위의 시민 네트워크(거버넌스)로 협력 활동 진행
노동 정책	미국 (오�클랜드)	Network of Care: Teaching Artists Support Grants	- 오�클랜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오�클랜드 청소년을 돌보고 교육하는 교육예술가 고용 독려 - 문화예술 기관 대상으로 교육예술가 급여 지원 및 전문 개발 기회 제공.
	미국 (시애틀)	Art Mean Business 2.0 Grant	- 예술자금이 소수자 공동체의 의사를 반영하고 불평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문화예술기관 독려 - 문화예술기관에서 소수공동체 대상 서비스를 수행하는 역할(담당 직원)의 연봉 또는 계약금 지원
사회적 지위보장	프랑스	Social Security for Artist-Authors	- 예술가 및 작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체계 - 법률자문, 건강보험, 세금 관련 도움, 예술가 권리 교육 (지적 재산권 등), 취약계층 지원, 재테크 교육 등 지원
	호주	Legal services for artists	-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독립 비영리 단체인 호주 예술 법률센터 지원 - 호주 예술 법률센터는 공공지원을 통해 법률자문, 교육, 워크숍, 소수자 지원 프로그램 제공
	미국	Freelancers Union	- 예술인 지위보장에 기반한 프리랜서 노동조합으로 활동 - 건강보험 제공, 기술지원, 세금 가이드라인, 전문가 자문 지원, 네트워킹, 행사, 법적-정책적 지지기반 구축활동
레지던시	일본 (도쿄)	TOKAS residency	- 도쿄에 기반을 둔 예술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예술가와 창작자들에게 창작 및 연구를 위한 공간 지원 제공 - 프로그램에 따라, 항공료, 생활비, 창작활동비, 거주공간, 작업 공간 등을 제공

구분	지역	사업명	내용
	프랑스 (파리)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예술가 레지던시로 1965년에 설립하여 매년 1,200명의 예술가들이 이용 - 예술가의 창작과 연구를 위한 공간과 교류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비거주 예술가도 일부 시설 사용이 가능
기타	미국 (샌프란시스코)	Dream Keeper Initiative Grant	- 샌프란시스코 시장 런던브리드의 공공 안전 계획의 일부로 아프리카계가 겪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사업 - 문화예술 분야에 배치된 예산 일부로 예술인 지원사업 진행

출처 : 각 사업 기관 홈페이지

2) 주요 해외 예술인 정책

■ 유럽 예술가와 문화전문가를 위한 개인 이동지원 프로그램 (individual Mobility for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① 배경 및 맥락

- 세계 변화에 발맞춘 문화 교류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예술가와 문화전문가가 국제적 이동을 통해 창작과 연구를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이 대두됨.
-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가들의 국제적 이동을 지원하여 창작활동을 촉진할 필요성 또한 제기됨.
- 이에, 예술가, 문화전문가가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예술 경험을 쌓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전 세계의 예술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설계함.

② 주요 사업내용

- 예술가 및 문화전문가가 자신이 선택한 파트너와 함께 거주국 외의 유럽의 파트너 국가에서 수행할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사업에 지원
- 탐구, 창조, 학습, 연결이라는 4개 목적 중 2가지를 충족하는 프로젝트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작품이 아닌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는 프로젝트만 지원 가능

<표II-9> 예술가와 문화전문가를 위한 개인 이동지원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자격대상	- 음악, 문학, 건축, 문화유산, 디자인 및 패션 디자인, 시각 예술 및 공연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및 문화전문가 - 개인 또는 최대 5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신청
프로젝트 기간	- 프로젝트 기간은 목적지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보내는 일수 - 개인은 7일~60일, 그룹은 7일~21일 동안 프로젝트 수행

구분	내용
지원조건	- 기존에 생성된 작품을 단순히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작품 창조, 학습 및 전문적 연결을 중심으로 해야 함. - 사업 전체가 추구하는 목적 중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함. · 탐구 : 예술·창의적 연구 수행 및 새로운 주제를 조사하고 영감을 주는 활동 · 창조 : 새로운 예술작품이나 문화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한 창의적 과정에 참여 · 학습 : 비형식적 학습 경험을 통해 참가자의 기술과 역량을 향상하거나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와 협력 · 연결 : 전문네트워크개발, 전문적인 발전 강화, 새로운 관객 및 시장과의 교류

출처 :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https://culture.ec.europa.eu>), (접속 2024. 06.14), 재구성

- 선정된 예술가와 문화전문가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일일 수당(생계 수당), 여행보조금으로 나뉘며, 사안에 따라 추가보조금이 결정됨.

<표II-10> 예술가와 문화전문가를 위한 개인 이동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구분	내용
일일 수당	- 하루 개인당 €75 (숙박, 식사, 장비임대, 현지 교통비 등 사용)
여행보조금	- 여행거리 5,000km 미만 : 왕복 개인당 €350 - 여행거리 5,000km 초과 : 왕복 개인당 €700 - 600km 미만의 짧은 거리는 예외적으로 비행기 여행이 허용됨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 페리 연결이 없는 섬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경우 · 불가항력이나 심각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추가 지원	녹색추가지원 - 600km 이상의 거리에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당 €350(왕복) - 해외 국가 및 영토 또는 가장 외곽의 지역 추가 지원 - 해외 국가 및 영토 또는 가장 외곽의 지역에서 출발·도착하는 경우 개인당 €150
	비자추가지원 - 비자 절차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개인당 €80
	가족추가지원 - 10세 미만 자녀를 둔 사람들을 위해 개인당 €100 · 자녀 수에 관계 없이 금액 고정
	장애지원 - 여행 및 일일 수당의 최대 100%까지 : 개별 필요에 따라 협의하에 예산 결정

출처 :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접속 2024.06.14.), <https://culture.ec.europa.eu>, 재구성

③ 시사점

- 국제적 협업을 통해 예술가들이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문화전문가)와 함께 작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예술의 작품성과 다양성이 확장됨.
- 예술가의 창조력은 새로운 경험과 감각을 통해 성장한다는 논지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비용뿐 아니라 여행보조금의 지원도 이루어지는 것이 국제적 이동지원 사업에서 주목할 부분임.

■ 호주 공연예술 투자 프로젝트 (Playing Australia Project Investment)

① 배경 및 맥락

-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Creative Australia)²⁾에서 진행함.
- 불모지가 많고 개별 도시 간의 거리가 먼 호주의 지리적 특징을 반영하여, 주요 도시 외 여러 지역에서의 공연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목적을 지님.
- 대도시 중심의 예술활동에서 벗어나 더 많은 호주인이 자신의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문화예술인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고자 함.

② 주요 사업내용

- 호주 공연예술 투자 프로젝트는 호주 정부의 예술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특히 국내 순회공연 예술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투자함.
- 이 프로그램은 호주의 다양하고 풍부한 공연예술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공연예술 작품이 더 다양한 관객과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표II-11> 호주 공연예술 투자 프로젝트 사업 내용

구분	내용
자격대상	- 공연예술 분야의 모든 장르가 가능하며 개인 및 단체의 전문 제작 작품이어야 함. - '제작' 주체는 호주 회사 혹은 호주 시민이거나 영주권을 지닌 예술가·예술단체여야 하나, 이때 작품 내용, 작가, 작곡가, 안무가는 반드시 호주인일 필요 없음.
심사방법	- 심사는 동료 패널에 의해 이루어짐 - 패널 구성원은 교대로 돌아가며, 예술적 실천, 전문성, 문화다양성, 장애, 원주민, 지역 커뮤니티, 성별, 연령 총 10개의 영역에서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으로 이루어짐.
심사기준	- 형평성 · 투어일정 확정 : 제안된 투어의 지역에서의 활동 범위와 참여 깊이 정도 · 투어일정 미정 : 제안된 투어 지역의 커뮤니티 혹은 공연파트너와의 대화 및 관계 입증 자료 - 품질 : 예술인 및 예술종사자 자질/ 제안 작품 품질/ 투어가 예정된 지역 예술가 및 커뮤니티에 대해 제안된 영향 품질 또는 지역사회 참여 품질/ 계획과 관리 입증 증거 지닌 개인 및 조직 역량 - 영향 : 청중과 지역사회를 위해 제안된 활동에 대한 예상 참여와 영향 평가 - 생존능력 : 제안 일정, 활동 및 예산 실행 가능성 평가
지원내용	- 호주 지역 및 멀리 떨어진 커뮤니티에 접근할 수 있는 공연예술 투어를 지원함.
주요준수사항	- 투어지역 · 작품의 거점 지역(home state of the work)³⁾ 외 3개 이상의 지역 및 멀리 떨어진 곳(remote) 필수 포함. · 지역 및 멀리 떨어진(remote) 곳으로 정의되는 위치는 ARIA(Accessibility Remoteness Index of Australia)를 활용하여 각 도시의 지역 및 원거리 분류를 결정함. - 프로토콜

2) 1968년 설립된 호주 예술 협의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는 1975년 호주 위원회(Australia Council)로 개칭되었다가 2023년 8월 24일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Creative Australia)가 됨.

구분	내용
	· 예술 분야에서 원주민 및 지적 재산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함. · 연방 아동 안전 프레임워크를 준수해야 함. 호주법에 근거하여 아동과 함께 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무 보고를 해야 함.

출처 : Creative Australia 홈페이지, (접속 2024. 06.14), <https://creative.gov.au>, 재구성.

- 해당 사업은 프로그램 투어 비용뿐 아니라 투어와 관련된 기타 비용(여행비용 등)을 지원하며, 요청 금액 제한이 없음.

<표II-12> 호주 공연예술 투자 프로젝트 지원금 사용 용도

- 작품 제작작 비용 - 주간 순 여행 비용 - 투어 조정 수수료(장소당 \$550의 고정요금 설정) - 투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활동 - 투어 중 투어 참가자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혹은 지원을 제공하는 기타 활동

출처 : Creative Australia 홈페이지, (접속 2024. 06.14), <https://creative.gov.au>, 재구성

③ 시사점

- 예술인 혹은 작품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게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것으로 공연예술 문화의 홍보와 활성화를 꾀하고 예술 생태계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역 인구 감소 등 지역소멸의 이슈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슈에서도 도시 간 문화 격차 해소, 주민 문화 향유권 확대 사례로 유의미함.

■ 도쿄 토카스 레지던시 (TOKAS Residency)

① 배경 및 맥락

- 도쿄는 일본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이자 다양한 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시로, 국내외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일본의 예술가들은 창작을 위한 공간과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카스(Tokyo Arts and Space)⁴⁾는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인프라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음.

3) 작품의 거점 지역은 작품이 창작되거나 제작된 곳, 혹은 예술가가 기반을 둔 곳을 말함.

4) 폭넓은 장르 활동과 횡단적·실험을 지원하며 동시대 예술을 창조·발신하는 아트센터로, 2001년 젊은 아티스트의 육성 지원 기관인 Tokyo Wonder Site로서 설립되어, 2017년 Tokyo Arts and Space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토카스는 ① 신예·중견 아티스트의 지속적인 지원, ② 창조적인 국제 문화 교류의 촉진, ③ 실험적인 창조 활동의 지원을 미션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발표의 장인 토카스 혼고와 체류 제작의 거점인 토카스 레지던시의 2개 관을 운영 중임.

② 주요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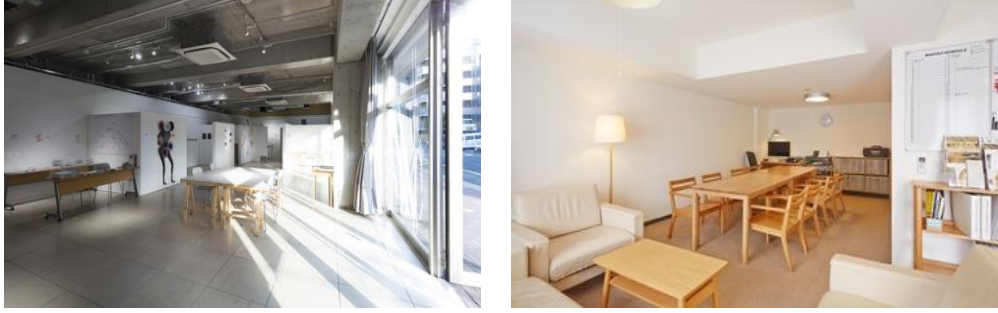
- 이에, 도쿄시와 관련 예술 기관들이 협력하여 토카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이 과정에 다양한 예술가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함.

<표II-13> 토카스 레지던시 프로그램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사항
국제창작자 레지던시	- 해외의 유능한 창작자들이 새로운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 제공 - 5월~7월, 9월~11월, 1월~3월 이루어짐.	- 항공료, 생활비, 창작활동/프로젝트 수수료, 단독 사용 가능한 생활공간(싱글룸), 공동 스튜디오 공간 지원
교류레지던시	- 해외 예술공간 및 레지던시 기관과 제휴 하여 양방향 교류 프로그램 진행	- 일본 기반 창작자 해외 파견 : 항공료, 생활비, 창작활동/프로젝트 수수료 - 해외에서 온 국제 창작자 : 단독 사용 가능한 생활공간(싱글룸), 오픈 스튜디오 공간
지역창작자 레지던시	- 일본 지역 창작자들이 국제 창작자들과 주제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로운 창작 및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생활비, 창작활동/프로젝트 수수료, 단독사용 가능한 생활공간(싱글룸), 오픈 스튜디오 공간
큐레이터 레지던시	- 전 세계에서 선발된 뛰어나고 열정적인 큐레이터를 초청하여 도쿄 큐레이션, 미술 비평, 문화연구 분야의 연구 수행 기회제공	- 항공료, 연구/프로젝트 수수료, 생활공간
지역 신혼창작자 레지던시	- 앞으로 해외 활동을 통해 경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일본 기반의 신혼 창작자 대상.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국제 큐레이터들과 교류 기회를 제공	- 생활비, 창작활동/프로젝트 수수료, 생활 공간, 오픈 스튜디오 공간
연구 레지던시	- 예술가, 큐레이터, 관리자에서부터 건축가, 디자이너, 작곡가, 작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일본 및 해외 창작자들이 예술 및 문화연구 또는 자신의 새로운 창작활동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단독사용 가능한 생활공간(싱글룸)
큐레이터 토크	- 큐레이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큐레이터들이 자신의 활동과 자신이 속한 국가/지역의 예술 현장을 소개하는 미니 강연 시리즈 진행	-
오픈 스튜디오	- 예술가들이 거주 중에 제작된 작품과 수행된 연구를 전시하고, 작품 발표하는데 사용	-

출처 : TOKAS 홈페이지, (접속 2024. 06.14), <https://www.tokyoartsandspace.jp>, 재구성

- 토카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집중된 작업환경 속에서 창작을 전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문화권 혹은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는 플랫폼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림II-2) 토카스 레지던시 공간 사진

출처 : TOKAS 홈페이지, (접속 2024. 06.14), <https://www.tokyoartsandspace.jp>, 재구성

③ 결론 및 시사점

- 토카스 레지던시 사업은 다양한 국가의 예술가들이 오픈 스튜디오와 큐레이터 토크를 통해 작업물을 수시로 공유하여 서로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보임.
- 더불어, 신흥작가를 위한 별도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가 자기지역에서 성장하며 다양한 국가의 예술가들과 협업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 파리 국제 예술 도시 : 씨떼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① 배경 및 맥락

- 세계 각국에 설립된 레지던시의 초기 모델 중 하나로, 작가들에게 창작과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흔히 ‘씨떼’라 불림.
- 펠릭스, 시몬 브루나우 부부가 파리를 전 세계 예술가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취지로 1950년대 초에 씨떼 인터내셔널 데 아르(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1965년 첫 공간을 개관함.
- 설립 초기, 파리시, 에콜데보자르⁵⁾(École des Beaux-Arts), 프랑스 문화부와 외무성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음.
- 현재 초기 후원 주체를 비롯한 135개 이상의 프랑스와 국제단체들의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으며, 창립 이래 총 30,000명 이상의 예술가가 거쳐 갔음.

② 주요 사업내용

- 스튜디오 입주는, 장기 임대한 협약기관의 선정(70%)과 씨떼의 직접 공모(30%)로

5) 프랑스에 있는 몇 개의 영향력 있는 미술학교

이루어지며, 한국의 협약기관은 가나문화재단, 홍익대학교, 삼성재단 등이 있음.

<표II-14> 씨떼 공모선정 방식에 따른 입주 기준

구분	내용
협약기관을 통한 선정	- 기관이 임대한 스튜디오에 입주
직접공모를 통한 선정	- 선정 작가가 선택하여 입주 - 직접 공모시 일부 거주비용 발생

출처 :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홈페이지, (접속 2024. 06.14), <https://www.citedesartsparis.net>,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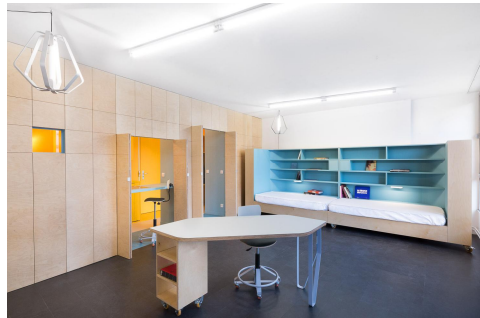
- 입주 기간은 선정내용에 따라 다르나, 통상 2개월에서 1년 정도이며, 입주 이력이 있는 작가의 경우 파리 재방문 시 최대 2개월까지 유료로 체류 가능함.

<표II-15> 씨떼 주요공간 소개

구분	내용	비고
스튜디오	- 몽마르뜨와 마레, 총 2개 지구에 위치하며, 각 30여개와 284개의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음. - 거주와 작업이 동시에 가능한 7~20평 사이의 입주작가 숙박 공간이며 추가 요금 지불 시 게스트를 초대하여 동반 체류가 가능함.	
공유 스튜디오	- 조각, 스크린 인쇄, 도자기 작업이 가능한 그룹 작업공간 - 전문가라면 상주/비거주 예술가 모두 이용 가능	마레지구
강당	- 무대와 공연설비를 갖춘 128명 수용 규모의 공간 - 오르간과 그랜드피아노를 포함한 양질의 음향설비를 갖춘 오디토리움 격	마레지구
갤러리	- 150평 규모의 3층 갤러리, 7개의 전시실로 구성됨. - 타기관, 박물관 등과의 협력 전시로 자주 활용됨.	마레지구
리허설 스튜디오	- 비상주 작가부터 아마추어도 이용 가능한 대관 가능한 스튜디오 - 총 3개의 스튜디오로 입주작가도 유료로 사용(할인 적용)	마레지구

출처 :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홈페이지, (접속 2024. 06.14), <https://www.citedesartsparis.net>, 재구성

-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오픈스튜디오, 전시회 등의 홍보와 시연 이벤트, 입주작가들의 교류를 위한 세미나, 모임 등의 지원이 있고, 프린지 이벤트도 진행함.



(그림II-3) 씨떼 공간 사진

출처 :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홈페이지, (접속 2024. 06.14), <https://www.citedesartsparis.net>, 재구성

③ 시사점

- 씨떼는 예술인 지원을 넘어 예술인에게 도시를 개방한다는 접근을 통해 복지가 아닌 도시의 예술증진에 관한 종합계획이자 도시발전의 촉매로 기능함.
- 직접 선정과 기관협력 병행은 레지던시의 운영 안정성 확보와 운영기관의 역량 강화에 동시에 일조함.
- 입주 이력이 있는 작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환대하는 것(파리 재방문 시의 체류 기회, 게스트 초대, 뮤지엄 카드 등)은 레지던시와 소재 도시의 위상을 동시에 증진하는 기회가 됨.
- 레지던시가 입주작가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의 교류 거점이자 플랫폼이 되는 것은 예술생태계의 강화 및 예술인의 자생력 강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제도와 제1차 기본계획의 내용

1) 예술인 복지제도의 맥락

■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 우리 사회는 서구의 영향으로 1970년대까지 (문화)예술진흥⁶⁾의 관점에서 예술지원정책을 추진하다 1980년대부터 문화예술계 내 다양한 논의를 발화하기 시작함.
- 앞서 언급했듯, 업(業)으로서의 예술인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2000년대임.
- 이윽고, 2004년 발표된 새로운 예술정책 보고서인 『예술의 힘』의 14대 과제 중의 하나로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구성함으로써 ‘예술인 복지’가 예술정책의 주요 의제로 공식화함.
- 그러나 2009년 「예술인 복지법」 제정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2011년 최고은 작가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1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음.

<표II-16> 「예술인 복지법」 제정 흐름

시기	핵심내용	내용
1970년대 이전	예술인이 아닌 예술작품 지원에 초점	- 1970년대까지 예술지원 정책은 ‘예술인’이 아닌 ‘예술작품’, ‘예술활동’ 지원에 초점
1980년 ~ 2000년대	예술계 스스로 예술인 지위 개선 노력 시작	- 예술계 스스로 예술인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진행 - 2000년대 새로운 예술에 대한 담론 확산 및 예술인 복지 정책이 언급되기 시작
2011년	예술인 복지법 제정	- 생활고로 요절한 최고은 작가의 죽음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정책 논의 본격화 - 2011년 11월 17일 「예술인 복지법」 제정

출처: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3~’27)」, 문체부, 2023, 13쪽~28쪽, 재구성

■ 예술인에 관한 규정과 정의

- 예술인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야 하는 법률이며, 동시에 예술인이 업(業)으로 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도 전제되어야 함.

6) 「문화예술진흥법」상에는 ‘문화예술’이라는 용어로 표기되고 있지만, 실제 문화와 예술은 다른 범주임. 예술인 플랜은 문화와 예술의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예술을 지칭하는 ‘문화예술’을 편의상 (문화)예술로 기술함.

<표II-17> (문화)예술과 예술인의 법적 정의

구분	정의	근거
(문화)예술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예술인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예술인 복지법」 제2조

-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여러 장르와 영역으로 나누고, 다시 이를 포괄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이라고 정의하여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음.
- 따라서 예술인은 위에서 언급한 영역의 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을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이라는 설명과 함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이라고 정의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예술인 규정보다 편협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2021년에 연구한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2022~2024)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술인에 관한 포괄적인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함(민경선 외, 2021, 9쪽).
- 또한, 문체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예술인에 대한 일반 정의와 정책 대상으로서의 예술인을 구분하고 있으며, 예술인 증명제도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음.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

■ 예술인 복지정책의 본격화

- 법률의 제정에 따라 2021년 예술인 복지 지원을 전담할 조직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술인 복지정책이 시작되었음.
- 그러나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사태(2017년), #미투의 확산(2018년)으로 다시

한번 예술인복지정책을 넘어 예술인 지위와 권리에 관한 다양한 이슈가 분출하는데, 이는 2021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이어짐.

- 또한, 2020년~2022년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예술인 복지 및 지원정책은 즉각적인 대응과 긴급성을 다투는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게 됨.
- 이에, 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주를 이루던 예술인 복지정책이 예술인의 권리와 직업적 지위를 보호하는 ‘예술인 정책’으로 확장되면서 2022년 ‘복지지원’에서 ‘권리보장’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 되었음.(한국예술인복지재단 10년, 2022, 102쪽)

<표II-18>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 경과

년도	추진 경과
2012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2014년	- 예술인 긴급복지제도,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 심리상담지원,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제정
2015년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구 ‘예술인 긴급복지제도’)
2016년	- 행복주택 입주자자격 예술인 확대,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불공정행위자 제재 강화
2017년	-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개소,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개소
2018년	-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2019년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시범사업 시작
2020년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및 시행
2021년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2022년	- 국정과제에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명시
2022년	-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

출처: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3~’27)」, 문체부, 2023, 13쪽~28쪽, 재구성

- 이로써 우리나라 예술인 정책은 예술인 스스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과정과 정책적 호응에 힘입어,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의 관점에 접근하는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게 됨.
- 특히,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의 예술 기반 조성에 대응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과 비전 체계

- 2012년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를 포함한 권리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조직 활동을 변화해 옴.
-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따뜻한 복지지원, 든든한 권리보장, 행복한 예술인’이라는 비전과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지원으로 예술 발전에 이바지’라는 미션 아래 4가지 전략목표를 세우고 9가지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설립목적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			
미션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지원으로 예술 발전에 이바지			
비전	따뜻한 복지지원, 든든한 권리보장, 행복한 예술인			
핵심가치	조화•협력 (Harmony)	열린사고 (Open-mind)	전문가지향 (Professionalism)	윤리•공정 (Ethics & fairness)
전략목표	안정•자립의 예술활동 기반 구축	예술인의 인권 및 사회적 권익 향상	지속가능한 예술인 성장환경 조성	신뢰•공감의 선진경영체계 확립
전략과제	1.1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확대 1.2 예술인 맞춤형 생활안전망 강화 1.3 뉴노멀 대응 창작자립기반 지원	2.1 공정한 예술환경 조성 강화 2.2 예술인 사회보장체계 확립	3.1 예술인복지 생태계 거버넌스 활성화 3.2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4.1 사회적 가치 실천 고도화 4.2 합리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

(그림II-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비전 및 미션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접속 2024.04.23.), <http://www.kawf.kr>, 재구성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주요 사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주요 사업은 제도에 편입되는 최초의 절차로 예술인활동 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5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복지지원’에서 ‘권리보장’으로 예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또한 확장함.
-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복지지원’과 창작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서의 ‘사회보장’,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및 성폭력 문제 해결 등 예술인의 ‘권리보장’이라는 세 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안정적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0년』, 2022, 102쪽)
- 각 주요사업을 유네스코의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음.

<표II-19> 202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주요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예술인활동증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인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절차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을 확인하는 제도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보장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사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예술직업군의 사회보험 편입 유지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인 복지처우 개선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 산재보험 가입 등 예술인의 보험사무를 대행.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부 보험료의 50~90%를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예술인’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예술활동 시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구분		사업내용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음.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구. 창작준비금지원)	-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단계 지원'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과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으로 나뉨.
	예술인 생활안전자금(융자)	- 제도권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생활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제도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로	- 예술인과 기업·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예술인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적 역량강화 및 새로운 직무영역 개발을 통해 적극적 예술인 복지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예술인을 위한 예술활동 여건 지원	예술인 신문고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고충 처리 종합지원시스템 (One-stop System)
	서면계약 위반신고	- 서면계약서의 생략이 빈번한 예술계의 관행 개선을 통해 예술활동의 안전성 증대 및 서면계약 문화 확산
	전자계약 서비스지원	-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체결 문화를 정착시키고 서면계약 미작성으로 인한 법적분쟁을 방지하는 목적의 전자계약 서비스(「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예술인심리상담 지원	- 예술활동 중 예술인의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및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전문기관 및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 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전문가 돌봄서비스, 연령 통합 돌봄을 제공하여 예술인이 육아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예술인 주거공간 지원	- 예술인의 활동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시중 가격의 5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
	예술인패스	- 예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및 생활 속 공간 할인 혜택
예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예술인 역량강화지원	- 신진예술인의 안정적 예술활동을 위한 기본역량 및 공공 지원 접근성 제고에 요구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예술인권리보호 교육	- 예술계의 계약문화 저변 확대와 성평등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예술인의 실무 대응능력을 높여 스스로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맞춤형 교육지원 - 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공정한 예술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예술인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결성지원	예술인조합 결성신고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조합 결성가능
예술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 지원	-	-

출처: 「202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4, 14쪽~63쪽, 재구성

■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성과와 과제

-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 이후 문체부는 지속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는데,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2016년 개정),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2020년 개정)이 그것임.
- 이에 따라, 문체부는 2023년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데, 10여 년 동안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성과를 ①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에 대한 법·제도 마련 ② 예술 분야 맞춤형 복지 안전망 구축 ③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분석함.

<표II-20>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성과

성과 항목	세부 내용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에 대한 법·제도 마련	- 예술인 복지 및 권리 보장에 대한 법·제도 마련 - 복지정책뿐 아니라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의 지원 범위 확장
예술분야 맞춤형 복지 안전망 구축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설, 예술인 창작준비금 확대 및 자녀 돌봄 지원 등 창작 안전망 구축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후 현장 맞춤형 제도 설계 및 보완 지속
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서면계약 위반 조사권, 시정명령권 신설 등 공정계약 기반 마련 - 예술인 신문고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센터 운영 등 불공정행위 피해 예방 및 구제 사각지대 보완

출처: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3~'27)」, 문체부, 2023, 3쪽, 재구성

- 또한, 현재까지 예술인 복지정책의 미흡한 점을 정리하여 개선과제로 도출하였는데, 이는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이 됨.
- 이는 ① 단편적 복지정책에서 종합적 예술인 정책으로 발전 ② 현물 지원 복지정책 위주에서 사회보험 강화 등 정책의 다양화 ③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으로 발전 ④ 미약한 협력체계에서 범정부·협력적으로 연계성 제고 등임.

<표II-21>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개선과제

개선 항목	세부 내용
단편적 복지정책에서 종합적 예술인 정책으로 발전	-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 이바지보다 경제적 지원이 중심이 되어 정책 연결고리 부재 - 소득·건강·주거 등 협의의 복지를 넘어 지위 및 권리보호, 교육·훈련 지원 등 유네스코 권고 기준 확장 필요

개선 항목	세부 내용
현물 지원 복지정책 위주에서 사회보험 강화 등 정책의 다양화	- 직접적인 생계지원 사업이 예술인 복지정책으로 인식 - 전체 예술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 검토 필요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으로 발전	- 경직된 일률적 기준에 의한 지원으로, 경력 주기 및 활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 부족 - 세부 장르별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미시 정책' 개발 및 기술·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예술'도 적극 수용
미약한 협력체계에서 범정부협력적으로 연계성 제고	- 넓은 '예술' 범위를 포괄하면서도, 분야별 부서 및 기관 연계 부족 - 노동, 고용조건, 사회보험 등 부처 간, 공공기관 간, 지자체, 현장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방안 모색

출처: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3~’27)」, 문체부, 2023, 4쪽~5쪽, 재구성

3)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과 운영

■ 기본계획의 방향

-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2023년 발표된 기본계획에 반영됨.

<표II-22>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방향

구분	내용
기본방향	- 국정과제인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구체 구현 - “공정한(FAIR)복지정책” · 종합적인 예술인 정책 (Fully covered) · 경력단계별 예술인 맞춤형 정책 (Available to all artist) · 범정부 다양한 주체의 협력 (Interconnected governance) · 정책의 다양성 제고 및 다양성 강화 (Responsive to various needs)
정책목표	- 협의의 복지정책을 넘어서 직업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종합적인 예술인 정책’으로 확장
정책대상	- “예술”을 생산하는 “예술인”의 입장에서 정책 수립
정책거버넌스	- 범정부 다양한 주체 간 협력적인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정책범위	- 예술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출처: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3~’27)」, 문체부, 2023, 11쪽, 재구성

■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체계

- 기본계획은 2011년 이후 추진된 예술인 복지정책의 맥락을 잇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제도의 평가와 미흡한 지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립됨.

비전	문화매력국가의 기반, 예술인이 존중 받는 사회
목표	· 예술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 개선을 추진 · 다른 직업군과 유사한 수준의 '직업권' 보장 추진
1.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	2. 예술활동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
① 예술인 법적 정의 개선 ② 효율적이고 공정한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③ 예술인 통계 강화 및 데이터 연계·활용 활성화	④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⑤ 예술인 생활 안정화 및 의료·돌봄 지원 ⑥ 복지와 창작활동의 연결고리, 창작준비금 지원 내실화 ⑦ 예술인 창작공간 다변화 지원
3.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 확립 및 공정환경 조성	4. 예술인 역량 강화와 예술의 가치 확산
⑧ 예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 체계화 ⑨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문화 정착 ⑩ 공정하고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	⑪ 경력단계별 맞춤형 역량 강화 ⑫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 지원 ⑬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역할 강화
추진체계	법정부 차원의 협력적인 예술인 복지정책 네트워크 강화

(그림II-5)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체계

출처: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3~’27)」, 문체부, 2023, 12쪽

■ 예술인 복지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 예술인 복지정책은 4개의 추진전략과 15개의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3개 영역은 사업 영역, 1개 영역은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조직 역량강화 및 예술인 정책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영역임.

<표II-23> 제1차 예술인 복지제도 추진전략 및 과제

전략	추진과제	내용
1.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		
	1) 예술인 법적 정의 개선	- ‘예술인’과 ‘예술활동 확인 예술인’을 분리 정의하여, 일반 규정과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을 구분하는 법령 정비
	2) 효율적이고 공정한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 규제적 이미지의 ‘증명’ 대신 ‘확인’으로 혁신하여, 복지정책 확인에 투입되는 비효율 개선
	3) 예술인 통계 강화 및 데이터 연계·활용 활성화	- 3년 주기 ‘예술인실태조사’를 ▲예술인 실태조사(종합),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 ▲성희롱·성폭력 실태 3종으로 확대
2. 예술활동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삶의 기반조성		

전략	추진과제	내용
	1)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예술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확대 - 사회보험료 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대출서비스 제공 - 맞춤형 사회안전망 (공제사업 등)을 다각도로 검토
	2) 예술인 생활 안정화 및 의료·돌봄 지원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확대 - 예술인 특수성 고려 주말·야간 자녀돌봄 제공 모델 정립 - 무용인 중심 상해 재활치료비, 부상 예방 검진 지원
	3) 복지와 창작활동의 연결고리, 창작준비금 지원 내실화	- 창작준비금 지원 내실화 및 수혜자 확대 - 활동 기여내용 강화 및 부정수급 관리강화, 맞춤형 컨설팅
	4) 예술인 생활·창작공간 다변화 지원	- 공공임대주택 활용, 주거 및 예술활동 특화공간 자가 임대 - 예술인을 위한 국내외 다양한 창작공간 지원 확대 - 예술활동 및 예술 비즈니스를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 조성 - 세계적인 창작 프로그램에 예술인 연계 및 참가비 등 지원

3.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 확립 및 공정환경 조성

1) 예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 체계화	- 예술인권리침해 신고범위 확대로 구제 및 지원 체계 개편 -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당사자 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시범 운영 - 각종 피해예방교육 홍보 실시 - 예술인보호관, 예술인보호책임자,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시행
2)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문화 정착	- 서면계약 체결 지원 -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및 현장 점검
3) 공정하고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	- 창작 대가 현실화 - 공정한 보수체계 조성을 위한 노력 - 문화시설 안전관리 강화

4. 예술인 역량 강화와 예술의 가치 확산

1) 경력단계별 맞춤형 역량강화	- 예비/ 신진 예술인 진입 지원 - 직업 예술인 일자리 및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 지원
2)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 지원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성과 확산과 컨설팅 강화 - 지역사회 예술적 개입 강화
3)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역할 강화	- 예술의 가치 인식 제고 및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 지원 확대 - 후원기업 지원 및 매개 인력 양성 - 예술인 패스 확대

추진체계 :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인 예술인 복지정책 네트워크 강화

1)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조직 역량 강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위상 재정립 및 역량 강화 - 데이터 기반의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 체계 및 기능 강화
2) '예술인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광역 '지역예술인 복지종합지원센터(가칭)' 지정/지원 추진 -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공기관·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호 관련 유관 부처 협력 강화

출처: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3~'27)」, 문체부, 2023, 13쪽~28쪽, 재구성

- 기본계획은 전반적으로 기존의 사업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각종 상황에 대처하면서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임.
- 또한, 기존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된 ‘예술인’이 곧 ‘등록예술인’으로 치환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예술인 등록이라는 규제적인 접근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냄.

4. 타 시·도 예술인 정책의 현황과 사례

1) 타 시·도 예술인 정책 현황

■ 타 시·도 예술인 정책 조사개요

- 2024년 5월 기준, 17개 광역시·도 모두 예술인복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계획 여부와 주기,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기 등이 판이하며, 일부 지자체의 자료는 비공개되어 있음.

<표II-24> 17개 광역시·도 예술인복지 관련 조례

구분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수립 여부	기본/증진/지원 수립주기	시행계획 수립주기	지원계획 (적용시기)	실태조사 진행 여부
서울	○	5년	매년	서울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 (예술인 플랜 2022~2026)	서울문화예술인 설문조사(2020)
부산	○	매년	-	2030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 (2021~2030)	부산예술인실태조사 (2021)
대구	○	3년	-	-	대구예술인실태조사 (2023)
인천	○	3년	-	제2차예술인 플랜 (2022~2024)	인천 예술인실태조사 (2021)
광주	○	2년	-	광주예술인복지정책 (2022~2026)	광주예술인실태조사 (2021)
대전	○	5년	-	2019대전예술인복지정책 (2020~2024)	대전예술인실태조사 (2019)
울산	○	3년	-	-	울산예술인실태조사 (2021)
세종	○	5년	-	-	세종예술인실태조사 (2019)
경기	○	3년	-	경기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 (2021~2030)	경기도예술인실태조사 (2022)
강원	○	-	-	-	강원도예술인실태조사 (2020)
충북	○	-	-	-	충북예술인실태조사 (2021)
충남	○	5년	매년	-	충남예술인실태조사 (2020)
전북	○	-	-	-	전북예술인실태조사 (2022)
전남	○	3년	-	-	전남예술인실태조사 (2022)
경북	○	5년	매년	-	-
경남	○	3년	-	경남예술인복지정책계획 (2023~2027)	경남예술인 실태조사(2022)
제주	○	5년	-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접속: 2024.4.19.), <https://www.law.go.kr>, 재구성

■ 시도별 예술인 정책의 변화 예상

- 17개 광역시·도 모두 예술인 복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를 현실화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함.
- 그러나 문체부에서 2023년 첫 번째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각 시도의 예술인 복지정책도 주기와 방식을 재구성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기본계획 내 ‘예술인 통계 강화 및 데이터 연계·활용 활성화’를 통해 예술인 관련 조사를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인 권리 보호 실태조사’,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등 3종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예정 또한 또한 각 시·도의 향후 계획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2) 주요 시·도 예술인 정책

■ 주요 시·도 예술인 정책 개요

- 국내의 예술인 정책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전체 광역시·도 중 지리적 인접성, 조례와 지원계획 여부, 등록 예술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를 중심으로 세부 현황을 조사함.
- 조사항목은 ① 예술인의 정의 ② 정책 및 주요사업 ③ 조직 ④ 시사점으로 설정하고,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 시기인 2022년 이후 특징적인 사안을 함께 기술함.

<표II-25> 주요시·도 예술인 복지정책 관련 현황

구분	조례	지원계획(적용시기)	지원 계획의 주요시행 주체 및 담당조직	등록예술인 비율	
				전체	신진
서울	서울특별시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 (예술인 플랜 2022~2026)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	36.0%	34.3%
경기	경기도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발전전략 (2021~2030)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인지원센터	24.0%	23.9%
부산	부산광역시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30부산 예술인복지 증진계획 (2021~2030)	부산문화재단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5.5%	4.7%
인천	인천광역시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차 예술인 플랜 (2022~2024)	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지원센터	4.5%	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통계, (접속 2024.5.23.), 재구성

■ 서울특별시 : 서울 예술인 플랜과 서울 예술인 복지증진계획⁷⁾

① 예술인의 정의

- 「서울특별시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기본으로 2021년,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의거한 취약 예술 계층을 추가함.
- 서울시 예술인 정책에서는 예술활동증명 여부와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수혜 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으로 가입된 예술인’ 중 서울 거주자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 유연성을 두고 있음.

② 정책 및 주요사업

- 서울시는 2016년 ‘서울 예술인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여 예술인들의 창작 활성화와 공정한 예술활동 기반을 조성’을 목표로 ‘예술인 플랜’ 수립, 시와 중앙 역할 분담과 유희공간 전환 활용, 예술청 조성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함.
- 서울 예술인 플랜(2017~2021)은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낮은 예술인 실태에 주목하고 ‘2030년 세계 10위의 예술인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5개의 의제를 설정함.
- 예술인 플랜 이후 2022년 수립한 서울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2022~2026)은 시민 대상 문화향유 목표를 추가하고, 공연 기자재 공유 플랫폼 조성, 비대면 융합예술 지원 등 팬데믹의 여파로 여겨지는 사업들을 신규 과제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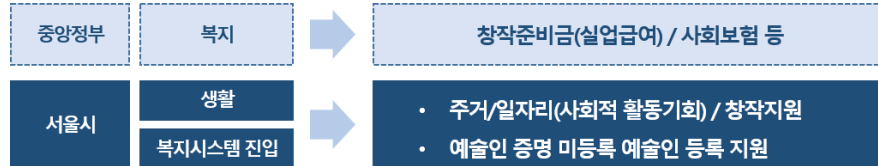
<표II-26> 서울시 예술인복지증진 계획의 변화

구분	서울 예술인 플랜	서울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
기간	2017~2021	2022~2026
목표	예술인의 삶과 창작여건 개선	예술인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제공
체계	5대 의제, 8대 핵심사업, 42개 사업	4개 분야, 10대 과제, 31개 사업
주요사업	- 예술인 주택 및 창작공간 확충(공간 조성) - 예술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일자리) - 진입장벽 없는 창작활동(생애주기별 지원) - 예술인 교육 및 교류지원(예술인 성장과 발전) - 예술청 조성(커뮤니티 및 종합 지원 허브)	- [창작기반] 창작공간 확충, 융복합 예술지원 - [활동기회] 예술인 일자리 제공 +시민문화향유 - [예술 사회안전망]취약예술인 보호,공정거래 지원

7) 서울시는 2016년 서울 예술인 플랜(2017~2021)을 수립한 이후 2022년 서울시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미공개 상태임. 본 내용은 기존의 서울 예술인 플랜을 기초로 약식 공개된 서울시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2022~2026)을 첨가하여 정리함.

출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서울예술인 플랜” 미디어 서치 결과 재구성

- 서울 예술인 플랜(2017~2021)은 예술인 정책을 복지와 생활로 이원화하여 당시 복지 중심의 정책을 하던 중앙정부의 역할에 반해, 서울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앙과 시를 연계하는 특징이 있음.



(그림II-6) 서울 예술인 플랜(2016) 예술인 지원 계획방향

출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서울예술인 플랜” 미디어 서치 결과 재구성

- 서울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2022~2026)에 의해 진행되는 2024년 5월 기준, 예술인 지원사업은 ① 예술기획 및 창작지원, ② 대학로 기반 공간사업 운영, ③ 창작공간기반으로 분류되어 진행 중임.
- 또한, 예술인 정책의 주요 추진체인 서울문화재단은 ‘3대 전략, 10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그물망 예술지원체계’를 표방하고 있음. 이는 기존의 ‘신진-유망-중견’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원에 ‘청년’, ‘원로’ 부문을 추가하고, ‘서울예술상’ 등 특화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특징을 보임.

<표II-27> 2024 서울문화재단 예술인 지원 관련 사업

예술기획 및 창작지원 (예술지원실)	대학로 기반 공간사업 운영 (대학로센터실)	창작공간기반 사업운영 (창작기반실)
- 예술창작지원(공연예술) - 예술창작지원(시각외기반지원) - 예술지원체계 운영 관리(23년신규) - 청년예술지원(23년신규) - 원로예술지원(23년신규) - 융합예술플랫폼 - 미래예술창작지원 - 유망예술지원 - 문래예술공장 - 청년예술청	- 예술청(서울예술인지원센터) - 대학로극장 쿼드 무대기술 운영 및 관리 - 대학로극장 쿼드 공연사업운영 - 서울연극센터 - 무대 기자재 공유센터	- 금천예술공장 - 신당창작아케이드 - 서울무용센터 - 연희문학창작촌 -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출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 2024.05.23.), <https://www.sfac.or.kr>, 재구성

③ 조직

- 서울시 예술인 정책은 대부분 서울문화재단 - 예술창작본부 - 예술지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 5월 기준 예술지원실은 예술지원정책팀을 비롯한 5개의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장 1인과 각 팀장을 포함한 36명으로 구성됨.

- 서울 예술인 플랜(2017~2021)에서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갖추었던 ‘예술청’이 조직 개편을 통해 ‘대학로센터실’의 하부 팀으로 편성되어, 팀장 1인과 7명으로 구성된 사업팀으로 재구성됨.

④ 특징 및 시사점

- 서울시는 서울 예술인 플랜(2017~2021) 이후 2020년부터 예술인 플랜 기획단을 구성하였으나 현재 중단되었고, 두 번째 예술인 플랜에 해당하는 서울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2022~2026)과 서울문화재단 10대 혁신안에 따라 정책과 조직을 재구성함.
- 현재 서울시 예술인 정책은 포괄적인 예술인 정책에 중심을 둔 초기 계획에서 벗어나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서울예술상은 예술인의 자부심을 높이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작동할 수 있음.
- 창작·시연 공간을 넘어 ‘무대 기자재 공유센터(re:stage seoul)’는 무대 기자재를 재활용하고 생태가치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무대 노하우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실험하던 예술인 거버넌스, 주거-생활을 포괄하는 예술인 지원의 정책 실험이 멈추어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음.

■ 경기도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전략」과 경기도예술인지원센터

① 예술인의 정의

- 「경기도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정책 대상을 「예술인 복지법」 2조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2020년, ‘취약예술계층’을 추가함.
- 경기도 예술인 정책은 「예술인복지법」과 「저작권법」, 한국표준 직업 분류상의 예술인을 기본으로 예술교육지원과 예술경영까지도 포괄하고 있으나, 생활 예술인은 제외하고 있음.

② 정책 및 주요사업

- 경기도는 2020년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전략을 통해 ‘자립하는 경기 예술인, 도약하는 예술인의 허브 경기’라는 비전을 수립하였고, 경기문화재단에 경기 예술인지원센터를 설치함.
-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사회보장 관련 상담 지원에서부터 예술자원 DB까지 아우르는 사업을 4개 유형으로 구성하여 추진 중임.

<표II-28> 2024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추진사업

전략	주요사업
예술인 상담	-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 예술활동증명 지원 - 예술인 심리상담 / 예술인 고용보험 - 표준계약서/자료
예술인 자립지원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창작공간 임차료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예술인 아카데미	- 아카데미 <아트up> - 경험공유 아카데미 <예깃거리>
예술인·예술단체 DB	- 예술인·예술단체 검색 - 예술인·예술단체 통계 - 경기 예술인 이어달리기

출처: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2024.5.23.), <https://artist.ggcf.kr>, 재구성

- 4개의 사업군 중 ④ 예술인·예술단체 DB 부분을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 예술인 및 단체가 프로필을 직접 등록할 수 있게 하며, 등록 여부에 따른 지원사업 가산점, 이벤트 등 자율성을 높이는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며 추진사업의 실효성을 높임.
- DB의 내용은 공개자료로 관리되어 예술인 및 관련 단체 간의 협업과 네트워크, 일자리 연계를 촉진, 경기도예술생태계 강화에 일조함.



(그림II-7) 경기 예술인·예술단체DB 현황

출처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 2024.06.03.), <https://www.ggcf.kr>

- 또한, 예술인들의 창작과 교류의 플랫폼으로서 수원 인계동에 공간을 마련하고, 자발적인 창작활동과 랩LAB이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임.
- 경기도 예술인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이는 경기도가 직접 관장함.
-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제도는 기초 지자체와 예산 매칭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23년 처음 시범 시행되어 31개 지자체 중 2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24년 수원시가 참여하여 현재 28개 지자체 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표II-29>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제도 현황

구분	내용	비고
목적	-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민선 8기 공약으로 시작된 제도
지원내용	- 지원 예술인 1인당 년 150만원 현금으로 지급 - 1회 지급시 75만원으로 년 2회 지급	- 최초 1회 지급 시 서류 제출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서 보유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 성남, 고양, 용인 예술인 제외 - 19세 미만 예술인 제외 - 성범죄자 제외 - 신진예술활동 증명자 제외
대상자	- 2024년 13,000명 대상 지원 중	- 2023년 9,050명 지원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속 2024.06.03.), <https://www.gg.go.kr>, 재구성

③ 조직

- 경기도 예술인 정책은 경기문화재단 - 예술본부 -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추진하였는데, 조직개편을 통해 2024년 5월 기준, ‘예술지원팀’이 ‘경기도예술인지원센터’를 포괄하여 팀장 1인 포함 9인으로 구성됨.

경영본부	예술본부	지역문화본부
경영기획팀	예술지원팀	지역문화팀
인사팀	경기예술인지원센터	문화자치지원팀
경영지원팀	예술교육팀	문화나눔센터
홍보마케팅팀	예술교육지원센터	창작지원팀
	예술사업팀	

(그림II-8) 경기문화재단 조직도 시행 부서

출처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 2024.06.03.), <https://www.ggcf.kr>

④ 특징 및 시사점

- 경기도는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 아닌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2020)으로 정책의 시행 주체의 역할을 강조함.
- 경기도의 예술인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인데, 2023년의 첫 시행 이래 지속 중이며, 예술인 정책의 새로운 실험으로 사료 됨.
- 경기도는 예술창작지원제도의 사업을 제외하고, 예술인지원센터의 업무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함.
- 예술인의 자발적인 교류를 사업의 핵심으로, 예술인을 발굴하는 비예산 사업을 3년간 꾸준히 진행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작동과 활성화에 집중함.
- 경기도가 최대 범위, 최다 기초 지자체로 구성되었다는 환경 여건으로 정보의 등록과 유통에 있어 예술인 당사자의 자율성을 촉진 시키는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이 긍정적임.

■ 부산광역시 : 2023년 예술인복지 증진계획

① 예술인의 정의

- 「부산광역시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를 따르며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으로 정함.
- 부산의 예술인 정책은 조례를 기본으로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미술관 설립자, 예술계 종사자 등을 사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함.

② 정책 및 주요사업

- 부산시는 조례를 통해 장기계획으로서 ‘2030 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화하는 방식을 가짐.
- 부산시는 2024년 기준, ‘예술인이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① 예술인 권리보호 및 기반 강화 ②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③ 예술인 일자리 및 창작지원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총 21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
- 부산시는 2017년부터 예술인의 당면문제 해결 및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부산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로 권역별 소통창구 ‘예술인 행복플랫폼’을 추진 중임.

<표II-30> 2024년 부산 예술인복지 증진계획

예술인 권리보호 및 기반 강화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예술인 일자리 및 창작지원
-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 예술인 퍼실리테이터 운영 - 부산예술인 행복플랫폼 운영 - 활동 증명 및 예술인 패스 발급 확대 - 부산예술인 아카이빙 사업 - 예술인 생활안내서 발간	-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 - 반딧불이 창작공간 조성·운영 - 예술인 창작공간 운영 - 사회보험 등 맞춤형 안내 지원 - 예술인 권리보장 교육 및 캠페인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등 이차지원	-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 사업 - 표준계약서 지속 보급 -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지원 - 부산 문화예술지원 사업 - 예술인 컨설팅 매칭 사업 - 부산형예술인산학협력체계구축 - BS 아티스테이

출처: 「2024년 예술인복지 증진계획」, 부산광역시, 3쪽, 재구성

- 부산은 2024년부터 ‘BS아티스테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 예술인의 활동 기반 조성 및 활동 범위 확대를 목적으로, 지정숙소에 한해 예술활동을 위해 발생하는 숙박비를 지원함.
- 부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시범 운영 중인 24년 6월 기준, 서울 소재 4개 숙소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인천, 대구 등까지 확대함,
- 2020년 1호점으로 시작한 ‘반딧불이 창작공간 조성·운영’사업은 도심 공동화 대응으로써 빈집을 창작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3년 기준 9개소까지 확대함.
- 아울러, 서울 소재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긴급 대응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를 직접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음.

③ 조직

- 부산시 예술인 정책은 2017년부터 부산문화재단 - 예술진흥본부 - 예술지원팀 내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두고 운영 중임.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포괄하는 예술지원팀은 팀장을 포함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 범위와 예산을 확장하고 있음.



(그림II-9) 부산문화재단 조직도 시행 부서 부분

출처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2024.05.23.), <https://bawsc.bscf.or.kr>

- 권역별로 만들어진 ‘부산예술인 행복플랫폼’은 예술인 맞춤형 문제 해결 및 복지 증진의 전문가로 퍼실리테이터를 구성하여 예술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물론, 예방적 활동도 진행함. 이는 예술인 지원사업이자 문화예술인 일자리 지원 성격을 가지고 네트워크 강화에 일조하고 있음.

<표II-31> 부산예술인 퍼실리테이터와 부산예술인 행복플랫폼 요약

예술인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행복플랫폼
- 예술인고용보험 교육, 1:1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예술인 사회안전망 진입 유도 - 센터 사업 참여 예술인 대상의 문제해결 및 갈등완화 활동 - 규모 : 센터 내 2명, 연계처 4명	- 권역별 거점공간을 활용한 예술인 소통창구 - 예술인 퍼실리테이터 활동 거점 및 지역예술인 네트워킹 공간 확보 - 참여 : 부산진문화재단, 부산예총, 부산민예총,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지원센터, 총 4곳

출처: 「2024년 예술인복지 증진계획」, 부산광역시, 8쪽~9쪽, 재구성

④ 특징 및 시사점

- 부산시는 장기 ‘2030 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긴 호흡으로 정책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면서 사업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매년 시행계획을 구성함.
- 이는 예술생태계 조성과 예술인의 활동 여건을 구축해야 하는 장기적 방향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지만, 자칫 사업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2024년 현재, 부산시는 꾸준한 투자를 통해 예술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데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수행 주체인 부산시 예술인지원센터도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개발하고 있음.
- 부산시는 수도권과 거리가 멀다는 한계를 재해석한 BS아티스테이, 도심공동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반딧불이 창작공간, 권역별 기관 간의 네트워크 기반을 만드는 행복플랫폼 사업, 매개 인력을 직접 투입하여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식 등은 부산예술인 정책의 강점으로 보임.

III

인천 예술인 플랜
설계를 위한
기초분석

Ⅲ. 인천 예술인 플랜 설계를 위한 기초 분석

1. 인천 예술인 플랜의 맥락과 전개

1) 인천시 예술인 지원 제도

■ 인천시 예술인 지원 여건

-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시는 2016년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이후, 예술인 지원을 본격화하기 위해 2020년 ‘인천예술인지원센터’가 인천문화재단 내부조직으로 출범하여 현장 맞춤형 예술창작 지원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장애예술인과 청년예술인에 대한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조례(2017년 제정)」와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조례(2023년 제정)」를 제정하여 별도의 지원계획을 마련함.

<표Ⅲ-1> 인천 예술인 지원 경과

구분	내용
2016년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7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조례」 제정
2018년	제1차 인천시 예술인복지 플랜 수립(실태조사 포함)
2020년	인천문화재단 내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출범
2021년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실태조사 포함)
2023년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진행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24년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

■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 내용

-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따라 인천시는 3년마다 인천 예술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표Ⅲ-2>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내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근거 조항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접속 2024.4.11.), <https://www.elis.go.kr>, 재구성

- 이에 인천시는 2018년 제1차 인천 예술인복지 플랜(2019~2021)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2022~2024)을 수립하였고, 2024년에 들어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2025~2027)을 수립하고 있음.

<표Ⅲ-3>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제1차, 제2차 주요 내용

구분	제1차 인천 예술인복지 플랜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계획기간	- 2019~2021	- 2022~2024
수립배경	- 예술인 복지 법정계획 수립 필요	- 제1차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
비전	- 예술인을 위한 기회의 도시 인천	- 예술인이 존중받고 성장하는 도시, 인천
목표	-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 - 예술인이 알하기 좋은 도시 - 예술인이 성장하는 도시	- 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속성 증대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증진 - 예술인의 사회안정망 확대 - 예술인 정책의 기반 강화

출처 :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인천광역시, 2018
「인천 예술인 플랜(2022~2024)」, 인천광역시, 2022, 재구성

■ 인천시 예술인 정책의 예산 규모

- 인천시는 예술인 플랜의 재원은 ‘예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강화’ 항의 제반 사업들로 2024년 100억 4천만원 규모이며, 이는 2023년 기준 9.32% 삭감된 예산임.
- 인천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장애예술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 예술인 플랜에 해당하는 사업은 인천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음.

<표Ⅲ-4> 2024년 인천문화재단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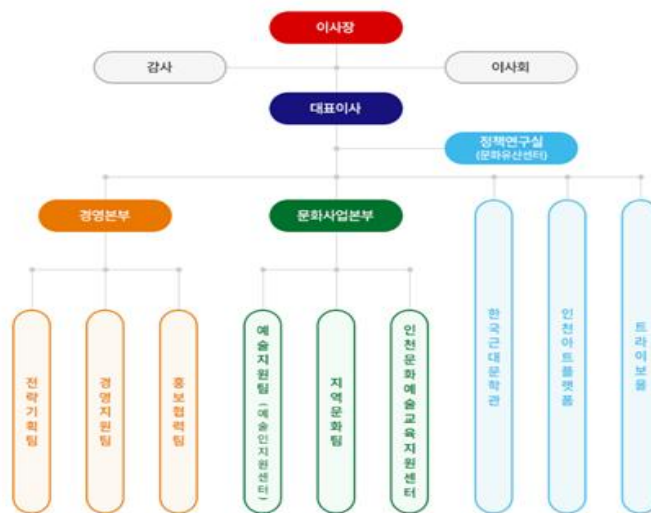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3회추경)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총 계	46,535,181	100	48,213,667	103.6	-1,660,486	-3.44
지속가능한경영실천	5,765,028	12.4	5,593,347	12.0	171,681	3.07
경상운영	5,765,028	12.38	5,593,347	12.01	171,681	3.07
예술생태계의선순환구조강화	10,403,373	22.35	11,473,239	24.65	-1,069,866	-9.32
맞춤형예술창작지원	5,418,488	11.64	6,170,186	13.25	-751,698	-12.18
예술지원다각화	335,973	0.72	563,273	1.21	-227,300	-40.35
예술인복지확대	1,295,700	2.78	1,399,875	3.01	-104,175	-7.44
청년문화창작소	80,000	0.17	142,877	0.31	-62,877	-44.01
인천아트플랫폼	2,978,212	6.40	2,902,028	6.23	76,184	2.63
공연예술연습공간	295,000	0.63	295,000	0.63	-	0.00
지역문화자원의가치확산	28,142,526	60.45	25,758,013	55.33	2,384,513	9.26
협력형시민문화활동체계구축	808,716	1.74	1,182,174	2.54	-373,458	-31.59
인천문화유산센터	450,000	0.97	785,389	1.04	-35,389	-7.29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3회추경)	구성비(%)		증감률(%)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188,300	4.70	2,188,300	4.70	-	0.00
통합문화이용권	22,196,520	47.68	19,239,630	41.33	2,956,890	15.37
트라이보울	2,231,384	4.79	2,396,368	5.15	-164,984	-6.88
우리미술관	267,606	0.57	266,152	0.57	1,454	0.55
지속가능성기반문화역량확보	2,093,455	4.50	2,966,965	6.37	-873,510	-29.44
데이터기반정책네트워크확대	1,388,455	2.98	1,957,910	4.21	-569,455	-29.08
한국근대문학관	630,000	1.35	830,600	1.78	-200,600	-24.15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	75,000	0.16	178,455	0.38	-103,455	-57.97
기부금	148,799	0.32	178,799	0.38	-30,000	-16.78
반납금		0.00	1,153,931	2.48	-1,153,391	순감
예비비		0.00	1,089,913	2.34	-1,089,913	순감

출처 :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 2024.06.10.), <https://ifac.or.kr>, 재구성

■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현황

-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인천문화재단에 인천예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림Ⅲ-1) 인천예술인지원센터 구조

출처 :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 2024.06.10.), <https://ifac.or.kr>, 재구성

- 2024년 5월 현재, 인천예술인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총 7명으로 인천시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 확대를 목표로 권익지원, 역량강화, 창작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Ⅲ-5> 2023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주요사업 내용

사업명	추진목적
건강지원 (종합건강검진)	- 일반 직업군 대비, 건강검진의 정보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 예술인에게 종합건강검진 지원(건강권 보장) - 전국 최초 유일하게 운영중인 “직업 예술인의 차별 없는 건강복지 지원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장 운영 - 협력검진센터를 지정하여 1건당 300,000원 범위 양질의 검진혜택 제공
건강지원 (심리상담)	- 직업 예술인의 개인 내적 및 사회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 구성 - 인천 예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맞춤(개인·가족·집단) 심리상담 지원
상담창구 홍보운영	- 인천 예술인 법률상담 지원 - 예비 예술인을 포함한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분야별 법률상담 지원 - 불공정행위, 계약 및 저작권, 세무·회계·노무·사회보험 등 상담지원 -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온오프라인 홍보 활성화 -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 및 고도화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예비 예술인을 포함하는 지역 예술인 및 단체의 실무능력 강화와 건강한 예술생태계 조성,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예술인 창작컨설팅 지원)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1:1 맞춤 컨설팅 지원 - (예술인 네트워크) 네트워킹 관련 현장 의견수렴 및 예술인 복지 사업 전반 리뷰 청취
창작공간임차료지원	- 인천 내 연습실, 작업실, 사무실 등 공간 임차료 지원을 통한 예술인 및 단체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 조성 - 연 임차료의 50% 범위 (1개소당 최대 480만원) 지원
예술인이음카드 (캐시백지원)	- 인천 예술인만을 위한 지역전환 화폐 ‘인천시 예술인 이음카드’ 발급 - 인천이음 기본혜택에 5% 추가 캐시백 제공
예술인이음카드 (대표자사례비)	- 인천시 예술인 이음카드 연계 지원사업 대표자(본인) 사례비 지급

출처 : 「2023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내부자료, 2023

2) 제1차 인천 예술인복지 플랜 (2019~2021) 성과 분석

■ 제1차 인천 예술인복지 플랜의 비전 및 목표

- 제1차 인천 예술인복지 플랜은 ‘예술인을 위한 기회의 도시, 인천’의 비전 아래 3대 목표를 제시하였음.

<표Ⅲ-6> 제1차 예술인복지 플랜 비전 및 목표

구분	내용
비전	- 예술인을 위한 기회의 도시, 인천(City of Chance for Artists, Incheon)
3대 목표	-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 - 예술인이 일하기 좋은 도시 - 예술인이 성장하는 도시

출처 :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인천광역시, 2018, 132쪽

■ 제1차 인천 예술인복지 플랜의 추진 사업

- 제1차 인천 예술인복지 플랜은 위의 3대 목표에 따라 6개의 추진전략과 24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 사업을 운영하였음.
- 3년간 추진된 24개 사업 중에서 공간조성과 여성, 청년 관련 등 7개 사업은 미추진된 것을 확인함.

<표Ⅲ-7> 제1차 인천 예술인복지 플랜 추진 사업(2019~2021)

제1차 예술인복지 플랜 추진과제		세부사업명	사업시행연도		
			2019	2020	2021
창작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신진예술가 기획지원	○	○	○
		청년예술가활동 지원사업	○	○	○
		청년예술준비지원사업		○	○
	여성예술인 창작지원	(미추진)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	○
	성장단계별 창작지원	인천형 예술인 지원사업	○	○	○
		작품개발지원사업			○
공간	청년예술인 거주공간 지원	(미추진)			
	청년예술인 공유창작공간 조성	청년문화창작소 운영사업	○	○	○
		아트플러그 연수			○
	시민문화예술 교육 전용공간조성	(미추진)			
자립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	○	○	○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	인천시 공직자 문화예술 역량강화 사업	○	○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인천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1호		○	○
	인천 아트마켓 인천 컬렉션운영	인천 미술 활성화 기획 지원	○	○	○
	인천 예술도서관 운영	(미추진)			
교류	국내외 예술인 교류협력 지원	해외 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	○	○	
		예술표현활동지원(국제교류)	○	○	○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국외)	○	○	○
		국제교류 어반아트 프로젝트		○	
	예술인 피칭 프로그램	(미추진)			
	인천 예술인 해외 레지던스파견	인천아트플랫폼 국제교류 사업	○	○	○
환경	예술인 후원 협력시스템구축	아트레인	○	○	○
	예술인 지원센터 운영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운영사업		○	○
	예술인 신고·상담 지원	예술인지원센터 심리상담 프로그램		○	○
	예술인실태조사 정기 추진	2021 예술인 실태조사			○
	여성예술인 대표성 강화	(미추진)			
교육	예술인 코칭 프로그램 지원	예술인 아카데미		○	○
	예술인학습공동체 지원	(미추진)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 및 활용	생활문화매개자 운영사업	○	○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	○	○
		생활문화활동가<공감브릿지>			○
	예술전공 대학생진로교육 제공	(미추진)			

출처 : 「인천 예술인 플랜(2022~2024) 수립 연구」, 인천문화재단, 2021, 46~47쪽

■ 제1차 인천시 예술인복지 플랜의 성과

-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을 앞두고 분석한 제1차 인천 예술인복지 플랜의 성과는 ① 창작부분 성과 -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중심으로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의 다양성 증대 ② 환경부분 성과 - 인천예술인지원센터 개소로 중앙-광역-기초단위를 연계할 예술인 지원 기반 구축 ③ 교류부분 성과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국내·외 예술인 교류협력사업을 지속 추진을 꼽음.

<표Ⅲ-8> 제1차 인천 예술인복지 플랜 성과 분석

전략	성과
창작	- 청년예술인 안정적인 거주와 창작활동 지원 -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중심으로 청년예술인을 위한 창작지원사업이 다수 추진
환경	- 2020년 인천문화재단 내 예술인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중앙사업과 지역사업의 연계 추진 및 지역 맞춤형 예술인 지원사업을 기획·운영할 여건 마련
교류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내·외 예술인의 교류협력 지원사업 대부분 지속 운영

출처 : 「인천 예술인 플랜(2022~2024) 수립 연구」, 인천문화재단, 2021, 51~52쪽, 재구성

■ 제1차 인천 예술인복지 플랜의 한계

- 또한, 제1차 인천 예술인복지 플랜의 한계로 ① 공간부분 과제 - 예술인의 안정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거주·활동공간 지원사업의 추진 미흡 ② 자립부분 과제 -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 필요 ③ 교육부분 과제 - 예술인의 창작역량 및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 확대 필요를 꼽음.

<표Ⅲ-9> 제1차 인천 예술인복지 플랜 한계 분석

전략	한계
공간	- 제1차 계획에서 거주·창작공간 및 시민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과제를 발굴했으나, 실제 추진 저조
자립	- 문화예술일자리 창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인천아트마켓, 인천아트컬렉션 운영 등이 일부 추진되었으나 성과 미흡 - 인천 예술도서관 운영은 미추진
교육	- 2개 과제(예술인 코칭프로그램지원, 문화예술 매개자양성 및 활용은 일부 추진 - 2개 과제(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사업, 예술전공대학생 진로교육)는 미추진

출처 : 「인천 예술인 플랜(2022~2024) 수립 연구」, 인천문화재단, 2021, 52~54쪽, 재구성

3)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2022~2024)의 주요 내용

■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을 위한 SWOT 분석

- 인천시는 조례에 의해 추진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의 추진 평가 후, 보다 종합적인 관점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기존의 명칭에서 ‘복지’를 떼 ‘예술인 플랜’으로 변경함.
- 따라서,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SWOT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전략 방향을 도출함.

SWOT 분석		내부환경	
		강점(S)	약점(W)
		-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출범 (청년)예술인 지속 증가 - 조례 개정으로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기초문화재단 설립 증가 추세	-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운영인력 부족 - 예술인 창작·거주·교류 공간 부족 - 예술인의 자립과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 미흡 - 예술인 대상별 지원사업 다양성 부족
외부환경	기회(O)	SO전략	WO전략
	- 중앙 예술인 복지정책 확대 전망 -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지위 및 권리보장 촉진을 위한 법률 제·개정	- 광역-기초문화재단 간 예술인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앙의 예술인 복지정책 확대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응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 사항을 안내·홍보해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에 기여	- 지역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인천예술인지원센터의 예산, 인력, 조직을 확대해 중앙의 기본계획에 담긴 지역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위협(T)	ST전략	WT전략
		-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예술인 복지 및 삶의 기반 강화 정책 정교화 - 광역-기초문화재단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변화하는 중앙의 예술인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 -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사업을 다각화하여 타 지역으로의 예술인 이탈 방지	- 예술인의 창작·교류 활동 및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을 확충해 지역에서의 예술활동 지속과 안정적 창작 기반 조성에 기여 - 대상별 예술인 지원사업을 다양화·정교화하여 예술인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인천으로의 유입은 유도

(그림Ⅲ-2)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전략 방향

출처 : 「인천 예술인 플랜(2022~2024) 수립 연구」, 인천문화재단, 2021, 170쪽

■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비전 및 목표

-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은 “예술인이 존중받고 성장하는 도시, 인천”이라는 비전 아래 4가지 목표와 8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음.



(그림Ⅲ-3)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기본 구상

출처 : 「인천 예술인 플랜(2022~2024) 수립 연구」, 인천문화재단, 2021, 170~172쪽

- 특히, 2021년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복지적 관점을 탈피하고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맥락을 제공함.

■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추진과제

-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은 8대 추진전략에 따라 24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추진과제는 다시 70여 개의 세부 사업으로 나뉨.
- 각 세부 사업은 운영 실효성을 위한 통합·개편·일몰, 부서 변경 등 내·외부요인에 의해 추진 경과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과제 단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음.

<표Ⅲ-10>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추진과제 및 추진 경과

추진전략		추진과제		이행단계	추진경과
예술활동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	1-1	청년예술인 성장 지원확대	시급	○
		1-2	인천형 예술인 지원 체계 강화	시급	○
		1-3	예술활동 공간 지원	중기	○
정착성장	예술인의 예술생태계 정착과 성장 촉진	2-1	장르별 예술생태계 정착 지원	중기	○
		2-2	예술인 코칭·피칭 프로그램 운영	중기	△
		2-3	예술활동수당 도입 방법과 효과 분석	장기	△
네트워크	예술인의 교류 활성화	3-1	예술인 연구 공동체 지원	시급	△
		3-2	예술인 네트워킹 워크숍 및 캠프 운영	시급	△
		3-3	국내외 예술인 교류 지원	중기	△
예술환경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향상	4-1	예술인 신고·상담 지원	시급	△
		4-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제도 보완(신규)	중기	△
		4-3	예술인활동증명 및 예술인 고용보험 상담 지원	시급	△
예술가치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가치확산	5-1	사회적 참여적 예술기획 지원(신규)	중기	△
		5-2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	시급	△
		5-3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예술인의 역할 포럼 운영(신규)	중기	△
생활기반	예술인의 삶의 기반강화	6-1	예술인 주거 안정 지원(신규)	중기	X
		6-2	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지원	시급	△
		6-3	예술인 금융안정망 구축(신규)	중기	X
소통협력	예술인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	7-1	예술인 지원사업 플랫폼 운영(신규)	중기	△
		7-2	예술인 패널 구축화 활용(신규)	시급	X
		7-3	예술인이 참여하는 부서합동형 예술인정책위원회 운영(신규)	중기	X
추진기반	예술인 정책 추진기반고도화	8-1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위상강화	중기	X
		8-2	예술인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신규)	시급	X
		8-3	예술인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시급	△

출처 : 「인천 예술인 플랜(2022~2024) 수립 연구」, 인천문화재단, 「2023 인천문화재단 사업결과보고서」, 인천문화재단, 재구성

○ : 사업 수립과 시행, △ : 일부 미추진, 과반이상 중복·연계사업, X : 결과 부재하거나 과제가 다른 과제의 하위사업으로 운영된 경우

■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사업 내용 분석⁸⁾

① 예술활동 : 예술인의 예술활동증진 추진전략에 따른 사업 내용

- 청년예술인 및 인천형 예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예술활동 공간에 기반한 지원 사업 설계를 바탕으로 지역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 및 인천으로의 예술인 유입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Ⅲ-11> 예술인의 예술활동증진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1-1-1. 청년문화창작소 활성화	
청년문화창작소	- 청년문화창작소 공간 운영(미추홀문화회관 1층 및 2층 일부 사용) - 청년문화창작소 매개 예술기획 사업 <청년문화공간활성화-기획> 추진
1-1-2. 청년예술인 단체·활동지원	
청년창작활성화지원 (청년예술인창작지원)	- 청년 예술지원의 전문성 강화 및 특성화한 청년창작활성화지원 사업 신규 추진 (인천 청년문화 활성화 연구 제언 반영) · (2022) 청년예술가기획지원 -> (2023) 청년창작활성화지원
청년문화축제지원	- 청년예술인의 실험적 예술활동과 발전 과정 중심의 자기주도적 축제
청년역량강화사업	- 기존 청년문화창작소 기획사업(워크숍, 인천청년문화살롱, 인천청년별별 학교)을 통합·확대·개편하여 청년문화창작소 문화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다각화된 역량강화, 네트워킹 프로그램 제공 - 인천 청년문화 활성화 연구 제언을 반영한 사업 개편 · 사업대상청년 세분화 유형 개발 : 예술역량형, 실무역량형, 문화친화형
1-2-1. 성장단계별 예술활동 지원 및 연계성 강화	
예술창작생애지원	- 창작생애주기에 따른 신진 및 원로예술인 맞춤형 창작활동 지원사업 · (신진) 예술창작활동 3년 이하 예비예술인(기획자 및 독립큐레이터 포함) 대상으로 예술창작활동 지원 · (원로) 만7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 지원
1-2-2.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다각화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다각화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창작·향유교육 분야 지원 · 관내 장애예술인,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비영리법인·단체) 대상 공모 사업
1-3-1. 예술활동·연습공간 조성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	- 정기·수시 대관 운영을 기본으로 재단 지원사업 연계, 유휴공간 활용한 공연예술단체 창작 기회 제공
공연예술 연습공간 역량강화	- 인천공연예술 연습공간 공연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 공연예술인 역량강화, 소공연 제작,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개발 등
공연예술연습공간 기획지원	- 공연예술연습공간 기획지원사업 <도화가압장> · 지역기반 공연예술인의 교류와 창작기능이 강화된 플랫폼 마련 · 공연예술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운영 · 지역 기반의 프로젝트 탐구 주제 및 예술인 공모와 리서치 워크숍

8) 「2023 인천문화재단 사업결과보고서」를 기준 삼아 2021~2023년의 추진 내용으로 시점을 통일함. 이 후의 추진부서 변경이나 사업내용 통폐합·개편 등이 일어난 경우엔 세부 분석에서 별도로 다룸.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청년문화공간 활성화	- 인천 각지의 청년문화공간 운영자를 모집, 인천 7군구 내 청년문화 공간 조성 및 공간 내 별도 청년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시작공간 일부' 공간을 활용한 전시, 공연 등 장소 특정적 창작 프로젝트 진행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스작가지원 및 홍보	- 예술가에게는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시립미술관이 없는 인천시에서의 공립미술관 기능을 수행하며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을 운영 - (2023) 기관교류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만, 호주와 작가교환 진행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스-창제작프로젝트	- 입주작가 대상의 전시 혹은 워크숍 등 콘텐츠 생산과 발표 공간 지원
1-3-2. 창작공간 임대료지원확대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 지역 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거점 지원사업 · 2022→2023 중구 일대에서 동구, 미추홀구로 권역 확대(다년지원) · 맞춤형 지원 및 예술인의 공동 사업추진을 통한 문화자치 실현 · 공간·예술인·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조성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안정적인 창작기반 조성 목적, 작업실, 연습실, 등 공간의 연 임차료 지원 · 2023년 60개소 선정, 1개소당 480만 원 내
청년문화예술특화거리 청년 점점점	- 공모 선정된 프로젝트의 창작공간 12개월 임차료 및 프로젝트 활동비 · 2023년 7건 선정, 프로젝트별 2천~2천4백만 원 지원
청년문화공간 활성화	- 문화활동을 생산·향유할 수 있는 청년문화 공간 운영 및 활용 확대 - (2023) '시작공간 일부'와 연계사업 진행

② 정착·성장 : 예술인의 예술생태계 정착과 성장 촉진

- 생태계 관점에서의 예술 지원사업 설계로 예술인의 역량 강화, 예술활동 지속 기반 강화 방안 연구로 예술인의 지역 정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표Ⅲ-12> 예술인의 예술생태계 정착과 성장 촉진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2-1-1. 장르별 예술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설계와 추진	
예술창작 일반지원	- (2022)예술표현활동지원 : 세부분야별 지원을 통한 창작역량 강화 - (2023)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통한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의욕 고취
예술창작 집중지원	- 시각, 공연 분야 인천시 예술인의 창작준비과정부터 실연까지 다년(2년) 지원(개인·단체 차등지원)
2-1-2. 인천문화재단 '인천미술 활성화 기획지원사업' 확대	
미술활성화 기획지원	- 인천미술은행의 소개를 포함한 기획전시 개최 및 강화 수장고 운영
축제사업-아트마켓	- (2022) 트라이보울 야외 광장에서의 문화예술 마켓 기획 운영 - (2023) 트라이보울 기획단 사업 체계 구축으로 마켓별 콘셉트 명확화
2-1-3. 인천시·인천문화재단의 '상주예술인 지원사업' 확대	
레지던스작가지원 및 홍보	-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예술가 간담회, 창작 활동 지원, 기수별 예술가 소개 책자 및 결과보고 자료집 출판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레지던스창제작 프로젝트	- (2022) IAP 창제작 프로젝트 시각/공연/지역연구 지원 - (2023) IAP 창제작 프로젝트 시각(국내)/시각(국외)공연 지원
우리미술관 전시, 레지던스, 문화예술교육	- 예술성과 지역성 기반의 기획전시와 예술교육, 입주작가 육성 지원 · 우리미술관 전시 공모로 지역정서에 적합한 시각 예술 전시 개최 · 예술적 역량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미술인 1인 선정 및 지원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주민주체 전시회 개최
청년문화창작소	- '시작공간 일부' : 청년 창작자 및 기획자 대상의 공동운영단 모집구성 - 교육, 커뮤니티, 워크숍 등 문화예술 진입단계 청년 맞춤형 지원
2-2-1. 예술인 직무능력 향상 아카데미 / 2-2-2. 예술인 피칭 아카데미 운영	
교육 및 컨설팅지원	- (2022) 예술인지원센터-예술인아카데미-청년예술가 탐구지원 사업 - (2023)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예술인 실무능력, 창작컨설팅 등
청년역량강화	- (2022) 청년문화창작소 공동운영단 기획, 예비-선배예술인 협업 지원사업 진행 - (2023) 기존 사업 통합확대개편, 세분화한 청년 사업 대상 유형에 따른 맞춤형 사업 진행, 직접 기획>공모 / 단순 강좌>체험 위주 전환
2-3-1. 예술활동수당의 효과와 추진방안 분석	
예술인 이음카드	- 인천시 예술인 대상 인천예술인이음카드 발급 및 추가 캐시백 혜택 - 인천형예술인지원사업 선정자에게 전자화폐 사례비 지급

③ 네트워크 : 예술인의 교류 활성화

- 예술인 연구 모임, 국내외 네트워킹의 다방면 지원으로 예술인 교류 활성화와 예술적 경험의 확장을 목표로 함.
- 연구 지원, 예술인 주도 학습 등의 역량강화성 사업들은 청년역량강화, 예술창작 일반지원의 세부사업과 일원화하여 진행함.

<표Ⅲ-13> 예술인의 교류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3-1-1. 현장 밀착형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획 지원	
지역기반청년탐구지원	- 청년동네탐구생활 : 청년들의 인천 지역 탐구와 리서치를 위한 공모 프로젝트 활동지원 - (2022)'지역기반형 청년문화활동가 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 - 탐구 참여자와 에디터 참여자의 별도 선발 및 연계로 기록 및 홍보
청년역량강화	- 2-2. 청년역량강화 사업으로 일원화
예술창작일반지원	- 2-1. 예술창작일반지원 문화예술 연구/비평 사업으로 일원화
3-1-2. 예술인 주도 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역기반청년탐구지원	- 3-1-1. 청년동네탐구생활로 일원화
청년역량강화	- 2-2. 청년역량강화 사업으로 일원화
예술창작일반지원	- 2-1. 예술창작일반지원 문화예술 연구/비평 사업으로 일원화
3-1-3. 소규모 예술인 연구 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지역기반청년탐구지원	- 3-1-1. 청년동네탐구생활로 일원화
청년역량강화	- 2-2. 청년역량강화 사업으로 일원화
예술창작일반지원	- 2-1. 예술창작일반지원 문화예술 연구/비평 사업으로 일원화
3-2-1. 예술인 네트워킹 워크숍 운영	
청년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 공연예술연습공간 역량강화 및 기획지원	- 지역 청년 창작자(단체)와 협력한 인천 청년문화 공론장 운영 - 청년예술인 중심의 협의체 및 예술가와 시/재단 연계 테이블 구축 - 청년예술인 및 활동가 풀 발굴, 청년 창작자 네트워킹 행사 - 청년 문화예술 단체(공간)와 협업 사업 추진(*단체명 불모지) - (2023) 인천 청년 예술가 네트워킹 축제 <화양연화> - (2022) 인천청년문화활성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3-2-2. 예술인 네트워킹 캠프 운영	
	미추진
3-3-1. 국내외 예술인 교류협력 지원	
예술창작일반지원	- 예술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예술인 간담회 정기 개최
청년역량강화	- 2-2. 청년역량강화 사업으로 일원화
청년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	- 3-2. 예술인 네트워킹 사업으로 일원화
레지던시 프로그램 - 작가 지원 및 홍보	- 국내 예술가 해외 레지던시 참여 지원 2인(호주, 대만) - *2020년 선정되었으나 팬데믹으로 잠정연기, 2023년 실행 완료
3-3-2. 예술인 교류공간 조성	
청년문화창작소	- 인천 청년문화 공론장 진행 등 매개 및 교류 활동 34건 진행
청년문화공간 활성화	- (2022) 청년문화 공간조성, '시작공간 일부' 공간 개방
레지던시작가 지원 및 홍보 레지던시-창제작 프로젝트	-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작가 오리엔테이션 및 입주 작가 간담회 운영

④ 예술환경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향상

-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의 대응을 비롯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보완 등 지역 예술인이 주도적으로 직업적 권리의 향상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함.

<표Ⅲ-14>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향상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4-1-1.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전문상담 지원	
	미추진
4-1-2. 지역 예술계 불공정·부당행위에 대한 신고·전문상담 지원	
예술인 건강지원 예술인 권익보호	- 6-2. 예술인 신체적·정신적 건강지원 사업으로 일원화
4-2-1. 예술인 지위·권리 보장 관련 미비점 도출	
예술인 건강지원	- 6-2. 예술인 신체적·정신적 건강지원 사업으로 일원화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예술인 권익보호	
4-2-2. 예술인 지위·권리 침해 방지 제도 마련	
예술인 건강지원 예술인 권익보호	- 6-2. 예술인 신체적·정신적 건강지원 사업으로 일원화
4-3-1. 예술활동 증명 관련 상담 지원	
예술인 건강지원 예술인 권익보호	- 6-2. 예술인 신체적·정신적 건강지원 사업으로 일원화
4-3-2. 예술인고용보험 관련 상담지원	
예술인 건강지원 예술인 권익보호	- 6-2. 예술인 신체적·정신적 건강지원 사업으로 일원화

⑤ 예술가치 :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가치확산

- 사회적 이슈 연계 기획,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예술인의 역할 포럼 등 예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예술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표Ⅲ-15>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가치확산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5-1-1.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예술기획지원	
지역기반청년탐구지원	- 3-1. 예술인 연구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일원화 - 청년동네탐구생활 : 청년들의 지역 탐구와 리서치를 위한 공모 사업 - 탐구생활 에디터와 탐구 프로젝트 별도 선발 연계지원
문화기획 프로젝트	-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시민 주체의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 및 이슈 중심의 소통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 · (2022) 동네방네 아지트, 우주인 프로젝트, 시민문화활동 · (2023) 위 사업의 통합개편으로 '문화기획프로젝트' '시민 X' 도입, 각 거점형/활동형/협력형으로 유형별 지원사업 진행
5-1-2.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인천 예술로' 추진	
	미추진
5-2-1. 시민 대상 예술의 사회적 가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정책 네트워크 운영	- (2022) 문화정책 아카데미 : 인천문화재단 직원을 포함, 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예술가 대상의 문화정책 관련 열린 강좌 운영
5-2-2. 기업·기관 근로자 대상 예술의 사회적 가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추진
5-2-3. 문화기반시설에서의 인천이음 카드 캐시백 비율 상향	
예술인 이음카드	- 인천시 이음카드 기본혜택에 5% 추가 캐시백, 우편 발급, 온라인 재발급 등으로 편의성 증진 및 발급률 확보 *문화기반시설에 따른 추가 혜택은 없음.
5-3-1. <지속 가능한 발전과 예술의 역할> 포럼 운영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문화정책 네트워크 운영	-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예술 실천의 결합을 선도하는 내용의 포럼, 토론회, 초청 강연 개최
지역문화교류	- 3-3-1. 국내외 예술인 교류협력 지원·'평화네트워크' 사업으로 일원화 · 국립대만해양대와 문화예술교류 공동의제 도출 간담회 등 개최 · 2025년 이후 인천-진먼다오 예술 네트워크 등 국제사업 지속성 제고

⑥ 생활기반 : 예술인의 삶의 기반강화

-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주거, 건강, 저금리 대출 지원 등 삶의 기반 강화, 인천도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매입임대주택사업, 협동조합주택 조성 등으로 주거 안정을, 심리상담과 의료지원 확대, 금융 안전망 구축 등으로 생활기반 전반을 강화하는 것을 과제로 삼음.
- 건강지원은 ④ 정착·성장 과제에서 예술인 권익보호와 건강지원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진행하였으며, 주거 안정과 금융안전망 구축은 미추진함.

<표Ⅲ-16> 예술인의 삶의 기반강화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6-1-1. 예술인 대상 매입임대주택 사업시행	미추진
6-1-2. 예술인 협동조합주택 조성	미추진
6-2-1. 인천문화재단의 '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사업의 확대	
예술인건강지원 예술인권익보호	- 건강지원(종합건강검진, 심리상담) · 의료기관 협력 포함, 예술인건강검진지원 체계 확립(전국 유일)으로 예술인 종합건강검진 시행 · 맞춤형 심리상담(개인, 가족, 집단) 프로그램 지원→상담센터 확대 추세 · (2022) 예술인 육아 서로돌봄 지원사업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상담창구홍보운영 · 법률 전문가 위촉 운영으로 불공정, 저작권 등 상담 전문성 확보 · 서면·유선·대면 중 필요 방식 맞춤형 상담 진행 · 예술활동증명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현황 조사 실시
6-2-2. 인천문화재단의 '인천예술인 의료지원'사업의 확대	
예술인 건강지원	- 4-1. 예술인건강지원/예술인권익보호 사업으로 일원화
6-3-1. 생활안정자금 및 창작자금 대출 지원	
	미추진

⑦ 소통협력 : 예술인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 예술인 지원사업 정보 플랫폼 운영, 예술인 패널 구축, 예술인이 참여하는 부서협력 정책위원회 조직 등을 통해 정책의 홍보와 예술인 당사자성을 강화하고자 함.
- 인천 예술인 패널 구축으로 예술활동증명(예북) 운영방식 개선을 협의하는 과제를 시급으로, 부서협력형 정책위원회와 지원사업 플랫폼 운영을 중기로 설정하였으나, 점검 시점(23년 5월)엔 지원정보 플랫폼만 부분 진행함.

<표Ⅲ-17> 예술인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7-1-1. 예술인 지원정보 플랫폼 운영	
문화정보화 사업	- 인천문화재단 통합 홈페이지 및 통합 포털 구축방안 추진 · 인천문화재단 통합포털은 2024년 연말 오픈 예정
인천문화정보 아이큐	- <인천문화정보아이큐>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운영 · 인천시 내 문화예술정보 수집 및 등록 · 인천문화재단 통합포털 구축 시 연계를 위한 시스템 전환 필요
7-2. 예술활동 증명 운영방식 개선 협의 / 인천 예술인 패널 구축 및 활용	
	미추진
7-3. 인천시 부서협력형 예술인정책위원회 조직운영	
	미추진

⑧ 추진기반 : 예술인 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 인천예술인지원센터의 위상 강화, 중앙-광역-기초 간의 예술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예술인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예술인 정책 추진기반을 고도화 하고자 함.
- 문화정책 기획연구 사업 중 일부를 연구과제 공모 사업으로 진행했으나 효과가 미비하여 폐지하였고(2023), 자체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
- 8-1~2에 해당하는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위상 강화>와 <예술인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과제는 사업화되지 않았으나, 2023년 기준으로 문화정책 기획연구 사업 내에서 관련 연구 4건을 진행함.

<표Ⅲ-18> 예술인 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8-1-1.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미추진
8-1-2. 인천예술인지원센터의 인력·조직·예산·역할 단계적 확대	
	미추진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8-2-1. 광역-기초문화재단 예술인 정책 네트워크 구축	미추진
8-2-1. 광역 예술인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미추진
8-3-1.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주기 조성	
문화정책 기획연구	- 인천 문화 및 문화정책 연구과제 공모 및 지원(폐지) · 인천학연구원과 협약을 통한 공동추진 - 문화정책연구 추진(2023년 기준) ·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 인천문화재단 조직관리 개선제도 도입방안 연구 · 인천문화재단 홍보 컨설팅 용역 · 인천 대표축제 추진방향 설정 조사.연구
8-3-2. '2023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시행'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문화정책 기획연구	- 8-3. 문화정책 기획연구로 일원화

4)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2022~2024) 분석에서 드러난 성과와 한계

■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사업 성과

① 선도적으로 '예술인복지'가 아닌 '예술인 정책'으로 접근

- 인천시는 광역 지자체의 예술인복지 관련 조례 제정을 선도한 지역으로, 제1차 예술인복지 플랜을 설계한 초기부터 '예술인 복지'에 국한하지 않는 포괄적인 예술인 정책을 지향함.
- 이는 사업 방향에서 드러나는데, 제1차 예술인복지 플랜의 사업 방향은 '예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넘어 도시에서의 예술인의 삶과 활동 지원'이었으며,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증진을 통한 안전망과 지속성 강화'임.
- 이러한 정책 설계 구조는 인천지역에 예술생태계를 구축 혹은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관점이며, 포괄성과 종합성을 유지하는 것은 예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긍정적임.
- 따라서 인천 예술인 플랜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영역과 예술창작 지원의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인천시 예술생태계의 기반과 여건, 활동과 확장 등의 영역을 아우르게 됨.
-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영구조와 인력이 구축되어야

하며, 구조와 인력이 미흡할 때 미추진 사업이 속출할 위험이 있음.

② 예술인 이음카드,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 사업의 효과성 증명

- 인천시의 예술인 관련 사업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와 예술인에게 실제적 효용감을 주는 사업은 예술인 이음카드 사업으로,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추진과정에서 통합된 건강지원사업 역시 예술인들의 참여도와 만족감을 통해 효과를 확인했으며, 다른 지역에도 모범 사례가 됨.
- 또한,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 역시 창작기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효과성이 높게 평가됨.

<표Ⅲ-19> 제2차 예술인 플랜의 효과성이 높은 사업

사업명	추진목적
예술인이음카드	- 인천지역화폐 인천e음 기반으로 예술인 맞춤형 5% 추가캐시백 제공 - 인천예술인이음카드와 연계해 지원사업 단체대표의 사례비 지원
건강지원 (종합건강검진)	- 협력검진센터를 지정하여 1건당 300,000원 범위 양질의 검진 혜택 제공
건강지원 (심리상담)	- 직업 예술인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 구성하고 심리상담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지원	- 인천 내 연습실, 작업실, 사무실 등 공간 임차료 지원을 통한 예술인 및 단체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 조성 - 연 임차료의 50% 범위 (1개소당 최대 480만원) 지원

③ 현장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 인천시는 제1차 인천 예술인복지 플랜과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은 추진기간 중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2020년~2022년)에 신속히 대응하는 현장성을 보여줌.
- 특히, 코로나로 인한 문화예술계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개발하여 지원하였으며, 이후에 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함.
- 제도화된 예술인 정책인 이음카드는 그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한 예술인 건강검진 지원체계는 예술인 종합검진과 심리상담 등을 포괄하는 우수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음.

■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해결 과제

① 예술인 플랜 추진과정에서 미추진 사업의 문제 노출

- 2차 예술인 플랜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통합 - 일원화 현상과 일부 사업

의 미추진 현상이 나타남.

- 사업의 통합 - 일원화 현상은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합리성을 꾀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이기보다 실행과정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업의 미추진이 지속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추진 사업은 대체로 재원확보와 인력충원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특성이 있음.
- 예술인 플랜의 수립에도 미추진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것은 일관성 있는 성과 축적이나 효과성 확장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표Ⅲ-20> 인천 예술인 플랜 미추진 사업

구분	미추진 사업
제1차 인천 예술인복지 플랜	- 여성예술인 창작지원 - 청년예술인 거주공간 지원 - 시민문화예술 교육 전용공간조성 - 인천 예술도서관 운영 - 예술인 피칭 프로그램 - 여성예술인 대표성 강화 - 예술인학습공동체 지원 - 예술전공 대학생진로교육 제공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 예술인 네트워킹 캠프 운영 -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전문상담 지원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인천예술로' 추진 - 기업·기관 근로자 대상 예술의 사회적 가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예술인 대상 매입입대주택 사업시행 - 예술인 협동조합주택 조성 - 생활안정자금 및 창작자금 대출 지원 - 예술활동 증명 운영방식 개선 협의 / 인천 예술인 패널 구축 및 활용 - 인천시 부서협력형 예술인정책위원회 조직·운영 -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인천예술인지원센터의 인력·조직·예산·역할 단계적 확대 - 광역·기초문화재단 예술인 정책 네트워크 구축 - 광역 예술인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출처 : 인천문화재단, 2023년 사업결과보고서 재구성

② 예술인 플랜 사업추진 체계의 혼선

- 예술인 플랜은 인천시가 수립하는 계획이지만, 실행사업 대부분은 인천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따라서, 예술인 플랜에 의한 사업은 추진기관인 인천문화재단의 발전계획이나 인천시 시정계획과 맥락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지속적인 예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예술인 플랜과 충돌되는 지점이 발생하기도 함.
- 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통합이나 일원화 등으로 확장 혹은 축소되는 현상을 낳게 하는데, 이로 인해 예술인 플랜의 위상과 사업의 일관성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③ 사업의 중복배치, 연계사업 구성 등으로 사업 구조 파악과 성과분석 난해

- 제2차 예술인 플랜을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사업이 각각 다른 카테고리에 편입되는 등 중복으로 배치된 경우가 많으며, 다른 영역의 사업이 연계되어 있기도 함.
- 예술인복지 중심이 아닌 예술인 정책으로서 포괄성과 통합성을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예술인 플랜 본연의 사업영역과 다른 영역과의 연계 지점이 불투명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는 예술인 플랜의 추진 현장에서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판단되며, 기존 인천문화재단에서 다루지 않던 사업영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예술창작지원사업이나 창작공간 지원 및 교류 사업에서 일어나는 현상임.
- 이는 비단 인천 예술인 정책에서만 문제가 아니므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한 사업의 배치 작업이 필요함.

2. 2023년 예술인 실태조사의 분석 및 주요 이슈

1) 인천시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현황

■ 전국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현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전국 예술활동증명 현황을 인천 예술인 플랜 주 기인 2018년, 2021년, 2024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경 남시> 인천시> 전북 순으로 많으며, 인천은 꾸준히 전국 상위 5위 수준을 유지함.
- 인천시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은 3년 단위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4년은 2018 년에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음.

<표Ⅲ-21> 전국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현황

구분	2018년(명)	구성비(%)	2021년(명)	구성비(%)	2024년(명)	구성비(%)
전국	55,177	100.0	112,456	100.0	180,465	100.0
서울특별시	24,534	44.5	42,881	38.1	65,007	36.0
부산광역시	3,450	6.3	7,280	6.5	9,849	5.5
대구광역시	1,320	2.4	3,206	2.9	5,448	3.0
인천광역시	2,225	4.0	4,786	4.3	8,163	4.5
광주광역시	948	1.7	2,369	2.1	4,388	2.4
대전광역시	1,087	2.0	2,979	2.6	4,771	2.6
울산광역시	863	1.6	1,616	1.4	2,358	1.3
세종특별자치시	114	0.2	714	0.6	1,042	0.6
경기도	12,804	23.2	25,285	22.5	43,368	24.0
강원특별자치도	844	1.5	2,475	2.2	3,917	2.2
충청북도	607	1.1	1,913	1.7	3,394	1.9
충청남도	610	1.1	1,697	1.5	3,581	2.0
전북특별자치도	1,324	2.4	3,378	3.0	6,065	3.4
전라남도	615	1.1	2,636	2.3	4,267	2.4
경상북도	638	1.2	1,708	1.5	3,386	1.9
경상남도	2,811	5.1	6,036	5.4	8,702	4.8
제주특별자치도	383	0.7	1,497	1.3	2,759	1.5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접속 2018.09.19., 2021.06.06., 2024.04.12.), <https://www.kawartist.kr>, 재구성

■ 인천시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현황

- 인천시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연령대를 살펴보면, 2018년, 2021년, 2024년 모두 30 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인천시 20대~30대의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은 점차 감소 추세이나, 50대 이상 예술 인은 점차 증가하여 고령화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표Ⅲ-22> 인천시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연령대

구분	2018년(명)	구성비(%)	2021년(명)	구성비(%)	2024년(명)	구성비(%)
합계	2,225	100.0	4,786	100.0	8,163	100.0
20대	477	21.4	1,007	21.0	1,404	17.2
30대	971	43.6	1,864	38.9	2,967	36.3
40대	418	18.8	902	18.8	1,494	18.3
50대	210	9.4	515	10.8	915	11.2
60대	91	4.1	343	7.2	911	11.2
70대	45	2.0	115	2.4	366	4.5
80대	13	0.6	40	0.8	106	1.3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접속 2018.09.19., 2021.06.06., 2024.04.12.), <https://www.kawfartist.kr>, 재구성

- 인천시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의 활동분야는 음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증가 추세도 다른 분야보다 압도적임.
- 이어서 미술, 연극, 문학의 비중이 높으며, 그동안 등록된 건축 분야 예술인이 없었으나 2024년에 2명으로 나타남.

<표Ⅲ-23> 인천시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분야별 현황

구분	2018년(명)	구성비(%)	2021년(명)	구성비(%)	2024년(명)	구성비(%)
합계	2,225	100.0	4,786	100.0	8,163	100.0
문학	192	2.4	401	4.9	787	9.6
미술	353	4.3	723	8.9	1,360	16.7
사진	28	0.3	54	0.7	113	1.4
건축	0	0.0	-	0.0	2	0.0
음악	487	6.0	1,387	17.0	2,640	32.3
국악	63	0.8	162	2.0	263	3.2
무용	68	0.8	138	1.7	218	2.7
연극	404	4.9	661	8.1	859	10.5
영화	257	3.1	404	4.9	529	6.5
연예	148	1.8	329	4.0	582	7.1
만화	100	1.2	196	2.4	322	3.9
복수	125	1.5	331	4.1	488	6.0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접속 2018.09.19., 2021.06.06., 2024.04.12.), <https://www.kawfartist.kr>, 재구성

2)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의 개요

■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목적 및 개요

- 인천시는 조례에 따라, 2018년과 2021년에 예술인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2023년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에 앞서 세 번째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음.

<표Ⅲ-24> 3차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조사대상	인천문화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예술인	인천 예술인이음카드 발급자 ⁹⁾
유효표본	1,010명	
표본추출	조사대상자(모집단) 중 설문에 응답한 예술인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전화조사 및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23년 7월 24일(월)~8월 25일(금)	
조사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출처: 「2023 인천예술인 실태조사」, 인천시, 2023, 3쪽

■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항목

-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의 항목은 2018년, 2021년, 2023년 모두 총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의 항목과 2023년 조사항목 간에 다소 변화가 있음.
- 예술노동은 예술노동 및 예술계 부당대우로 확대되었으며, 예술정책 및 만족도는 예술정책·사업 수요 및 만족도로, 평균소득은 생활여건 및 소득으로 확대되었음.

<표Ⅲ-25> 2018년, 2021년, 2023년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항목

2018년(1차)	2021년(2차)	2023년(3차)
- 예술활동 (6문항) - 예술환경 (6문항) - 예술노동 (7문항) - 생활 및 복지 (5문항) - 예술정책 및 만족도 (4문항) - 평균소득 (4문항)	- 예술활동 (7문항) - 예술환경 (2문항) - 예술노동 및 예술계 부당대우 (8문항) - 사회보장 및 건강 (7문항) - 예술정책사업 수요 및 만족도 (11문항) - 생활여건 및 소득 (7문항)	- 예술활동 (7문항) - 예술환경 (2문항) - 예술노동 및 예술계 부당대우 (8문항) - 사회보장 및 건강 (7문항) - 예술정책사업 수요 및 만족도 (11문항) - 생활여건 및 소득 (7문항)

출처 :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인천광역시, 2018, 217쪽~224쪽

「인천 예술인 플랜(2022~2024) 수립연구」, 인천문화재단, 2022, 247~257쪽

「2023 인천예술인 실태조사」, 인천시, 2023, 247~257쪽

- 3차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응답자 일반현황을 포함하여 총 7개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총 42문항으로 구성됨.

9) 인천e음카드는 인천지역의 지역화폐 제도로서 지역에서의 구매가 캐시백 형태로 지급되는 카드임. 이 카드의 골격을 기본으로 예술인은 추가 5%의 캐시백을 해주는 것이 예술인 이음카드제도임. 예술인 이음카드 발급 대상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이나 조례상의 인천 거주 예술인에 국한하지 않고, 거주자, 출생자, 인천 소재 학교 재학/졸업자, 3년 이상의 활동을 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예술인의 기준을 확대 적용하고 있음. 2024년 5월 31일 기준 인천시의 예술인 이음카드 발급자는 총 3,237명으로 집계.

<표Ⅲ-26> 3차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1. 응답자 일반현황	- 성별 및 연령 - 거주지, 주 활동분야 - 예술활동 전체 및 인천지역 활동경력
2. 예술활동 (총7문항)	1. 예술분야에서 주로 종사하고 있는 직업 2. 지난 1년간 주 활동한 지역 3.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 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여부 5.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종사한 경험 5-1. 문화예술교육 주요 활동 시설 6. 지난 1년간 지원을 받거나 사업에 참여한 경험(창작공간, 문화사업, 사회복지) 7. 지난 1년간 창작활동 관련 정부나 지자체 기업 또는 개인 후원자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 7-1.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액수 7-2.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
3. 예술환경 (2문항)	8.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작업실)보유 여부 8-1. 개인창작공간의 소유형태 8-2. 개인창작공간의 위치 9. 공유 창작공간의 입주활동 의향 9-1. 공유 창작공간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면 그이유 9-2. 공유 창작공간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면 창작공간의 적정 월 사용료
4. 예술노동 및 예술계 부당대우 (8문항)	10. 전업예술인으로 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지의 여부 10-1. 예술분야의 고용형태 10-2. 예술활동 외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주된 이유 10-3. 예술활동 외 다른 일을 하고 있을시, 예술과 관련된 직종인지의 여부 10-4. 예술활동 외 다른 일을 할 시 예술활동과 생계에 도움이 되는 정도 11. 예술노동시 계약 체결 여부 11-1. 노동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 체결 형태(구두 또는 서면) 11-2.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11-3. 예술노동 시 불공정 계약 및 강요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 11-4.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이유 12. 지난 2년간 부당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 13.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의 조치사항 14. 부당거래 발생시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조치할 충분한 제도적 기반이 있는지의 여부 15. 예술계의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인식 16. 예술계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 17. 지난 2년간 1년 이상 예술 경력 단절 경험 17-1. 예술 단절 경험 이유
5. 사회보장 및 건강 (7문항)	18. 4대 보험 가입 여부 19. 고용보험 제도 인지 여부 20.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 유무 21. 지난 2년간 입었던 경험 여부 21-1. 업무상 상해로 인한 피해보상 22.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 23. 지난 2년간 중도 치료를 포기하거나 받지 못한 경험 23-1.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치료를 포기한 이유 24.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여부 24-1. 스트레스를 받는 주요 요인

구분	조사항목
6. 예술정책·사업 수요 및 만족도 (11문항)	25.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 25-1.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26. 예술활동 증명제도가 예술인 복지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27. 예술활동 및 생활만족도 28. 인천시 예술사업 및 지원에 대한 인식 29. 최근 인천시에서 추진된 주요 예술인 지원사업 인식 및 필요성 30. 향후 인천시에서 예술활동 지속 여부 30-1. 활동을 희망·계획하는 활동지역 30-2. 타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희망·계획하는 이유 31. 예술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필요성 32.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3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34. 예술인 이음카드 보유 여부 34-1 예술인 이음카드 사용 만족도 35.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재난 상황에서의 예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사업
7. 생활여건 및 소득 (7문항)	36. 함께 거주 중인 가족 및 거주 형태, 37. 거주하고 있는 지역 38. 거주지의 소유 형태 39. 지난 1년간 월평균 개인소득 39-1. 지난 1년간 월 소득에서 각 수입원이 차지하는 비중 39-2. 지난 1년간 전업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의 주된 수입원 40. 지난 1년간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기와 비교한 개인소득 변화 40-1.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감소율 40-2.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증가율 41. 소득이 예술가로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충분한지의 여부 42. 지난 1년간 월평균 예술활동 관련 지출액

출처: 「2023 인천예술인 실태조사」, 인천시, 2023, 4쪽, 재구성

3)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의 시계열적 분석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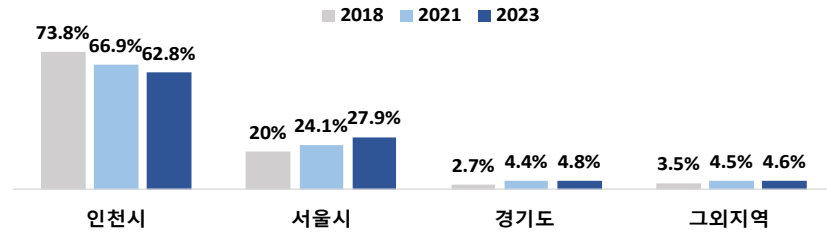
■ 인천시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현황

① 지난 1년간 주요 활동지역

- 2023년 실태조사에 응답한 예술인들의 최근 1년간 활동 지역은 ‘인천시’가 62.8%로 가장 많았으나, 2018년과 2021년도와 비교하여 지역 내 활동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① 인천지역이 지역 예술인 활동에 어려움이

10) 3번 실시된 인천예술인 실태조사(2018년, 2021년, 2023년)의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나, 각 조사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다르지 않음. 실태조사의 결과 중 의미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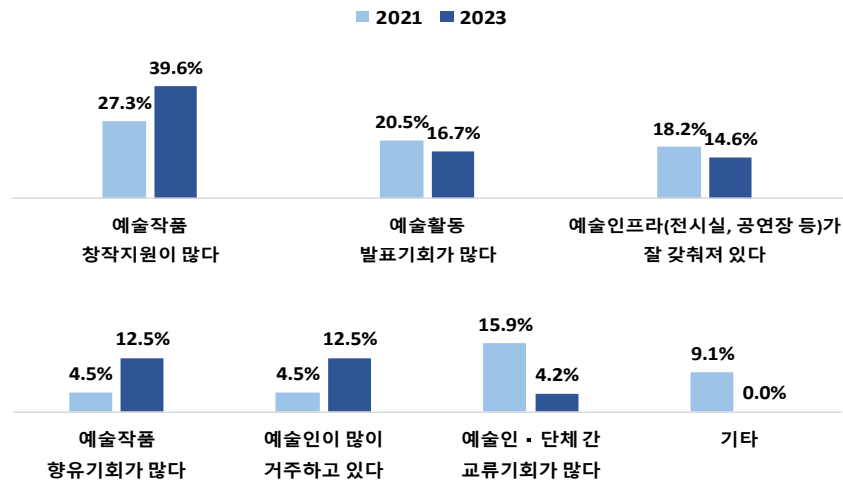
있다는 해석 ② 인천 예술인들이 타 지역에 진출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



(그림Ⅲ-4) 인천시 예술인 1년간 주요 활동지역 추이

② 타 지역으로 활동을 희망·계획하는 예술인들의 이유

- 타 지역으로 활동을 희망·계획하는 예술인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2021년, 2023년 모두 ‘예술작품 창작지원’, ‘예술작품 향유 기회’, ‘예술인 거주’ 등 예술생태계와 관련된 이유가 주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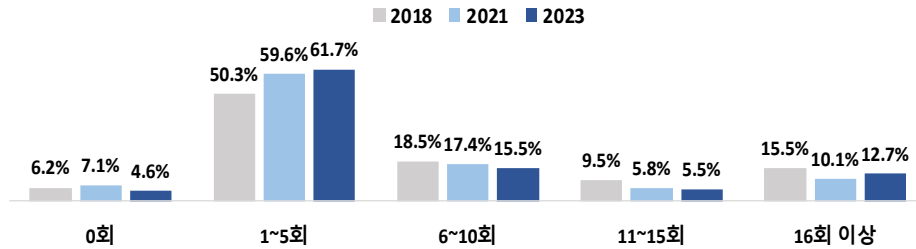


(그림Ⅲ-5) 타 지역 활동 희망·계획의 이유 추이

③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

- 2023년 응답 예술인의 최근 1년간 예술작품 발표 횟수를 보면, ‘1~5회’(61.7%)가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6~10회’(15.5%), ‘16회 이상’(12.7%) 순이었음.
- 대체로 2021년 코로나 시기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1~5회’와 ‘16회 이상’이 증가세를 보이는 대신 그 중간지대인 ‘6~15회’가 꾸준히 감소하여 격차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
- 작품의 발표와 참여에서 중간 활동 지대가 꾸준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 문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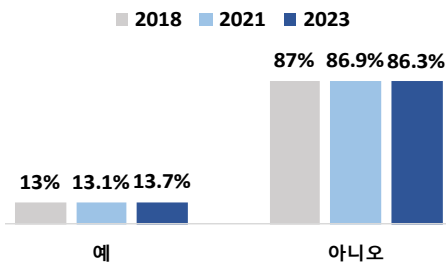
도 불구하고, 1~5회 작품 발표횟수 증가 폭이 다른 모든 경우의 감소 폭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활동 기회가 확장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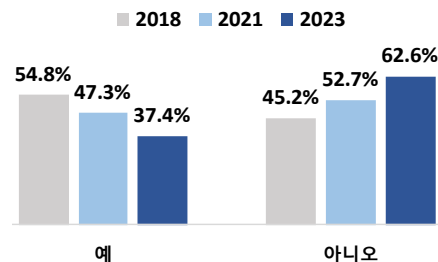
(그림Ⅲ-6) 최근 1년간 예술작품 발표횟수 추이

④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여부 및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 활동 종사 여부

- 2018년부터 2023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현황은 미미한 증가세인 것으로 확인되며, 2023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율은 13.7%로 낮은 수준임.
- 또한, 최근 1년간 문화예술교육 분야 활동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와 사회로 이분화되었던 문화예술교육정책 지형의 변화,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의 영역 혼란, 전반적인 예산 감소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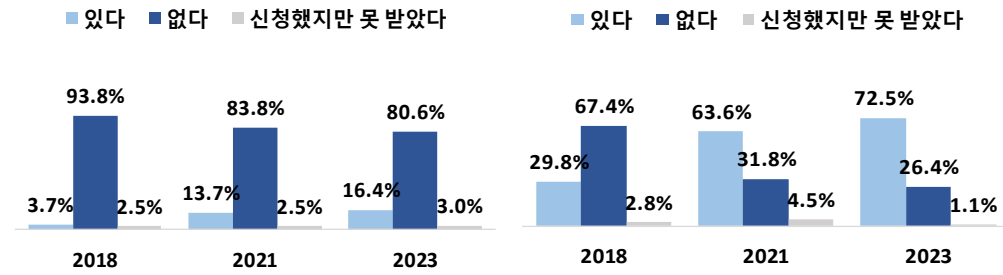
(그림Ⅲ-7)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추이



(그림Ⅲ-8)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 활동 종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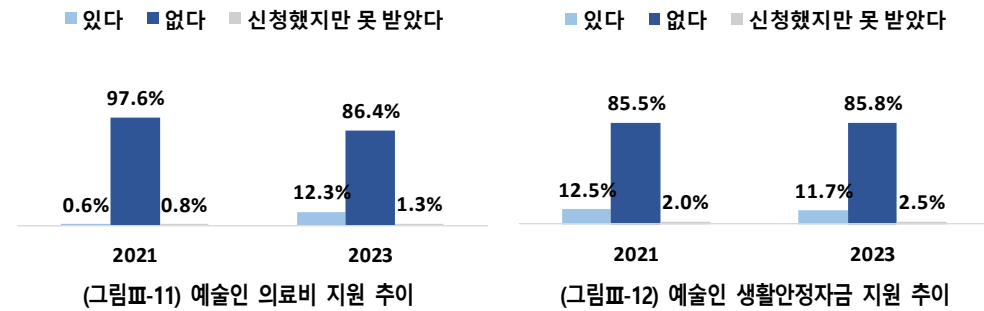
⑤ 지난 1년간 사회복지사업을 지원받은 경험

- 응답 예술인들이 사회복지사업을 지원받은 경험은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사업은 ‘예술인패스 카드 발급’으로 조사되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패스 카드 발급’의 효과적 확산은 매우 의미가 있지만, 여타의 예술인 사회보장 관련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현실은 주목해야 할 부분임.
- 또한, 인천시에 별도의 사회보장이나 금전적 지원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회보장 관련 제도와 효과적으로 연결할 것인가도 고민이 필요함.



(그림Ⅲ-9) 지난 1년간 예술인사회보험 지원 경험 추이

(그림Ⅲ-10) 예술인패스 카드 발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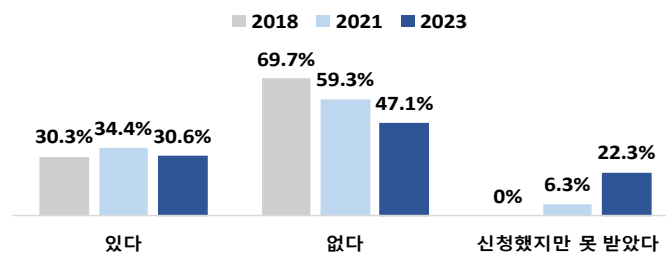


(그림Ⅲ-11) 예술인 의료비 지원 추이

(그림Ⅲ-1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추이

⑥ 지난 1년간 정부 또는 기업이나 개인 후원자의 창작활동 지원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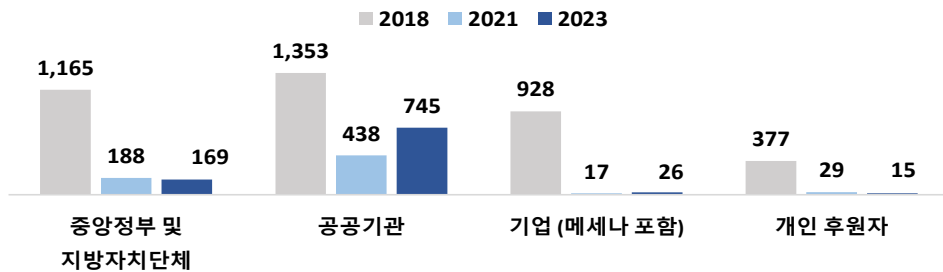
- 응답 예술가들이 지난 1년간 창작지원을 받은 경험은 2018년, 2021년 조사에서는 증가하고 있지만, 2023년에는 다시 2018년 수준으로 떨어짐.
- 그 대신 '지원받은 경우'와 '지원받지 못한 경우'는 줄어든 대신,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예술지원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음.
- 이는 예술인의 자의나 사업의 선정결과 여부에 우선하여, 1년간 창작지원 경험이 없는 비율이 69.4%(2023년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 이는 예술지원 규모의 전향적 확충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은 단지 예술인 지원을 넘어 시민과 도시의 문화자원 확충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임.



(그림Ⅲ-13) 정부 또는 기업이나 개인 후원자의 창작활동 지원 경험 추이

⑦ 지난 1년간 받은 창작활동 지원금액

- 지난 1년간 받은 창작활동 지원금액을 비교해보면, 2021년 증가한 부분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긴급 지원된 소액 다건 지원에 해당하는 지원으로 추측할 수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인 2023년에도 창작활동 지원금액 규모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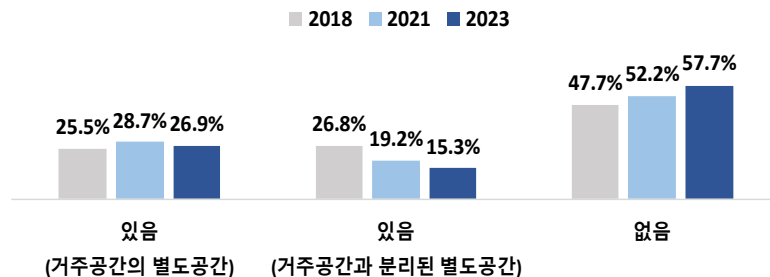


(그림Ⅲ-14) 창작활동 관련 평균 지원 금액 추이 (단위: 만 원)

■ 예술환경에 대한 분석

①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 보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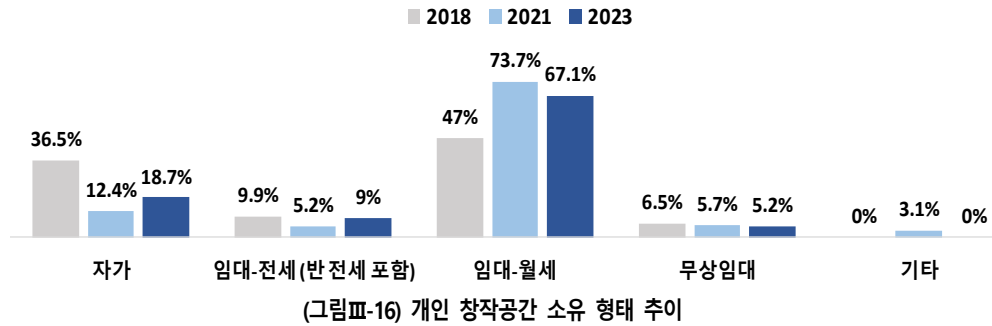
-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 보유 여부에 관한 응답 결과를 보면, ‘거주 공간’ 이든 ‘별도 공간’이든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창작공간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57.7%)이 높아지는 추세임.
- 다만, 개인 창작공간의 보유 여부가 공동창작이나 프로젝트 창작 등 다양한 창작 방법에 따른 공간 확보를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지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그림Ⅲ-15)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 보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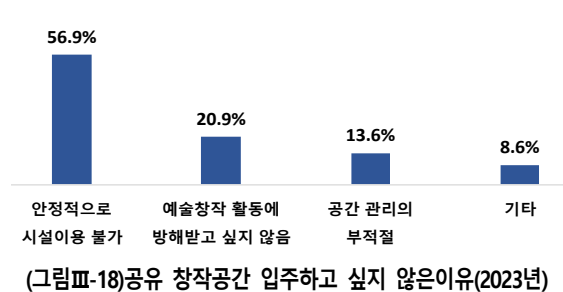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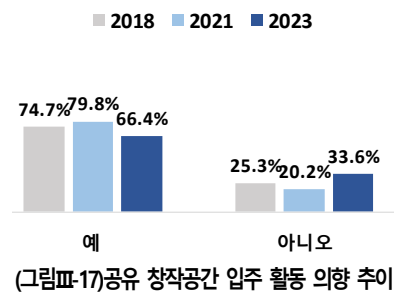
② 개인 창작공간 소유 형태

- 개인 창작공간의 소유 형태를 살펴보면,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2021년이 가장 불안정한 상황으로 보이며, 2023년 조사에서도 '월세 형태로 임대'한 경우가 67.1%로 나타나 불안정한 창작 여건 속에 있음을 확인함.



③ 공유 창작공간의 입주 활동 의향 및 이유

- 열악한 창작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3년 조사에서 나타난 공유 창작공간의 입주 의향은 2018년도와 2021년도에 비해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짐.
- 또한, 2023년 조사에서 입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안정적으로 시설 이용 불가'가 56.9%에 달하는데, 예술인 관점에서 공유 창작공간 운영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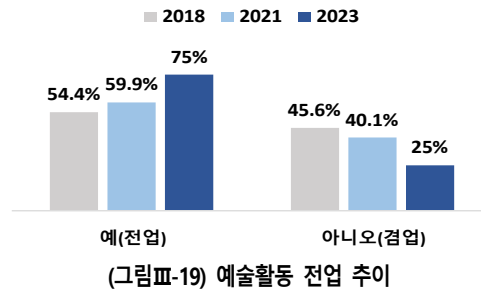


■ 예술노동 및 예술계 부당대우에 대한 분석

① 예술활동 전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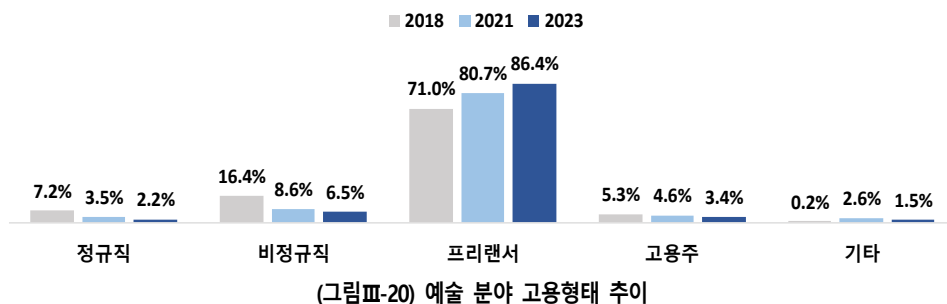
- 2023년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예술인들은 '전업 예술인'이라는 응답이 75%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이러한 추세는 2018년과 2021년 사이보다 2021년과 2023년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① 전업 활동을 해야만 활동의 지속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② 예술창작 활동과 겸업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은 상황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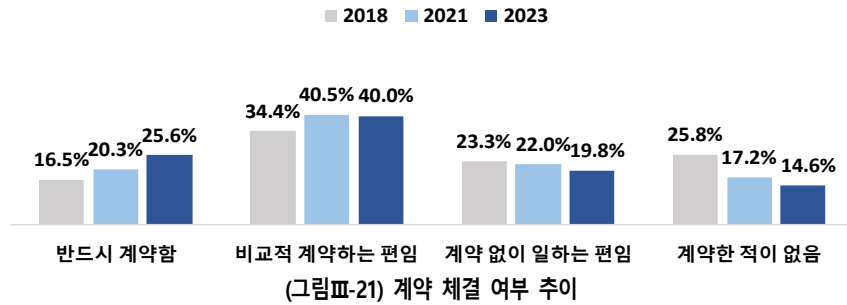
② 예술 분야 고용 형태

- 지난 1년간 전업 예술인들의 고용 형태를 보면, 2023년 응답자의 86.4%가 ‘프리랜서’라고 응답하였으며, ‘프리랜서’ 예술인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3개년 간 ‘정규직’ 비율은 감소하고 ‘프리랜서’ 활동 비율은 증가하는 것은 예술노동자 대부분이 불규칙한 노동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프리랜서 노동으로 노동의 정기성이나 규칙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은 위에서 확인된 전업 창작 예술인의 증가와 연결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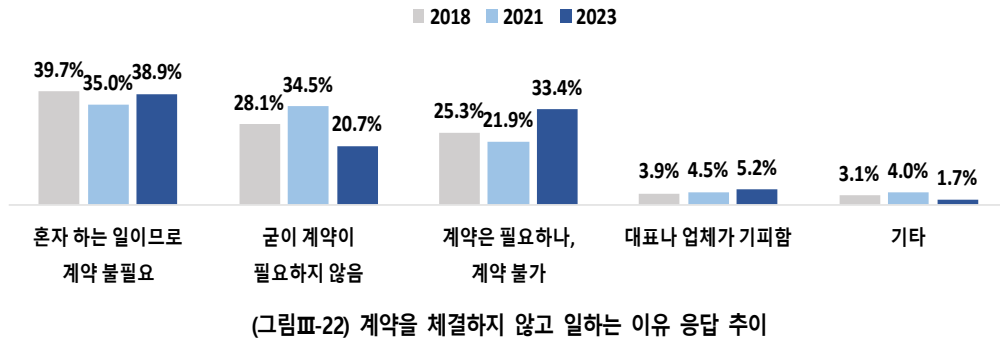
③ 예술노동 시 계약 체결 여부

- 예술노동 시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2023년 응답자의 25.6%가 ‘반드시 계약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점점 증가 추세로 노동계약 문화의 확산을 확인함.
- 반면 ‘계약 없이 일하는’ 비율도 낮지 않으며, ‘계약한 경험이 없는’ 비율도 비록 감소세지만 여전히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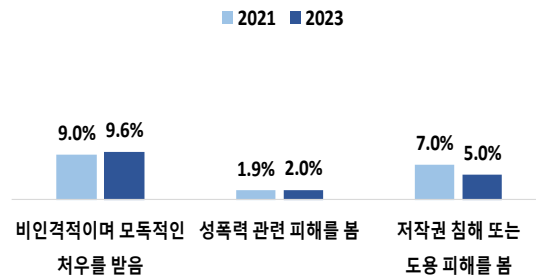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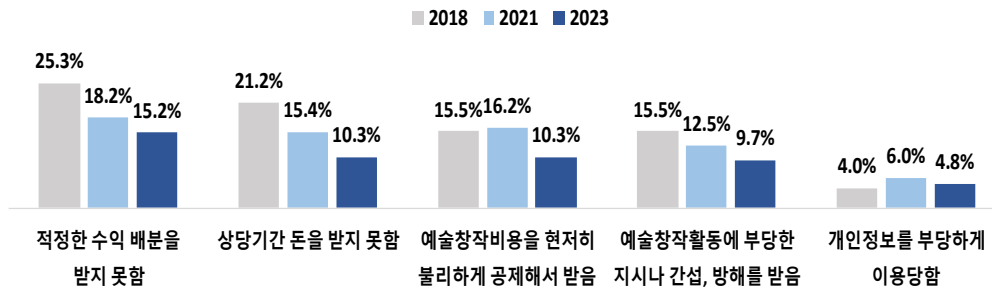
④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이유

-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로 ‘혼자 하는 작업이므로 불필요’(38.9%), ‘굳이 계약이 필요하지 않아서’(20.7%)로 나타나 작업의 특수성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계약이 불가능했다’(33.4%), ‘대표나 업체가 기피’(5.2%)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임



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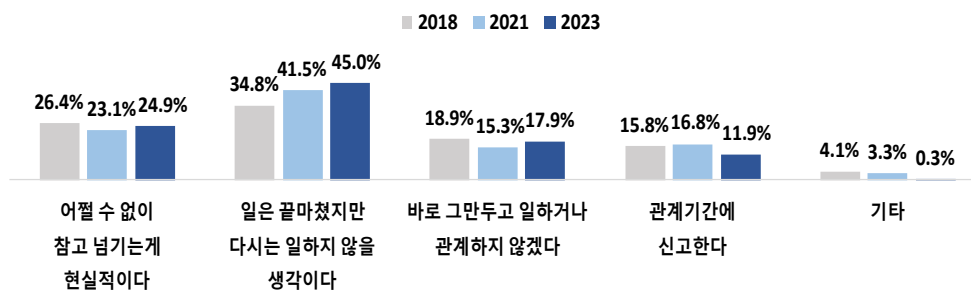
- 예술인이 겪은 부당한 대우 경험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적절한 수익배분을 받지 못함’과 ‘상당 기간 돈을 받지 못함’, ‘불리한 공제’로 나타남.
- 2023년 조사에서는 3개의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는데, 기존에 있던 항목인 ‘부당한 간섭’ ‘부당한 정보 이용’과 함께, ‘모욕적 처우’, ‘성폭력’, ‘저작권 침해’, 등 예술인 권리와 관련된 항목의 합계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Ⅲ-23)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추이

⑥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대처 방안

- 2023년 부당한 대우에 관한 대처 방안으로 ‘다시는 일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으며, 이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참는다’라는 응답과 ‘바로 그만둔다’라는 응답이 일정한 소강상태를 보이는 반면, ‘관계기관 신고’는 도리어 줄고 있는 것은 주목할 지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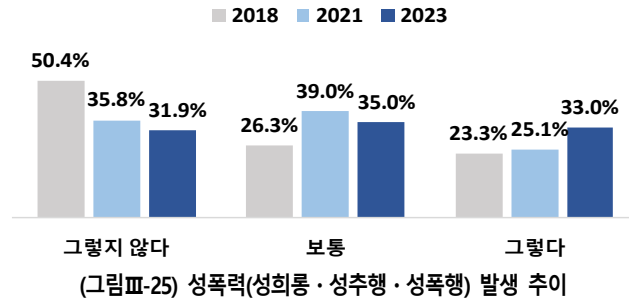
(그림Ⅲ-24)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대처 방안 인식 추이

⑥ 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폭행) 발생 여부

- 예술계 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폭행) 발생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가 꾸준히 감소하고 ‘그렇다’가 도리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이는 실제 사건의 증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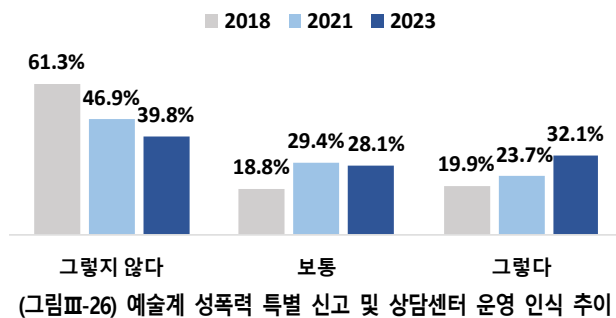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특히, 피해자의 권리 의식은 높아졌지만, 이런 의식의 변화를 감지 못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성폭력 사건이 결코 줄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꾸준히 교육, 캠페인, 예방제도 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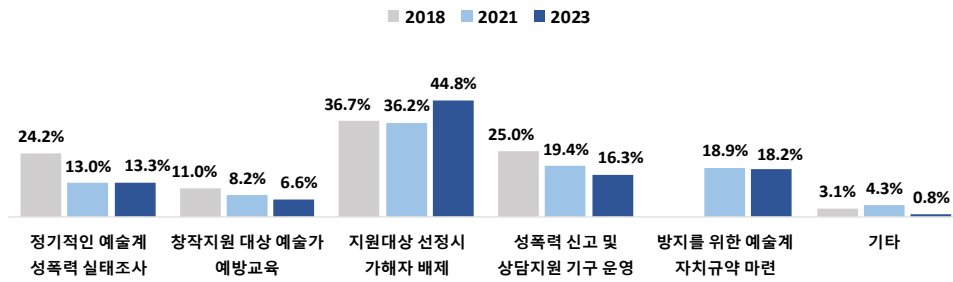
⑦ 예술계 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센터 운영 인식 수준

- 예술계 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센터 운영에 관해 인식하는 응답은 32.1%로 나타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예술계 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센터 운영에 관해 인식하지 못하는 비율이 비록 주는 추세라도 2023년 39.8%에 달해 꾸준한 홍보가 요구되고 있음.



⑧ 예술계 성폭력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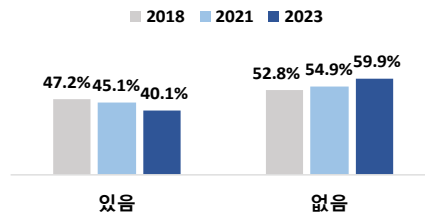
- 예술계 성폭력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선정 시 가해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3차에 걸쳐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음.
- 대체로 응답 예술인들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를 선택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 인지하는 수준은 낮게 나타나 꾸준한 홍보와 안내가 요구되고 있음.



(그림Ⅲ-27) 예술계 성폭력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 응답 추이

⑨ 경력 단절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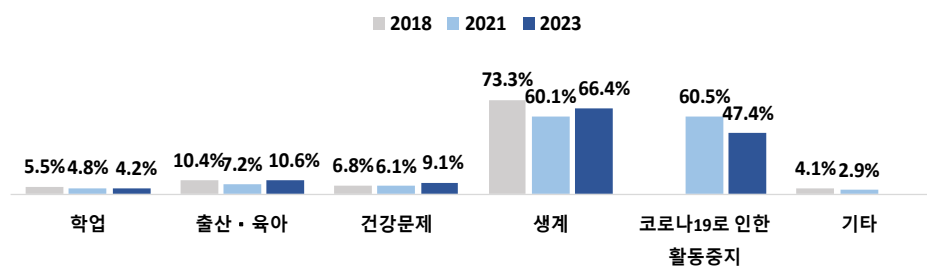
- 지난 2년간 1년 이상의 예술활동 중단이나 경력 단절을 겪은 경험 여부에 대해 2023년 조사에서 40.1%가 ‘그렇다’라고 응답함.
- 그러나 조사연도를 비교할 때 경력 단절의 경험이 꾸준히 줄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현상의 원인 파악을 통한 제도적 강화가 필요함.



(그림Ⅲ-28) 경력 단절 경험 여부 추이

⑩ 경력 단절의 이유

- 일반적으로 여성 예술인들은 긴 경력 단절의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2년간 1년 이상의 경력 단절은 많은 예술인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인들에게 경력 단절이 생기는 이유로 ‘생계’ 문제가 압도적이었으며, 코로나의 영향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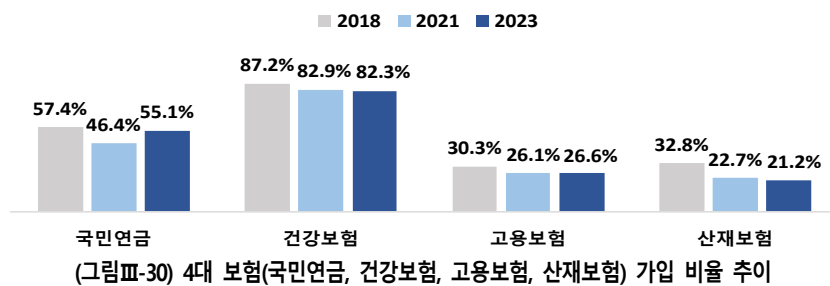


(그림Ⅲ-29) 경력 단절의 이유 추이 (복수응답)

■ 사회보장 및 건강 관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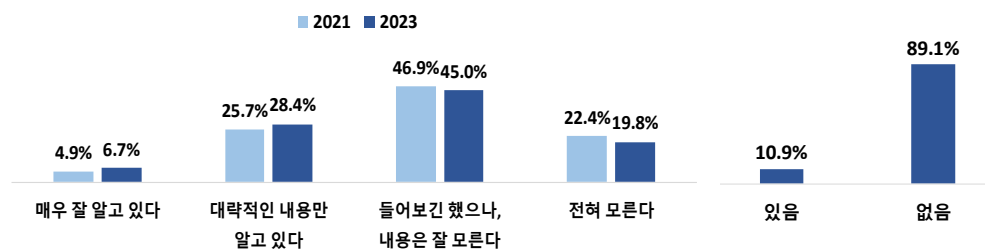
①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비율

- 2023년 실태조사에서 예술인들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55.1%), 건강보험(82.3%), 고용보험(26.6%), 산재보험(21.2%)으로 나타남.
- 3년 간격의 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추세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가입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임.



②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인지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 경험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한 응답을 보면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의 안정성이 낮은 예술인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89.1%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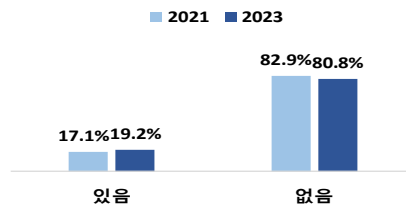
(그림Ⅲ-31)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인지 추이와 경험 추이

(그림Ⅲ-32) 최근 2년간 실업급여 수급(2023년)

③ 몸이 아팠지만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 여부

- 몸이 아프지만 치료를 포기한 경험 여부를 묻는 설문에 2023년 기준, 80.8%의 예술인들이 '없다'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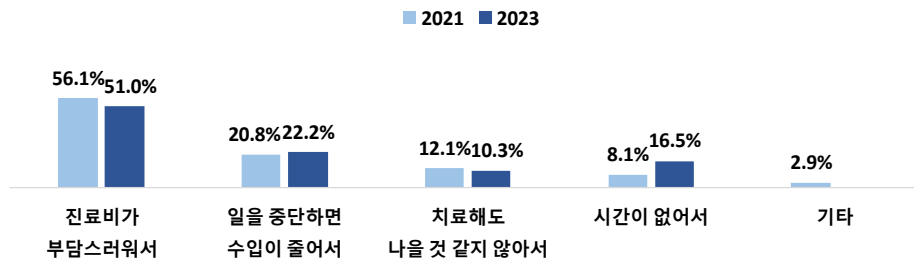
- 그러나 19.2%의 응답자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2021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Ⅲ-33) 몸이 아팠지만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 추이

④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치료를 포기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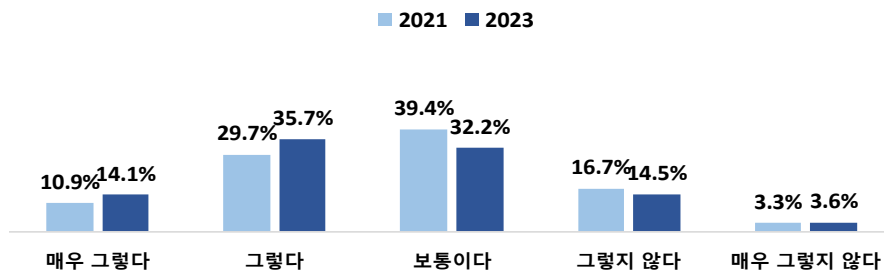
-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치료를 포기한 이유로는 ‘진료비가 부담스러워서’와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줄어서’라고 응답이 73.2%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자를 포함하면 89.7% 이상이 비용과 생계로 인해 진료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Ⅲ-34) 몸이 아팠지만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이유 추이

⑤ 예술활동 시 스트레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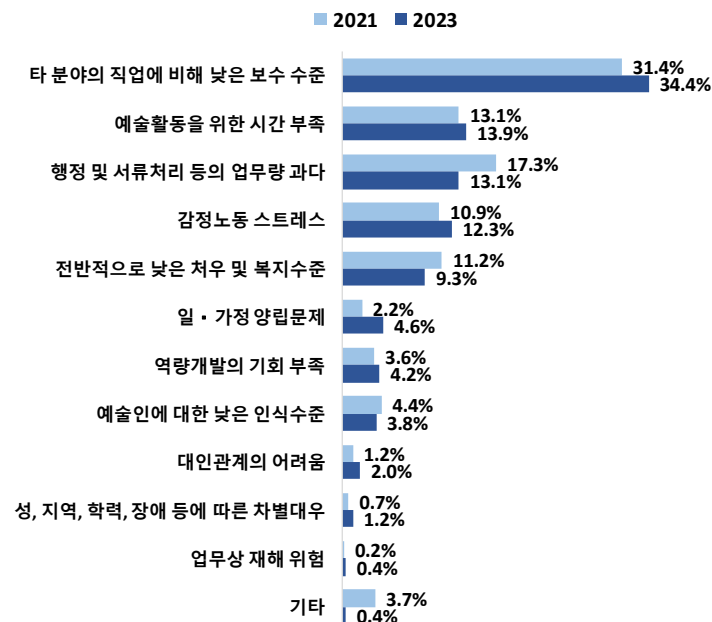
- 2023년 실태조사에서 예술활동 시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비율이 49.8%로 높게 나타남.
- 2021년의 팬데믹 상황 때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Ⅲ-35) 예술활동 시 스트레스 정도 추이

⑥ 예술활동 시 스트레스 주요 요인

- 예술활동 시 받는 스트레스 주요 요인으로서는 ‘타 분야의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 수준’을 꼽아, 예술인들의 경제적 지원이나 예술노동의 기회 지원 등 제도적 접근이 필요해 보임.
- 또한, ‘타 분야의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 수준’과 함께 ‘예술활동을 위한 시간 부족’, ‘감정 노동 스트레스’, ‘역량개발 기회 부족’ 등이 증가하고 있어 예술활동의 여건 개선이 더욱 중요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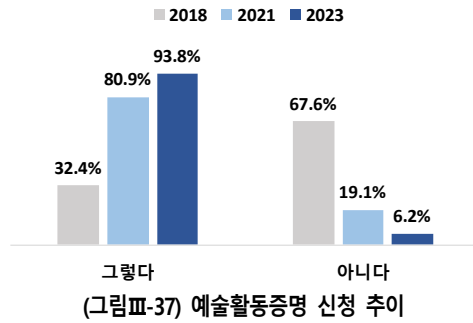


(그림Ⅲ-36) 예술활동 시 스트레스 주요 요인 추이

■ 예술정책·사업 수요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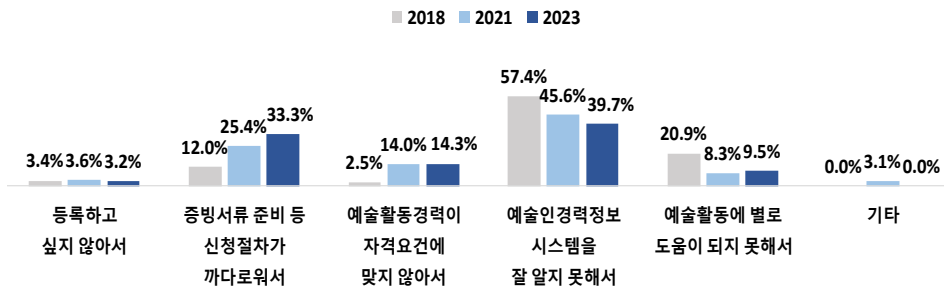
①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

-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와 관련하여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다는 응답은 93.8%로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함.
- 2018년 실태조사 실시 이후 3개년 간 예술활동증명 신청자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현재 10% 미만의 예술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도에 포섭되어 있지 않음.



②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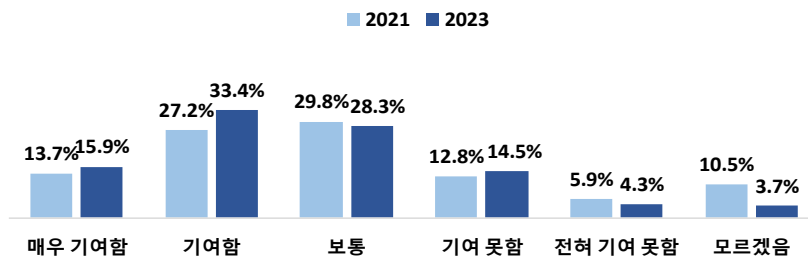
-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을 알지 못해서’, ‘증빙서류 준비 등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서’라는 답변이 높게 나타남.
- 또한, ‘증빙서류 준비 등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서’라고 답변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부분임.



(그림Ⅲ-38)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추이

③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예술인 복지정책 발전 기여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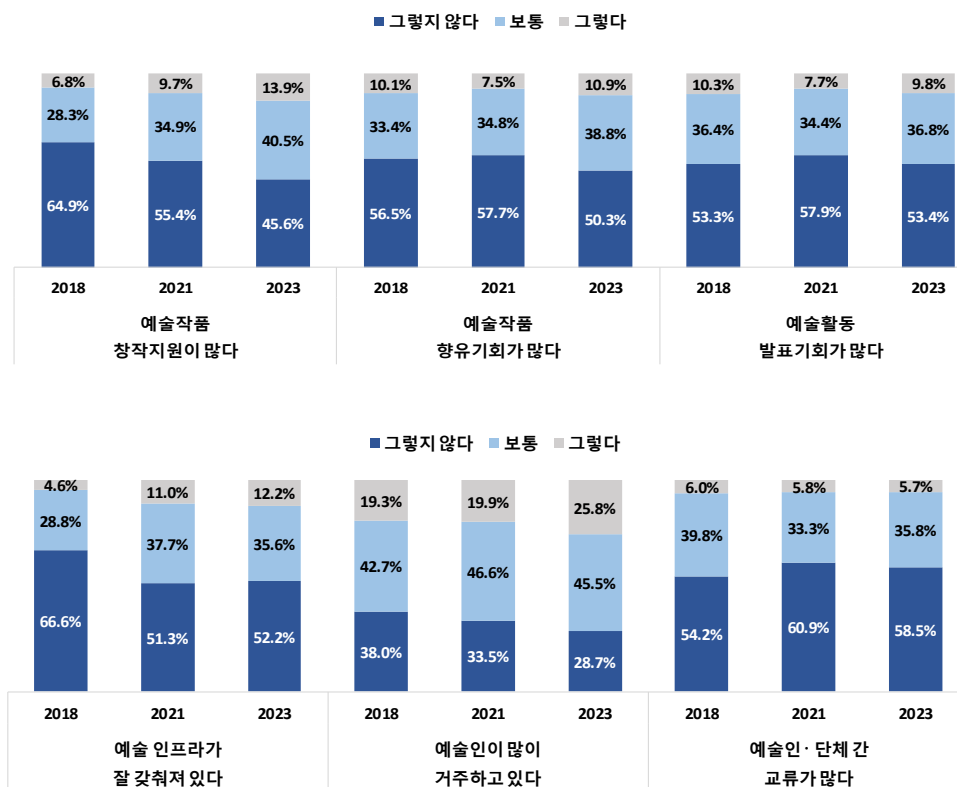
- 2023년 예술인 활동 증명 제도에 대한 예술인복지 발전의 기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49.3%의 예술인들이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함.
- 이는 2021년 설문조사 결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18.8%의 예술인들이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그림Ⅲ-39)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예술인 복지정책 발전 기여도 정도 인식 추이

④ 인천시 예술사업 및 지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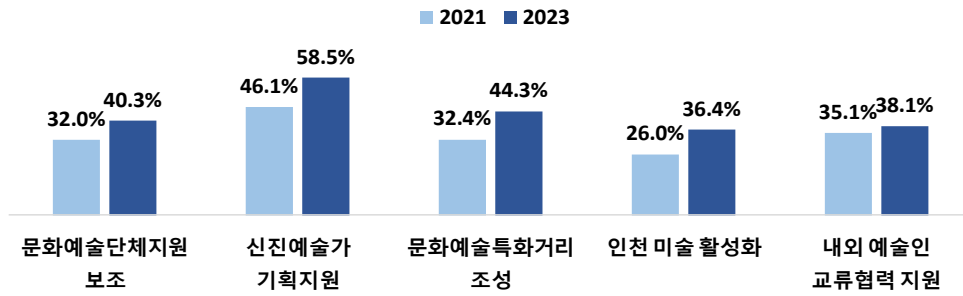
- 2023년 설문조사에서 인천시 예술사업 및 지원의 긍정성에 대한 동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음.
- 그러나 세 차례의 실태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창작지원’, ‘향유기회’, ‘예술인 거주’ 등에서 ‘그렇다’ 혹은 ‘보통’이 50%를 넘거나 육박하며 긍정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발표기회’, ‘예술인프라’, ‘예술인 교류’ 등의 항목에서도 긍정성이 조금씩 상승하거나 일정한 담보상태라는 점을 보면, 지표에서의 변화는 명확히 감지되고 있음.



(그림Ⅲ-40) 인천시의 예술사업 및 지원에 대한 동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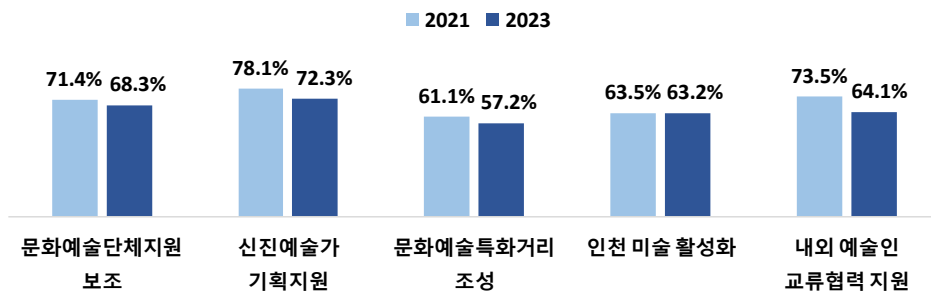
⑤ 최근 추진된 주요 예술인 지원사업의 인지 및 필요성

- 최근 추진된 여러 유형의 예술인 지원사업의 인지에 관한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인지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함.
- 그러나 2023년 실태조사에서 ‘신진예술가 기획지원’이 58.5%의 인지도를 보이는 것 외 대부분 사업에 대해 20%~40% 정도의 인지도를 보이는 것이 확인됨.



(그림Ⅲ-41) 최근 인천시에서 추진된 사업별 인지 정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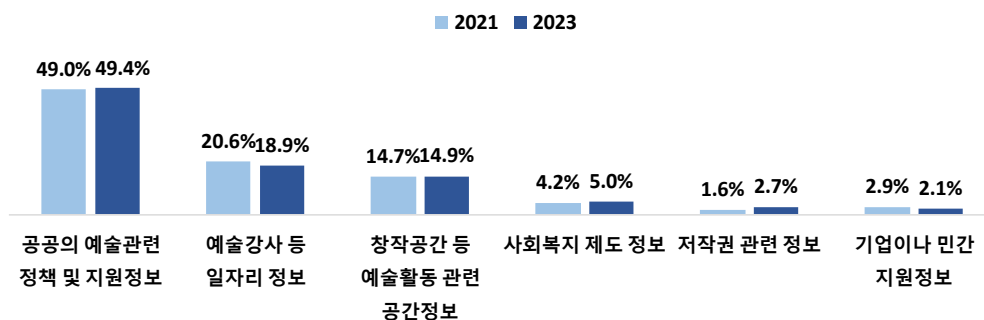
- 예술인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에서는 대부분 사업에 대해 50% 이상의 필요를 응답했으나 2021년에 비해 그 추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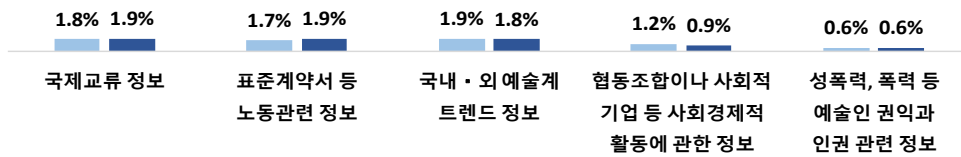


(그림Ⅲ-42) 최근 인천시에서 추진된 사업별 필요성 응답 추이 (응답: 매우필요+필요)

⑥ 예술활동 관련 정보가 필요한 항목

- 예술활동 관련 정보에서 필요한 항목으로 ‘공공의 예술관련 정책 지원정보’, ‘예술강사 등 일자리 정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생계 관련 정보에 대한 필요와 기대가 높다고 여겨짐.
- 이는 2021년이나 2023년 조사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응답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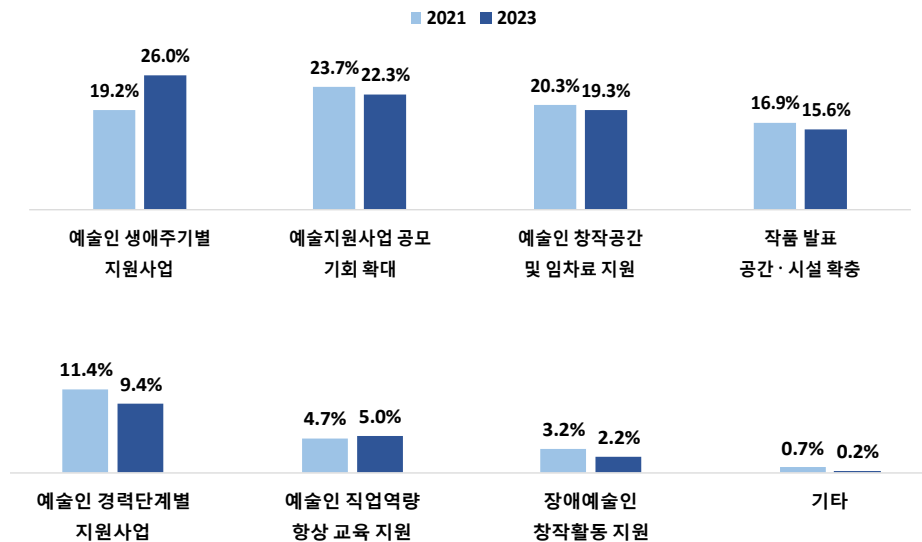




(그림Ⅲ-43) 예술활동 관련 정보가 필요한 항목

⑦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에 관한 조사 결과, 2021년에는 ‘예술지원사업 공모 기회 확대’(23.7%), 2023년에는 ‘예술인 생애주기별 지원사업’(26%)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꾸준히 제기되는 사안으로, 응답 예술인들은 지속적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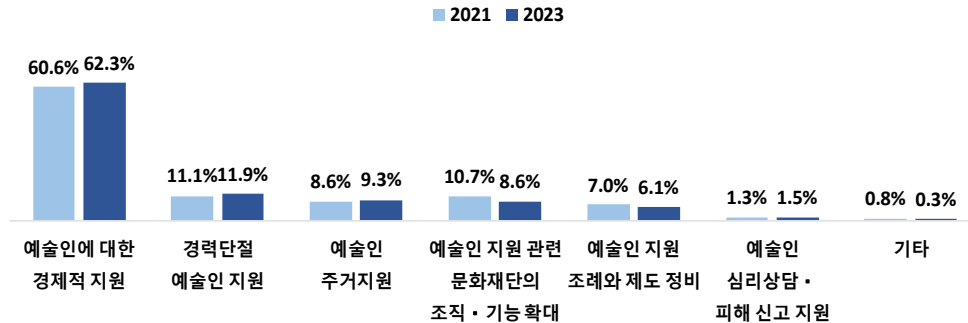


(그림Ⅲ-44)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응답 추이 (중복응답 중 1순위만 고려)

⑧ 예술인복지 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에 관한 조사 결과, 2021년과 2023년 모두 ‘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 직접적 지원이 쉽지 않은 정책 환경 속에서 ‘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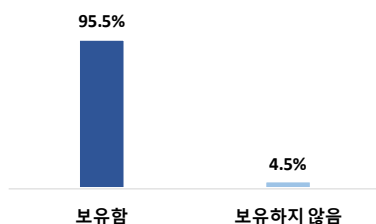
- 다만, 실태조사의 응답 지문이 경제적 지원 분야는 하나의 항목이지만, 제도적 지원은 5개의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어 경제적 지원 분야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구조라는 문제를 안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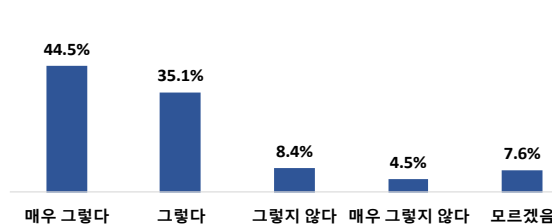
(그림Ⅲ-45)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추이 (중복응답 중 1순위만 고려)

⑨ 인천시 예술인 이음카드 보유 여부 및 필요성

- 2023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응답 예술인의 95.5%가 인천시 예술인 이음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광범위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인천시 예술인 이음카드의 필요성에 대해 79.6%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여 제도에 대한 동의나 효용성에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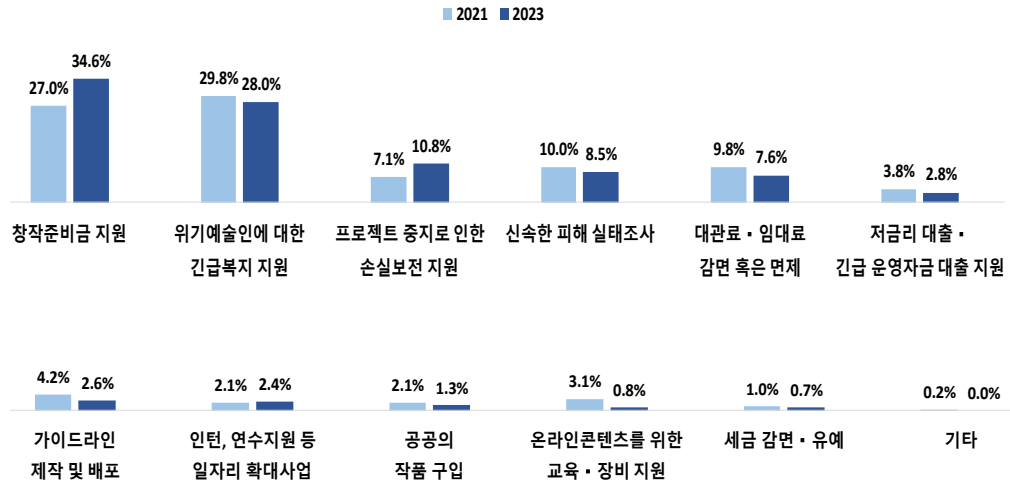
(그림Ⅲ-46) 인천시 예술인 이음카드 보유 여부



(그림Ⅲ-47) 인천시 예술인 이음카드 필요성 긍정 여부

⑩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 사업

-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2021년과 2023년 모두 ‘창작준비금 지원’과 ‘저소득·위기 예술인에 대한 생계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이 가장 높았음.
- 그러나 다양한 작업 환경이 존재하는 예술생태계를 고려할 때, 응답 비율이 높지 않은 의견에도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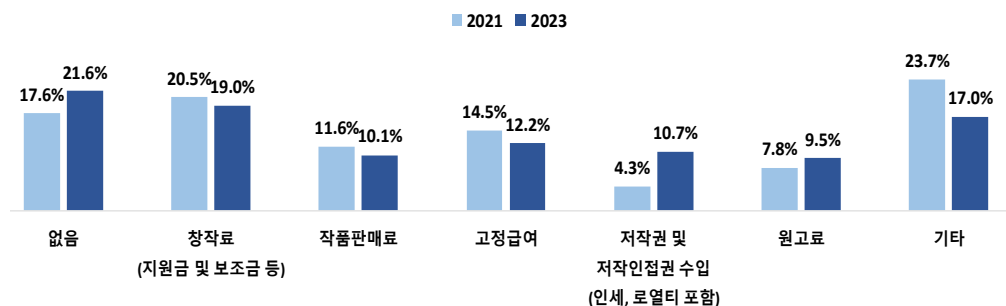


(그림Ⅲ-48)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 사업 (중복응답 중 1순위만 고려)

■ 생활여건 및 소득에 관한 분석

① 전업 예술활동의 주된 수입원

- 2023년 전업 예술활동으로 이루어진 주된 수입원을 보면, ‘창작료’(지원금 및 보조금)이 19.0%, ‘고정급여’가 12.2%로 나타났으며, ‘없다’고 응답한 예술인이 21.6%로 나타남.
- 2021년과 2023년을 추이적으로 비교하면, ‘저작권’이나 ‘원고료’는 상승한 경향이 있으나, ‘창작료’, ‘작품 판매’, ‘고정급여’ 등은 감소하고, ‘없음’은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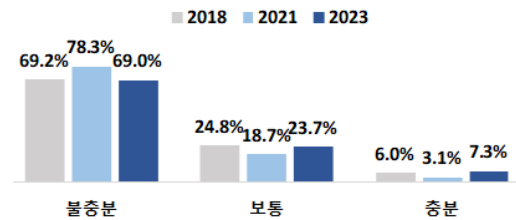


(그림Ⅲ-49) 전업 예술활동의 주된 수입원 추이

② 예술(창작)활동 측면에서의 소득 만족도

- 2023년 조사 결과, 예술(창작)활동 측면에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분하다’라는 응답은 7.3% 수준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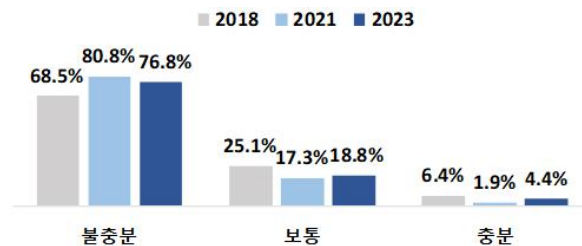
- 조사연도별 추이를 볼 때도 응답 예술인의 대다수는 예술(창작) 활동 측면에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응답함.



(그림Ⅲ-50) 예술(창작)활동 측면 소득만족도 추이

④ 생계 및 생활(경제) 측면에서의 소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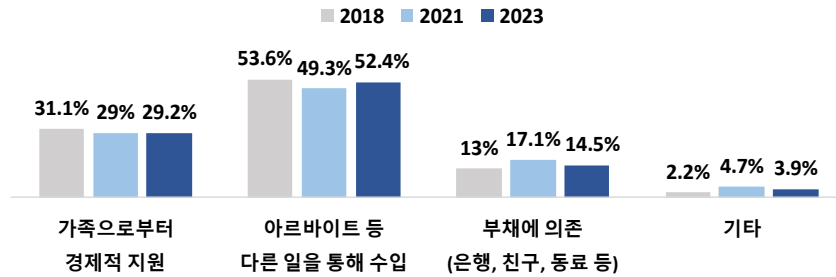
- 2023년 생계 및 생활(경제) 측면에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분하다’라는 응답은 4.4% 수준으로 낮음.
- 조사연도별 추이를 볼 때 응답자의 대다수는 생계 및 생활(경제) 측면에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응답함.



(그림Ⅲ-51) 생계 및 생활(경제) 측면 소득만족도 추이

⑤ 예술인으로 활동 시, 부족 비용 충당 방법

- 2023년 실태조사를 보면, 예술가로 활동하는 데 있어 소득이 부족하다고 답한 예술인들은 주로 ‘아르바이트 등 다른 일을 통한 수입’(52.4%)으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29.2%), ‘부채에 의존’(14.5%) 순으로 나타남.
- 조사연도별 추이를 볼 때, ‘아르바이트 등 다른 일을 통한 수입’으로 부족 비용을 충당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부채에 의존’하는 경우는 다소 감소함.
- 이는 앞에서 전업 예술인의 비율이 증가한 것과 관련되어 예술활동 외 수입을 위한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기보다 ‘그때 그때’ 단기 비정규 노동을 통해 충당하는 현실을 보여줌.



(그림Ⅲ-52) 예술가로 활동 시, 부족 비용 충당 방법 추이

4)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의 시사점

■ 인천시 예술인의 지역 내 활동 꾸준히 감소 현상 뒤에 다양한 지역에서의 활동 증가

- 인천시 예술인들의 지역 내 활동이 2018년 조사에서 73.8%에서, 2021년 조사에서 66.9%, 2023년 조사에서 62.8%로 나타나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
- 인천시 예술인들은 서울(20%→ 24.1%→ 27.9%로 증가) 및 경기도(2.7%→ 4.4%→ 4.8%로 증가) 등 인접 도시에서 활동하는 것이 예술창작 활동에 더 유리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 이는 인천 출신 예술인들의 활동이 확장되고 있다는 긍정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반면, 지역 내 활동 여건의 문제를 돌아봐야 할 지점임.

■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 격차에도 전반적인 기회 확장

- 인천시 예술인들의 발표, 전시 등 표현활동의 횟수를 나타내는 지표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즉,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가 코로나 이후 '1~5회'와 '16회 이상'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그 중간지대인 '6~15회'가 꾸준히 감소하여 예술가 간 창작 및 발표의 격차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예술발표의 여건을 살필 필요가 있음.
- 한편, 예술작품의 발표 및 참여 횟수가 '1~5회'인 예술가의 증가가 다른 모든 경우의 감소 혹은 소강상태보다 높은 것은, 예술활동의 진입 기회 확장이 원활히 이뤄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음.

■ 개인 창작공간 보유율 감소하나, 공유 창작공간 운영방식의 전환 요구

- 인천시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예술인이 조사마다 꾸준히 증가(47.7%→ 52.2%→ 57.7%) 하고 있음.
- 그러나 2023년 기준, 창작 공간을 보유한 예술가들의 보유 형태는 월세 임대방식이 67.1%로 나타나 공간 유지의 부담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2023년 기준, 66.4%의 예술인들이 공유 창작공간 입주 의향을 가지고 있으나 공유 창작공간 입주 의향이 없는 예술인들(33.6%)은 안정적인 시설 이용이 불편을 들어 부정적인 의향을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폭행) 발생 정도의 꾸준한 증가로 대책 마련 필요

- 성폭력 발생 여부에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이 2018년 23.3%, 2021년 25.1%, 2023년 33.0%로 크게 증가함.
- 이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 인식 정도가 높아진 것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4대보험 가입률의 저조 및 지원 경험 확장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인천시 예술인들의 4대보험 가입률은 추세적으로 볼 때 답보 상태에 있으며, 2023년 조사 기준, 국민연금(55.1%), 건강보험(82.3%), 고용보험(26.6%), 산재보험(21.2%)로 나타남.
- 또한,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은 경험도 높지 않아,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대한 상담은 물론,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인천형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인천시 예술사업 및 지원에 대한 예술인들의 긍정적 인식 상승세

- 인천시 예술인들은 ‘창작지원’, ‘향유기회’, ‘발표기회’, ‘예술 인프라’, ‘예술인 거주’, ‘예술인 단체 간 교류’ 항목에서 긍정 혹은 보통이라는 인식이 50% 내외 머물고 있음.
- 그러나 2018년 이후 3번의 실태조사(5년)에서 추세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가 요구되고 있음.

■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 공모 기회 확대 등 기대

-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은 ‘생애주기별 지원’, ‘예술지원사업 공모 확대’, ‘창작공간 지원’, ‘발표공간 확충’, ‘경력별 지원’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항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예산 확대와 운영방안의 개선 등 다양하게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예술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제적 지원 외 다양한 제도 개선 기대

- 인천시 예술인들은 예술인복지 증진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 매년 ‘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직접 지원이 쉽지 않은 정책 환경 속에서 ‘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함.
- 그러나 제도적 개선에 대한 요구 역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예산 사업으로 구성하는 등의 구조 조정이 필요함.

3. 인천 예술인 플랜 관계자 그룹인터뷰 결과분석

1) 그룹인터뷰(FGI) 추진 경과

■ 그룹인터뷰 개요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에 대한 수립을 위해 인천 지역 문화예술인의 의견 수렴과 타 시도 예술인 복지사업 실무 책임자의 다양한 현장 사례를 수집함.
- 인천시 예술인 그룹과 사업담당자 그룹은 주로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견을 통해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제안을 수집함.
- 반면, 주요시·도 사업담당자 그룹은 인천 예술인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각 시도의 고유한 정책 사례를 수집함.

<표Ⅲ-27> 그룹인터뷰 개요

구분	일시	장소	주요내용
인천 예술인 FGI	5/21(화) 10:00	인천문화재단 대회의실	- 인천시 도시 이미지에 대한 의견 - 제1~2차 인천 예술인 플랜 참여 경험과 평가
인천 사업담당자 FGI	5/21(화) 14:30	인천문화재단 대회의실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제안사항
주요시도 사업담당자 FGI ¹¹⁾	5/28(화) 16:30	문화디자인자리 회의실	- 제1~2차 인천 예술인 플랜에 대한 평가 - 서울, 부산, 경기, 인천 4개 시도 사업의 특징과 주요 사업 공유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제안사항

■ 그룹인터뷰 참여자 선정

- 그룹인터뷰 대상자는 인천문화재단의 추천과 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층위의 역할이 포함되도록 구성함.
- 인천시 예술인 그룹인터뷰 참여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인천 예술인 플랜의 직접적인 정책 대상인 예술가 그룹은 연령과 장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사업담당자 그룹은 광역과 기초의 실무 책임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인천 예술인 플랜을 조망하고 분석하기 위해 인천의 예술인과 시·구 사업담당자로 구성함.
- 또한, 주요 시도 사업담당자 그룹은 인천시와 인접한 서울시, 경기도를 포함하여, 유사한 여건을 가진 부산시 등으로 구성함.

11) 주요 시도 예술지원사업 담당자 그룹인터뷰 내용은 본 보고서의 2장 4. 타 시도 예술인 정책의 현황과 정책 사례에서 포괄적으로 정리함.

<표Ⅲ-28>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그룹인터뷰 참여자

구분	진행자	참여자
인천 예술인 FGI	전민주 (공동연구원)	- 곽은비 (로컬크리에이터) - 선우은실 (문학·비평) - 이재상 (공연·연극) - 진기환 (문학)
인천 사업담당자 FGI	전민주 (공동연구원)	- 고동희 (前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 박소현 (인천문화재단 홍보협력팀장) - 송소민 (인천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주임) - 정시윤 (인천연수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주요시도 사업담당자 FGI	최혜자 (책임연구원)	- 김수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 예술지원실장) - 박슬기 (경기문화재단 예술본부 예술교육팀장) - 송수경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 예술지원팀장) - 최기현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예술지원팀장)

2) 인천 예술인 FGI 이슈별 분석



(그림Ⅲ-53) 인천 예술인 FGI 모습

■ 전시 및 실연 공간 등 작업공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다양한 공간 지원 사업의 필요

- 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공연예술 분야와 시각예술 분야는 전시 및 실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인천에 이를 위한 공간이 부재하다고 느끼고 있음.
- 전문 공연장 부족 문제 뿐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로 연극인들은 공간 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극장의 경우 극장 운영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문제, 주말 운영 시 높은 인건비 문제로 주말 대관을 받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함.

“
예술활동 공간 지원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미술, 연극은 예술활동에 있어 압도적으로 공간에 좌우돼요. 젊은 층은 전시 공간이 확보가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가장 먼저 공간 문제를 해결해줘야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연극계 입장에서 인천은 공연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전문 공연장, 단일 목적 공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공간 문제뿐 아니라 공공극장 중 소극장은 주말 대관을 안 해주는 극장이 많아졌어요. 주 52시간에 걸리고 주말에는 인건비를 더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대관을 안 받아버려요. 공연장이 가뜰이나 부족한데 공연할 공간이 그래서 없어요.
”

- ‘점점점 프로젝트’처럼 새로운 공간을 발굴하고 운영을 잘하는 곳들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공연이든 문학이든 미술이든 어느 분야에서든 예술활동 공간 지원이 가장 필요해요. 점점 점 프로젝트로 새로운 공간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분들이 지속할 수 있게 꾸준히 도움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크게 들어요.
”

- 비평 분야 또한 작업공간이 필요하지만, 비평 분야는 공간 지원 대상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함.

“
비평 영역은 아예 그냥 (지원 대상으로) 없어요. 그런데 작업실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있거든요. 뭔가 새로운 작업실을 만들어 낸다기보다는 공유 오피스 형식으로 한번 이용할 때 일정한 금액 정도를 낸다든지의 방식으로 작업공간을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

■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설계 필요

- 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인천시의 예술지원금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청년지원은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중견 및 노년 작가들은 지원 금액 및 기회가 축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현재 청년지원에 익숙해진 작가들이 중견에 접어들었을 때 지원이 축소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옛날에 비해 예술지원금은 줄어든 상황이죠. 거기에 청년지원을 확대하니, 중
 견, 노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 금액, 기회가 축소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중
 견 나이가 되었을 때, 50% 이상이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봐요.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서
 중견과 노년을 같이 키워나갈 거냐...”

- 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현재 청년과 중장년 지원의 격차 문제는 지원금이 특정 계
 층에게 집중된 것의 문제가 아닌 청년부터 노년까지 지원정책의 경로를 순차적으
 로 밟을 수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에, 예술인 지원정책 설계 시 예술인 생애주기와 예술활동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함.

“
 현재 중장년 지원은 적어지고 청년지원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파이 분배 문제라기보
 다는 정책 설계의 연속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단계를 거쳐
 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명시적으로 보여야 해요. 사업마다 별개로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술인들은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 공적 네트워크를 위한 ‘예술인 아카이빙’의 필요

- 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예술인이 협회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개인의 역량으로 사
 적으로 네트워킹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과 교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였음.

“
 어디에 소속되어 있거나, 개인의 역량으로 개인이 접촉하지 않는 이상 다른 분야의 예
 술가분들을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또 나오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인천에 필요한 건 예술인 아카이브라고 생각해요.”

-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적으로 서로의 정보를 알 수 있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예술인 아카이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다양한 장르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까지 나아가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이런 활동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아야 교류도 하고 각
 자 영향도 받을 텐데 그럴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 일거리와 연결되는 예술인 경력 플랫폼의 필요

- 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인천에 예술인의 경력이나 활동정보를 순환시키는 플랫폼의 부재로 예술활동이 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음.
- 이에 시흥시의 경우처럼 예술인으로서의 경력을 쓰고 강사 풀을 등록할 수 있는 ‘강사뱅크’와 유사한 플랫폼이나, 등록된 정보를 통해 예술인 간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공적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제가 거주하는 시흥에는 ‘강사뱅크’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강사뱅크’에 활동분야와 경력을 써서 올리면 제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볼 수 있고 다른 작가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락이 오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활용도가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는데, 인천에서 그런 경험은 부족해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

■ 예술인 생활 보장을 위한 예술인 기본소득 추진 필요

- 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예술인 지원정책에서 예술인 자립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즉, 예술인의 자립은 결국 예술활동을 통해 산업 혹은 상업적으로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업 혹은 산업예술과 순수예술의 영역이 다르고, 순수예술의 중요성을 예술인 정책이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 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순수예술의 영역에서 예술인 자립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예술인 생활 보장을 위한 예술인 기본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정부나 재단 입장에서 자꾸 예술인 자립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예술지원의 기본 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술인 지원정책은 기업을 키우는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약해지는 순수예술, 기초 예술을 강화해주는 게 예술지원의 기본 정책이어야 합니다. 산업적 측면으로 가는 게 사회적 흐름이라면 그 대응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가는 게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사업에 대한 홍보 및 명확한 인지 필요

- 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지원사업의 가짓수는 많으나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해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
-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얻지 않고서는 지원사업의 정보를 얻는 게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함.

“
지원 사업에 대해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건 저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하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이걸 아는 방법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

“
최근에 저작권과 관련해 아주 작은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어디 여쭙볼 데가 없더라고요. 이런 걸 재단이 하는 건 알았는데 저작권 문제와 관련되어서 문화재단에 제가 요구를 해도 되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가 보완된다면 대관 문제, 저작권료, 창작료 등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재단을 의지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또한, 재단에서 다양한 지원사업(건강검진, 법률지원 등)을 하고는 있으나, 예술인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절차를 몰라 도움받지 못하는 때가 있다고 토로하였음.

“
건강검진이 되게 좋았어요. 신청하면 MRI도 받아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사업의 연속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완 필요

- 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지원사업에 대한 예술인 플랜이 연속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매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 변화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불확실성은 예술인들의 스트레스 수치를 높이는 요인이며, 일정한 트랙이 현장과 신뢰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될 필요성을 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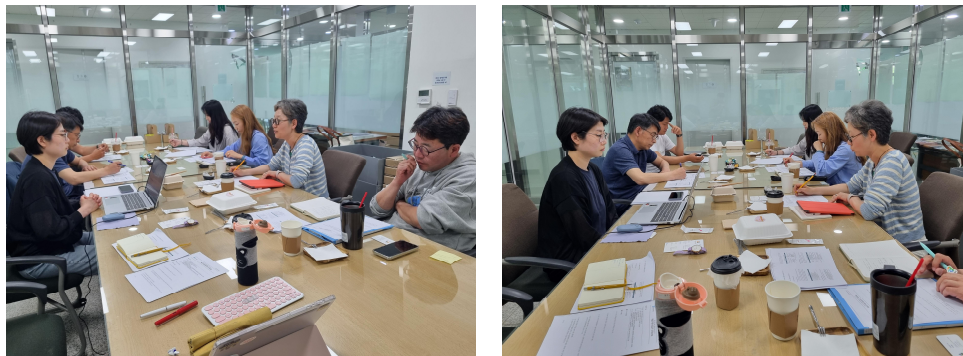
“
예술인 플랜이 3년 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사실 예술가 개인이 느꼈을 때는 매년 리셋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사업은 매년 새로 공지가 돼서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파악하기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거 못하면 내년엔 어떡하지' 하죠. (실태조사에서 팬데믹 상황보다) 스트레스가 높아졌다는 수치에 저는 이런 이유도 있을 거로 생각해요.
”

■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위상화 필요

- 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예술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서 인천예술인지원센터의 위상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
 무엇보다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위상화가 제일 먼저 돼야 한다고 봐요. 그게 돼야 나머지
 것들이 좀 될테니까. 이게 별도 독립 추진하자는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이야기 했지만
 아직 안 된 거죠.
 ”

3) 인천 예술인지원사업 실무자 FGI 이슈별 분석



(그림Ⅲ-54) 인천 예술인지원사업 실무자 FGI 모습

■ 예술인 플랜을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적 구조

- 예술인지원사업 실무자 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실무자 한 사람의 의지로, 계획된 예술인 플랜을 추진하기에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이는 예술인 플랜 사업뿐 아니라, 인천재단의 사업과 인천시의 사업 등을 진행해야 하는 역할 안에서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미임.

“
 예술인 플랜에는 ‘청년문화창작소를 확대 이전해야 한다.’라거나, ‘청년 예술가 자립준비금 을 지원’해야 하는 등의 이야기가 자세히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무자 차 원에서 추진하기에는 재단만의 체계도 있고, 시에서 위탁한 사업을 하는 역할도 있다 보 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

■ 인천예술인지원센터의 한층 축소된 위상 문제

- 예술인지원사업 실무자 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인천 예술인 플랜에서 인천예술인 지원센터의 위상과 재단 조직 내에서의 위상은 현재 괴리가 존재한다고 인식함.
-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제1차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에서 제시한 ‘인천예술인복지지

원센터'에서 제기되어 '인천예술인지원센터'로 출범함. 또한,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에서 '인천예술인지원센터'의 위상 강화가 추진과제로 설정되기도 함.

- 그러나 현재 별도의 조직 없이 인천문화재단 내 '예술지원팀' 소속으로 센터의 확장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

“

2차 예술인 플랜 당시 SWOT 분석에 인천시 예술인 정책의 약점으로 조직 구성원이 여전히 적고 인력들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부분들을 언급했는데 그 부분은 실제와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인천문화재단이 이전엔 예술인 지원센터를 별도 조직으로 두었지만 지금은 예술지원팀으로 들어갔고, 센터 명칭은 병기해도 담당 직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란든지 사업 확장성이란든지 플랜에서 지적한 내용이란 다른 결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

■ 예술인 실태조사 항목 등 변화 필요

- 예술인지원사업 실무자 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2018년부터 진행한 실태조사의 문항이 너무 단편적으로 구성되어, 그 이면의 이유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또한, 문항 자체가 사업성과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질문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예술인들의 활동이 인천 외 서울 지역에서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유출로만 볼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인천과 서울의 합을 보면 활동의 양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천 예술인의 역량이 높아져 다른 지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

“

예술인 건강검진 사업은 예술인 지원센터에서 21년도부터 꼭 해왔거든요. 그 관련된 질문이 예술인패스랑 연동되어 있어서 문항 자체에서 예술인패스가 지금 예술인 플랜에서 의미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인천 자체의 예술인 이음카드가 그런지 방점을 좀 놓고 또 부가적인 서비스 이용방안들을 문항으로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 광역재단과 기초재단 간 협력과 역할 구분의 필요

- 예술인지원사업 실무자 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광역재단이 해야 할 일과 기초재단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여 기관에 특성화된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예술인 플랜 류의 예술인 정책 등, 예술진흥에 관한 영역은 인천시와 광역재단의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반면, 현장성이 강한 문화예술교육이나 생활문화 같은 사업은 인천시와 기초지자체(기초재단)가 협력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 안배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

예술인 플랜과 관련된 부분들은 광역에서 주도적으로 연구진을 꾸리고 외부 전문가분들 이랑 협업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생활문화나 문화예술교육은 기초에서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기초는 현장을 가지고 있고 광역은 현장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 라고 생각해서요. 가장 가까이에서 현장을 접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네트워크를 가진 기초가 현장이 필요한 사업 파트들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 필요

- 예술인지원사업 실무자 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인천에 창작활동 이후 발표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인천시에는 시립미술관조차 없어서 예술가들이 활동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인천시는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의 소규모 민간 공간을 활용하고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인천에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창작, 발표 공간이 없어요. 예술인들이 시립미술관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그리고 기존 공간들의 기반도 강화해야 해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공간들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술가이신데 진짜 너무 열악해요.

”

■ 예술인 지원사업의 대폭적인 증가와 전략적 접근 필요

- 예술인지원사업 실무자 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사업의 규모는 매년 그대로인 상태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만들어 내거나 혹은 통합하는 방식은 무의미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인천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글로벌 도시로서 브랜드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 규모를 대폭 높이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예술인들이 활동할 기회를 폭발적으로 늘려본 적이 없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에 재단 직원들은 이 고민, 저 고민하면서 이 유형을 넣어볼까, 이걸 통합해볼까, 이걸 제한하지 말아볼까만 하는 것 같아요. 규모감이 훨씬 중요해요.

”

■ 청년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한 기반 확대 마련 필요

- 예술인지원사업 실무자 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인천시의 20~30대 예술인들은 기성 예술인과 비교하면 경력이나 활동 기반이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2023년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에 걸맞게 청년예술인들이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인천 20~30대 예술인들은 기성 예술인과 비교하면 경력이나 활동 기반이 취약한 면들이 있어서 이들이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기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

■ 예술단체에 행정지원 인력 파견 필요

- 예술인지원사업 실무자 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예술단체가 현장 예술활동 중심으로 인력이 꾸러지기 때문에 기획 및 행정 부분 인력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에, 예술활동지원의 하나로, 공모 신청, 정산 보고 등 예술단체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 파견 형태의 행정지원을 제기함.

“
예술단체들이 대체로 현장 예술활동하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지, 기획이나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광역에서 연간 30~40개 단체에 지원 인력 1명씩을 파견해 준다면 공모 신청서를 쓰거나 정산 보고 등을 하는 데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 청년문화창작소 사업 확장을 위한 안정적 운영인력 구조 필요

- 예술인지원사업 실무자 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인천에 청년 이슈가 높아지면서 청년 문화공간 사업이 공간 활성화 목적보다는 동료 작가와 매개하는 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아트플랫폼이나 청년문화창작소는 작가들의 레지던시 및 활동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운영의 안정성이 부족하고 레지던시 사업의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작가들은 혼자 작업하지만, 작업의 연계성, 확장성은 함께 고민하는 동료 예술가로부터 영감을 받고 작업을 계속 진행해요. 아트플랫폼 레지던시가 그 역할을 중추적으로 해왔고, 청년문화창작소의 역할 역시 그 방향에 방점을 놓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의 안정성이라든지 사업 구조의 안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어요.
”

4) 인천 예술인 플랜 관계자 그룹인터뷰의 시사점

■ 예술지원과 예술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중요성 인식 필요

- 인천 예술인 플랜의 추진에 있어 예술인 정책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 현재 인천 예술인 플랜은 「예술인 복지법」과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한 법정 계획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술의 사회적 역할, 예술인의 권리와 대우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요건이 됨.
- 서구사회에서도 1960년대 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논쟁을 통해, 예술이 가진 공공재적 성격(public value)의 사회적 수용과 예술인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옴.
- 이미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예술인을 돕는’ 복지적 차원의 인식을 넘어, 예술 그 자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다양한 그룹인터뷰 과정에서 일정한 혼선이 확인됨.
- 따라서 인천 예술인 플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예술인 육성 혹은 지원이 가진 공적 가치를 확장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 예술인 플랜 추진의 여건 조성의 필요

-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설계된 계획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건 마련이 요구됨.
- 그룹인터뷰를 통해 제기된 많은 문제는 이러한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현실과 관계있으며, 이를 다섯 개의 필요 여건으로 정리할 수 있음.

<표Ⅲ-29> 그룹인터뷰에서 제기된 예술인 플랜 추진의 필요 여건

구분	내용
인천시의 정책 의지	- 조례 제정과 예술인지원센터 설립, 예술인 플랜 수립 등 일정한 정책의지에 대한 긍정 - 이를 추진하고 실행하는 전반적 제도 마련 및 여건 조성 필요
재원 조성 및 확충	-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한계, 코로나 이후 재원 축소 상황 발생 - 예술지원을 도시의 창조 역량 증진과 도시의 다양성 확장하는 수준의 재원 마련 필요
예술인 플랜의 위상 정립	- 초기 예술인 플랜의 중요성 강조하여 독자적 센터 구축 - 인천시 문화예술정책의 추진 방향 재구축으로 예술인 플랜의 지속성 강화
전담 조직	- 인천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영역과 별도로 예술인지원센터의 전담 운영 - 인천재단이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성과 예술인지원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 필요

구분	내용
인력 충원	-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예술인지원사업의 활성화 기대 - 적은 인력과 재단 업무와의 병행 등으로 전담 인력이 구성되기 어려운 상황 개선 필요

■ 예술인 당사자 간의 교류와 참여 방식의 전환 필요

- 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은 예술인의 참여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적은 인력으로 이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인천시 예술인들은 예술인 플랜의 당사자성을 갖기 어려우며, 홍보의 대상이 되어 공모 사업을 준비하는 수준 이상의 자기 활성화가 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인천시 예술인들에게 해마다 바뀌는 제도와 공모 사업에 떨어지는 불안감,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는 인천시 예술인이 예측 가능한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 네트워크, 쌍방향 활동 플랫폼, 해당 예술인 플랜의 3년간 유지되는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제도 보완이 필요함.

■ 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환류하는 시스템의 체계화

- 예술지원과 예술인 지원을 계획한 3년 단위의 예술인 플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평가와 환류를 할 수 있음.
- 현재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성과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실제 계획이 아예 추진되지 않았거나, 통합 운영됨으로써 그 성과를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워,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에 방향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3년에 한 번씩 추진하는 실태조사도 예술인 플랜과의 연관관계를 명확하게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예술인 플랜의 성과와 환류에 부합하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문화기반 시설 조성 and 다양한 공간 확보 필요

-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이나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인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로서 문화공간의 부족이 제기됨.
- 이는 시민 문화공간의 부족은 물론, 예술인의 발표 전시 공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예술가의 자유로운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레지던시나 청년창작지원 사업은 그 실효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인천시의 문화기반 시설 조성 and 문화공간 구축은 비단 예술인 플랜의 내용에서뿐 아니라, 포괄적인 인천시 문화진흥계획에서 체계적으로 설계될 부분임.

■ 장기적으로 광역재단과 기초재단의 역할 정립 필요

-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향유 중심의 서비스 개념에서 주민의 문화참여로 이동하는 가운데, 각각의 문화정책 추진기관의 역할 재구성은 필수적임.
- 인천시 각 지자체의 문화 여건의 편차가 있더라도,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등은 사업의 중심을 각 기초지자체 단위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방향을 세우고 인천시가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반면, 예술창작 지원이나 예술인 지원 등 예술인 플랜 등은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의 주요 영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인천시 문화예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종합적인 설계는 인천시 지역문화진흥계획을 통해 포괄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IV

인천 예술인 플랜에
대한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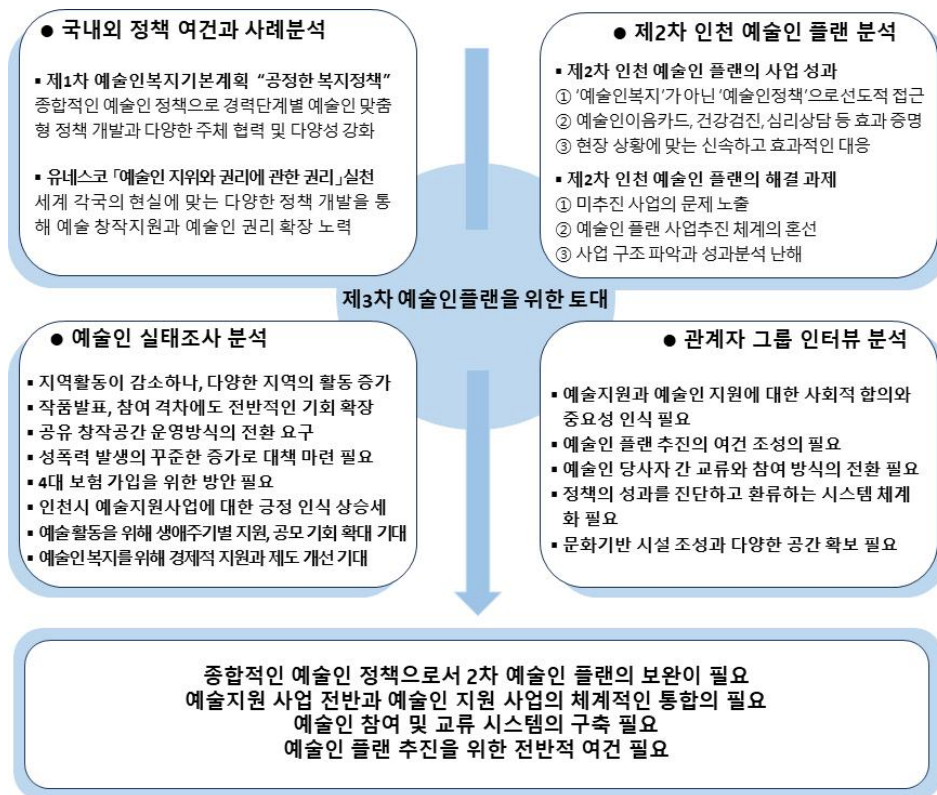
IV. 인천 예술인 플랜에 대한 의견 수렴

1. 델파이 조사 설계

1) 델파이 조사의 필요성

■ 각종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

- 본 연구의 2장과 3장에 걸쳐 국내외 정책 여건과 사례분석,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분석,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관계자그룹인터뷰 분석을 함.
- 각 분석의 시사점을 토대로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검토 방법으로서 델파이 조사를 시행함.



(그림IV-1) 각 분석을 통한 시사점 진단

■ 델파이 조사 설계의 한계

-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조사법으로서 구조화된 설문지로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는 방법임.
- 델파이 조사는 해당 과제에 대한 일정한 전문성을 가진 모집단으로 구성하며, 과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2~3차에 걸쳐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임.
- 주로 1단계에서는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방식을 취하며, 다음 단계에서 과제를 구체화하여 의견을 수렴함.
- 보통 최종 수렴된 결과를 문항별로 평균, 표준편차, 내용 타당도를 계산하여 삭제와 적합성을 결정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함.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델파이 조사 방식을 준용하되, 약식으로 진행하여 전반적인 경향성을 읽는 수준에서 진행함.
- 다시 말해서 ① 1차 설문에 해당하는 과정을 그룹인터뷰 내용으로 대체하고, ② 2차 예술인 플랜의 추진과정에서 세분화된 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경향성을 파악하는 수준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 따라서, 최종 정리 과정에서는 내용 타당도가 모호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함.

2) 델파이 조사를 위한 설계

■ 델파이 조사 개요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예술인과 예술행정가, 연구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경과 검토와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방향을 조사함.

<표IV-1> 델파이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목적	- 인천시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을 위한 욕구 확인
조사 기간	- 2024년 6월 21일(금) ~ 6월 28일(금) / 8일간
조사 대상	- 인천시 예술인, 예술행정가 등 전문가 90명
조사 방법	- 비대면 온라인 조사

■ 델파이 조사 대상자 선정

- 조사대상 전문가는 총 90명으로, 인천시 예술인 60명, 인천문화재단 및 기초지자체 문화재단의 실무자를 포함한 예술행정가 20명, 예술정책 연구자 10명으로 구성함.

- 예술인의 경우 2023년 예술인 이음카드 발급자와 2024년 청년예술인 대표자로 등록된 인천시 예술인, 그룹인터뷰 참여자 중 장르, 연령의 비율을 교차 적용하여 선정함.
- 델파이 조사 내용은 성중립적으로 구성하여, 대상자 선정에도 성별 기준을 두지 않음.

<표IV-2> 델파이 조사대상 선정 방식

구분	내용			비고
	유형	세부내용	비율	
장르별	1그룹	문학, 연구비평	16%	#텍스트 #개인 #소그룹
	2그룹	연극, 음악, 무용	38%	#공연예술 #무대 #연습공간별도
	3그룹	국제교류, 공간운영, 전통	14%	#공간운영 #네트워크 #로컬리티
	4그룹	시각	30%	#전시공간 #단독분야최대비율
연령비	원로	70세~	7%	※인천문화재단 원로예술인 지원 참조
	중장년	40~69세	60%	
	청년	39세 이하	31%	※인천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참조

■ 델파이 조사지 구성

- 2024년 4월부터 진행한 제1~2차 인천 예술인 플랜과 인천예술인 실태조사를 비롯한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자 FGI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형별 제시문과 설문 문항을 구성함.
- 조사지의 구조는 예술인 플랜 자체의 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에 관한 전략별 견해 수집, 문헌조사와 FGI 등을 통해 사전 도출한 이슈를 통해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방향을 가늠하는 흐름을 띰.
- 각 문항의 응답은 제2차 예술인 플랜의 사업추진 정도와 방식이 다양한 것을 반영하고자, 복수 선택과 서열척도를 유연하게 적용함.

<표IV-3> 델파이 조사 내용

구분	내용	문항 수
예술인 플랜에 대한 인지	- 인천 예술인 플랜에 대한 인지 -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주기에 대한 인지 - 인천 예술인 플랜의 인지 정도에 따른 이유	3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비전과 미션 평가	- 2차 예술인 플랜의 비전과 방향의 적절성 - 향후 비전 방향의 주요 요건	2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추진과제 평가	- 추진과제의 적절성 - 미추진 부분에 대한 보완점	2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전략별 효과 평가	- 예술인 활동증진 사업 평가 - 예술생태계 조성 사업 평가	8

구분	내용	문항 수
	- 예술인 교류활성화 사업 평가 - 예술인 직업적 권리 향상 사업 평가 - 예술인 사회적 지위 향상 사업 평가 - 예술인 삶의 기반 강화 사업 평가 - 예술인 정책 참여기회 확대 사업 평가 - 예술인 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사업 평가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방향	- 3차 예술인 플랜이 추구해야 할 방향 - 3차 예술인 플랜의 주요 가치	2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주요 이슈	- 청년예술인 활동 촉진 - 예술활동 증진 - 안정적인 창작공간 마련 - 성폭력 사건 근절 - 예술인의 사회보장제도 가입 - 예술인 소득과 예술노동	6
일반현황	- 성별, 거주지, 연령, 직업 및 경력	5
기타	- 서술형 의견	1
총 문항 수		29

2. 델파이 조사 분석

1) 응답자 분석

■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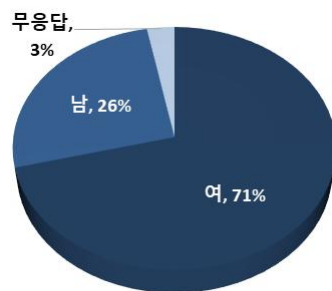
- 본 조사의 전문가는 예술인 플랜 관련 관계자와 정책대상자로서 총 90명을 대상으로 8일 동안 진행하였고 최종 58명(64%)이 참여함.

<표IV-4> 델파이 조사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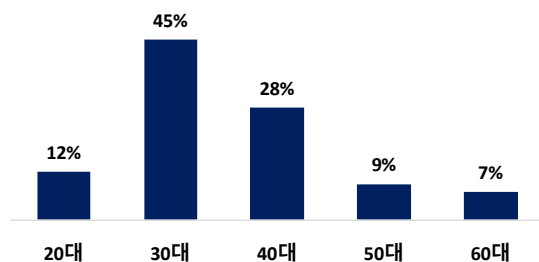
구분	대상(명)	참여(명)	참여율(%)
예술가/기획자	60	35	58%
예술정책 행정가	20	15	75%
예술정책 연구자	10	8	80%
총계	90	58	64%(평균)

■ 응답자 일반현황

-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71%, 남성 26%, 무응답이 3%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30~40대가 73%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의 응답자는 없음.
- 대상자의 성별을 무작위로 구성했음에도 여성 응답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바, 예술활동 현장의 성 비율이나 정책적인 접근에 대한 감각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 70대 이상의 응답자가 없는 것은 온라인 조사의 접근성 한계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생애주기 지원에서의 세부 설계 등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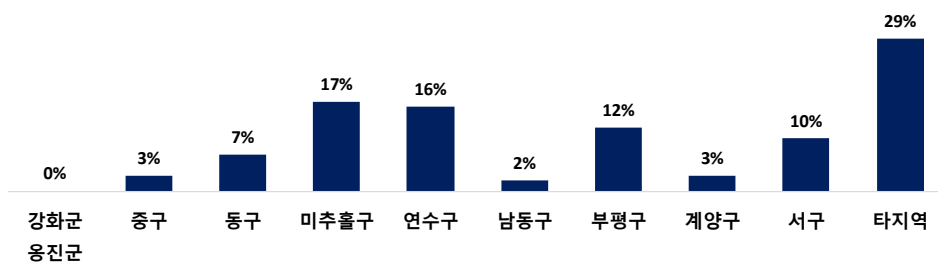


(그림IV-2) 응답자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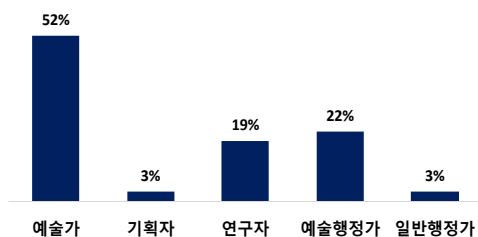
(그림IV-3) 응답자 연령대

- 조사에 응답한 참여자의 거주지는 인천시 71%, 타 지역 29%로 나타났으며, 인천 시에서는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지역의 참여자가 많음.
- 타 지역 거주자는 예술행정가와 연구자 혹은 이음카드의 발급 기준 중 인천 소재 학교와 활동 실적 등의 기준을 통해 유입된 예술인으로 보임.
- 인천을 생활권 혹은 활동지로 여기는 타 지역의 예술인과 관련 전문가가 30%에 육박하는 것은, 인천시 연고 예술인의 타 지역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인천시는 광역형 예술인과 전문가의 활동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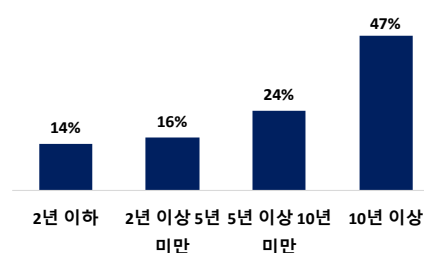


(그림IV-4) 응답자 거주지

- 응답자 중 정책대상자인 예술가와 기획자가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7%는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했다고 응답함.



(그림IV-5) 응답자 직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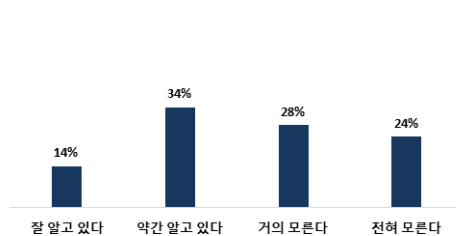
(그림IV-6) 응답자 종사 기간

2) 조사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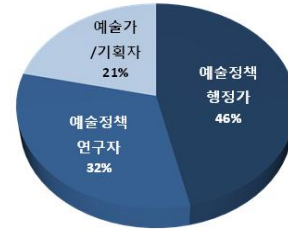
■ 예술인 플랜에 대한 인지

-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52%는 ‘예술인 플랜을 거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 69%는 ‘주변 예술인들은 거의 모르거나 전혀 모를 것’이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게 나타남.

- 또한, 예술인 플랜을 잘 알거나 약간 알고 있는 응답자(48%)를 보면, 예술정책 행정가 22.4%, 예술정책 연구자 15.5%인 것에 반해 예술가는 10.3%에 불과하여, 예술가들의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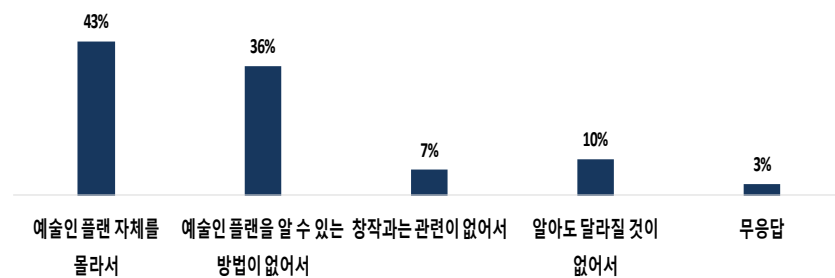


(그림IV-7) 자신의 예술인 플랜 인지도



(그림IV-8) 직업별 예술인 플랜 인지도

- 예술인이 예술인 플랜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예술인 플랜 자체를 몰라서’가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가 36%로 뒤를 이음.
- 예술인 플랜이 ‘창작과는 관련이 없’거나 ‘알아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각 7%, 1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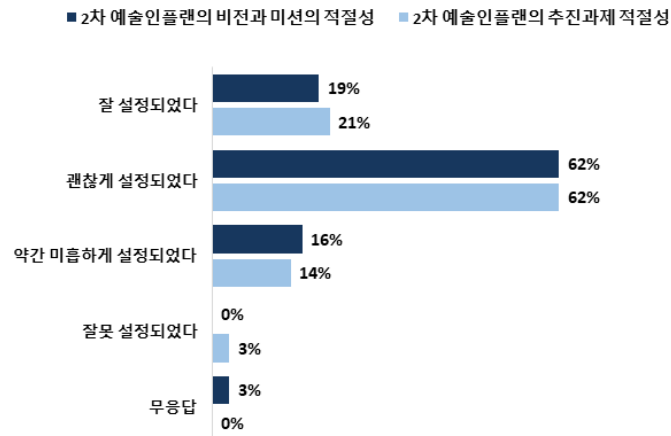


(그림IV-9) 예술인이 예술인 플랜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

■ 2차 예술인 플랜의 비전과 사업 평가

① 2차 예술인 플랜의 비전과 미션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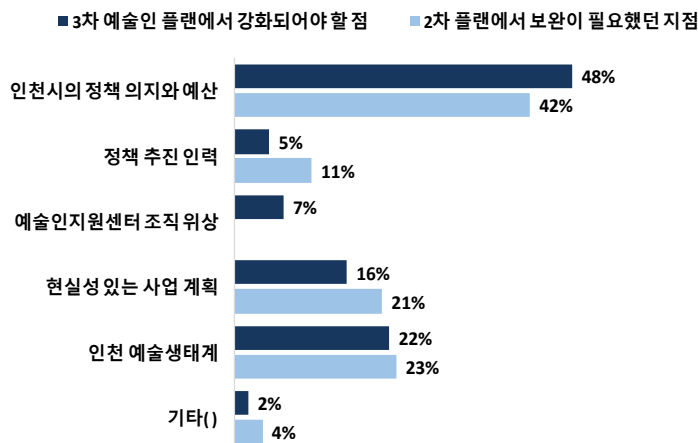
- 예술인 플랜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2차 예술인 플랜의 비전과 미션,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에 관한 질문에 80% 이상의 응답자가 ‘괜찮게 설정되었다’ 혹은 ‘잘 설정되었다’라고 응답함.
- 이는 2차 예술인 플랜의 목적과 전체 방향이 정책대상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진과제 또한 일부 개선을 통해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IV-10)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비전과 미션, 추진과제의 적절성 비교

②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보완점과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강화지점

-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보완점과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에서 강화할 점을 별도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나, 기존의 미흡했던 점과 향후 강화할 점을 비교해보니 같은 내용을 도출할 수 있었음.
- 각 플랜에서 강화될 지점으로, ‘인천시의 정책 의지와 예산(각 42%, 4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천 예술생태계(각 23%, 22%)’, ‘현실성 있는 사업 계획(각 21%, 16%)’로 나타남.
- 이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지만, 예술생태계의 취약성 문제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IV-11)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보완점과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에서의 강화 지점 비교

- 조직과 인력 관련,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보완점으로 인력 문제가 우선되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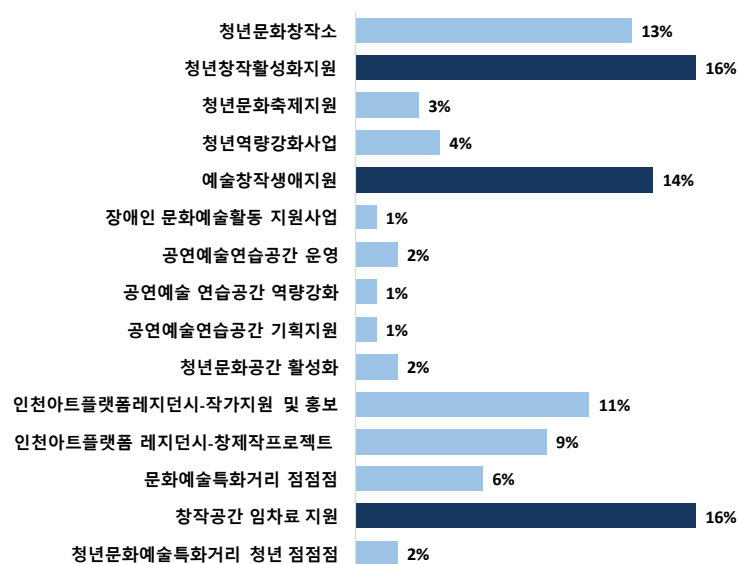
만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에서는 예술인지원센터의 위상문제로 표현된 것은 현재의 문제(인력)가 결국 체계(조직위상)의 문제라고 인식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기타 의견으로 '다양한 예술인이 모일 수 있는 생태계 구축'과 '체감되는 정책설정',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언급됨.

■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전략사업의 효과 평가¹²⁾

① 예술인 활동 증진

-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응답으로 '청년창작활성화지원'과 '창작공간 임차료지원'이 각각 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술창작생애지원'이 14%로 뒤를 이음.
- '청년역량강화사업'과 '청년문화공간 활성화사업'은 실제 추진 시 '청년문화창작소'를 기반으로 자체기획·연계·통합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응답 수는 합산하여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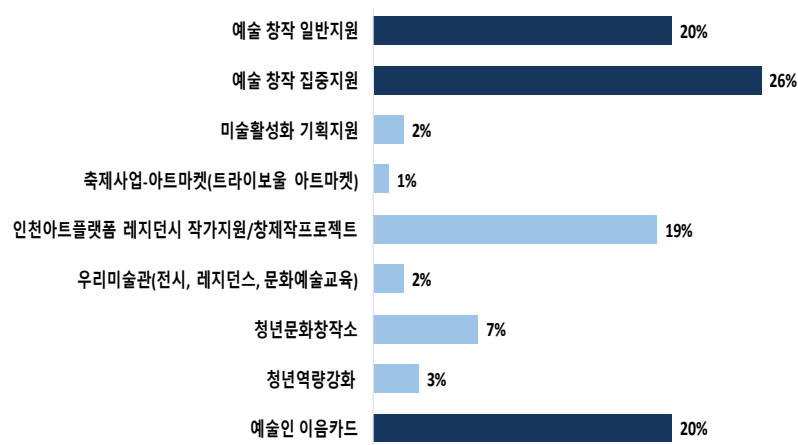


(그림IV-12) 지난 3년 간 예술인 활동 증진사업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사업(3개 선택)

12)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추진과정에서 미추진, 과제 통합, 사업 일원화가 혼재하여, 사업별 효과에 관한 응답의 신뢰도가 높지 않음. 이에 2차 예술인 플랜의 전략사업 효과에 관한 응답은 인상평으로써의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특이성이 있는 항목을 취사 분석함.

② 예술생태계 정착과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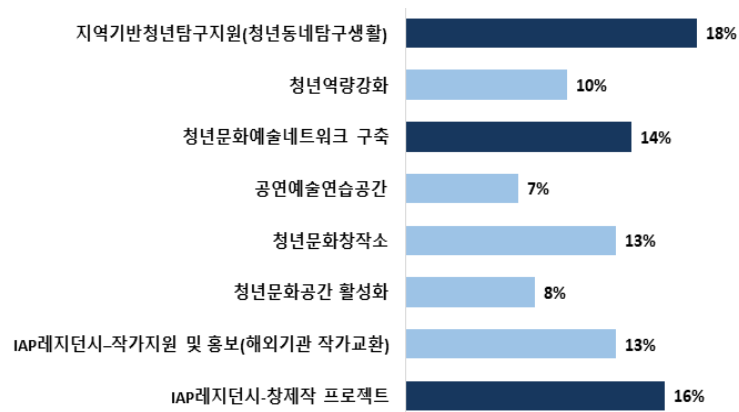
- 예술생태계 정착과 촉진을 위해 효과가 높았던 사업으로 연속지원 사업인 ‘예술창작 집중지원’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술창작 일반지원’과 ‘예술인 이음카드 통합 운영’이 각 20%로 뒤를 이음.



(그림IV-13) 지난 3년 간 예술생태계 정착과 촉진 사업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사업(3개 선택)

③ 예술인의 교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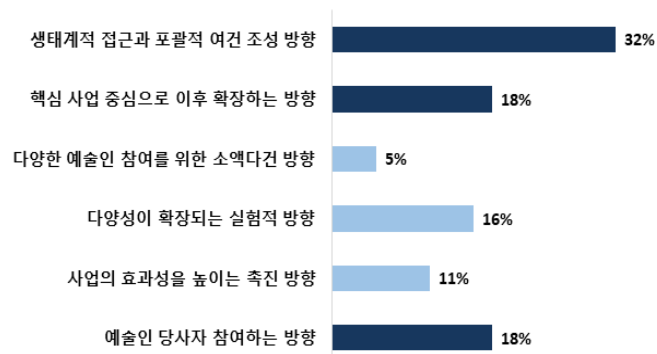
- 예술인의 교류 활성화 사업의 효과가 높았던 사업으로 ‘지역기반청년탐구지원’이 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레지던시 사업’이 16%, ‘청년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이 14%로 뒤를 이음.



(그림IV-14) 지난 3년 간 예술인의 교류활성화 사업에서 가장 의미있었던 사업(3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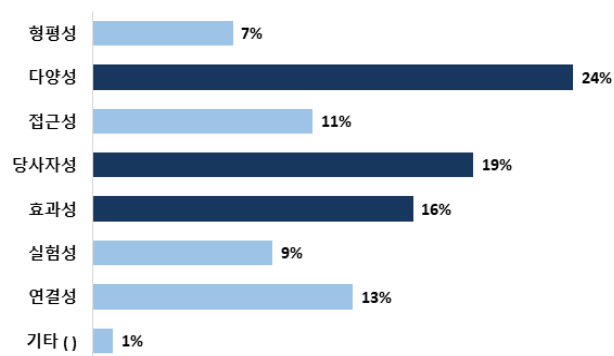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수립 방향과 가치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이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는 ‘생태계적 접근과 포괄적 여건 조성 방향’이 32%로 도드라지게 높고, ‘핵심 사업 중심으로 확장하는 방향’과 ‘예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방향’이 각 18%로 뒤를 이음.
- 이는 각각의 방향이기보다는 향후 플랜에서 전략적으로 통합하여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연결성을 가짐.
- 개별 지원 규모를 줄이되 다양한 예술인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소액다건 방향’에 대한 응답은 5%로 가장 적음.



(그림IV-15)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이 추구해야 할 방향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가치로는 ‘다양성’이 24%로 1순위로 나타났고, ‘당사자성’ 19%, ‘효과성’ 16%가 뒤를 이었으며, 그 외 ‘형평성’, ‘접근성’, ‘실험성’, ‘연결성’이 9~13% 사이로 비등하게 나타남.
- 이는 핵심 가치로서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며, 위의 방향에 관한 응답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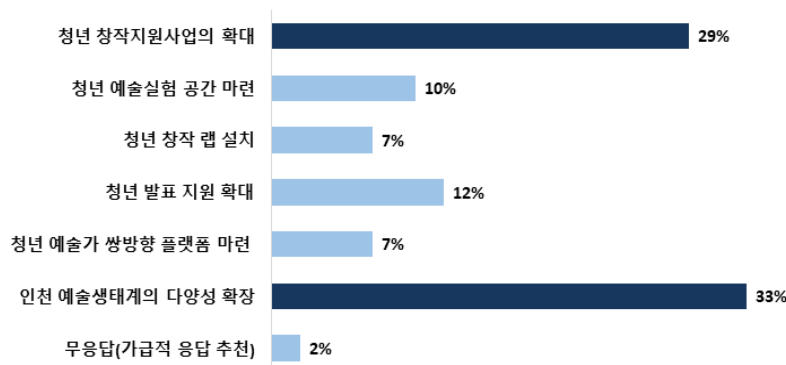


(그림IV-16)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2개 선택)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주요 이슈

① 청년예술인의 활동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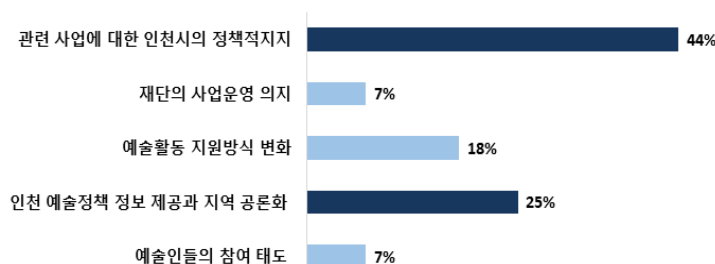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을 위한 주요 이슈로서 청년예술인의 활동 촉진 방안에 대한 응답으로 ‘인천 예술생태계의 다양성 확장’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창작지원사업의 확대가 29%로 그 뒤를 이음.
- 특정 세대에 관한 질문이자 73%의 응답자가 30~40대 연령에 포진해 있음에도 예술생태계의 다양성 확장이 우선으로 지목된 것은 주목할 부분임.



(그림IV-17) 청년예술인의 활동 촉진 방안

② 인천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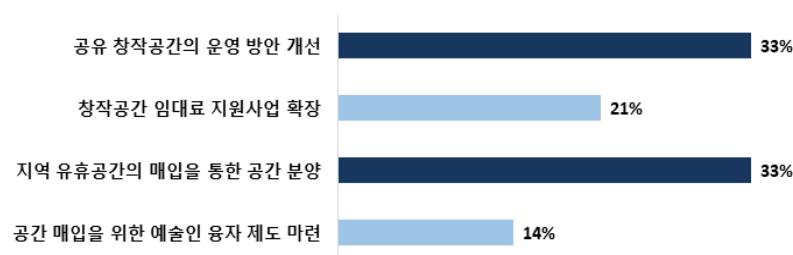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에서 예술활동 증진 방안에 대한 응답으로 ‘인천시의 정책적 지지’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천 예술정책 정보 제공을 통한 지역적 공론화’가 25%로 뒤를 이음.
- ‘인천시의 정책적 지지’라는 선택지의 포괄성을 고려했을 때, 정보 제공과 지역 공론화가 2순위로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위에서 분석하였듯이,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방향으로 ‘예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방향’이,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가치에서 ‘당사자성’이 각 2순위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임.



(그림IV-18) 인천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 방안

③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공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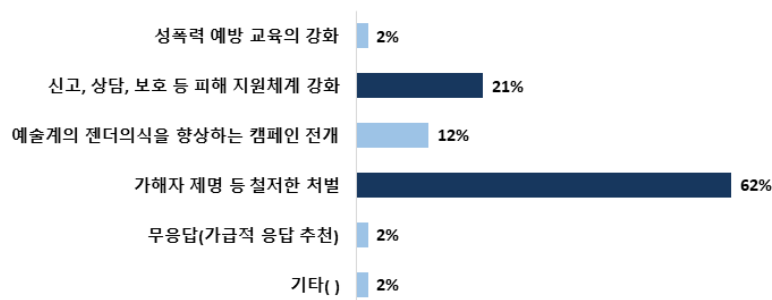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에서 안정적인 창작공간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는 ‘공유 창작공간의 운영 방안 개선’과 ‘지역 유희공간의 매입을 통한 공간 분양’이 각 33%로 동일하게 나타남.
- ‘공유 창작공간의 운영방안 개선’은 현재 시행 중인 사업으로서 아트 플랫폼이나 청년문화창작소의 운영방식을 의미하고 ‘지역 유희공간의 매입을 통한 공간 분양’은 레지던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함.



(그림IV-19)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공간 마련

④ 예술계의 성폭력 사건 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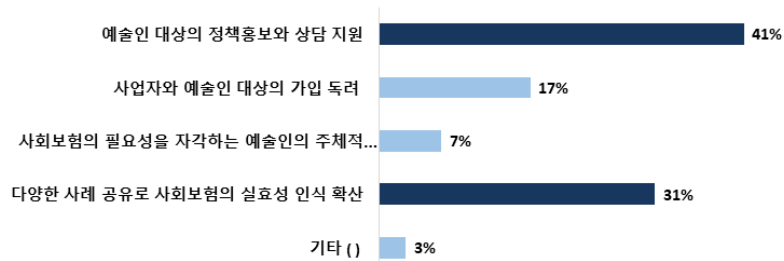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에서 예술계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가해자 제명 등 철저한 처벌’이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 지원 체계 강화’가 21%로 뒤를 이음.
- 관련 사건에 관한 민감도와 사건 대응의 명확성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우선 방안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닌 종합적인 예방 계획이 요구됨.



(그림IV-20) 예술계의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⑤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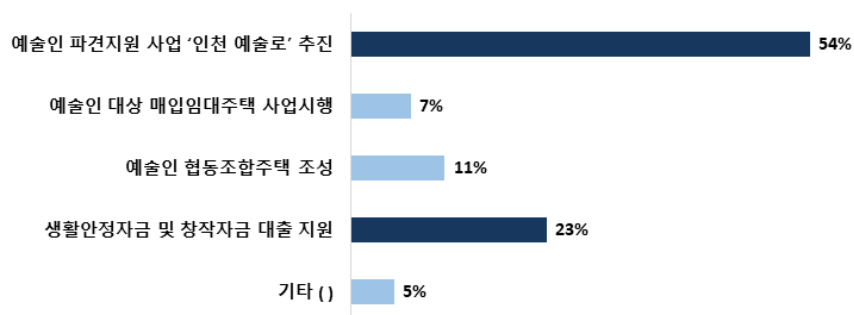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에서 예술인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의 확대를 위해서는 ‘예술인 대상의 정책홍보와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양한 사례 공유로 사회보험의 실효성 인식 확산’이 31%로 뒤를 이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예술인 고용보험은, 꾸준한 홍보에도 가입률이 높게 나타나지 않아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함.



(그림IV-21) 예술인의 사회보장제도 가입 확대 방안

⑥ 예술인의 낮은 소득과 예술노동 기회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에서 예술인의 낮은 소득 대응과 예술노동 기회에 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해야 할 사업에 관한 질문에 54%의 응답자가 ‘인천 예술로’ 추진을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생활안정자금 및 창작자금 대출 지원’이 23%로 뒤를 이음.
- 뒤를 이어 ‘예술인 협동조합주택 조성’, ‘예술인 대상 매입임대주택 사업시행’ 등이 나왔으며, 추가 제안으로 ‘예술노동의 인식개선과 창작물의 유통과 시민향유를 아우를 수 있는 예술생태계’, ‘중앙 정책 연계의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이 언급됨.



(그림IV-22) 예술인의 낮은 소득과 예술노동 기회에 관한 문제 대응

■ 그 외 기타 제언

- 응답자가 주관식으로 작성한 기타 의견은 장문 기준 총 18건으로, 전체 응답자의 31%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개 영역으로 나뉘는데, ① 지원사업 다각화 ② 인천시 특성화 ③ 정책 여건과 예술생태계 ④ 예술공간과 교류 ⑤ 예술인 플랜의 실효성임.

<표IV-5> 예술인 플랜 수립에 대한 기타 의견

구분	내용
지원사업의 다각화	•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일자리나 수익을 파생시키는 방안 • 생애주기별 지원에서 중견 예술인 지원
인천시 특성화	• 인천시에서 활동한 예술인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 • 지역 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공간의 조성 • 지역 예술인의 당사자성과 장르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
정책 여건과 예술생태계	• 예술정책의 일관적인 추진 • 선제적인 예술활동의 지원과 시민 향유의 확장
예술공간과 교류	• 예술인의 교류와 시민 향유 확장에 있어 레지던시 사업의 중요성 • 창작공간 확장의 필요
플랜의 실효성	• 정책 추진 인력의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 현재 인천 예술인과 생태계의 실정에 부합하는 플랜의 수립 • 사·구·민·관 간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추진 역량 보완

V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

V.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

1.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을 위한 종합분석

1)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도출을 위한 환경 분석

■ 중장기 정책으로서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방향 모색

- 인천시는 제1차, 제2차 예술인 플랜에서 3년간의 추진 기간을 설정하고 수립하였는데, 문체부가 발표한 제1차 예술인복지 기본계획은 5년의 추진 기간을 설정함.
- 예술인 플랜은 예술인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환류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사업 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기초로 수립주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에서는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을 수립할 당시부터 3년이라는 계획수립주기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 됨.

<표V-1> 예술인 플랜 수립 주기의 문제

구분	예술인 플랜 수립 3년 주기	예술인 플랜 수립 5년 주기
장점	- 예술인의 상황과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의 신속한 추진 용이 - 장기 사업과 중단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정책효과 기반의 사업추진에 유리	- 정부의 계획 주기와 연동하여 정부-광역-기초에 걸쳐 체계 마련 용이 - 계획, 추진, 평가 등 환류 체계 구축 용이 - 다양한 참여 주체와 공론화 과정 설계 용이
단점	- 예술생태계 기반사업 등 장기과제 실행 어려움 - 계획, 추진, 평가 등 사업체계 구축에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 - 정부의 계획수립 주기와 맞지 않음	- 평가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5년 장기 계획이 기계적으로 작동할 가능성 -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필요

- 현행 3년 주기의 예술인 플랜이 가진 신속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5년 주기의 예술인 플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5년의 장기 예술인 플랜 수립에 대비하여 장기적 환경 전망이 필요함.
- 따라서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은 3년 단위를 유지하여 문체부의 1차 예술인복지 기본계획의 종료 시점인 2027년에 맞춰 설정하되,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2028년부터는 5년 단위의 예술인 플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표 V-2> 예술인 플랜 수립 주기의 변경방안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전 환 기	2028	2029	2030	2031	2032
문체부 예술인복지 기본계획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인천시 예술인 플랜	2차 예술인 플랜		3차 예술인 플랜					4차 예술인 플랜				

■ 장기 환경 분석을 위한 STEEP 활용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은 3년 주기를 유지하나, 정책의 방향성과 연속성을 위해 장기 환경 분석을 통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설계 시 장기적인 외부요인 탐색 방법으로는 PEST 분석, STEEP 분석 및 STEEPLE 분석 등이 있는데, 내부 역량과의 연결을 통한 전략 도출에서는 SWOT 분석을 활용함.
- 대체로 경영전략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분석 중에서 장기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TEEP 분석을 통해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거시환경 분석을 하고자 함.
- 그러나 문화예술계가 정부 정책의 변화와 지자체장의 의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현실을 감안 했을 때, 참고 정도로 활용해야 할 것임.

<표 V-3> STEEP 분석 내용

분석틀	주요 분석 내용
Social	대중의 트렌드, 소비자 생활방식, 교육배경, 사회 활동
Technological	IT Trends, 혁신 기술, 과학기술 보급
Environmental	지구온난화, 재순환, 전문환경
Economic	GDP 성장, Inflation & CPI(소비자 물가지수), 환율
Political	정치적 협의, 규제안, 이해정당과 NGOs

■ 장기 환경 분석을 위한 인천 STEEP 분석

- STEEP 분석은 장기적인 환경 분석을 위한 분석 틀이기 때문에 당장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함.
- 본 연구는 인천 예술인 플랜을 위한 소규모 연구지만, 중단기 정책의 좌표를 인식하기 위해서, 향후 10년을 기준으로 거시 환경을 조사함.
- 각 영역은 2018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미래국가 비전 2050』을 기준으로 인천의 거시 환경을 대입하여 분석함.

- STEEP을 통해 정리된 이슈(좌측)를 선정하고, 이를 사회적 과제로 재구성하였으며(중간 측), 사회과제를 문화·예술적 과제로 재구성(우측)함.
- 이는 미래 변화에 비추어 문화·예술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문화·예술의 역할 확장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미래가치를 확장하는 방법임.
- 따라서 STEEP분석 결과를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환경으로 인식하면서, 현재의 인천 예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예술인 활동과 처지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표 V-4> 인천시 향후 10년을 기준으로 한 STEEP 분석

영역과 내용	사회적 과제	문화·예술적 과제
Social (사회)	사회적 통합 이슈 전면화	사회적 회복을 위한 문화대응 강화
인천 인구수 및 고령화, 1인가구 확대	세대, 성 갈등 해소 노력	외로움, 고립의 문제 대응
인종, 가치관 등 사회적 다양성 확대	NEXT 코로나 세대 사회화 노력	문화다양성 감수성 증진
노동 가치관 변화와 놀이의 중요성	문화다양성 기반 인식 확대	초고령사회 문화돌봄 확대
고립과 외로움 문제, 사회갈등 확대	혐오, 갈등에 대한 대응	취향 및 지향 기반 모임 강화
Technological (기술)	양극화, 청년 빈곤 이슈 부상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대응 확장
AI 일상화로 노동 형태의 변화 가속	지방 붕괴, 도시 원도심 붕괴	도시 기능 중 커뮤니티 기능 부상
기술 중심의 국가 시스템 강화	청년인구 유출과 이주노동 확대	도시 내 생태, 문화기반 강화
기술발달로 기술 문해력 격차 확대	기본소득, 청년수당 이슈화	여가와 놀이의 중요성 확대
기술 기반의 문화콘텐츠 확장	비혼, 저출생 대응 수단 강화	지속가능 사회 인식 강화
Environmental (환경)	기술 기반의 생활양식 확대	문화 기반 콘텐츠와 브랜드 강화
기후위기 확대로 사회적 위축 확대	생산 방식의 변화 대응	장인 중심 문화콘텐츠 가치 부상
친환경 기술 기반 새로운 시장 확대	기술 접근성 문제 노력	장인 중심의 도시경제 재발견
탄소 저감을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노동시간의 축소 논의 부상	위케이션 공간의 중요성 부상
혹서, 혹한 기후에 사회적 대응 강화	장인 중심 생산의 새로운 조명	도시경관의 중요성 강화
Economic (경제)	생존 이슈 관리의 중요성 부상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저성장 시대의 일반화	의외의 특정 사건이 사회변화 촉진	생태친화 예술실험력 강화
플랫폼 경제의 가속화	기후, 오염 등 사회적 대응 활성화	예술인 이동권으로 질적 발전
문화콘텐츠 산업의 확장 가속화	탄소 저감 이슈의 전면화	예술인 교류로 도시 선진성 촉진
k-산업에서 문화콘텐츠 비중 확대	생태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확대	아시아 문화기반으로 청년 교류 중요
Political (정책)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역사회 재편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역할 강화		
지선/대선으로 새로운 화두 등장		
여성의 역할 강화와 저출생 대응 강화		

2)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도출을 위한 SWOT 분석

■ 내·외부 환경 도출

① 외부환경 내용

- 인천시 혹은 우리 사회 전반의 장기적인 변화예측을 통해 사회·문화적 이슈를 도출하고, 인천시의 문화적 과제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지만,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시행 기간인 3년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외부환경 분석이 필요함.
- 단기 3년 계획인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수립에 있어, 시의적이고 구체적인 외부환경으로는 ① 인천시의 지역환경¹³⁾과 ② 문체부의 정책환경을 들 수 있음.
- 이에 따라, 외부환경 중, 기회 요인(Opportunity)으로 ① 동북아 관문인 지리적 위치 ② 교통의 중심지 ③ 인구의 꾸준한 증가 ④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의 꾸준한 증가 ⑤ 문화예산 3% 증액 공약 ⑥ 문체부의 종합적 예술인복지 기본계획 발표로 설정함.
- 또한, 외부환경 중, 위기 요인(Threat)으로 ① 청년 인구의 꾸준한 감소 ② 신도시와 원도심 간 도시 불균형 ③ 예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비율 낮음 ④ 문화정책 종합지수 낮음 ⑤ 전반적 문화기반 시설의 부족 ⑥ 예술과 예술인의 역할에 대한 공론화 부족으로 설정함.

② 내부환경 내용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을 위한 내부환경으로는 ① 예술인지원센터의 환경 ② 인천예술인 실태와 현황으로, 본 보고서의 2~3장의 내용을 토대로 도출함.
- 내부환경 중, 강점 요인(Strength)으로 ① 포괄적인 예술인 정책운영 경험 ② 예술지원 및 예술인 지원의 예술인 긍정 반응 상승 ③ 청년예술인 지원체계 활성화 ④ 예술인의 꾸준한 증가 ⑤ 예술인 이음카드 등 정책 효과성 증대로 설정함.
- 또한, 내부환경 중, 약점 요인(Weakness)으로 ① 문화정책의 낮은 위상 ② 예술인 창작, 교류공간 부족 ③ 문화예산 지속 감소 ④ 예술인지원센터 인력 부족 ⑤ 예술인들 간 네트워크 체계 미흡 ⑥ 예술인 소득과 생활 여건 불안정을 설정함.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SWOT 구성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을 위한 외부환경의 기회, 위기 요인과 내부환경의 강점, 약점 요인을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SWOT 분석을 시도함.

13) 도시분석의 내용은 부록에 별도 수록함.

3차 인천 예술인 플랜 SWOT분석		외부 환경	
		Opportunity(기회)	Threat(위기)
		• 동북아 관문이 되는 지리적 위치 • 교통의 중심지 • 인구의 꾸준한 증가 •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의 꾸준한 증가 • 문화예산 3% 증액 공약 • 문체부 종합적 예술인계획 발표	• 청년인구의 꾸준한 감소 • 신도시와 원도심 간 도시 불균형 • 예술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비율 낮음 • 문화정책 종합지수 낮음 • 전반적 문화기반 시설의 부족 • 예술과 예술인의 역할에 대한 공론화 부족
내부 환경	Strength(강점)	SO전략(강점-기회전략)	ST전략(강점-위협전략)
	Weakness(약점)	WO전략(약점-기회전략)	WT전략(약점-위협전략)
		• 종합적인 예술인 지원을 위한 광역-기초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타 시도와 예술인 교류로 다양성에 기반한 도시 활력 증대 • 해외 예술인 교류로 인천 예술생태계를 확장하여 아시아 예술창작의 중심지로 발돋움	• 도시 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예술인 파견 노동제도의 도입 • 예술의 일상화를 위한 동네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 예술인의 역할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론화 및 캠페인 전개
		• 인천 예술인지원센터의 구조를 체계화하고 예산과 인력 확충 • 예술인 교류 및 정보공유를 위한 온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예술창작 활동을 인천 오늘의 예술인으로 지지하고 주목하는 제도 마련	• 예술인 심리치료, 건강검진 제도의 체계적 확장 및 사회안전망 조성 • 예술인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체계 마련 • 예술인들의 안정적 발표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조성

(그림 V-1)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을 위한 SWOT분석

■ SWOT 분석

① 강점-기회전략 (SO전략)

- 인천시가 가진 외부환경 중 기회 요인과 내부환경 중 강점 요인을 통해 가장 적극적인 전략 도출

	주요 전략	전략 근거
1	종합적인 예술인 지원을 위한 광역-기초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문체부의 포괄적인 정책 방향 제시에 따라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
2	타 시도와 예술인 교류로 다양성에 기반한 도시 활력 증대	인천시 예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 예술의 고유성 확장을 위한 전국 교류 기반 필요
3	해외 예술인 교류로 인천 예술생태계를 확장하여 아시아 예술창작의 중심지로 발돋움	글로벌 인천의 위상에 맞게 동시대 예술의 발신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

② 강점-위협전략 (ST전략)

- 인천시가 가진 외부환경 중 위기 요인과 내부환경 중 강점 요인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 도출

	주요 전략	전략 근거
1	도시 내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예술인 파견 노동제도의 도입	예술인 파견 노동을 통해 예술인 소득 확보 기회 제공과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필요
2	예술의 일상화를 위한 동네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창작공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동네에서 이웃과 공존하는 공유 예술창작공간 필요
3	예술인의 역할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론화 및 캠페인 전개	예술의 의미와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는 당사자 간, 사회 내 의식 확산 필요

③ 약점-기회전략 (WO전략)

- 인천시가 가진 외부환경 중 기회 요인과 내부환경 중 약점 요인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 도출

	주요 전략	전략 근거
1	인천예술인지원센터의 구조를 체계화하고 예산과 인력 확충	예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상 및 예산 안정화를 통한 체계적인 정책 사업 기반 필요
2	예술인 교류 및 정보공유를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예술인 당사자 간 상호 필요 정보를 교류하여 프로젝트 협력 등의 기반 구축 필요
3	예술창작 활동을 오늘의 인천예술인을 지지하고 주목하는 제도 마련	인천시의 예술인을 발견하고 사회적으로 지지하는 "오늘의 인천예술인" 제도 필요

④ 약점-위협전략 (WT전략)

- 인천시가 가진 외부환경 중 위기 요인과 내부환경 중 약점 요인을 통해 가장 적 극적인 완화 전략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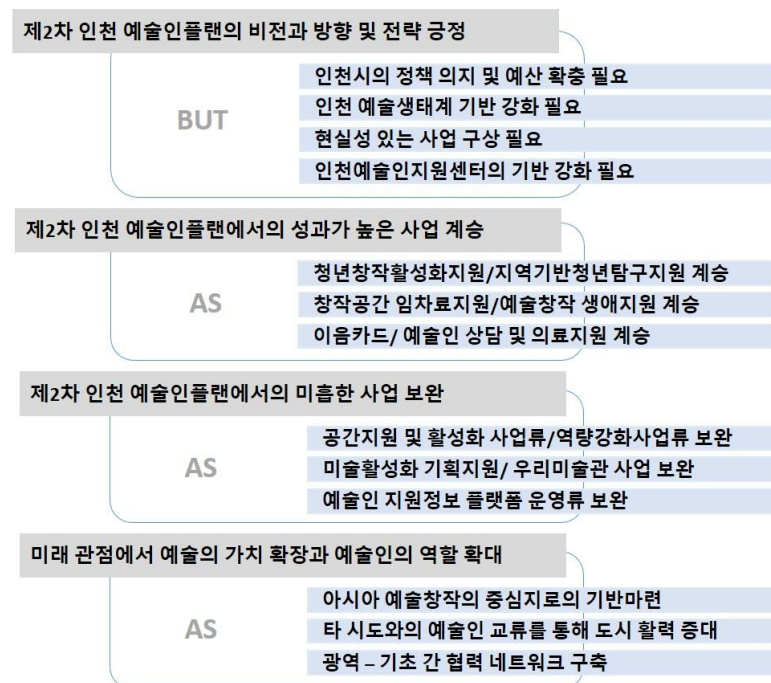
	주요 전략	전략 근거
1	예술인 심리치료, 건강검진 제도의 체계적 확장 및 사회 안전망 조성	정부와 광역에서의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
2	예술인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체계 마련	예술인 주거 안정을 이한 저금리 대출, 융자 등의 제도 필요
3	예술인들의 안정적 발표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조성	예술활동의 발표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기반 정책의 체계적 조성 필요

2.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비전 및 목표

1)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방향 도출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방향 도출을 위한 문제의식

- 본 연구에서 진행한 다양한 분석과정을 통해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문제의식을 4가지로 정리함.



(그림V-2)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을 위한 문제의식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의 방향

- 델파이 조사에서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방향으로 ‘생태계적 접근과 포괄적 여건 조성 방향’ ‘핵심사업 중심으로 확장하는 방향’ ‘예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방향’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방향은, 이미 종합적인 설계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낸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기본 기초를 유지하며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예술인 당사자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임.
- 따라서,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은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기초를 계승하되 사업의 유기성과 체계를 개선 및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

- 이는, 현재 인천 예술인 플랜이 3년 단위로 수립되고 추진되기 때문에 단편적 사업운영에 급급해지기 쉽고 예술인 플랜의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도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며, 정책 방향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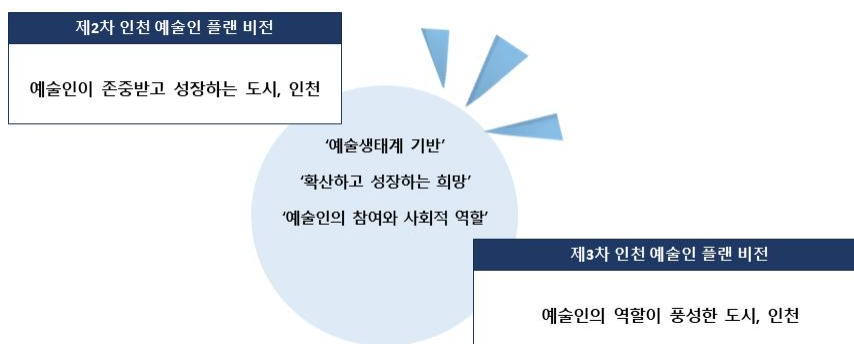
<표V-5>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의 방향

구분	내용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기조 유지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이 가진 긍정성을 계승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사업의 통합적 설계	전략의 통합을 통해 사업의 통합적 운영으로 복잡성 제거
사업 보완과 미추진사업 대책 마련	사업의 기대효과에 맞는 사업 설계하고, 미추진 사업의 추진 여건 확인
예술인의 소통 플랫폼의 강화	예술인 참여 여건 조성하고 소통 플랫폼의 개선
예술창작의 발신지로서의 도시 브랜드 강화	인천시의 예술의 중심 발화 활동 강화

2)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비전 체계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비전 도출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비전은 도출된 수립 방향을 따르면서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비전인 “예술인이 존중받고 성장하는 도시, 인천”의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비전 즉, 인천 예술인 플랜이 추구해야 할 미래상에는 ‘예술생태계 기반’, ‘확산하고 성장하는 희망’, ‘예술인의 참여와 사회적 역할’ 등의 메시지를 담아야 할 것임.
- 이에,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비전은 “예술인의 역할이 풍성한 도시, 인천”으로 설정함.



(그림 V-3)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비전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미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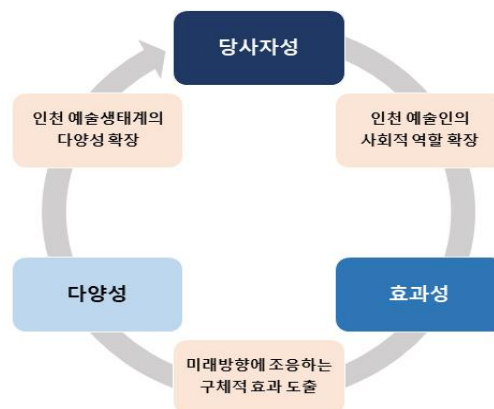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비전인 “예술인의 역할이 풍성한 도시, 인천”의 달성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를 4가지 미션으로 세부설정함.
- 각 미션은 ① 예술인의 예술활동 안정성 증대 ②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제도적 강화 ③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④ 예술인 정책의 사회적 기반 강화임.



(그림 V-4)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미션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가치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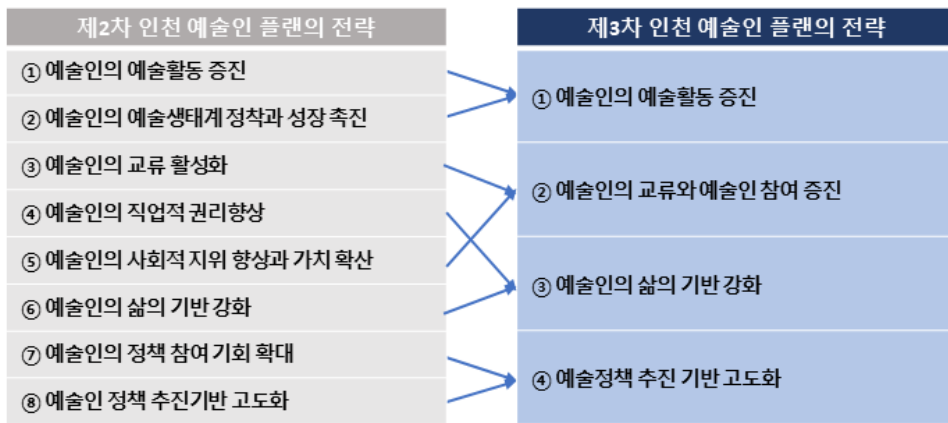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설계와 추진은 물론,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플랜이 지향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델파이 조사에서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 가장 높게 나타난 ‘다양성’, ‘당사자성’, ‘효과성’에 주목하고, 각 가치 간의 연결을 통해 활동의 지형을 구축해야 할 것임.



(그림 V-5)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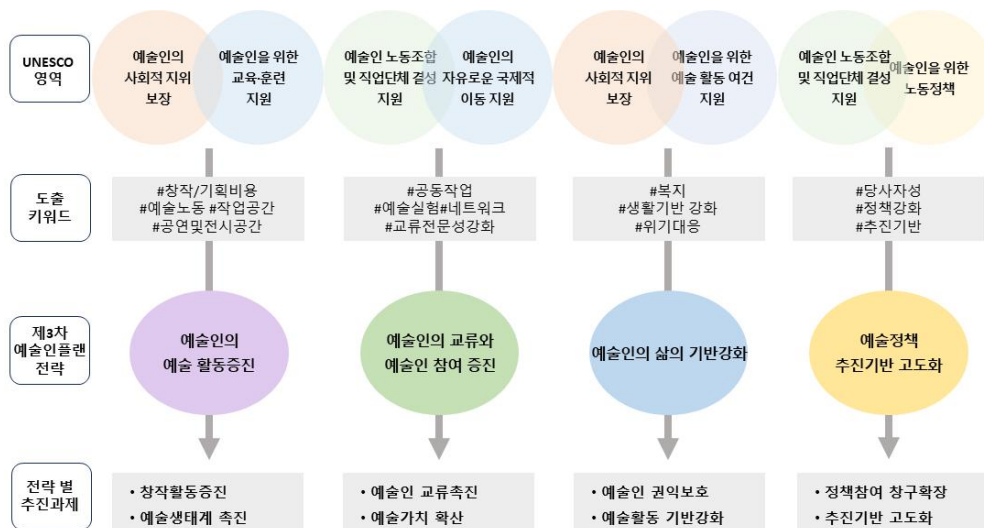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전략 도출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방향과 가치를 전략의 출발로 설정하고,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기초를 유지하는 동시에 사업 구조의 개선과 보완을 할 수 있는 제3차 인천 예술인 전략 도출이 필요함.
- 이에 제2차 예술인 플랜의 8대 전략을 통합하여 사업의 범주를 단순화하고, 사업의 일관성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함.



(그림 V-6) 제3차 예술인 플랜 수립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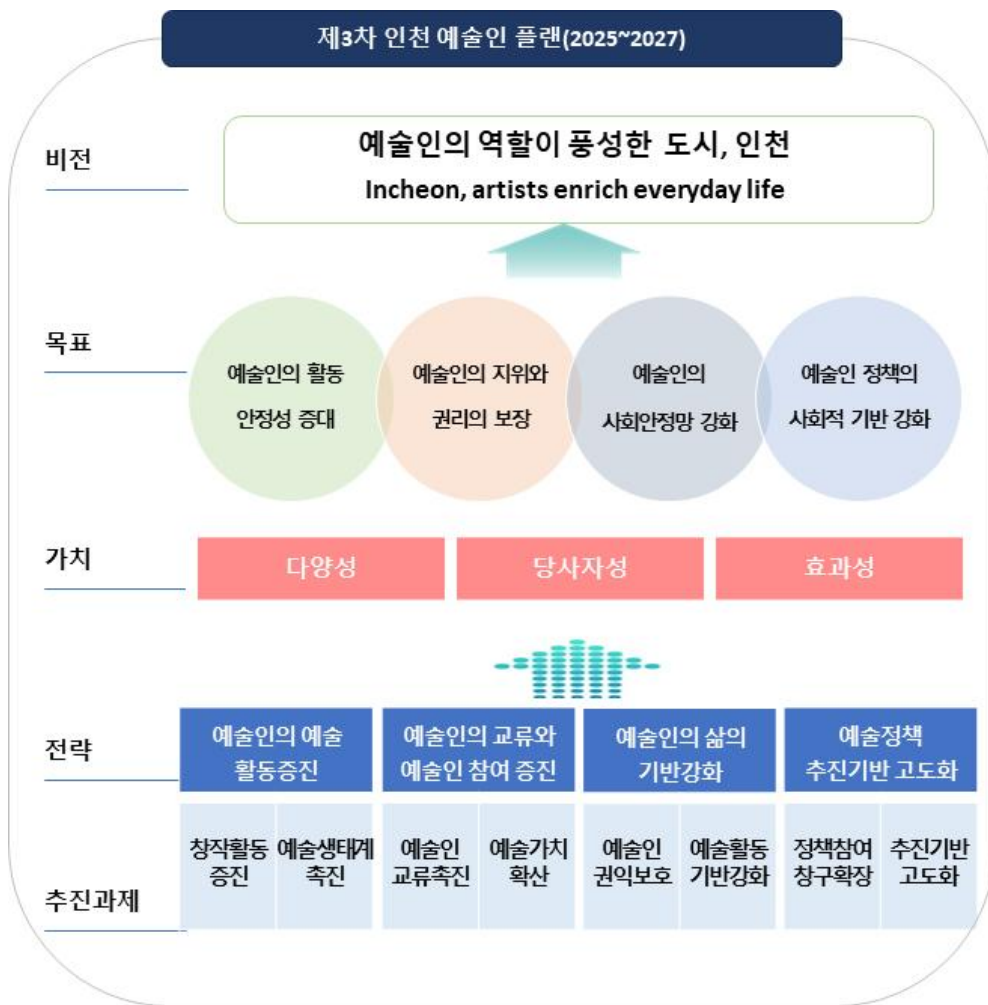
- 또한, 이는 국제 기준의 예술창작과 예술인의 활동 증진과 권익 보호의 기준에 연결되는 구조로 해석하여 운영할 수 있음.



(그림 V-7)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전략의 맥락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비전 체계

- 위 내용의 정리를 토대로 한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비전 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을 기초를 계승한 비전인 ‘예술인의 역할이 풍성한 도시, 인천’을 수립하고, 4개의 목표와 3대 가치, 4대 전략, 8대 추진과제로 비전체계를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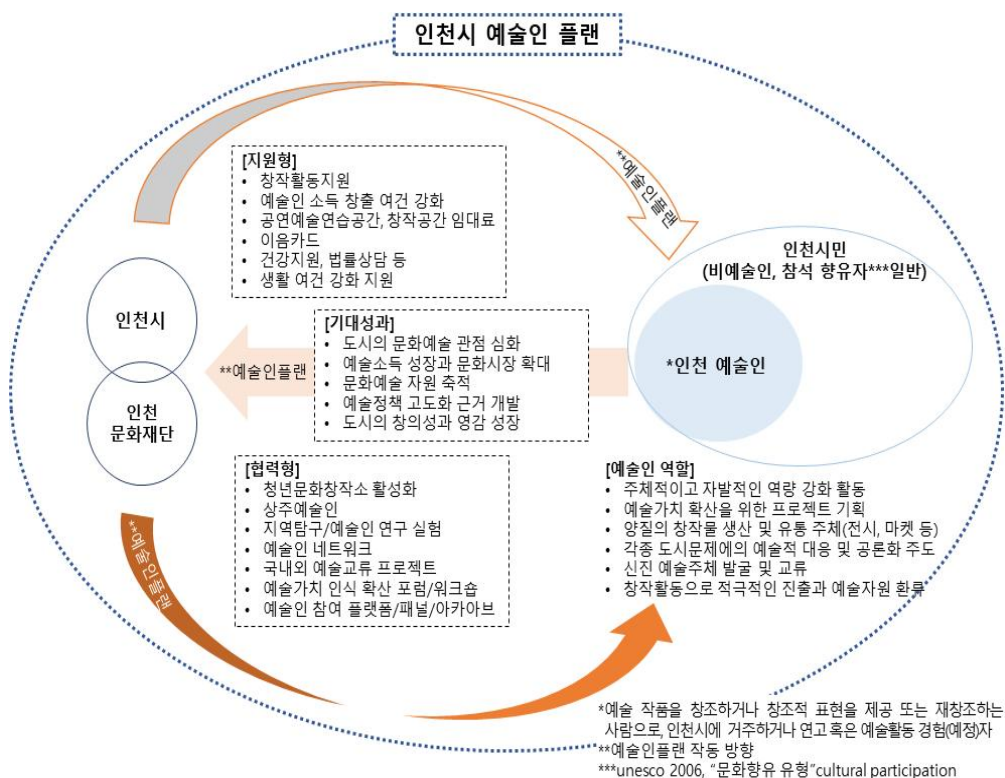
(그림 V-8)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비전 체계

3.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추진사업

1)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사업 설계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사업 구성 개념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은 위에서 제시한 비전 체계를 중심으로 사업의 순환과 연결고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배치함.



(그림 V-9)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사업의 구성 개념도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구체사업 배치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사업은 4대 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선순환되도록 각각의 개념을 정리하여 20개 사업으로 구별함.
- 각 사업은 매년 사업을 개선하면서 효과성을 높여야 하지만, 사업의 구조와 범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선에서 실행해야 하며, 일정한 사업 형식은 예술인의 사업 접근성을 높이며, 정확한 평가와 환류의 기반이 됨.

<표 V-6>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사업 구성표

대구분	중구분	소구분	내용
전략1			-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
	추진과제1		- 창작활동증진
		세부사업1	- 예술창작지원
		세부사업2	- 예술공간지원
		세부사업3	- 장애예술 다각화
	추진과제2		- 예술생태계 촉진
		세부사업4	- 새예술 아카데미
		세부사업5	- 예술창작 플랫폼 강화
		세부사업6	- 미술활성화 기획지원
전략2			- 예술인의 교류와 사회참여 증진
	추진과제3		- 예술인 교류 촉진
		세부사업7	- 예술인 네트워킹 지원
		세부사업8	- 문화예술 축제 지원
		세부사업9	- 예술인 국내외 창작교류 지원
	추진과제4		- 예술가치확산
		세부사업10	- 예술가치 캠페인
		세부사업11	- 예술실험 지원
		세부사업12	- 인천형 예술인파견 지원
전략3			- 예술인의 삶의 기반강화
	추진과제5		- 예술인 권익보호
		세부사업13	- 예술인 건강지원
		세부사업14	- 예술인 권익보호
	추진과제6		- 예술활동 기반강화
		세부사업15	- 예술인 활동이음 지원
		세부사업16	- 예술인 생활안정 지원
전략4			- 예술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추진과제7		- 정책참여 창구확장
		세부사업17	- 예술인 참여 확대
		세부사업18	- 인천시 예술인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과제8		- 추진기반 고도화
		세부사업19	-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세부사업20	- 기초-광역 예술인정책 네트워크 구축

2)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사업안

■ 사업명		예술창작지원				
■ 사업개요						
해당 전략		예술인의 예술활동증진		사업구분	유형	확대
해당 추진과제		창작활동증진			단계	시급
사업기간		2025년~2027년			사업운영주체	
사업필요성		- 인천 예술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원의 창작활동 지원 경로 필요				
사업목적		- 상반기와 하반기 지원공모로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 지원대상 특성 고려하여 예술 창작활동 지원 다각화				
사업 성과 목표	정량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일반지원	160건	160건	160건	480건
		집중지원	40건	50건	50건	140건
		청년지원	50건	50건	50건	150건
		신진/원로지원	56건	56건	56건	168건
	정성	인천시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통한 창작역량 강화				
사업 규모 (만원)	사업예산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일반지원	240,000	240,000	240,000	720,000
		집중지원	80,000	80,000	100,000	260,000
		청년지원	46,000	46,000	46,000	138,000
		신진/원로지원	30,000	30,000	30,000	9,000
■ 사업추진계획						
사업대상		인천 연고 예술인				
추진계획		※공모지원의 제출작품이 신작에 국한되는 경우, 분야별 창작시간을 고려한 공모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1) 예술창작지원				
		- 일반지원 (단년) · 예술인의 창작과 기획 및 연구 활동 지원으로 장르별 예술활동 활성화 촉진 · 문학, 시각, 공연 등 예술장르 외 문화일반(국제교류, 문화예술 연구비평·출판) 집중지원 (다년) · 리서치, 역량강화 등 창작의 과정 포함 연속지원(2년) · 시각/공연/작은예술공간 위주인 지원분야를 일반지원 수준으로 확장 검토 · 3년 차, 창작의 과정 지원사업(단년) 분리 추진 검토(일반지원과 중복 불가)				
		2) 예술생애지원				
		- 청년예술인 지원 (단년) · 인천 연고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창작자 대상 · 5개 분야(시각, 연극, 음악, 무용, 전통) - 생애처음/원로 예술인 지원 · 생애처음: 예술인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인 대상의 창작지원 · 원로: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 대상 격년제 지원 · 기획자 및 독립 큐레이터 등 확장된 예술인 범위 적용 · 지원분야는 기존 창작지원 사업을 토대로 단계별 확장				
참조사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의 과정> -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예술기반지원, RE:SEARCH>				
기대효과		- 인천시 내 예술 창작활동 지원 다각화로 인천 예술생태계 구축 강화 및 확장				

■ 사업명		예술공간지원				
■ 사업개요						
해당 전략		예술인의 예술활동증진		사업구분	유형	지속
해당 추진과제		창작활동증진			단계	시급
사업기간		2025년~2027년			사업운영주체	
사업필요성		- 예술활동 공간지원으로 예술인의 안정적 활동 여건 강화 필요 - 공간 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으로 다양한 공연예술활동 지속 체계 정착 필요				
사업목적		- 공연예술연습공간과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인천 공연예술 활성화 도모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통해 창작활동 기반 강화				
사업 성과 목표	정량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공간 가동률	70%	70%	70%	평균 70%
		역량강화워크숍	12회	15회	17회	44회
		기획지원작품	5개	5개	5개	15개
		상주단체 지원	7곳	7곳	7곳	21곳
		창작공간지원	35건	40건	40건	120건
	정성	인천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발표기회 증가				
사업 규모 (만원)	사업예산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공간운영	22,860	30,000	30,000	82,860
		역량강화	1,300	1,500	1,600	4,400
		기획지원	5,340	5,450	5,500	16,290
		상주단체 지원	62,800	70,000	70,000	20,2800
		임차료 지원	18,000	20,000	20,000	58,000
■ 사업추진계획						
사업대상		인천시 거주 혹은 활동 예술인				
추진계획		1) 공연예술연습공간 지원 - 공연 창(제)작, 연습, 실연 가능 장소이자 공연예술인 역량강화 및 예술기획지원으로 지역 기반 공연예술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 공연예술연습공간 중장기 발전방향 설립 필요 - 인천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위탁운영 10년 협약 종료 및 2025년 부지 이전 예정 - 이에, 기존 공간의 목적 및 역할에 부합하는 운영 지침 및 방향 설정 필요 2)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 공연단체와 공연장을 매칭하여 공연예술 활성화 촉진 - 공연장상주단체 및 작은공연장상주단체(상반기 공모)와 주니어공연장상주단체(하반기 공모) - 공공 공연장 외 민간 공연장 지원 검토 및 확대 3)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인천 내 연습실, 작업실 등 공간 임차료 지원으로 안정적 창작활동 기반 마련 -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 - 4년간 진행된 사업결과,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해 장르별·지역별 공간특성 및 운영 현황 파악 - 창작공간 형태 및 수요, 월 임차료 상승률 반영한 지원 체계 마련				
기대효과		- 인천시 내 예술 창작활동 안정적 기반 마련 - 창작·연습부터 발표까지 지속적인 예술활동 환경 조성				

■ 사업명		장애예술 다각화				
■ 사업개요						
해당 전략		예술인의 예술활동증진		사업구분	유형	확대
해당 추진과제		창작활동증진			단계	시급
사업기간		2025년~2027년			사업운영주체	인천시
사업필요성		- 장애예술인의 창작기회 증대 및 예술인 역량 강화에 필요 - 장애인의 문화예술 욕구 증대 부응 위해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기회 증대 필요				
사업목적		- 장애예술 가치 증대로 인천 예술생태계 다양성 증진				
사업 성과 목표	정량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창작	1	1	2	4
		향유	2	2	2	6
		교육	6	7	7	20
	정성	인천시 장애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 촉진과 장애인의 문화향유 및 교육활동 촉진				
사업 규모 (만원)	사업예산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창작	500	500	1,000	2,000
		향유	8,000	8,000	8,000	24,000
		교육	11,500	12,500	13,000	37,000
■ 사업추진계획						
사업대상		인천시 거주 장애예술인 및 인천시 소재 장애인·문화예술단체(비영리법인·단체)				
추진계획		1) 창작활동 및 발표 지원 (창작) - 예술장르(문학, 시각, 공연(연극, 음악, 무용, 국악)) 내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활동 및 작품 발표 포괄적 지원 - 1인 또는 다수 지원 가능 2)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 (향유) - 장애인이 창작주체이자 향유주체로서 즐기는 문화예술의 장 지원 - 예술장르 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 - 인천시 소재 장애인·문화예술단체(비영리법인·단체) 지원 3)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회 개최 지원 (교육) - 예술장르 내 분야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소규모 발표회 개최 지원 - 인천시 소재 장애인·문화예술단체(비영리법인·단체) 지원 - 교육장소로 배리어프리 확보 장소 의무 4) 인천시 장애예술 연구(연구) - 인천시 장애예술 현안 기반의 장기 과제 수립 필요 - 인천시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와 장애예술 아카이브 등으로 연구자원 확보 - 장애예술 활성화를 비롯한 통합·포용적 예술정책 설계를 위한 기반 마련				
기대효과		- 장애예술 가치 확산 및 활성화로 인천시 예술생태계 다양성 증진 - 창작, 향유, 교육 기회 전반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				

■ 사업명		새예술 아카데미				
■ 사업개요						
해당 전략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		사업구분	유형	확대
해당 추진과제		예술생태계 촉진			단계	시급
사업기간		2025년~2027년			사업운영주체	인천문화재단
사업필요성		- 예술인의 낮은 소득에 관한 생태계적 관점의 대응 필요 - 인천시 예술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층지원 체계 구축				
사업목적		- 인천시 도시환경을 고려한 예술창작과 예술노동의 점점 확대 - 예술인의 경제활동을 포함한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 모색				
사업성과 목표	정량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예술노동 연구	-	1	1	2
		임팩트 연구	-	1	1	2
		아카데미 참여	600	600	600	1,800
	정성	인천시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선정 기회 증가				
사업규모 (만원)	사업예산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예술노동 연구	1,000	5,000	6,000	12,000
		임팩트 연구	1,000	5,000	6,000	12,000
		아카데미 운영	15,000	15,000	15,000	45,000
■ 사업추진계획						
사업대상		인천시 거주 혹은 활동 예술인				
추진계획		1)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 연구(1차 년엔 연구 자문회의 및 워크숍만 진행) - 인천시 도시환경 특성을 고려한 예술노동 활성화 연구 · 예술노동 사례 기반의 유형/분야별 소득 로드맵 제작 - 인천시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예술인의 역량 강화 연구 · 예술인 플랜의 참여예술인 임팩트 연구 · 개인 성장 → 사회 파급 → 예술의 미래가치 창출에 관한 연구 2/3년 차 진행 2) ART_WORK_IN 예술인 취·창업 아카데미 - 예술인의 직업세계 진입과 정착, 성장에 대응하는 단계·분야별 교육 - 직업으로써의 예술활동 및 예술공간 운영 역량강화 · 실무역량을 쌓는 관련 법규와 정책 교육 및 예술창업 특화 교육 프로그램 진행 · 공간 거점의 예술인 창업 및 소득 창출 실험 지원 · 소득 실험, 공간운영 예술인에 대한 집중 컨설팅 지원 · '문화예술특화거리조성' 연계 : 예술공간 운영 컨설팅 지원 · '청년문화창작소' 연계 :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예술노동 로드맵 전시 거점				
참조사례		- 부산, 영도문화도시 '문화기획자의 성장 연구' - 서울시, 성북문화재단 청년창업실업공간 공업사 : 청년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업 콘텐츠판매 실험을 위한 공간·홍보네트워킹 지원 사업, 재단은 기본지원 외 아트마켓 개최, 상권 매핑 등 거리활성화 프로젝트 연계 추진				
기대효과		- 현장 기반의 예술노동 연구와 예술인 직업 역량강화로 예술인 소득구조 안정화 - 창작활동과 예술노동 경험의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예술생태계 촉진				

■ 사업명		예술창작 플랫폼 강화				
■ 사업개요						
해당 전략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		사업구분	유형	확대
해당 추진과제		예술생태계 촉진			단계	시급
사업기간		2025년~2027년			사업운영주체	인천문화재단
사업필요성		- 예술창작 공간의 확충과 운영 안정성 강화 욕구 대응 - 예술공간의 가치에 관한 인식 제고 방안 모색				
사업목적		- 예술공간의 전문성 강화로 운영 안정성 강화 - 예술활동의 유형별,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다거점 예술공간 조성				
사업성과목표	정량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청년공간가동률	70%	70%	70%	70%(유지)
		IAP공간가동률	70%	70%	70%	70%(유지)
		특화거리조성	8팀	8팀	8팀	24팀
	정성	- 예술공간 특화를 통한 권역별 문화역량 강화				
사업규모(만원)	사업예산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청년문화창작소	8,000	10,000	10,000	28,000
		아트플랫폼	300,000	330,000	330,000	960,000
		특화거리조성	30,000	30,000	30,000	90,000
■ 사업추진계획						
사업대상		인천시 예술인 / 예술공간 운영자 / 인천시 활동 예정인 국내외 예술인				
추진계획		1) 청년문화창작소 - 신진/청년예술인의 예술생태계 진입창구이자 네트워킹 거점 · 새예술 아카데미 / 청년예술창작 지원 / 예술실험연구 지원 추진 공간 · 인천 문화예술 활동 및 콘텐츠의 큐레이션 및 아카이브 공간 - 기능 및 공간의 단계별 확장 필요 · ①공간의 발전 계획 수립 → ②신규/예비 청년예술인 유입을 위한 네트워크 기획, 공간 운영의 실무 협력자로서의 공동운영단 운영 → ③ 공간확장 및 실무진 확충 2) 인천아트플랫폼 - 국내외를 아우르는 예술인의 교류와 창작, 발표가 이루어지는 종합 플랫폼 - 인천시 내외의 우수한 역량을 지닌 예술인의 유입과 교류의 거점 · 예술인 레지던시 / 예술실험 지원 / 지원 작가 대상의 비평 작업 매칭 - 국내외 예술활동의 실질적 교차를 통한 창작 심화 상호학습 지원 및 결과 아카이브 추진 - 입주작가는 20인(팀) 내외 점층 확장 외부 작가와 인천 문화의 관계 형성 및 심화 3)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 - 시민 일상 속의 예술창작거점 조성과 예술공간 네트워크 구축 - 예술공간 운영의 영감 확장을 위한 과정/결과 공유회 연간 개최				
기대효과		- 현장 기반의 예술노동 연구와 예술인 직업 역량강화로 예술인 소득구조 안정화 - 창작활동과 예술노동 경험의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예술생태계 촉진				

■ 사업명		미술활성화 기획지원				
■ 사업개요						
해당 전략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		사업구분	유형	확대
해당 추진과제		예술생태계 촉진			단계	시급
사업기간		2025년~2027년			사업운영주체	인천문화재단
사업필요성		- 예술활동의 결과가 예술시장으로 직결되는 창구 필요 - 예술활동과 일상 공간의 중간지대 확장				
사업목적		- 미술품과 유통 방식의 다양화로 미술시장 진입 창구 확대 - 관광거점과 문화기획의 결합을 통한 미술시장 활성화 기여				
사업성과 목표	정량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미술은행전시	4회	4회	4회	12회
		아트아카이브	30건	30건	30건	90건
		팝업갤러리	-	1개	-	1개(유지)
	정성	- 미술품 유통문화의 확장을 통한 미술 생태계 강화				
사업규모 (만원)	사업예산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미술은행전시	20,000	25,000	20,000	95,000
		아트아카이브	3,000	5,000	5,000	13,000
		팝업갤러리	5,000	13,000	20,000	38,000
■ 사업추진계획						
사업대상		인천시 거주 혹은 활동 예술인				
추진계획		1) 인천미술은행 - 인천미술은행의 소장품 관리 및 강화 수장고 운영 · 미술품의 매입과 관리에 따른 운영 지속 - 인천의 도시 인프라 기반의 전시 콘텐츠 개발 · 송도컨벤시아, 인천국제공항, 엘리웨이 인천 등과의 협력 전시 기획 · 작품 전시처와 미술은행 간 작품 유통망 구축 2) 인천 아트 아카이브 확장(가능 시 현 인천문화예술아카이브 내 카테고리화) - 인천 아트 아카이브 대상 예술인 확대로 인천시 미술자원 기초 정보 확대 · 청년예술인, 소규모 예술커뮤니티 등의 탐색과 관계 형성을 위한 기반구축 · 향후 인천시 미술자원의 재해석 및 활용방안 논의 테이블 구축 3) 미술시장 활성화 - 팝업갤러리 Art Pop Incheon · 현역으로 활동 중인 시각 기반 작가들의 팝업갤러리 기획 · 인천미술은행에서 구축한 협력망을 통한 개최지 다양화 · 시민 일상 공간, 주요 관광지 등에 공간 입점 · 예술가치확산에서 도출한 이슈의 기획전, 유관·인근 도시와의 기획 스토어 등 (ex. 인천-부산-울산이 협력하는 해양생태 기획전, 예술인TF 주최의 소규모 아트페어)				
참조사례		- 경기도, 아트경기 : 연도별 참여작가 구성, 미술인의 미술시장 진입과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아트마켓-팝업갤러리-미술품 임대-아트페어’로 연계 개최 - 일본, nuunu_kyoto : 교토의 다카시야마 백화점 내 상설 공간에서 운영단체의 큐레이팅, 국내외 작가들의 프로젝트 등의 기획전을 통해 중저가 미술품 및 아트상품 판매				
기대효과		- 예술인-시장-기관 간의 신뢰 관계 기반의 예술시장 활성화로 미술 생태계 촉진				

■ 사업명		예술인 네트워킹 지원				
■ 사업개요						
해당 전략		예술인의 교류와 사회참여 증진		사업구분	유형	확대
해당 추진과제		예술인교류 촉진			단계	중기
사업기간		2025년~2027년			사업운영주체	인천문화재단
사업필요성		- 예술인들이 동료 예술가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장 필요 - 예술인들이 다양하게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네트워크 채널 필요				
사업목적		- 인천 지역의 동료예술인들과 예술 경험을 공유하여 네트워크 형성 - 예술과 관련한 인천 의제를 도출				
사업성과목표	정량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네트워크모임	10회	10회	10회	30회
		라운드테이블	5회	5회	5회	15회
		워크숍진행	15회	15회	15회	45회
		네트워크팀	5팀	5팀	6팀	16팀
	정성	-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형성				
사업규모 (만원)	사업예산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예술인네트워크	3,000	4,000	4,000	11,000
		워크숍	34,000	34,000	35,000	103,000
■ 사업추진계획						
사업대상		인천시 거주 혹은 활동 예술인, 인천시에서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 국내 예술인				
추진계획		1) 인천시 예술인 네트워킹(가칭-한번 짬은 만남 사이) - 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은 인천 예술인들 네트워크 진입 창구 확장 필요 - 분야, 장르의 경계가 아닌 네트워크의 장 월간 추진 - 기존 예술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예술가는 새로운 예술가를 1~2명씩 초대하여 '한번 짬은 만남 사이'의 관계를 형성 - '구인광고' 및 '구직광고' 진행하여 서로의 일거리 매칭 등 번외 프로그램 도입 2) 예술인 네트워킹 워크숍 - 라운드테이블 운영(5회 진행) - 인천 예술인과 관련된 의제를 중심으로 라운드테이블 진행하여 의제 도출 - 도출 의제를 중심으로 워크숍 진행(3개 주제 5회 진행) - 워크숍 결과를 '예술가치확산' 과제의 세부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독려				
참조사례		- 영도문화도시 센터 '내·일의 항해캠프' : 지역과 일상의 연결, 네트워크와 협업에 관한 역량강화 등에 관심 있는 (예비)예술인을 모집, 위케이션 개념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진행. 부산 외 지역 신청자를 우선 선발하는 특징				
기대효과		-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 프로그램 안에서 동료 예술가들과 의견을 교류하며 예술 활동 역량과 창작 의욕 향상에 기여 - 인천 지역의 신규 예술가들의 발굴 및 네트워킹				

■ 사업명	문화예술 축제 지원
-------	------------

■ 사업개요						
해당 전략		예술인의 교류와 사회참여 증진		사업구분	유형	신규
해당 추진과제		예술인교류 촉진			단계	장기
사업기간		2025년~2027년			사업운영주체	인천문화재단
사업필요성		- 인천시 예술인들이 함께 교류하고 예술작업을 실험할 수 있는 매개 필요 - 인천을 대표하는 예술축제의 브랜드화 필요				
사업목적		- 협업을 통한 예술가들의 교류 촉진 - 축제라는 매개를 통해 예술가들이 사회에 기여한 가치 확산				
사업 성과 목표	정량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추진단구성	12명	12명	15명	39명
		축제진행	1회	1회	1회	3회
		참여예술인	500명	500명	500명	1500명
	정성	- 예술인들의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 기반 강화				
사업 규모 (만원)	사업예산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축제	21,000	25,000	25,000	71,000

■ 사업추진계획	
사업대상	인천시 예술인 및 모든 시민
추진계획	1) 인천시 예술 축제를 위한 추진단 운영 - 인천문화재단, 작가, 축제 총괄 감독(또는 단체)으로 구성된 추진단 구성 · 총괄 감독 및 예술 감독이 도입된 체계 필요 · 인천시 예술인기획자 및 인천시에 이해가 높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추진단 인력풀 구성 2) 인천시 예술 축제 진행 - 축제 총괄 예술감독(또는 단체) 중심으로 축제 기획 및 설계 진행 · "인천", "예술(인)"과 관련하여 축제 당해연도 주제 선정에 대해 추진단 회의 진행 · 주제 선정 이후, 축제 컨셉 및 축제 장소 등 선정 · 주제와 관련한 참여 예술가 및 단체 공모 · 축제 부스 중 한 곳은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아카이브 전시 진행 필수 구성 · 예술가치 캠페인과 연계하여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내용 필수 구성 3) 인천문화재단 인천 축제 브랜드화 - 2025~2027년은 연 1회 개최, 이후 누적된 주제의식과 노하우, 역량 있는 축제 인력들을 활용하여 계절별 축제로 확대하여 인천문화재단의 축제 통합 브랜드 구축
참조사례	- 서울문화재단 : 아트페스티벌 서울 · 서울문화재단의 대표 예술축제를 모은 축제 통합 브랜드 · 서울문화재단의 대표 예술축제를 사계절로 편성하여 다양한 장르의 축제 진행 · 노들섬, 잠실체육관, 서울광장, 문화역서울284등 서울 소재 주요 공간 활용
기대효과	- 인천을 대표하는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여 도시 문화예술 브랜드 창출 - 인천 시민의 다채로운 주제와 형태의 예술활동 향유 기회 확대

■ 사업명		예술인 국내외 창작교류 지원				
■ 사업개요						
해당 전략		예술인의 교류와 사회참여 증진		사업구분	유형	신규
해당 추진과제		예술인교류 촉진			단계	시급
사업기간		2025년~2027년			사업운영주체	인천문화재단
사업필요성		- 인천시는 동북아 관문이 되는 지리적 위치로, 아시아 예술창작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여, 글로벌 인천의 위상에 맞는 발신지로의 도약 필요				
사업목적		- 인천지역 예술인과 국내외 예술인 간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 프로젝트 활동 - 타시도 예술인 교류로 다양성에 기반한 도시활력 증대				
사업성과 목표	정량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국내입주작가	15인/팀	15인/팀	15인/팀	45인/팀
		국외입주작가	2명	2명	2명	6명
		연구레지던시	3인/팀	3인/팀	3인/팀	6인/팀
		예술인캠프	60명	30명	30명	90명
	정성	- 아시아 예술 중심지로의 기반 마련				
사업규모 (만원)	사업예산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레지던시	15,000	15,000	15,000	45,000
		예술인캠프	7,000	7,000	7,000	21,000
■ 사업추진계획						
사업대상		국내외 예술인				
추진계획		1) 국내외 예술인 레지던시 운영 -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운영 · 국내외 예술인 대상의 레지던시 입주작가 모집 · 대상작가를 인천시 외 국내외 작가로 개방, 인천시 외부의 우수 자원 유입 유도 · 작업세계의 확장 가능성과 협업 역량, 교류 계획 등 창작역량의 영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선정기준 제안 · 비평가 등의 결합을 통한 확산 계획 다변화 검토 · 지역연구 오픈랩 프로젝트 : 인천시 도시문제 및 지역특성을 작업세계와 연결하는 예술인의 생활공간 추가 마련 2) 예술인 캠프 - 인천문화재단 주최의 예술인 캠프 진행 - 연도별 예술인 이슈를 중심으로 캠프 콘셉트와 주제 등 예술인 특화 캠프 기획 - 인천시와 타 지역 예술인 5:5 비율로 참여자 선정, 타 지역 예술인 동반신청 시 우선 선발 - 예술인 네트워크 캠프와 예술인 역량강화 캠프로 이원화 진행 - 활동비지원, 프로젝트실행비지원, 위케이션 숙박제공 등				
참조사례		- 영도문화도시센터 : 예비예술인 예술선단 x 내·외의 항해캠프(2024년 기준) · 지역(영도)읽기, 동료 및 멘토 예술인과 학습 및 교류, 대안적인 예술실천과 공동체형성 · 활동비지원, 프로젝트실행비 지원, 위케이션 숙박제공, 스터디ทริป 참여기회 등				
기대효과		- 인천지역 예술인과 국내외 예술인 간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 프로젝트 활동 증진 - 다양한 장르, 지역의 예술인들이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지역 예술분야 진흥에 기여				

■ 사업명		예술가치 캠페인				
■ 사업개요						
해당 전략		예술인의 교류와 사회참여 증진		사업구분	유형	확대
해당 추진과제		예술가치 확산			단계	시급
사업기간		2025년~2027년			사업운영주체	인천문화재단
사업필요성		- 예술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안 된 예술 이슈의 수렴 활동 필요 - 예술가치의 가시화를 통한 예술정책의 위상 제고				
사업목적		- 인천시 예술인의 활동 안정감과 사회적 효능감 고취 - 인천시민을 포함한 생활인구 전반 대상의 문화예술적 도시 이미지 제고				
사업 성과 목표	정량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오프라인	200만명	200만명	200만명	600만명
		온라인	1,000만명	1,500만명	2,000만명	4,500만명
	정성	- 캠페인 브랜딩의 예술인과 시민 호응 정도 및 동시대성				
사업 규모 (만원)	사업예산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브랜딩	3,000	-	-	3,000
		오프라인	5,000	5,000	5,000	15,000
		온라인	1,000	2,000	2,000	5,000
■ 사업추진계획						
사업대상		인천시 거주 혹은 활동 예술인				
추진계획		1) 캠페인 브랜딩 - 예술의 가치와 인천시의 문화비전을 연결하는 캐치프레이즈, 엠블럼 등 브랜딩 · 참고) 일상 예술 도시 인천, 예술하기 좋은 도시 인천, 예술로 빛나는 인천 등 - 인천시 예술인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술가치 확산 캐치프레이즈 설정 - 캠페인 디자인 등 관련 워크숍과 캠페인 추진 실무 진행 2) 온/오프라인 캠페인 - 오프라인 캠페인 · 예술가치 캠페인 브랜드 확산을 위한 버스, 지하철 내 홍보물 게재 · 관내 및 근거리 주요 도시 내 유동인구 많은 역사 내 스크린도어 등 노출 - 온라인 홍보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예술인 정책 홍보 전용 계정 확보 · 캠페인 브랜딩 결과와 인천 예술인 플랜 추진과정 지속 업로드 · 숏폼 활용을 통한 캠페인 접근성 극대화 - 캠페인 관리 · 온라인은 노출 수, 팔로우 증가, 오프라인은 유동인구 수 등으로 성과 산출 · 성과에 따라 예술가치 캠페인 예산 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중 조정				
기대효과		- 인천시 내 예술가치 인식 제고로 생태계 차원의 예술활동 증진기반 강화 - 예술 가치로 성장하는 도시로서의 인천시 이미지 확보				

■ 사업명		예술실험 지원				
■ 사업개요						
해당 전략		예술인의 교류와 사회참여 증진		사업구분	유형	확대
해당 추진과제		예술가치 확산			단계	시급
사업기간		2025년~2027년			사업운영주체	인천문화재단
사업필요성		- 예술인 당사자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인식 확장 필요 - 예술인 플랜의 발전적 추진을 위한 협력 경험 강화				
사업목적		-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예술인의 주체성 강화 - 예술의 가치확산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상호인식 확산				
사업 성과 목표	정량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예술실험 모임	12팀	12팀	12팀	36팀
		다원예술 프로젝트	3팀	3팀	3팀	9팀
	정성	시민참여	1,000명	1,000명	1,000명	3,000명
사업 규모 (만원)	사업예산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예술실험 모임	4,000	4,000	4,000	12,000
		다원예술 프로젝트	13,000	13,000	13,000	39,000
■ 사업추진계획						
사업대상		인천시 거주 혹은 활동 예술인				
추진계획		1) 예술실험 모임 지원 - '지역기반청년탐구지원'의 향후 과정으로 추진 - 인천시 도시의제에 관한 예술적 대응이나 예술인이 자발적으로 창작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소규모 프로젝트 지원 - 액션리서치, 리빙랩 등의 방식 활용 가능, 1인팀 가능, 팀별 정액 지원 - 팀당 300만 원 이내, 무정산 혹은 단기 프로젝트 사례비 등으로 정산 최소화 - 인천시 예술계의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예술인 성평등 약속문', 영감과 창작 방식 개발을 위한 '융합실험 해커톤' 등 2) 예술가치 확산을 위한 다원예술 프로젝트 지원(단체) - 문화격차, 다양성 증진, 저출생 등 사회의제 관련 예술 프로젝트 지원사업 - ①예술성 ②사회가치의 명확성 ③프로젝트 방식의 파급력 ④예술작업으로써 지속성을 심의기준으로 다원예술/자유 장르 프로젝트 선정 - 워크숍, 리빙랩, 액션리서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되, 예술성 기준 최우선 - '예술실험 모임 지원'의 우수 사례의 경우 프로젝트 단체 지원과 연계 - 예술실험 모임과 통합 결과공유회 개최로 예술의 가치확산 경험 공유				
참조사례		- 예술 액션리서치 : Art-based action research in the development work of arts and art education : 삶의 현장, 실생활의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실험해보는 실천적 연구 방식인 액션 리서치를 사회문제의 예술적 대응 실험, 예술교육 시범 운영 등에 활용 · 성북 공공예술사업 액션리서치, 강남 문화재단 실천적 문화예술교육 연구랩 등 -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다원예술 C트랙 : 융복합형, 실험, 기타 예술활동을 위한 3,500만 원 예술단체 발표 지원사업				
기대효과		-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예술의 사회가치 인식의 제고와 확산 - 인천시의 도시 의제에 관한 예술적 재해석 콘텐츠 개발 및 축적				

■ 사업명	인천형 예술인파견 지원
-------	--------------

■ 사업개요							
해당 전략		예술인의 교류와 사회참여 증진			사업구분	유형	확대
해당 추진과제		예술가치 확산				단계	시급
사업기간		2025년~2027년				사업운영주체	인천문화재단
사업필요성		- 예술가치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전제한 예술인의 소득 안정화 방안 마련 - 예술인과 지역사회, 기업, 기관의 협업 경험 확대를 통한 예술가치 확산 강화					
사업목적		- 인천시 도시 특성 기반의 예술직무 영역 확장 - 예술인과 기관, 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예술가치 확산					
사업 성과 목표	정량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협력 기업	4개	4개	4개	12개	
		매칭 예술인	6명	6명	6명	18명	
		프로젝트	7건	7건	7건	21건	
	정성	- 예술인 소득 강화 및 기업의 예술 관련 사업 개발					
사업 규모 (만원)	사업예산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인건비	180,000	180,000	180,000	540,000	
		개인 프로젝트	1,200	1,200	1,200	3,600	
		기타 운영	1,000	1,000	1,000	3,000	

■ 사업추진계획	
사업대상	인천시 거주 혹은 활동 예술인
추진계획	1) 인천형 예술인파견 지원 ‘인천 예술로’ - 기존 ‘청년역량강화’ 사업을 일자리 매칭 사업으로 전환 - 인천시 소재 기업과 예술인의 예술 프로젝트 매칭 · 예술 관련 업종/기존 업종에 예술사업을 추가 개발 중인 대상 업체 선정 · 선정된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의 수행을 원하는 예술인 선정 및 기업 매칭 · 매칭 예술인은 업체 제안 프로젝트 외, 선정된 업체 혹은 인천문화재단의 자원을 활용한 개인 프로젝트/콘텐츠 기획(ex. 공공도서관 서가 재해석 등) · 개별과제 지원은 인건비 지원과 별도로 산정 · 매칭 형태는 월 11일 이상의 노무 제공 및 6개월 이상의 고용 등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조건 충족 혹은 고용보험 기간 합산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
기대효과	- 예술과 사회의 점점 확대와 관련 주체의 파트너십 강화로 신뢰자본 구축 - 확장된 예술직무 영역을 통한 예술인의 직업세계 진입 창구와 소득 확대

■ 사업명		예술인 건강지원				
■ 사업개요						
해당 전략		예술인의 삶의 기반강화		사업구분	유형	지속
해당 추진과제		예술인 권익보호			단계	시급
사업기간		2025년~2027년			사업운영주체	인천문화재단
사업필요성		- 전국 최초유일하게 운영하는 “직업 예술인의 차별 없는 건강 복지 지원 체계” 지속 필요				
사업목적		- 인천시 예술인의 건강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삶의 안정성 강화 - 인천시 예술인 개개인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지원으로 창작 의욕 지속 도모				
사업 성과 목표	정량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건강검진	400명	400명	400명	1,200명
		심리상담	90명	90명	90명	270명
		상해보험	3,000명	3,200명	3,500명	3,500명(누적)
	정성	인천시 예술인 건강지원을 통한 예술인 생활 안정화				
사업 규모 (만원)	사업예산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건강검진	13,000	13,000	13,000	39,000
		심리상담	12,000	12,000	12,000	36,000
		상해보험	15,000	15,000	15,000	45,000
■ 사업추진계획						
사업대상		인천시 연고 혹은 인천예술인이음카드 발급 예술인				
추진계획		1) 예술인종합건강검진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인천 연고 예술인 대상(당해연도 기준 건강검진 대상) - 협력검진센터에서 1건당 30만원 범위 검진 혜택 제공 · 필요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의료비 지원 안내 - 예술인 접근성을 위해 종합건강검진 의료기관 업무협약 신규기관 확대 (24년: 7개소) 및 연중 운영 - 사업 참여도를 위해 예술인이음카드와 함께 홍보 고려 2) 심리상담 - 인천시 연고 예술인 및 단체 대상 - 예술인 개인·사회적 환경 고려하여 개인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운영 ·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 비용 추가 지원 (최대 100만원) - 예술인 접근성 위해 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료기관 업무협약 신규기관 확대(24년: 6개소) 및 연중 운영 - 사업 참여도를 위해 예술인이음카드와 함께 홍보 고려 3) 상해보험 - 인천예술인이음카드 발급 예술인 대상 - 안심보험(상해보험) 단체가입으로 생활건강권 지원 강화				
기대효과		- 보편 복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권익보호 향상 - 특히 건강지원은 인천시 예술인에게 자신의 신체·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대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작 의욕 지속 도모				

■ 사업명		예술인 권익보호				
■ 사업개요						
해당 전략		예술인의 삶의 기반강화		사업구분	유형	확대
해당 추진과제		예술인 권익보호			단계	시급
사업기간		2025년~2027년			사업운영주체	인천문화재단
사업필요성		-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예술인의 사회적 보호망 필요				
사업목적		- 예술인이 노출된 구체적 위험 대응 및 예방 지원을 통해 예술인 삶의 안정성 강화 - 예술인 권익보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예술생태계 구축				
사업 성과 목표	정량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상담 접수	70건	70건	70건	210건
		권익보호 캠페인	12건	12건	12건	36건
		성폭력예방및대응체계보완	2회	2회	2회	6회
	정성	인천 예술인을 위한 사회 안정망 강화				
사업 규모 (만원)	사업예산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상담 및 홍보	4,500	5,000	5,000	14,500
		성폭력예방및대응연계	300	300	300	900
■ 사업추진계획						
사업대상		인천시 연고 예술인 및 단체				
추진계획		1) 법률상담 - 인천시 연고 예술인 및 단체 대상 (예비 예술인 포함) - 서면계약, 문화예술 불공정행위, 저작권 등 권익보호 관련, 세무·회계·노무 등 사회보험 분야 법률 검토 및 전문가 상담 지원 · 필요 시, 상담신청 건수 확대 (24년: 동일 신청인 기준, 당해연도 내 최대 3건) - 사업 참여도를 위해 예술인이음카드와 함께 홍보 고려 2) 예술인 권익보호 지원 (구 예술인 행정지원) -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문 대응 창구 운영 · 예술활동증명 행정 지원 및 중앙정부 예술인 복지지원사업 접수, 신청 대행 · 예술인 및 문화예술용역 사업장 고용보험 관련 안내(예술인 고용보험 센터 연결)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관련 안내(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결)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캠페인 운영 · 문화예술 사업장과 예술인 대상의 예술인 고용보험 지속 안내 및 가입 독려 3) 예술계 성폭력(성희롱·성추행) 예방 및 대응 - 성폭력 사건 대응 절차 안내 및 개선 · 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업안내 카테고리에 사건 대응 페이지 추가 · 기본절차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문고,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인권플러스 등 광역 및 민간의 대응 단체 연결 안내 · 최초접수와 연결을 위한 담당자 기본교육 진행(연 1회, 법정 의무교육과 연계) · 체계 보안을 위한 자문회의, 내용 개선, 네트워크 등 진행 가능(최소예산 설정) - 내부사업연계 : '예술실험 지원'에서, '성평등 인식 제고' 주제 1건 의무 설정으로 예술인들의 주체적 예방 활동 활성화				
기대효과		- 인천시 예술인 사회 안정망 강화로 예술인 권익보호 및 증진				

■ 사업명		예술인 활동이음 지원				
■ 사업개요						
해당 전략		예술인의 삶의 기반강화		사업구분	유형	확대
해당 추진과제		예술활동 기반강화			단계	시급
사업기간		2025년~2027년			사업운영주체	인천문화재단
사업필요성		- 인천시 내 예술인의 생활권 형성 및 창작환경 구축 강화 필요 - 인천시 내 예술인·예술단체 간 교류 기반 마련 필요				
사업목적		- 인천시 예술인이음카드를 통한 예술인의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및 창작환경 조성 - 예술인·예술단체 현황 파악 및 정보 공개를 통해 문화예술인력 간 교류 활성화 도모				
사업 성과 목표	정량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이음카드(누적)	3,200건	3,500건	3,800건	3,800건
		DB 등록	-	1,000건	1,000건	2,000건
	정성	인천 예술인의 생활권 형성 및 예술인 간 교류 활성화				
사업 규모 (만원)	사업예산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이음카드	66,000	68,000	68,000	202,000
		예술인DB	3,000	6,000	6,000	15,000
■ 사업추진계획						
사업대상		인천시 연고 혹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인천 연고 예술인				
추진계획		1) 인천시 예술인이음카드 -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인천 연고 예술인 대상 - 지역 전자화폐와 연계하여 5% 추가 캐시백 제공 - 예술인이음카드 이용이 인천 예술인 생활 권역 구축에 부합하는지 지속성 검토 및 지속 근거 마련 - 기획자 사례비 지급 - '예술창작지원'에서 창작지원금 외 창작활동비 이음캐시로 지급 - 이음카드와 예술인DB 정보 연동 및 예술인 문화활동 활성화 - 예술인이음카드 기존 이용자 및 신규발급자의 예술인DB 등록 시스템 구축 - 펜타포트락페스티벌 등 인천시 대표 축제 입장권, 청라블루노바홀, 아트센터인천 등의 주요 문화공간의 공연 및 행사 할인 제도 도입 2) 예술인DB 구축 - 정보 대상 파악과 분류체계 수립, DB 활성화의 단계적 추진 필요 - "2025 예술인DB 구축을 위한 기초 자원 채집 - "2026 예술인DB 분류체계 수립 및 활성화 연구(현장 공청회, 워크숍 등 포함) - "2027 예술인DB 사이트 개발, 종합정보플랫폼의 주요 카테고리 격 위상 확보 - (구축 후)"2028~ 사이트 내 예술인의 직접 등록 캠페인, 혜택 도입 등 정보 환류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연간 사이트 관리 비용 확보 필수				
참조사례		- 경기도, 예술인·예술단체 DB: 예술인 전수조사 및 기초 지자체 협력과 예술인·예술단체 직접 입력으로 경기도예술인지원센터 내 DB 구축. 이를 통해 예술인·예술단체 정보 확인, 교류 및 재능, 활동도구, 재료 등 서로 나눔 기반 마련				
기대효과		- 인천시 예술인이음카드로 안정적인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예술인·예술단체 DB 활용하여 문화예술인력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				

■ 사업명		예술인 생활안정 지원				
■ 사업개요						
해당 전략		예술인의 삶의 기반강화		사업구분	유형	신규
해당 추진과제		예술활동 기반강화			단계	시급, 장기
사업기간		2025년~2027년			사업운영주체	인천시
사업필요성		- 주거 불안정 및 소득 불안정 상황에 놓인 예술인 지원 필요 - 예술인 양육가정 내 아이돌봄 지원으로 예술활동 간접 지원 필요				
사업목적		- 주거 안정 및 금융 안정망 구축으로 예술인의 창작 의욕 지속 - 양육자인 예술인의 예술경력 단절 방지				
사업 성과 목표	정량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매입임대주택	-	-	25건	25건
		창작자금 융자	-	10명	10명	20명
		예술인 돌봄	4,000시간	8,000시간	8,000시간	20,000시간
	정성	인천시 예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안정적인 창작환경 지속				
사업 규모 (만원)	사업예산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매입임대주택	-	100,000	50,000	150,000
		창작자금 융자	-	10,000	10,000	20,000
		예술인 돌봄	5,000	10,000	10,000	25,000
■ 사업추진계획						
사업대상		인천시 거주 예술인 혹은 인천시 예술인이음카드 이용 예술인				
추진계획		1) 예술인 매입임대주택 사업 시행 -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업무 협약 체결하여 '예술인 매입임대주택' 사업 시행 - 인천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예술인 유형 추가 · 신청조건: 인천시 예술인이음카드 발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순위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제시한 자격 및 소득기준에 따름) · 임대조건: 시중시세 30~50% 수준 · 매입형 공급규모: 25호 2) 창작자금 융자 지원 - 인천시,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 내 은행과 금융업무 협약 체결하여 창작자금 융자 지원 · 신청조건: 인천시 예술인이음카드 이용 예술인 · 대출규모: 매년 5억 원(1인 5천만 원 한도) · 인천시는 연 이자차액 2.5% 보전 지원 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지원 - (연계) '예술인 권익보호 대응 창구'와 연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생활안정자금/전세자금대출) 융자 지원 안내 4) 예술인 돌봄 지원 - 인천시와 '인천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하여 예술인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인천시 예술인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및 수요 파악 및 시범사업 후 지속 · '인천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협력 프로세스 구축, 비용 지원체계 마련				
기대효과		- 주거 안정 및 금융 안정망 구축으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활동환경 조성 - 육아하는 예술인의 예술경력 지속 도모				

■ 사업명		예술인 참여 확대				
■ 사업개요						
해당 전략		예술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사업구분	유형	신규
해당 추진과제		정책참여 창구확장			단계	시급, 장기
사업기간		2025년~2027년			사업운영주체	인천문화재단
사업필요성		- 인천 예술인 플랜의 추진 과정의 연간 모니터링 - 예술생태계 일원의 예술정책 전문성 강화로 추진기반 토대 마련				
사업목적		- 인천 예술인 플랜의 연간 평가와 성과 누적 - 인천시 내 예술정책 전문가 확대				
사업 성과 목표	정량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모니터링단	12명	12명	12명	36명
		모니터링 결과	30건	30건	30건	90건
		연간 제언	1건	1건	1건	3건
	정성	- 당사자성 기반의 예술인 플랜의 보완 지점 확보				
사업 규모 (만원)	사업예산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모니터링단 운영	1,000	1,000	1,000	3,000
■ 사업추진계획						
사업대상		인천시 거주 혹은 활동 예술인				
추진계획		1) 인천시 예술정책 모니터링단 구성 및 역량 강화 - 인천시 예술인, 인천시민, 인천시 외부 문화예술인력으로 모니터링단 구성 - 예술정책의 맥락과 국내 현안 관련한 모니터링단 대상의 내부 세미나 격월 진행 - 인천 예술인 플랜의 수립 과정과 현안을 주제로 포함 - 회의비 등 최소 사례비로 책정 2) 예술인 플랜 모니터링 - 예술인 플랜의 현장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서 작성 - 모니터링 결과 집계를 위한 공유회 진행 - 정책 위원회 및 정책 네트워크와 모니터링 결과 공유 - 모니터링 결과의 분석과 누적으로 향후 예술정책의 방향 설정 지원				
기대효과		- 인천시 예술정책의 고도화를 위한 지역 기반 강화 - 예술인 플랜 추진의 개선 방안의 실효성 강화				

■ 사업명		인천시 예술인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개요						
해당 전략		예술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사업구분	유형	신규
해당 추진과제		정책참여 창구확장			단계	시급, 장기
사업기간		2025년~2027년			사업운영주체	인천시
사업필요성		- 인천 예술인 플랜의 위상 강화를 통한 추진 안정성 확보 - 예술인 플랜의 발전적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강화				
사업목적		- 인천 예술인 플랜의 관련 전문가, 행정가 간의 네트워크 구체성 확인 - 예술인 플랜의 실효성과 예술인 조례 당위의 동시 증진				
사업성과 목표	정량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위원회 개최	2	4	4	8건
	정성	- 인천시의 예술인 플랜 추진 의지 평가				
사업규모 (만원)	사업예산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위원회 개최	200	600	600	1,400
■ 사업추진계획						
사업대상		인천시 거주 혹은 활동 예술인				
추진계획		- 인천 예술정책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인천시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기관장, 예술인, 행정 전문가 등으로 예술정책 위원회 구성 · 위원의 구성과 세부 운영 방식은 인천 예술인 조례 7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위원회”가 대행하는 방식을 참조하나, 예술정책의 전문성 심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 실제 추진 사업 부서의 부서장 등의 행정 전문가와 분야별 대표성을 지닌 예술인, 기관장 등으로 구성 필요 · 별도의 실무위원단을 구성, 예술인모니터링단과 정책 네트워크와 이슈 공유 테이블 개최 · 예술인 플랜 모니터링 결과와 정책 네트워크가 발안한 의제를 안건으로 활용 · 전체 회의는 연간 2회, 실무위원은 모니터링단과 정책 네트워크 이슈 공유를 위한 회의 2회 추가 진행				
기대효과		- 예술정책 및 도시계획의 행정가, 전문가, 당사자 네트워크로 추진기반 고도화 - 기관과 현장의 의견 환류를 통한 예술인 플랜의 실질적 발전안 도출				

■ 사업명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 사업개요						
전략		예술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사업구분	유형	신규
추진과제		추진기반 고도화			단계	시급
사업기간		2025년~2027년			사업운영주체	인천시, 인천문화재단
사업필요성		- 인천 예술인 플랜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체계 강화 필요 - 인천 예술인 플랜의 도출된 성과를 순환할 수 있는 환류 마련 필요				
사업목적		- 인천 예술인 플랜에 적합한 예술인지원센터 위상 확보 - 인천 예술인 플랜 실효성 있는 사업 수립 및 사업 고도화				
사업 성과 목표	정량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발전전략수립	1회	-	-	1회
		예술인실태조사	-	1회	-	1회
	성과평가	-	-	1회	1회	
	정성	- 인천시 예술인 지원생태계 강화				
사업 규모 (만원)	사업예산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발전전략수립	5,000	-	-	5,000
		실태조사	-	8,000	-	8,000
		성과평가	-	-	6,000	6,000
■ 사업추진계획						
사업대상		인천시, 인천문화재단				
추진계획		1) 인천예술인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인력 증원 - 인천 예술인 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술인지원센터 발전전략 수립 -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인천 예술인 플랜의 예술인 지원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 예산과 추진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보완·개선·조정할 수 있는 방향의 위상 강화 - 인천시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예술인지원센터 독립성 강화와 인력 증원 필요 2) 인천시 예술인정책 기반 연구 - 예술인 플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 도출 및 분석 필요 - 인천 예술인 플랜 사업별 모니터링 집계(연간) - 사업별 성과 지표 집계(연간) - 예술인 실태조사지 개선 및 실태조사 진행(3년 주기) - 집계 내용의 종합평가를 반영한 인천 예술인 플랜 성과평가 진행 - 향후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 연구로 결과 이월				
기대효과		- 인천예술인지원센터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인천 예술인의 자생력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 인천 예술인들의 예술인 플랜의 이해를 확장시켜 추후 정책 설계의 당사자로 참여				

■ 사업명	기초-광역 예술인정책 네트워크 구축
-------	---------------------

■ 사업개요							
전략		예술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사업구분	유형	신규
추진과제		추진기반 고도화				단계	장기
사업기간		2025년~2027년				사업운영주체	인천시, 인천재단
사업필요성		- 지역 예술인 지원사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인천재단과 광역재단의 역할과 역량에 관한 논의 필요					
사업목적		- 인천시 예술인 지원사업 체계화 및 효과성 제고 - 지역 예술인 지원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의제 이슈화					
사업 성과 목표	정량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광역기초네트워크	2회	4회	4회	10회	
		광역기초공개포럼	-	1회	1회	2회	
		지원센터네트워크	1회	2회	2회	5회	
		예술지원정책토론회	-	1회	1회	2회	
	정성	- 인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업 규모 (만원)	사업예산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	
		광역기초 네트워크	2,400	4,000	4,000	10,400	
		광역지원센터 네트워크	2,000	3,000	3,000	8,000	

■ 사업추진계획	
사업대상	인천문화재단, 인천 각 기초재단
추진계획	1) 인천시 광역-기초재단 네트워크 운영 - 인천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간 협력 네트워크 운영으로 인천시 예술생태계 강화 - 인천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정시성을 가진 논의 테이블 구성 - 광역재단과 기초재단 간의 이슈 공유를 통한 역할 구분 및 협력 지점 도출 - 광역과 기초의 역할 정비, 협력 추진체계 구축으로 인천시에서 추진되는 예술인 지원 전반의 상승효과 창출 - 네트워크의 경과에 따라 인천시 예술생태계 강화를 위한 광복 계획으로써의 공동사업 모색 - 예술정책 고도화와 추진주체 역량강화 위한 운영경과와 도출 이슈 기록 체계화 - 인천시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공개 토론회/공청회 등 진행 2) 광역 예술인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연결망을 활용한 광역 예술인지원센터 네트워크 제안 - 예술인지원센터 실무자/관리자의 맞춤형 역량강화 및 이슈 공유 워크숍 진행 - 각 지역별 예술인지원정책의 현안 공유와 타 지역 우수 사례 채집 창구로 활용 - 주요시도의 예술인지원센터의 이슈 환류 거점으로 기능함으로써 예술정책 선도 도시로서의 인천시 위상 제고 - 워크숍에서 도출한 주제로 전국 단위 예술인지원정책 토론회 진행
기대효과	- 광역기초 예술인지원 정책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예술인 지원사업의 장기적 발전방향 마련 - 예술인지원센터가 사례워크숍을 통해 각 센터별 사업을 함께 나누고 이후, 예술인 플랜에 적용

3)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예산

<표V-7>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사업 예산표

소구분	내용	예산(만 원)			
		2025년	2026년	2027년	소계
전략1	-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				2,898,350
추진과제1	- 창작활동증진				1,635,350
세부사업1	- 예술창작지원	396,000	396,000	416,000	1,208,000
세부사업2	- 예술공간지원	110,300	126,950	127,100	364,350
세부사업3	- 장애예술 다각화	20,000	21,000	22,000	63,000
추진과제2	- 예술생태계 촉진				1,263,000
세부사업4	- 새예술 아카데미	17,000	25,000	27,000	69,000
세부사업5	- 예술창작 플랫폼 강화	338,000	370,000	370,000	1,078,000
세부사업6	- 미술활성화 기획지원	28,000	43,000	45,000	116,000
전략2	- 예술인의 교류와 사회참여 증진				87,1600
추진과제3	- 예술인 교류 촉진				251,000
세부사업7	- 예술인 네트워킹 지원	37,000	38,000	39,000	114,000
세부사업8	- 문화예술 축제 지원	21,000	25,000	25,000	71,000
세부사업9	- 예술인 국내외 창작교류 지원	22,000	22,000	22,000	66,000
추진과제4	- 예술가치확산				620,600
세부사업10	- 예술가치 캠페인	9,000	7,000	7,000	23,000
세부사업11	- 예술실험 지원	17,000	17,000	17,000	51,000
세부사업12	- 인천형 예술인파견 지원	182,200	182,200	182,200	546,600
전략3	- 예술인의 삶의 기반강화				547,400
추진과제5	- 예술인 권익보호				135,400
세부사업13	- 예술인 건강지원	40,000	40,000	40,000	120,000
세부사업14	- 예술인 권익보호	4,800	5,300	5,300	15,400
추진과제6	- 예술활동 기반강화				412,000
세부사업15	- 예술인 활동이음 지원	69,000	74,000	74,000	217,000
세부사업16	- 예술인 생활안정 지원	5,000	120,000	70,000	195,000
전략4	- 예술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41,800
추진과제7	- 정책참여 창구확장				4,400
세부사업17	- 예술인 참여 확대	1,000	1,000	1,000	3000
세부사업18	- 인천시 예술정책위원회 구성및운영	200	600	600	1400
추진과제8	- 추진기반 고도화				37,400
세부사업19	-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5,000	8,000	6,000	19,000
세부사업20	- 기초공역 예술인정책 네트워크 구축	4,400	7,000	7,000	18,400
소계		1,326,900	1,529,050	1,503,200	
총 계					4,359,150

4.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성과관리

1)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성과관리 설계

■ 예술인 플랜 성과관리에서의 고려사항

- 모든 정책 사업은 계획 대비 성과 도출과 예산의 적절한 사용 및 정책효과의 측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성을 높여야 함.
- 그러나 성과관리를 위한 기대성과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구성해야 하며, 내용 또한 각종 요인을 살펴서 결정해야 함.

<표V-8>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기대성과 도출을 위한 환경 점검

구분	상황	성과의 내용
인천시 환경	- 국내 제2의 도시를 앞두고 있지만, 문화적 인식과 예산 낮음 - 도시 문화자원에 비해 도시의 문화브랜드 취약	- 단계적 정책 성과를 구축하는 방향 - 예술생태계 기반과 가치를 구축하는 방향
정책환경	- 2차 예술인 플랜 수립 이후 인천시 내 문화정책과와 예술정책과가 분화하여 정책의 체계화 시도 - 각 과의 정체성이 혼재되어 예술정책과의 역할 확장에 어려움	- 차후 인천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시 정책의 정체성 구축 - 통합적 예술인 정책 사업을 명확성을 높여 평가 진행
추진 주체	- 예술진흥과 예술인 정책은 대부분 인천 문화재단에서 운영 -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의 혼재로 인한 정책 사업의 성과 측정 어려움	- 계획 수립단계에서 통합적 예술인 정책의 영역 구체화 - 계획 추진과정에서 사업체계를 유지하고 세부적 보완수정은 매년 실시

■ 성과관리 체계 필요

- 따라서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은 성과평가 지표와 관리 체계를 설정하여 시행하고, 이것을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임.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성과평가 체계는 크게 ①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비전과 미션에 따른 각 사업의 목표와 ②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량·정성적인 세부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③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표생산체계를 만드는 것임.
- 또한, 이러한 성과관리체계가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조성계획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사업체계 속에 편입되어야 할 것임.

<표 V-9>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성과관리체계의 과제

구분	내용	비고
성과관리목표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기대성과에 대한 명확한 방향 구축	- 전략과 과업에 따른 기대성과 도출 필요 - 매년 발견된 문제를 개선하면서 기대성과에 맞추고자 노력해야 함.
성과관리지표	현재적 상황에서 도출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지표 구성	- 성과관리지표를 구축하되, 추진주체의 하중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 - 추진주체는 성과관리지표에 맞는 내용을 도출
성과관리체계	기대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계획 만료지점의 종합 평가를 통해 4차 예술인 플랜 수립 - 매년 보완 점검을 위한 정례 평가 실시

2)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성과목표 도출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성과관리의 목표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성과관리 목표는 “사회적 기반 강화를 통해 예술활동의 활성화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로 귀결되어야 함.
- 따라서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사업에는 예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증진과 예술인의 역할을 존중하는 기반조성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술인 스스로 예술인으로서의 자기 혁신과 사회적 역할을 인지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각 사업의 세부 목적과 내용에 따라 각 사업이 가진 기대효과와 성과를 산출할 수 있음.

<표 V-10>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전략과 추진과제에 따른 성과정리

대구분	중구분	소구분	내용	기대성과
전략1			-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	- 예술창작 활성화를 통해 인천 예술생태계의 활성화
	추진과제1	- 창작활동증진		- 다양한 예술지원제도의 활성화
		세부사업1	- 예술창작지원	- 사업 추진의 충실화 (사업계획서 내 추진목표 달성)
		세부사업2	- 예술공간 지원	
		세부사업3	- 장애예술 다각화	
	추진과제2	- 예술생태계 촉진		- 예술실험과 예술거점의 활성화
		세부사업4	- 새예술 아카데미	- 사업 추진의 충실화 (사업계획서 내 추진목표 달성)
		세부사업5	- 예술창작 플랫폼 강화	

대구분	중구분	소구분	내용	기대성과
		세부사업6	- 미술활성화 기획지원	
전략2			- 예술인의 교류와 사회참여 증진	- 예술인 교류와 참여로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장
	추진과제3		- 예술인 교류 촉진	- 예술인 교류 활성화
		세부사업7	- 예술인 네트워킹 지원	- 사업 추진의 충실화 (사업계획서 내 추진목표 달성)
		세부사업8	- 문화예술 축제 지원	
		세부사업9	- 국내·외 예술인 이동 지원	
	추진과제4		- 예술가치확산	- 예술과 예술인의 역할 확장
		세부사업10	- 예술가치 캠페인	- 사업 추진의 충실화 (사업계획서 내 추진목표 달성)
		세부사업11	- 예술실험 지원	
		세부사업12	- 인천형 예술인파견 지원	
전략3			- 예술인의 삶의 기반강화	-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의 진전
	추진과제5		- 예술인 권익보호	- 예술인의 권익 보호 효과 증진
		세부사업13	- 예술인 건강지원	- 사업 추진의 충실화 (사업계획서 내 추진목표 달성)
		세부사업14	- 예술인 권익보호	
	추진과제6		- 예술활동 기반강화	- 예술인 활동 기반 개선
		세부사업15	- 예술인 활동이음 지원	- 사업 추진의 충실화 (사업계획서 내 추진목표 달성)
		세부사업16	- 예술인 생활안정 지원	
전략4			- 예술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 예술정책의 체계화 및 민주성 강화
	추진과제7		- 정책참여 창구확장	- 예술인 참여 기회 확장
		세부사업17	- 예술인 참여 확대	- 사업 추진의 충실화 (사업계획서 내 추진목표 달성)
		세부사업18	- 인천시 예술인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과제8		- 추진기반 고도화	- 예술인정책 기반 진전
		세부사업19	-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 사업 추진의 충실화 (사업계획서 내 추진목표 달성)
		세부사업20	- 기초·광역 예술인정책 네트워크 구축	

- 이를 다시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기대성과(Outcome)와 영향(Impact)을 기준으로 지표체계로 재구성할 수 있음.
- 그러나 성과평가지표를 충실히 구성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 추진 주체가 작성하는 연간 사업 평가서의 정례화 ② 예술인실태조사의 내용적 연동 ③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해야 함.
- 또한, 향후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을 평가할 평가 주체의 정책관점과 예술에 대한 입장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표V-11>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사업 성과 평가 지표 구성안

구분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항목	배점
운영 환경 (20)	목표설정	목표의 타당성과 현실성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비전과 미션, 가치 등이 타당하고 현실성이 있었는가?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설계의 타당성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사업의 구체성	10
	정책여건	정책 여건의 적절성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여건과 환경이 적절하였는가? ·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의 업무 협력의 원활성 · 자원 확보와 운영의 적절성	10
운영 체계 (20)	추진체계	추진체계의 적절성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추진 주체는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절한가? · 인천문화재단의 업무 구조 및 의사소통 구조의 민주성 · 업무를 수행 인력 규모의 적절성	10
	추진역량	추진역량의 전문성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추진 주체의 업무 전문성은 적절한가? · 인천문화재단 예술정책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 인천문화재단 예술정책 역량강화 체계의 효과성	10
추진 내용 (40)	전략1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	- 예술창작 활성화를 통해 인천 예술생태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는가? · 다양한 예술지원제도의 활성화 · 예술실험과 예술거점의 활력화	15
	전략2	예술인의 교류와 사회참여 증진	- 예술인 교류와 참여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의 확장에 진전이 있는가? · 예술인 교류 활성화 · 예술과 예술인의 역할 확장	15
	전략3	예술인의 삶의 기반강화	-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처우 개선으로 예술인의 삶의 기반 강화에 기여하였는가? · 예술인의 권익 보호 효과 증진 · 예술인 활동 기반 개선	15
	전략4	예술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 예술정책의 체계화 및 민주성 강화를 통해 예술정책의 기반이 강화되었는가? · 예술인 참여 기회 확장 · 예술인 플랜 인지도 상승	15
	합계			100

3) 예술인 플랜의 성과관리 방법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성과관리 체계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성과를 관리를 위해 크게 2개의 방법을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매년 인천문화재단 자체 내에서의 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추진 기간의 종료 시점에 외부에서 평가하는 종합 평가임.
-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평가체계의 원활성이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척도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요구됨.
- 또한, 예술인 플랜의 평가 결과가 인천문화재단의 경영평가와 연동될 수 있도록 평가 관점과 내용을 일원화하는 것이 사업수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임.

<표 V-12>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사업 성과평가 방법

구분	평가주체	평가방법	비고
1년 평가	인천문화재단 자체 평가 (인천시 보고)	실행주체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와 지역 예술인,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의 보완 개선	인천문화재단 경영평가에 연동
종합 평가	인천시 평가 (인천문화재단 협력)	인천시가 예술인 실태조사에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종합 평가를 통해 새로운 예술인 플랜 수립	인천시 경영평가 및 차기 예술인 플랜 설계에 연동

■ 평가 방식의 정례화 및 보완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성과관리를 위해서 성과평가의 객관적 자료생산이 중요하며, 1년 주기의 연간 평가와 새로운 계획의 수립 시기에 수행하는 종합평가의 병행이 필요함.

<표 V-13>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사업 성과평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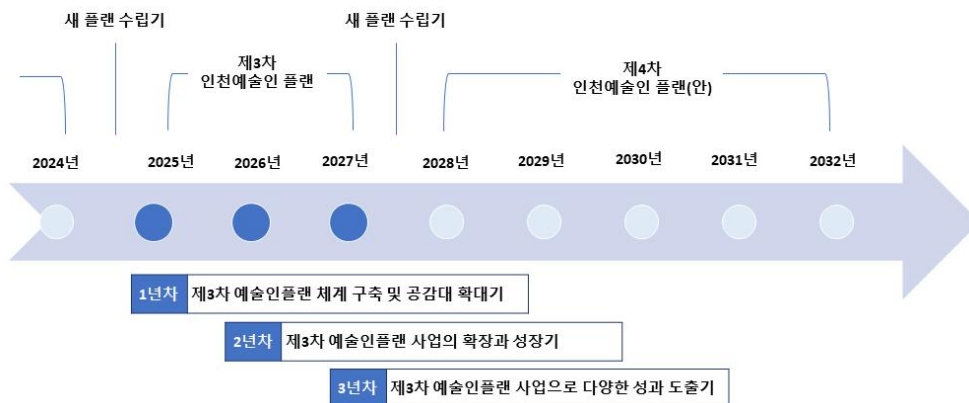
구분	정량적 지표	분석방법	지표 생산 방법
1년 평가	사업별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별 만족도 조사(비예산)를 통해 매년 전문가 및 예술가와 자문을 통해 사업 내용 보완 개선	추진 단위에서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비전과 미션에 맞는 구조화된 설문지 구성하여 실시
종합 평가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인 실태조사 도출 내용 토대의 종합평가를 반영한 새로운 예술인 플랜 수립	인천예술인 플랜의 기조에 맞게 현재의 예술인 실태조사지 보완

5.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추진

1)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추진 일정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추진의 연차별 목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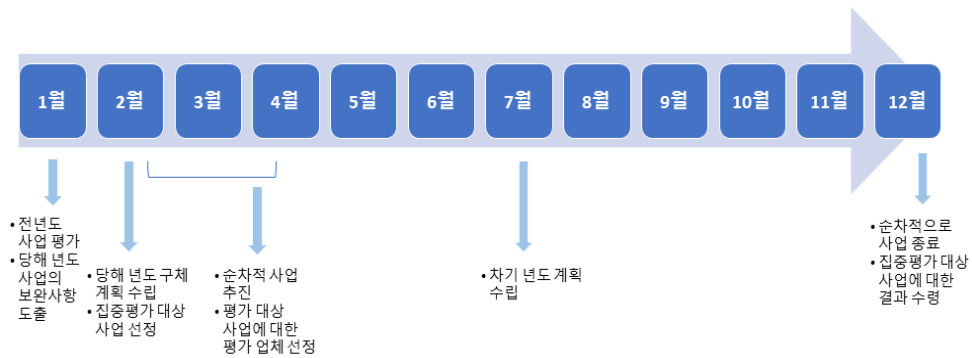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5년의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운영전략이 필요함.
- 비록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기초를 유지하는 계획이지만,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이 시행되는 첫해에는 방만해진 구조를 체계화하고 지역 예술인과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2년 차에는 사업의 확장과 성장을 주된 과제로 삼아야 하며, 3년 차에는 사업의 성과를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플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그림 V-10)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연차별 목표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항시적인 보안을 위한 연간 일정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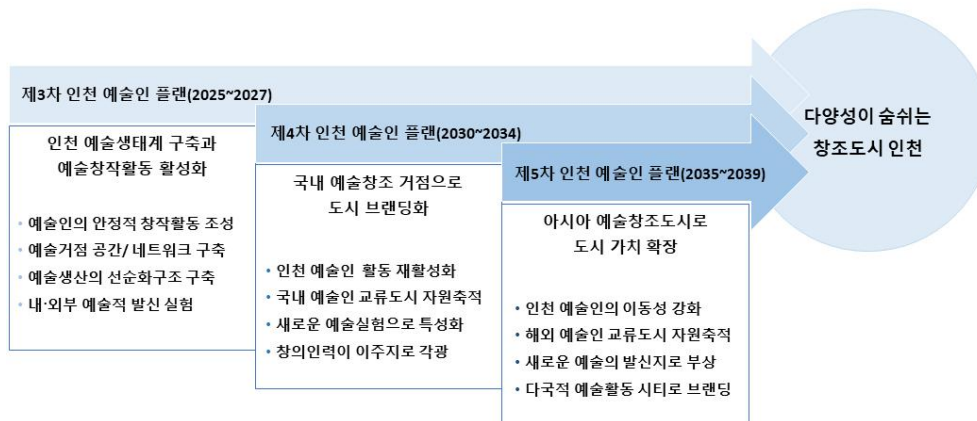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하고 그것의 효과성이 측정되어 꾸준히 개선되거나 보완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예산의 비중이 높고, 참여자 혹은 수혜 범위가 넓은 사업일 경우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진행이 필요함.
- 모든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기는 어려우나, 1년에 1~2개의 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연간 사업이 종료된 이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림 V-11)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연간 운영 방안

■ 예술인 플랜의 확장을 통한 도시 가치 확장 로드맵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은 제1차,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연속선상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동시에 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함.
- 현대사회에서는 문화의 힘과 예술의 역할이 지속해서 확장됐으며,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읽힘.
- 198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문제나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유럽문화수도, 아메리카 문화수도, 아랍문화수도 등으로 확산하여 옴.
- 우리나라도 2010년대 이후 문화특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문화도시 등으로 확산하였으며, 이제 도시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은 보편적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장이 필수적임.
- 또한, 장기 환경분석을 위한 STEEP 분석과 SWOT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①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구변동 ② 사회적 다양성 확대와 갈등관리 이슈의 중요성 확대 ③ 글로벌 시티로서의 인천시의 도시 비전 등을 고려해야 함.
- 이러한 장기적 플랜에 기초하여 인천의 문화·예술의 역할은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은 물론, 창조적인 도시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은 글로벌 시티로 발돋움하는 미래 인천의 창조적 동력과 매력을 발산하는 구체적인 기반과 동력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가칭 ‘인천 ART PLAN 10’과 같은 장기 플랜으로 확장되어야 함.



(그림 V-12) 인천 예술인 플랜의 장기적 방향

2)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추진을 위한 제언

■ 예술인 플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 예술인 플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의지와 자원 마련 그리고 추진체계의 합리성이 중요함. 이는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며, 예술활동의 안정성을 가져오게 됨.
- 또한, 예술인 플랜의 당사자로서 예술인의 정책 참여는 예술인 스스로 사회적 역할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됨.
- 문화적 접근과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장을 위해 ‘문화거버넌스’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보편화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지자체에서 실험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임.

<표 V-14> 예술인 플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구분	내용	방향
정책의지	- 정부 의존도가 높은 국내 현실에서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 의지가 중요 - 인천 도시 브랜드에서 예술의 역할 인식 모호	- 인천시 도시적 차원에서 도시 브랜드 구축과 생태계 생성을 위한 결단 필요 - 인천시 내 기업체와 연계 방안 모색 필요
재원마련	- 예술지원의 지원의 결과를 가시적으로 확인이 어려움 - 지원의 결과가 도시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실질적 자원 마련이 필수	- 장기적 플랜에서 예술지원 체계성으로 안정적 재원 구조 구축 필요 - 시민 캠페인으로 사회적 공감 필요

구분	내용	방향
추진체계	- 인천문화재단의 업무 체계의 합리화 필요 - 기존 관행을 극복하고 전략적 지원으로 체계화 필요	- 행정을 넘어 기획으로 업무방식의 전문화 필요 - 지원구조에서 설계 구조로 전환 필요
지속가능성	- 법정 계획임에도 법적 위상과 지위가 모호한 경향 - 정치적 변동기에는 계획 추진의 불확실성 증대	- 법정계획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 조례상 수립된 계획의 변동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 의결 조항 마련
예술인 참여	- 예술인 플랜에 대한 설명, 홍보 강화 - 예술인정책 설계, 평가 등에 참여기회 제공	- 예술인의 알 권리 보장 - 예측가능한 정책으로 신뢰자본 형성 필요

■ 예술인의 자각과 성장의 필요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에서 예술인의 당사자성을 핵심 가치의 하나로 설정하고,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확장을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음.
- 이는 정책 측면에서 설계되는 내용이지만, 예술인 스스로 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예술인 스스로 예술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공적 지원제도의 책무감에 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확장 과정이 필요함.
- 예술과 예술인에 관한 담론은 매우 섬세한 논쟁지점을 가지고 있기에,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이 예술과 예술인에 관한 인식 전환의 장이자, 예술인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주체(정책, 행정 포함)간의 논의를 확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함.

<표V-15> 예술의 가치와 역할에 관한 논의 흐름

구분	기존의 인식	인식의 전환 방향
예술지원의 의미	- 경제학적으로 가치재(merit goods) 의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재화로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재화에 해당	- 경제학적으로 공공재(Public Goods) 의미 사회 전체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비용 부담 없이도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에 해당 - 202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정책회의에서는 문화예술을 공공가치(Public Value)로 선언(MONDIACULT 2022)
예술인의 역할	- 예술인은 예술창작 활동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	- 예술인은 인류 혹은 사회적 이슈에 예술적 행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

■ 인천시의 역할

- 예술인 플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정책 여건의 변화와 행정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인천시는 부산을 제치고 우리나라 제2의 도시를 앞두고 있으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든 것의 통로 역할을 하는 도시임.
- 따라서, 인천시의 위상과 환경에 맞는 도시 브랜딩을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의 역할은 절대적이며, 세계적인 도시는 예외 없이 문화·예술의 중심 발신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인천시의 문화·예술의 활성화는 그 규모와 정도에서 도시적 실험이 요구되고 있음.

<표 V-16> 예술인 플랜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 역할

구분	문제의식	개선방안
도시전략으로서 예술 활성화 필요	- 인천지역 예술인들의 외부 유출에 대한 우려 - 인천문화재단 예술활성화를 위해 배정된 예산 규모의 제한성	- 글로벌 도시로서의 문화적 발신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 필요 - 종합적이고 체계적 계획을 통해 도시의 가치 제고와 예술활성화 시도 필요 - 서울시는 2015년부터 15년 장기 문화예술 마스터플랜(서울 문화비전2030)을 수립하여 도시 가치 제고에 힘씀.
인천시 지역문화진흥계획 과 관계 설정 필요	- 예술인 플랜이 인천시 상위 문화정책을 담은 문화예술진흥계획과 연동되어 있지 않음.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과 인천시 문화예술진흥계획의 통합적 구상을 위해 별도의 제도 필요	- 계획 체계의 재정립을 통해 예술의 영역 규정과 과제 도출 필요 - 예술진흥정책과 예술인 복지정책의 통합적 설계의 합리화를 위한 평가관리체계 도입 필요

■ 인천문화재단의 역할

-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2차 예술인 플랜의 내용과 실제 인천문화재단에서 수행된 결과 사이에는 일정한 틈이 존재함.
- 이는 전격적으로 추진된 예술인복지제도와 이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던 대부분의 광역재단에서 일어난 현상이지만, 인천문화재단은 서울, 경기, 부산의 문화재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즉, 고유사업으로서 자체 사업의 비중이 서울(48.0%), 경기(33.7%), 부산(23.5%)에 비해 현격히 낮은 18.0%로서 인천문화재단 고유의 업무보다는 수탁사업에 치중된 구조임.

<표V-17> 주요 광역문화재단 2023년 경상비 및 사업비 (단위 : 억원)

구분	인천	서울	경기	부산
경상비	55.9	98.3	71.8	16
인건비	37.2	32.7	39.0	6.7
경비	18.7	65.6	32.9	9.3
사업비	424.8	1,068.9	1,196.5	470.2
자체사업비	76.6	512.6	403.3	110.3
수탁사업비	335.3	541.8	756.4	359.7
기타사업비	12.8	14.5	36.8	0.2
합계	480.7	1,167.2	1,268.3	486.2

출처 : 각 광역시도 문화재단 예산서 재구성

- 이는 체계적인 예술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2024년 4개 광역문화재단의 예산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남.¹⁴⁾
- 따라서, 예술인 플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천문화재단 사업의 운영 환경과 관리 방안의 개선이 요구됨.
- 인천문화재단의 운영 환경과 관리 방안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① 충분한 예산 확보, 사업을 수행하기에 ② 적절한 인력구조, 예술인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③ 사업의 일관성 유지,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하여 개선할 수 있는 ④ 평가체계 운영 등이며, 신속한 개선이 필요함.

- 14) 2024년 4개 주요시도 출연금 예산 현황을 보면, 서울문화재단이 85.1%로 출연금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인천문화재단이 17.1%로 가장 낮았음. 인천문화재단의 출연금은 문화재단 내실운영 출연금(79억)과 문화유산과의 인천문화유산센터 운영 출연금(4억5천)의 총액임. 출연금을 제외한 예산은 통합이용권 예산과 위탁사업 예산으로 구성되며, 서울, 경기는 예산 규모가 큰 통합이용권사업이 불포함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짐.

<표V-18> 2024년 주요시도 출연금 예산 현황(단위:억원)

구분	재단 총예산	출연금 예산	비율	비고
인천문화재단	465.3	83.5	17.9%	통합문화이용권 221억 포함
서울문화재단	1,212.0	557.5	45.9%	통합문화이용권 557억 포함
경기문화재단	974.0	434.3	44.6%	통합문화이용권 453억 포함
부산문화재단	542.3	150.0	27.6%	통합문화이용권 302억 포함

* 출연금 예산 중 기초지자체 이전예산은 제외/ 출처 : 각 광역시도 및 재단 홈페이지 공개 예산 재구성

참고문헌

참고문헌

차민경,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박영정,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 인천시

---, 「202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4

---, 「2024년 예술인복지 증진계획」, 부산광역시

---, 「2023년 예술인복지 증진계획」, 부산광역시

---, 「2023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2023

---, 「2023년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인천문화재단, 2023

---, 「2023 인천문화재단 사업결과보고서」, 인천문화재단

---,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23

---,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3~’27)」, 문체부, 2023

장훈,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2

민경선 외, 「인천 예술인 플랜(2022~2024) 수립연구」, 인천문화재단, 2021

---,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인천광역시, 2018

최영화 외,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인천문화재단, 2018

「예술인 복지법」(2011.11.17.)

「문화예술진흥법」(1972.08.14.)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ggcf.kr/>)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rtist.ggcf.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s://kosis.kr/>)

미국 프리랜서 조합 홈페이지(<https://freelancersunion.org/>)

베를린 시 홈페이지(<https://www.berlin.de/>)

밴쿠버 시 홈페이지(<https://vancouver.ca/>)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bscf.or.kr/>)
샌프란시스코 예술위원회(SFAC) 홈페이지(<https://sfartscommission.org/>)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sfac.or.kr/>)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main/>)
시애틀 시 홈페이지(<https://www.seattle.gov/>)
씨떼 인터네셔널 데 아르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홈페이지
(<https://www.citedesartsparis.net/>)
영국 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rtscouncil.org.uk/>)
예술가와 작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La Sécurité sociale des artistes auteurs)
홈페이지 (<https://www.secu-artistes-auteurs.fr/>)
오클랜드 시 홈페이지(<https://www.oaklandca.gov/>)
유럽연합 위원회 홈페이지(<https://commission.europa.eu/>)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ifac.or.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elis.go.kr/>)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 홈페이지(<https://creative.gov.au/>)
토론토 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s://torontoartscouncil.org/>)
토카스(TOKAS) 홈페이지(<https://www.tokyoartsandspace.jp/>)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호주 예술법 센터 홈페이지(<https://www.artslaw.com.au/>)
e-나라지표 홈페이지(<https://www.index.go.kr/>)

인천일보, “인천 행정구역, 31년 만에 바뀐다” (2024. 1. 10)

부록

부록1. 인천시 문화환경 분석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2025~2027) 수립을 위한

인천시 도시문화환경 조사

1. 인천시 지역 특성

1) 인천시 도시형성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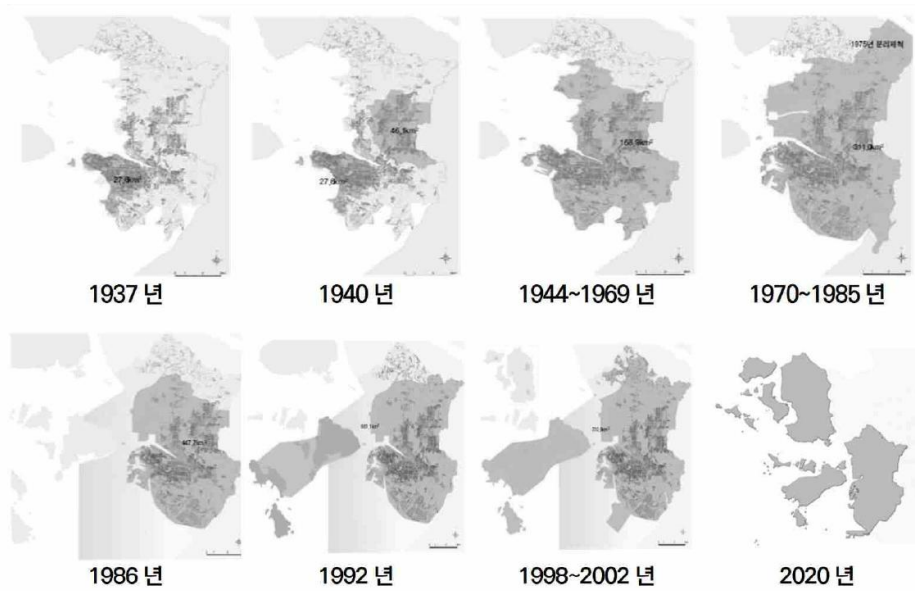
■ 인천시 행정구역 변화에 따른 연혁

- 인천시는 조선 태종 13년에 8도제 단행으로 인주에 인천군으로 개칭되었고, 1883년 개항되면서 10개 면을 통합하여 인천을 이루었으며 1895년 23부제에 따라 인천부를 설치하였음.
- 1914년 인천부의 일부와 부평군을 병합하여 부천군을 설치하고 월미도를 인천부에 편입하였음.
- 1940년 부천군 문학, 남동, 부내, 서곡 등 4개 면이 인천부에 편입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인천부를 인천시로 개칭하였음.
- 1995년 인천직할시에서 인천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을 인천광역시와 통합함.

<표-부록-1> 인천시 도시발전 연혁

구분	내용
1400년대	- 1413. 10. : 조선 태종 13년 인주에서 현 명칭인 인천군으로 변경
1800년대	- 1883. 01. : 개항 - 1895. 05. : 인천부 설치
1910년대	- 1914. 03. : 인천부의 일부와 부평군을 병합하여 부천군 설치 - 1914. 03. : 월미도를 인천부에 편입
1940년대	- 1949. 08. : 인천시 개편
1960년대	- 1963. 01. : 부천군 작약도를 인천시에 편입(9출장소, 99개 법정동)
1980년대	- 1981. 07. :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정부 직할시로 승격 - 1988. 01. : 2개구 설치(4개구 → 6개구) - 1969. 01. : 경기도 3개면(영종, 용유, 계양) 편입(97개동)
1990년대	- 1995. 01. 인천직할시에서 인천광역시로 명칭 변경 - 1995. 03.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인천광역시와 통합/ 2개구 분구(6개→8개구)
2000년대	- 2006. 11 : 중구·동구간 관할구역 변경
2010년대	- 2015. 04 : 행정운영동 경계조정 - 2017. 12 : 관할구역 일부 변경 - 2018. 11 : 남구 “미추홀구”로 명칭 변경, 동명칭일부 변경

출처 :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 인천시, 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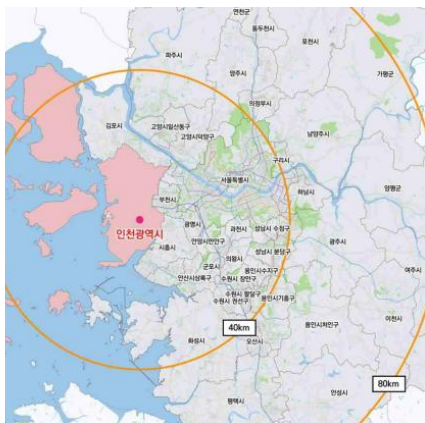
(그림-부록-1) 연도별 인천시 도시 발전 과정

출처 :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 인천시, 23쪽

2) 인천시 지리적 특성

■ 인천시 지리적 위치 및 면적

- 인천시는 지리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앙부 서해안에 있는 항구도시로서 동북아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인천시는 경기도 부천시, 서쪽은 서해, 남쪽은 시흥시, 북쪽은 김포시와 접하고 있으며, 서울과 28km 거리로 한강 하류에 있는 광역시임.



(그림-부록-2) 인천시 지도



(그림-부록-3) 행정구역 지도

출처 : 좌)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 우)나무위키

- 인천시의 면적은 1,067.1K m²로서 대한민국 총면적 중 1.1%를 차지하고 있음.

<표-부록-2> 전국 광역시·도 면적 대비 인천시 면적(2023년 12월 말 기준)

구 분	총면적(Km ²)	구성비(%)
전국	100,449.4	100.0%
인천광역시	1,067.1	1.1%
서울특별시	605.2	0.6%
부산광역시	771.3	0.8%
대구광역시	1,499.5	1.5%
광주광역시	501.0	0.5%
대전광역시	539.8	0.5%
울산광역시	1,062.8	1.1%
세종특별자치시	465.0	0.5%
경기도	10,199.7	10.2%
강원특별자치도	16,830.8	16.8%
충청북도	7,407.0	7.4%
충청남도	8,247.5	8.2%
전북특별자치도	8,073.3	8.0%
전라남도	12,362.3	12.3%
경상북도	18,424.1	18.3%
경상남도	10,542.5	10.5%
제주특별자치도	1,850.3	1.8%

출처 : e-나라지표, (접속 2024.07.09.), <https://www.index.go.kr>, 재구성

- 인천시는 2024년 1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행정구역이 개편될 예정임.
- 이에 1995년 3월, 인천광역시 승격 후 31년간 유지된 '강화·옹진' 2개 군과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는 중·동구가 조정·분리된 '제물포구', '영종구'로, 서구가 확대·분리되는 '서구', '검단구'로 바뀔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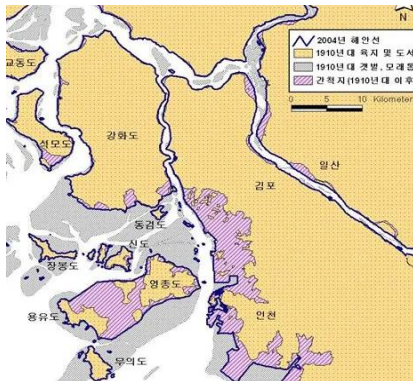


(그림-부록-4) 인천 행정구역 개편 지도

출처 : ‘인천 행정구역, 31년 만에 바뀐다’ 인천일보, 2024. 1. 10

■ 인천시 지형 특성

- 인천시는 연수구의 70%, 미추홀구의 20%가량, 서구의 절반가량 등 간척지로 이루어져 있어, 해안의 97%는 인공제방이나 항만 시설임.
- 인천의 산지는 마니산(469m), 계양산(395m)등 10개의 산을 제외하고는 해발 300m 이내의 구릉성 산지이며 큰 하천의 발달도 없음.
- 인천의 해안은 리아스식해안(rias coast)으로 해안선이 길고 복잡하며 섬이 많은 특징이 있으며, 인천에는 모두 168개의 섬이 있으며, 이 중 128개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임.



(그림-부록-5) 인천시 간척 현황



(그림-부록-6) 인천 섬지도

출처 : 좌)나무위키, 우)네이버블로그, 재구성

■ 인천시 용도지역 및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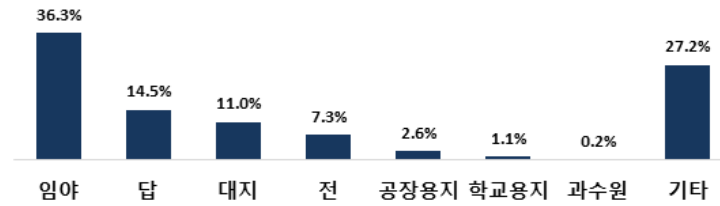
- 2021년 기준 인천시 용도지역은 총 1094.51km²로 도시지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은 26.84% 녹지지역이며, 다음으로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순으로 구성됨.

<표-부록-3> 인천시 용도지역 현황 (2021년 기준)

구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용도지역 미분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km ²)	1094.51	121.23	23.74	67.35	294.2	314.96	261.71	0.05	0.33
구성비(%)	100.0	11.08	2.17	6.15	26.84	28.78	23.91	0.00	0.03

출처 :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 인천시, 20쪽

- 인천시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면적 508.3Km² 중 임야가 36.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답(14.5%), 대지(11.0%), 전(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부록-7) 인천시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2022년 기준)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접속 2024.07.09.), kosis.kr, 재구성

■ 인천시 교통 현황

- 인천시의 철도 노선은 2016년 7월에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포함하여 광역 철도 3개 노선, 도시철도 4개 노선이 운영 중이며,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총연장은 144.35km, 역사는 총 98개소로 확인됨.

<표-부록-4> 인천시 철도시설 현황

노선		운행구간	연장 (Km)	정거장 (개소)	운영기관
경인선	인천구간	인천~부개	14.0	11	한국철도공사
	전체구간	인천~구로	27.0	21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구간	인천공항~계양역	41.0	8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주)
	전체구간	인천공항~서울역	58.0	12	
수인선	인천구간	인천역~소래포구역	17.2	11	한국철도공사
	전체구간	인천~오이도	20.4	14	
인천 도시철도1호선	인천/전체구간	계양역~ 송도달빛축제공원역	29.4	30	인천교통공사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인천/전체구간	서우오류~남동구서창	29.2	27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인천구간	삼산체육관~석남	2.37	5	서울교통공사
	전체구간	장암역~부평구청	57.1	51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인천/전체구간	인천국제공항~용유	6.11	6	인천 국제공항공사
인천구간 합계			144.35	98	-

출처 :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 인천시, 23쪽



출처 :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 인천시, 23쪽

3) 인천시 인구학적 현황

■ 광역시·도 대비 인천시 인구 현황

- 2022년 12월 기준, 인천시의 인구수는 대한민국 총인구 중 5.8%의 비율을 차지하는 2,989,125명이며, 이는 전국 상위 4번째에 해당함.
- 인천시의 성별 인구수는 남성이 1,499,105명이고 여성 1,490,020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9,085명 다소 많게 나타남.

<표-부록-5> 전국 광역시·도 인구 대비 인천시의 인구(2022.12 기준)

구 분		총인구수(명)	비율(%)	남성(명)	구성비(%)	여성(명)	구성비(%)
전국		51,692,272	100.0	25,835,298	50.0%	25,856,974	50.0%
	인천광역시	2,989,125	5.8%	1,499,105	5.8%	1,490,020	5.8%
	서울특별시	9,417,469	18.2%	4,547,051	17.6%	4,870,418	18.8%
	부산광역시	3,295,760	6.4%	1,608,947	6.2%	1,686,813	6.5%
	대구광역시	2,366,852	4.6%	1,165,698	4.5%	1,201,154	4.6%
	광주광역시	1,468,972	2.8%	728,859	2.8%	740,113	2.9%
	대전광역시	1,473,662	2.9%	737,127	2.9%	736,535	2.8%
	울산광역시	1,110,516	2.1%	573,080	2.2%	537,436	2.1%
	세종특별자치시	382,589	0.7%	192,165	0.7%	190,424	0.7%
	경기도	13,717,827	26.5%	6,938,563	26.9%	6,779,264	26.2%
	강원특별자치도	1,528,037	3.0%	770,518	3.0%	757,519	2.9%
	충청북도	1,624,993	3.1%	830,923	3.2%	794,070	3.1%
	충청남도	2,193,214	4.2%	1,128,115	4.4%	1,065,099	4.1%
	전북특별자치도	1,774,248	3.4%	885,708	3.4%	888,540	3.4%
	전라남도	1,771,431	3.4%	896,174	3.5%	875,257	3.4%
	경상북도	2,620,373	5.1%	1,327,631	5.1%	1,292,742	5.0%

구 분	총인구수(명)	비율(%)	남성(명)		여성(명)	
			구성비(%)		구성비(%)	
경상남도	3,280,829	6.3%	1,664,969		1,615,860	
제주특별자치도	676,375	1.3%	340,665		335,710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접속 2024.07.09.), <https://kosis.kr>, 재구성

■ 인천시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 2022년 12월 기준, 인천시의 총인구수는 2,989,125명이며,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계양구로 인천시 인구의 19.4%인 581,069명이 거주하고 있음.
- 인천시에서 가장 적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옹진군(0.6%) > 동구(1.9) > 강화군(2.2%)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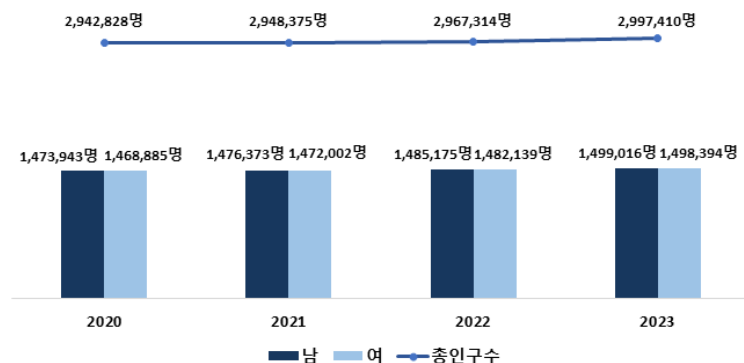
<표-부록-6> 인천시의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2022년 기준)

구 분	총인구수 (명)	인천시 내 비율(%)	남성(명)		여성(명)		세대수 (세대)	세대당 인구(명)
				구성비(%)		구성비(%)		
인천시	2,989,125	100.0%	1,499,105	100.0%	1,490,020	100.0%	1,350,912	2.22
중구	150,777	5.0%	77,801	5.2%	72,976	4.9%	79,520	2.00
동구	58,078	1.9%	29,169	1.9%	28,909	1.9%	28,091	2.12
미추홀구	400,488	13.4%	199,745	13.3%	200,743	13.5%	196,607	2.07
연수구	511,392	17.1%	255,604	17.1%	255,788	17.2%	159,905	2.45
남동구	498,254	16.7%	245,816	16.4%	252,438	16.9%	224,268	2.20
부평구	288,122	9.6%	142,279	9.5%	145,843	9.8%	223,271	2.21
계양구	581,069	19.4%	295,063	19.7%	286,006	19.2%	125,640	2.23
서구	415,196	13.9%	209,181	14.0%	206,015	13.8%	266,168	2.35
강화군	66,420	2.2%	33,292	2.2%	33,128	2.2%	35,005	1.97
옹진군	19,329	0.6%	11,155	0.7%	8,174	0.5%	12,437	1.64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접속 2024.07.09.), <https://kosis.kr>, 재구성

■ 인천시 인구 추이

- 인천시 인구수는 2020년부터 미비하지만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 인구수가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림-부록-9) 인천시 인구 현황 추이(내국인, 2022.12 기준)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 2024.07.09.), <https://jumin.mois.go.kr>, 재구성

■ 인천시 순이동인구¹⁵⁾ 수

- 인천시의 순이동 인구수는 2019년부터 2020까지 순유출이 증가하다가 2021년부터 순유출이 증가하는 추세임.
- 가장 유입이 많은 곳은 80,435명으로 서구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검단 등 신도시가 만들어진 영향으로 보임. 그러나 서구를 제외한 대부분은 인구 감소추세임.

<표-부록-7> 인천시의 행정구역별 순이동 인구수

구 분	순이동 인구수(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인천시	54,946	-2,337	-15,748	11,423	28,101	33,507
중구	36,985	12,408	4,458	4,388	9,568	6,163
동구	-4,470	-1,659	-1,600	-183	-1,815	787
남구	0	0	0	0	0	0
미추홀구	-4,925	-7,692	-4,209	4,853	1,091	1,032
연수구	42,163	18,845	19,698	1,432	-3,942	6,130
남동구	-42,201	-5,467	-7,650	-6,148	-10,358	-12,578
부평구	-26,684	-13,583	-16,589	-6,450	4,268	5,670
계양구	-29,649	-9,408	-6,484	-298	-5,484	-7,975
서구	80,435	3,884	-3,962	12,601	33,502	34,410
강화군	3,318	730	590	1,225	858	-85
옹진군	-26	-395	0	3	413	-47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접속 2024.07.09.), <https://kosis.kr>, 재구성

■ 인천시 주민 평균연령

- 인천시 주민의 평균연령은 44.1세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 평균연령인 45.1세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남.

<표-부록-8> 전국 광역시·도 별 평균연령 현황(2024.6 기준)

구 분	평균연령(세)	남성 평균연령(세)		여성 평균연령(세)	
		남성 평균연령(세)		여성 평균연령(세)	
대한민국	45.1	44.0		46.2	
인천광역시	44.1	43.1		45.1	
서울특별시	44.7	43.9		45.4	
부산광역시	46.9	45.6		48.2	
대구광역시	45.7	44.2		47.0	
광주광역시	43.4	42.2		44.6	
대전광역시	43.7	42.6		44.8	
울산광역시	44.0	43.0		45.1	
세종특별자치시	38.9	38.4		39.4	
경기도	43.3	42.4		44.2	
강원특별자치도	47.9	46.4		49.4	
충청북도	46.1	44.8		47.5	
충청남도	46.1	44.8		47.5	
전북특별자치도	47.7	46.2		49.3	
전라남도	48.8	47.1		50.6	

15) 전입인구와 전출인구의 차이로, 순이동인구가 (+)이면 인구의 순유입을 의미하고, (-)이면 인구의 순유출 의미. 순이동인구(명)=전입인구-전출인구

구 분	평균연령(세)	평균연령(세)	
		남성 평균연령(세)	여성 평균연령(세)
경상북도	48.4	46.7	50.1
경상남도	46.3	44.9	47.8
제주특별자치도	44.4	43.2	45.5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 2024.07.09.), <https://jumin.mois.go.kr>, 재구성

■ 인천시 행정구역별 평균연령

- 인천시 행정구역별 주민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강화군이 54.7세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서구가 41.1세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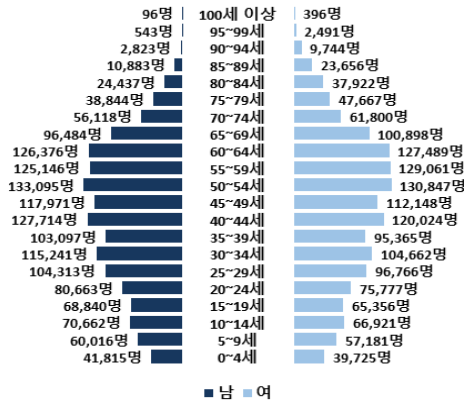
<표-부록-9> 인천시 행정구역별 평균연령 현황(2023 기준)

구 분	평균연령(세)	평균연령(세)	
		남성 평균연령(세)	여성 평균연령(세)
인천시	43.8	42.9	44.8
중구	42.4	41.8	43
동구	48.6	46.9	50.2
미추홀구	45.4	44.2	46.7
연수구	40.9	40.2	41.6
남동구	44.5	43.3	45.6
부평구	44.8	43.7	45.9
계양구	45.5	44.5	46.5
서구	41.1	40.5	41.7
강화군	54.7	53.2	56.2
옹진군	52.2	49.7	55.5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 2024.07.09.), <https://jumin.mois.go.kr>, 재구성

■ 인천시 연령별 인구 분포

- 인천시의 연령별 인구 분포는 중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종형으로, 50세~54세의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44세 > 60~64세 > 55~59세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부록-10) 인천시 연령별 인구 현황(2022.12 기준)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 2024.07.09.), <https://jumin.mois.go.kr>, 재구성

■ 인천시 고령인구¹⁶⁾ 현황 및 추이

- 2024년 6월 기준 인천시의 인구 중 고령인구는 17.1%로, 대한민국 전체에 비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국제연합(UN)의 기준으로 고령 사회에 해당함.

<표-부록-10> 전국 광역시·도별 고령인구 현황(2024.06 기준)

구 분	총 인구(명)	대한민국 내 고령인구 비율		광역시·도별 고령인구 남녀별 구성비			
		고령인구(명)	구성비(%)	남성(명)	구성비(%)	여성(명)	구성비(%)
전국	51,271,480	9,988,411	19.5	4,422,034	8.6	5,566,337	10.9
인천광역시	3,011,073	514,802	17.1	230,228	8.4	284,574	10.5
서울특별시	9,366,283	1,773,809	18.9	785,670	10.2	988,139	13.1
부산광역시	3,280,749	762,761	23.2	333,841	8.7	428,920	11.5
대구광역시	2,367,183	479,103	20.2	206,419	7.6	272,684	9.5
광주광역시	1,413,606	240,161	17.0	103,796	7.3	136,365	9.6
대전광역시	1,440,558	251,709	17.5	111,870	7.8	139,839	9.7
울산광역시	1,100,304	182,145	16.6	84,548	7.7	97,597	8.9
세종특별자치시	387,940	43,887	11.3	19,757	5.1	24,130	6.2
경기도	13,661,438	2,195,238	16.1	989,855	7.2	1,205,383	8.8
강원특별자치도	1,522,542	375,908	24.7	167,669	11.0	208,239	13.7
충청북도	1,591,485	340,567	21.4	152,373	9.6	188,194	11.8
충청남도	2,134,817	465,026	21.8	206,524	9.7	258,502	12.1
전북특별자치도	1,745,885	430,431	24.7	186,403	10.7	244,028	14.0
전라남도	1,794,967	478,180	26.6	205,543	11.5	272,637	15.2
경상북도	2,544,174	644,230	25.3	282,018	11.1	362,212	14.2
경상남도	3,236,224	686,768	21.2	301,369	9.3	385,399	11.9
제주특별자치도	672,252	123,686	18.4	54,151	8.1	69,535	10.3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 2024.07.09.), <https://jumin.mois.go.kr>, 재구성

- 행정구역별 고령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강화군이 38.2%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연수구(12.6%) < 서구(12.9%) < 중구(15.7%) 순임.

<표-부록-11> 인천시 행정구역별 고령인구 현황(2024.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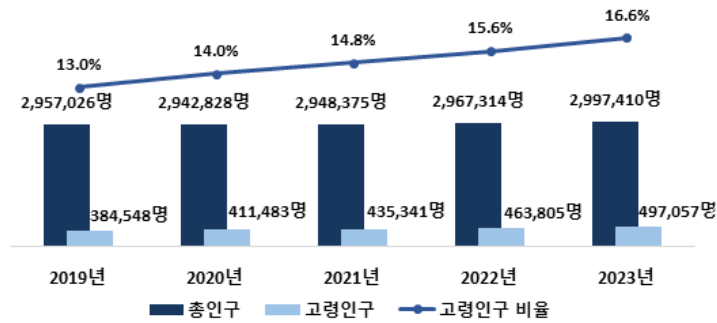
구 분	총인구(명)	고령인구 남녀별 구성비					
		고령인구(명)	구성비(%)	남성(명)	구성비(%)	여성(명)	구성비(%)
인천시	3,011,073	514,802	17.1	230,228	7.6	284,574	9.5
중구	164,129	25,729	15.7	11,628	7.1	14,101	8.6
동구	58,761	15,519	26.4	6,652	11.3	8,867	15.1
미추홀구	409,263	82,123	20.1	35,938	8.8	46,185	11.3
연수구	395,060	49,751	12.6	22,888	5.8	26,863	6.8
남동구	488,436	88,416	18.1	38,925	8.0	49,491	10.1
부평구	494,221	90,076	18.2	39,418	8.0	50,658	10.3
계양구	281,308	49,066	17.4	22,326	7.9	26,740	9.5

16)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20%는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함.

구 분	총인구(명)	고령인구 남녀별 구성비					
		고령인구(명)	구성비(%)	남성(명)	구성비(%)	여성(명)	구성비(%)
서구	630,949	81,230	12.9	37,147	5.9	44,083	7.0
강화군	68,772	26,275	38.2	12,102	17.6	14,173	20.6
옹진군	20,174	6,617	32.8	3,204	15.9	3,413	16.9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 2023.02.01.), <https://jumin.mois.go.kr>, 재구성

- 인천시의 최근 5년간 고령인구의 추이를 보면 지속해서 비율이 약 0.8%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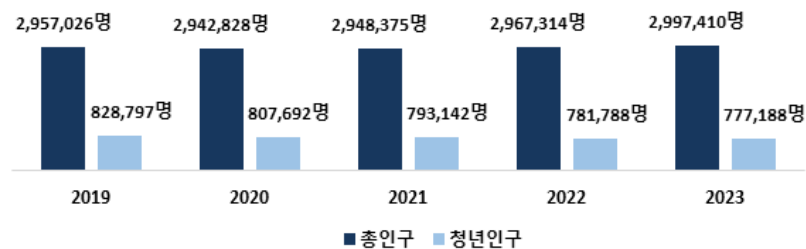


(그림-부록-11) 인천시 연도별 고령인구 추이 (2022.12 기준)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 2024.07.11.), <https://jumin.mois.go.kr>, 재구성

■ 인천시 청년 인구(20세~39세) 현황 및 추이

- 인천시의 총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



(그림-부록-12) 인천시 청년 인구 추이(2022 기준)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 2024.07.11.), <https://jumin.mois.go.kr>, 재구성

■ 인천시 1인 가구 현황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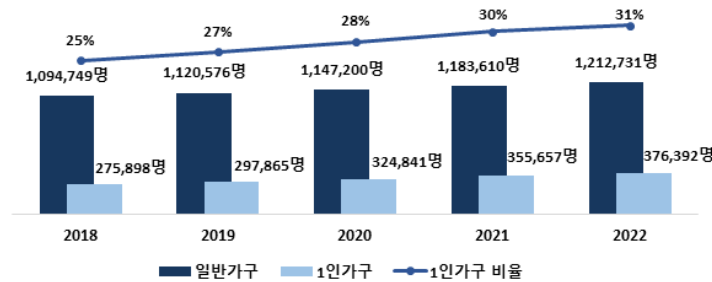
- 전국 2022년 12월 기준 1인 세대는 2,197,601명으로 전국 총 세대수의 37.2%를 차지하고 있음.
- 인천시 1인 세대는 1,212,731명으로 인천시 총 세대수의 3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기 울산 다음으로 가장 낮은 비율에 속함.

<표-부록-12> 전국 광역·시·도 별 1인 세대 현황(2022년 기준)

구 분	총 세대수	1인 세대(명)	구성비(%)
전국	21,773,507	7,502,350	34.5
인천광역시	1,212,731	376,392	31.0
서울특별시	4,098,818	1,564,187	38.2
부산광역시	1,447,825	511,745	35.3
대구광역시	1,010,834	341,667	33.8
광주광역시	623,252	221,464	35.5
대전광역시	646,474	249,006	38.5
울산광역시	453,998	137,096	30.2
세종특별자치시	154,019	50,561	32.8
경기도	5,406,963	1,634,147	30.2
강원특별자치도	684,895	254,441	37.2
충청북도	704,864	260,948	37.0
충청남도	931,370	340,741	36.6
전북특별자치도	777,680	284,613	36.6
전라남도	784,645	283,429	36.1
경상북도	1,166,306	430,969	37.0
경상남도	1,392,608	468,772	33.7
제주특별자치도	276,225	92,172	33.4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 2024.07.11.), <https://jumin.mois.go.kr>, 재구성

- 이러한 가운데, 인천시의 최근 4년간 1인 가구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그림-부록-13) 인천시 연도별 1인 가구 추이(2021.12 기준)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 2023.05.23.), <https://jumin.mois.go.kr>, 재구성

4) 인천시 산업경제 현황

■ 인천시 지역내총생산 현황

-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내총생산은 1,842,426,414 백만 원이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37만 5천 원으로 나타남.

- 이러한 가운데,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인천시의 2022년 지역내총생산은 95,712,639원으로 전국 상위 5번째에 해당함.
-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35만 2천 원으로 하위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부록-13> 전국 지역내총생산 추계결과 현황(GRDP)

구 분	지역내총생산(실질/단위:백만 원)			1인당 지역내총생산(단위: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1,842,426,414	1,922,065,762	1,972,396,056	37,515	40,271	41,948
인천광역시	84,907,539	90,325,899	95,712,639	30,367	33,551	35,295
서울특별시	417,638,547	431,678,812	438,537,013	46,221	49,680	51,612
부산광역시	85,962,709	87,629,325	89,883,761	27,204	29,395	31,611
대구광역시	53,668,577	56,017,462	56,996,357	23,910	25,543	26,736
광주광역시	39,530,642	41,257,137	41,939,597	28,433	29,779	30,900
대전광역시	41,208,249	42,500,095	44,395,434	29,757	31,590	33,682
울산광역시	67,136,435	69,523,278	69,204,235	60,895	69,392	77,511
세종특별자치시	11,647,981	12,509,390	12,916,427	36,473	38,157	37,875
경기도	470,022,670	498,358,681	516,358,207	36,521	38,879	39,969
강원특별자치도	44,829,136	46,781,331	48,179,338	32,026	33,679	34,426
충청북도	65,926,194	70,448,338	73,629,729	42,667	46,123	48,616
충청남도	112,762,058	118,487,227	121,401,399	53,078	57,622	58,937
전북특별자치도	49,116,252	50,636,383	51,678,429	29,252	31,187	32,464
전라남도	74,972,494	76,965,787	75,475,342	43,957	49,572	51,422
경상북도	101,370,158	105,224,262	107,057,669	39,887	42,896	43,886
경상남도	103,425,415	105,384,664	110,265,302	33,186	34,046	36,501
제주특별자치도	17,957,495	18,173,026	19,003,180	29,334	29,988	31,150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접속 2024.07.11.), <https://kosis.kr>, 재구성

■ 인천시 산업구조 및 사업체 현황

- 인천시 사업체 수를 산업분류별로 살펴보면, 총사업체 수는 317,133개이며 도매 및 소매업(80,223개)> 숙박 및 음식점업(42,097개)> 운수 및 창고업(41,236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인천시 산업 종사자 수는 총 1,250,203명이며,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제조업(252,668명)> 도매 및 소매업(171,334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5,972명)> 순으로 나타남.
- 1차 산업에 해당하는 농업, 임업, 어업 분야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낮았으며, 그 외를 제외하고 정보통신업(16,435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1,088)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부록-14> 인천시 산업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2022년 기준)

구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종사자수(명)	
			남성(명)	여성(명)
합계	317,133	1,250,203	701,254	548,949
농업 임업 및 어업	129	616	405	211

구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성별(명)	
			남성(명)	여성(명)
광업	35	431	402	29
제조업	33,961	252,668	180,478	72,19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416	4,486	3,722	764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807	7,796	6,358	1,438
건설업	25,578	84,237	70,409	13,828
도매 및 소매업	80,223	171,334	93,699	77,635
운수 및 창고업	41,236	97,207	81,534	15,673
숙박 및 음식점업	42,097	109,781	41,031	68,750
정보통신업	4,704	16,435	11,090	5,345
금융 및 보험업	2,347	23,694	8,567	15,127
부동산업	15,081	32,522	20,294	12,22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961	43,170	29,037	14,13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66	66,073	40,023	26,05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02	44,887	26,727	18,160
교육 서비스업	12,365	82,746	25,964	56,78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571	145,972	28,141	117,8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047	21,088	10,594	10,49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4,607	45,060	22,779	22,281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접속 2024.07.11.), <https://kosis.kr>, 재구성

■ 인천시 사업체 수 추이

- 인천시 사업체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특히 코로나 시기인 2020년 사업체 수가 많이 늘어남.



(그림-부록-14) 인천시 사업체 수 추이

■ 인천시 사업체 규모

- 인천시 사업체 규모는 1~4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1,000명 이상의 사업체 또한 46개로 적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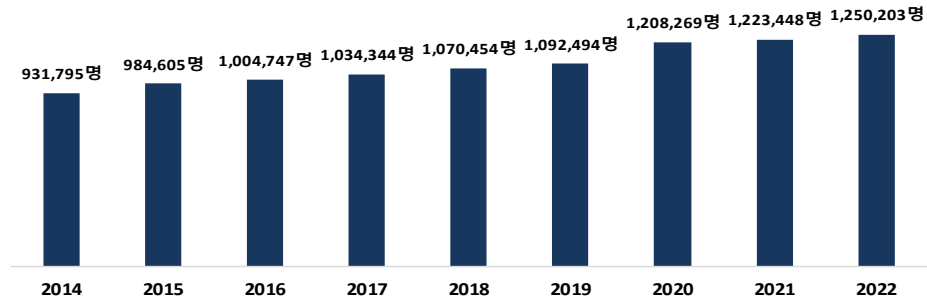
<표-부록-15> 인천시 사업체 규모(2022년 기준)

규모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이상
개	274,731	24,157	10,253	5,376	1,686	742	85	57	46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접속 2024.07.11.), <https://kosis.kr>, 재구성

■ 인천시 종사자 수 추이

- 인천시 종사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 사업체 수의 증가와 함께 종사자 수도 늘고 있음.



(그림-부록-15) 인천시 종사자 수 추이

■ 전국 대비 인천시 남·여 고용률

- 인천시 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을 비교해 볼 때, 남성 고용율이 73.1%로 여성 고용율 54.0%보다 약 19%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부록-16> 전국 남녀 고용률 (2023년 기준)(단위: 천명, %)

구 분	여성취업자	여성고용률	남성취업자	남성고용률
전국	12,668	54.9	16,096	71.9
인천광역시	719	54.0	953	73.1
서울특별시	2,425	54.4	2,798	69.6
부산광역시	749	49.1	952	67.8
대구광역시	552	51.0	709	70.0
광주광역시	344	52.5	431	69.1
대전광역시	351	53.6	452	70.6
울산광역시	226	48.6	349	71.1
세종특별자치시	90	54.9	121	75.5
경기도	3,324	55.3	4,424	74.0
강원특별자치도	408	60.2	459	70.6
충청북도	397	56.0	557	76.6
충청남도	536	56.7	744	75.4
전북특별자치도	465	59.1	534	69.7
전라남도	456	60.1	562	73.6
경상북도	644	56.5	842	73.3
경상남도	794	56.2	989	69.5
제주특별자치도	189	64.5	219	76.3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접속 2024.07.11.), <https://kosis.kr>, 재구성

5) 인천시 도시환경 특성 및 시사점

■ 인구는 증가하지만 청년 인구는 감소

- 인천은 검단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국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임.
- 그러나 청년의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으로 보았을 때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임.

■ 원도심과 신도시의 불균형

- 순이동 인구수를 행정구역별로 확인해 본 결과 인천 서구에 인구가 지속 성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원도심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
- 이에, 도시 간 불균형으로 인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임.

■ 물류·교통의 중심지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의 꾸준한 증가

- 인천은 동북아 관문이 되는 지리적 위치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기업 하기 좋은 기반을 갖추었음.
- 이에 사업체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업체 수의 증가와 더불어 종사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비율 낮음

- 사업체 수가 증가하여 인천 시민들이 일할 곳은 많으나, 그들이 누리고 여가를 즐기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임.
- 도시의 변화와 성장을 문화예술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도시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존재함.

2. 인천시 문화환경

1) 인천시 시정 비전과 재정 현황

■ 인천시 비전 및 목표

- 인천시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전하에 민선 8기 시정철학을 잇고, 균형, 창조, 소통의 3대의 시 행정 가치를 제시하였음.

/// 비전



(그림-부록-16) 인천시 시정 비전

출처 : 인천시청 홈페이지, (접속 2024.07.10.), <https://www.incheon.go.kr>

- 인천시는 3대 시 행정 가치 아래 ‘모두가 잘사는 균형도시’, ‘꿈이 실현되는 세계도시’,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미래가치 창조의 혁신도시’ 4대 시정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맞는 10대 정책과 120개의 공약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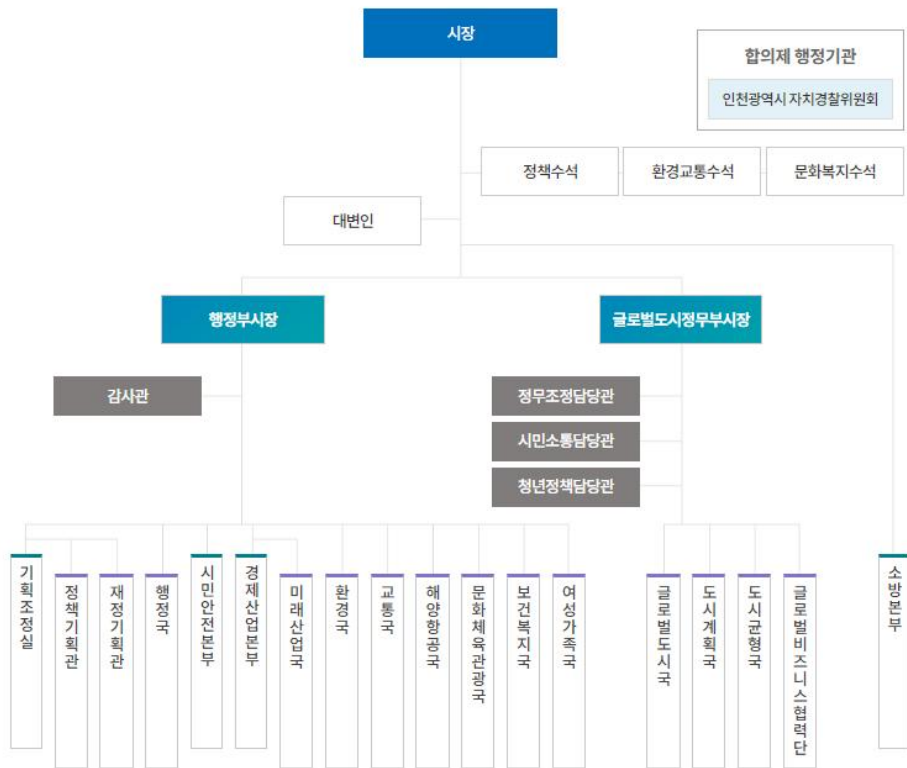
<표-부록-17> 인천시 4대 시정방침 및 10대 정책

4대 시정방침	10대 정책
모두가 잘사는 균형도시	
	- 모든 길이 인천으로 연결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 - 원도심 혁신을 통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시 - 안전한 먹거리, 농어민과 상생하는 도시
꿈이 실현되는 세계도시	
	- 100조 시대, 일하기 좋은 경제도시 -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즐거운 도시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 따뜻한 동행, 맞춤형 보살핌으로 행복한 도시 - 시민 모두가 건강한 교육·안전 도시 -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소통·공감 도시
미래가치 창조의 혁신도시	
	-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 - 맑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녹색환경 도시

출처 : 인천시청 홈페이지, (접속 2024.07.10.), <https://www.incheon.go.kr>, 재구성

■ 인천시 조직도

- 인천시의 행정 조직도 중 문화 관련 부처는 문화체육관광국이며,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정책과, 예술정책과, 문화유산과, 문화기반과, 체육진흥과, 관광마이스과, 국제행사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부록-17) 인천시 조직도

출처 : 인천시청 홈페이지, (접속 2024.07.10.), <https://www.incheon.go.kr>, 재구성

■ 인천시 문화예술 분야 공약

- 인천시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즐거운 도시’ 정책 기조로 삼고, 18개의 공약과 22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음.

<표-부록-18> 인천시 문화예술 분야 공약

내용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즐거운 도시	
문화예술분야 예산 3%로 증액	
문화예술 전문도서관 건립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천세계축제를 개최	
	INK콘서트 개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과 MICE산업 연계추진
	디아스포라영화제 확대 및 글로벌화
K-pop Arena건립	

내용	
을왕산 영산산업단지 조성 지원	
맞춤형 문화예술 기반 조성	
강화 접경지역 복합체험문화공원 조성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문화와 흥이 넘치는 젊이의 거리조성	
화도진 축제 활성화	
동구 문화관광 코스 개발	
인천만의 관광자원개발 및 시설 확충	
보물섬·서해 바다와 한강을 연결하는 해상관광 실크로드 개척	
접경지역 내국인 면세지역 지정을 통한 관광 활성화	
아라뱃길 주변을 문화·관광·레포츠 복합공간으로 조성	
아쿠아리움 유치	
주거지 인근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문학선학경기장 주변 스포츠콤플렉스 확대	
생활체육 종합콤플렉스 신설	
88체육관 개보수 및 스포츠콤플렉스 조성	
계양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청라 돔야구장 건립	

출처 : 인천시홈페이지, (접속 2024.07.10.), 재구성

■ 인천시 재정 규모

- 인천시 2024년 예산 규모는 약 15조 3백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06% 증가한 규모로 확인되었음.

<표-부록-19> 인천시 재정 규모(단위:천원)

구분	2024년 예산액	구성비(%)	2023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계	15,036,805,037	100.00	13,915,675,070	100.00	1,121,129,967	8.06
일반회계	10,703,014,812	71.18	10,042,510,849	72.17	660,503,963	6.58
특별회계	4,333,790,225	28.82	3,873,164,221	27.83	460,626,004	11.89
공기업특별회계	2,226,640,095	14.81	1,701,056,055	12.22	525,584,040	30.90
기타특별회계	2,107,150,130	14.01	2,172,108,166	15.61	△64,958,036	△2.99

출처 : 인천시청 홈페이지, (접속 2024.07.10.), <https://www.incheon.go.kr>, 재구성

- 인천시의 조직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국이 28.12%로 가장 많으며, 보건복지국 13.4%, 재정기획관 11.09%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은 전년 대비 8.81% 증가하여 약 43억 7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09%를 차지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의 약 60% 정도가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 문화체육관광 예산 중에서 문화정책과, 예술정책과, 문화기반과 예산의 합을 보면, 1,032억 원으로 인천시 예산(조직별 예산)의 약 0.9%에 해당함.

<표-부록-20> 인천시 조직별 예산 현황(단위:천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703,014,812	100.00	10,042,510,849	100.00	660,503,963	6.58
의회사무처	23,910,208	0.22	22,539,232	0.22	1,370,976	6.08
대변인	18,801,682	0.18	17,971,048	0.18	830,634	4.62
시정혁신담당관	328,550	0.00	480,478	0.00	△151,928	△31.62
감사관	299,129	0.00	284,756	0.00	14,373	5.05
시민소통담당관	524,603	0.00	1,098,787	0.01	△574,184	△52.26
청년정책담당관	18,932,606	0.18	31,771,352	0.32	△12,838,746	△40.41
기획조정실	812,279,646	7.59	799,227,258	7.96	13,052,388	1.63
재정기획관	1,186,824,485	11.09	1,161,273,606	11.56	25,550,879	2.20
행정국	366,113,979	3.42	345,640,551	3.44	20,473,428	5.92
시민안전본부	96,568,409	0.90	86,474,229	0.86	10,094,180	11.67
환경국	225,333,813	2.11	255,897,461	2.55	△30,563,648	△11.94
교통국	866,298,906	8.09	765,259,660	7.62	101,039,246	13.20
경제산업본부	405,336,242	3.79	482,701,353	4.81	△77,365,111	△16.03
미래산업국	386,738,254	3.61	351,352,462	3.50	35,385,792	10.07
해양항공국	217,538,870	2.03	251,094,296	2.50	△33,555,426	△13.36
도시계획국	337,273,973	3.15	275,275,493	2.74	61,998,480	22.52
도시균형국	138,456,707	1.29	112,244,933	1.12	26,211,774	23.35
글로벌도시국	49,280,771	0.46	62,785,720	0.63	△13,504,949	△21.51
글로벌도시기획과	1,233,520	0.01	2,532,492	0.03	△1,298,972	△51.29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3,901,420	0.04	20,097,592	0.20	△16,196,172	△80.59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9,051,237	0.08	2,687,000	0.03	6,364,237	236.85
스마트도시과	18,806,471	0.18	24,587,690	0.24	△5,781,219	△23.51
투자유치과	353,480	0.00	621,590	0.01	△268,110	△43.13
국제협력과	6,650,973	0.06	6,841,027	0.07	△190,054	△2.78
도시디자인과	6,108,350	0.06	5,418,329	0.05	690,021	12.73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	3,175,320	0.03	0	0	3,175,320	순증
문화체육관광국	437,941,456	4.09	402,500,139	4.01	35,441,317	8.81
문화정책과	69,172,877	0.65	79,596,150	0.79	△10,423,273	△13.10
예술정책과	16,373,311	0.15	15,326,700	0.15	1,046,611	6.83
문화유산과	17,670,186	0.17	23,438,676	0.23	△5,768,490	△24.61
문화기반과	36,615,140	0.34	12,969,027	0.13	23,646,113	182.33
체육진흥과	262,612,480	2.45	237,414,762	2.36	25,197,718	10.61
관광마이스과	35,497,462	0.33	33,723,406	0.34	1,774,056	5.26
보건복지국	1,492,398,963	13.94	1,314,372,983	13.09	178,025,980	13.54
여성가족국	3,009,344,665	28.12	2,669,311,887	26.58	340,032,778	12.74
소방본부	395,855,560	3.70	385,345,578	3.84	10,509,982	2.73
직속기관	46,052,206	0.43	45,887,479	0.46	164,727	0.36
사업소	158,209,267	1.48	153,789,553	1.53	4,419,714	2.87
인천광역시합의제행정기관	12,371,862	0.12	12,028,068	0.12	343,794	2.86

출처 : 인천시청 홈페이지, (접속 2024.07.10.), <https://www.incheon.go.kr>, 재구성

■ 인천시 재정자립도¹⁷⁾ 및 재정자주도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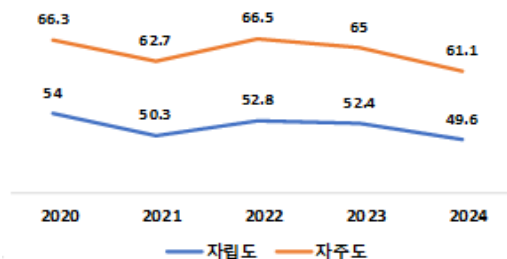
- 2024년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49.6%로 나타나는데, 이는 17개 광역시·도 중 상위 4번째에 속해 높은 수준임.
- 더불어, 인천시의 재정자주도는 61.1%로 하위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

<표-부록-21> 최근 5년간 인천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세입 과목 개편 후, 단위:%)

자치구	2020		2021		2022		2023		2024	
	자립도	자주도	자립도	자주도	자립도	자주도	자립도	자주도	자립도	자주도
전국	45.2	68.7	43.6	65.7	45.3	68.8	45.0	69.0	43.3	65.7
인천광역시	54.0	66.3	50.3	62.7	52.8	66.5	52.4	65.0	49.6	61.1
서울특별시	76.1	77.8	75.6	77.6	76.3	78.6	75.4	77.2	74.0	75.4
부산광역시	49.2	61.0	46.1	58.4	46.9	59.6	46.0	58.5	45.1	56.9
대구광역시	45.4	61.5	44.6	60.2	47.9	64.8	47.4	64.7	44.3	62.8
광주광역시	41.1	62.4	40.8	60.7	41.1	62.4	42.3	65.1	40.7	60.7
대전광역시	41.4	63.1	39.9	60.1	42.4	64.0	42.3	64.6	41.7	60.4
울산광역시	51.6	67.5	49.6	65.2	48.7	66.7	49.8	68.0	46.3	67.3
세종특별자치시	59.3	65.2	58.8	65.8	56.9	63.4	57.2	63.5	57.5	65.8
경기도	58.6	69.3	57.3	67.2	61.6	70.7	60.5	69.1	55.1	63.2
강원특별자치도	25.8	73.1	24.5	67.5	24.7	71.6	25.4	72.8	25.2	70.1
충청북도	30.1	68.8	28.3	63.2	30.2	67.5	32.1	68.6	30.4	63.7
충청남도	34.4	69.8	32.3	64.4	33.1	67.1	33.6	68.3	32.4	65.4
전북특별자치도	24.9	66.6	23.1	60.8	23.8	65.5	23.8	67.1	23.5	63.7
전라남도	23.3	66.7	22.2	63.1	24.2	67.5	23.9	67.7	24.4	66.2
경상북도	27.1	68.9	24.9	64.1	25.6	69.1	25.3	70.7	24.6	66.2
경상남도	34.3	65.7	33.5	62.9	32.8	65.1	33.7	67.1	33.6	65.7
제주특별자치도	32.9	63.1	32.7	62.5	32.7	66.1	33.3	70.1	34.0	67.0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접속 2024.07.09.), <https://kosis.kr>, 재구성

- 인천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감소하였으며 2022년 증가하는 듯 보이나, 이후 계속 감소추세임.



(그림-부록-18 인천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추이(최근 5년))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접속 2024.07.09.), <https://kosis.kr>,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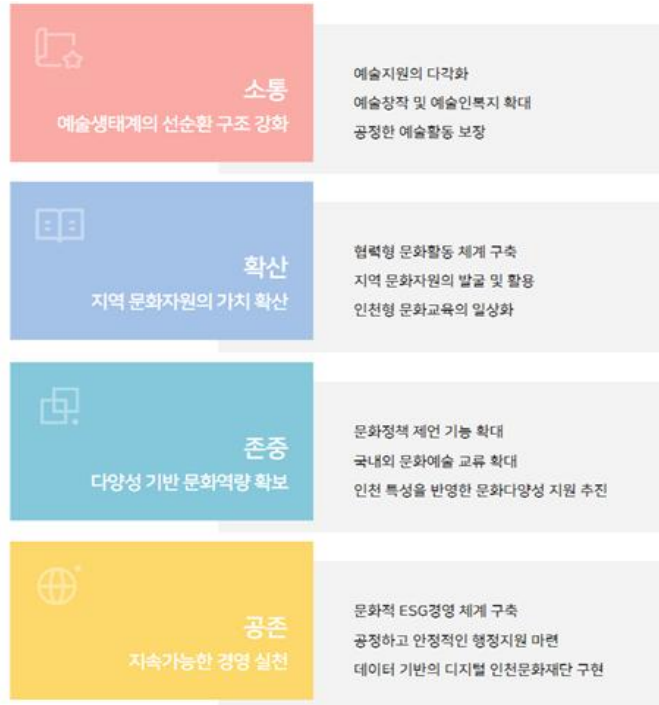
17)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총예산

18)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x100)/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2) 인천문화재단 현황

■ 인천문화재단 비전 및 전략

- 인천문화재단은 “예술과 문화가 생동하는 열린도시 인천”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 자치를 촉진하는 협력 플랫폼’을 미션으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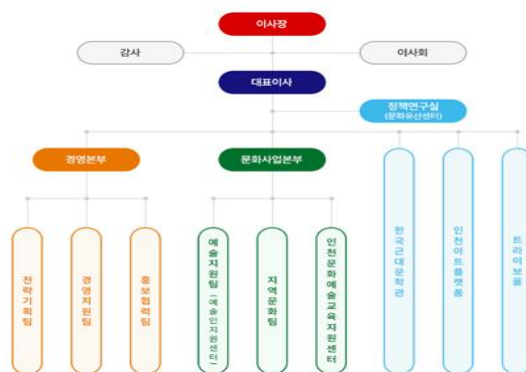


(그림-부록-19) 인천문화재단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출처 :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 2024.07.08.), <https://ifac.or.kr>, 재구성

■ 인천문화재단 조직도

- 인천문화재단의 조직은 정책연구실 1실과 ‘경영본부’와 ‘사업본부’ 2본부와 6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술지원센터와 예술지원팀 내부에 속해 있음.



(그림-부록-20) 인천문화재단 조직도

출처 :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 2024.07.08.), <https://ifac.or.kr>, 재구성

■ 인천문화재단 부서별 주요 업무

- 인천문화재단의 정책연구실,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홍보협력팀, 예술지원팀, 지역문화팀,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
- 센터, 한국근대문학관, 인천아트플랫폼, 트라이보울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표-부록-22> 인천문화재단 부서별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정책연구실	- 문화정책 기획 연구 - 문화정책 네트워크 운영 - 인천문화예술 40년사 편찬 - 인천문화재단 기록물 관리 - 인천 문화예술 아카이브 사업, 인천 예술사 구술 채록 및 아카이브 - (정리집성) 아카이브 운영, 지역사 자료수집 - (연구 분석) 생활문화유산 조사연구, 학술회의 개최 - (참여확산)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시민역사교육, 인천문화유산센터 홍보 - 지역문화자원 리서치
전략기획팀	- 각종감사대응 및 예산운영/ 정보공개청구 관리 /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 -경영평가 등
경영지원팀	- 기본재산 운용 및 회계/ 계약 관리/ 인사/ 노무 및 교육훈련/ 총무 등
홍보협력팀	- 기관홍보/ 아트레인 및 메세나/ 인천문화통신/ 정보시스템 관리/ 인천 문화정보 아이큐 운영/ 인천문화정보화사업/ 정보자원 관리 /기부금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문화협력네트워크
예술지원팀 (예술인지원센터)	- 예술창작일반지원 예술창작집중지원 예술창작생애지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 공연예술연습공간 역량강화/ 공연예술공간 기획지원/ 우현상 운영/ 미술활성화기획지원/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 우리미술관 전시/ 우리미술과 레지던스/ 우리미술관 문화예술교육/ 우리미술관 경상운영 - (예술인지원센터) - 예술인건강지원/ 예술인권익보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예술인이음카드/ 예술인이음카드(대표자기회비)
지역문화팀	- 청년예술인창작지원/ 지역기반청년탐구지원/ 청년역량강화/ 청년문화공간활성화/ 청년문화축제지원/ 청년문화버스킹/ 청년문화예술네트워크구축/ 매체협력사업/ 청년문화창작소/ 청년예술인실태조사/ 문화기획프로젝트(전 시민문화활동지원)/ 생활문화지원/ 생활문화 온라인플랫폼/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역문화교류/ 국제문화예술교류
인천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기획협력/ 문화예술교육거점 육성/ 문화예술교육역량강화/ 문화예술교육 추진기반 조성
한국근대문학관	- 문인단체 협력사업/ 문학자료 관리 및 활용/ 기획전시/ 시민문학프로그램/ 온라인문학과구축/ 청소년문학잡지발행/ 홍보 및 일반운영/ 상설전시 확대/교육프로그램/ 책담회/ 문학축제/ 대중문학총서
인천아트플랫폼 사업	- IAP버스킹/ 스트릿아트페스티벌/ 레코드플랫폼/ 블랙박스시리즈/ 공연장 유지보수/ 작가전1(올해의작가-중견)/ 주제전1/ 주제전2/ 작가전2(올해의작가-청년)/ - (레지던스) - 입주공모/ 작가지원 및 홍보/ 창제작프로젝트/ 창작역량강화/오픈스튜디오

■ 인천시문화재단 부서별 예산

- 인천시는 예술인 플랜의 재원은 ‘예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강화’ 항의 제반 사업들로 2024년 100억 4천만 원 규모이며, 이는 2023년 기준 9.32% 삭감된 예산임.
- 인천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장애예술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 예술인 플랜에 해당하는 사업은 인천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음.

<표-부록-23> 2024년 인천문화재단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단위:천원)

구분	2024년 예산액	구성비(%)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3회추경)	구성비(%)		
총 계	46,535,181	100	48,213,667	103.6	-1,660,486	-3.44
지속가능한경영실천	5,765,028	12.4	5,593,347	12.0	171,681	3.07
경상운영	5,765,028	12.38	5,593,347	12.01	171,681	3.07
예술생태계의선순환구조강화	10,403,373	22.35	11,473,239	24.65	-1,069,866	-9.32
맞춤형예술창작지원	5,418,488	11.64	6,170,186	13.25	-751,698	-12.18
예술지원다각화	335,973	0.72	563,273	1.21	-227,300	-40.35
예술인복지확대	1,295,700	2.78	1,399,875	3.01	-104,175	-7.44
청년문화창작소	80,000	0.17	142,877	0.31	-62,877	-44.01
인천아트플랫폼	2,978,212	6.40	2,902,028	6.23	76,184	2.63
공연예술연습공간	295,000	0.63	295,000	0.63	-	0.00
지역문화자원의가치확산	28,142,526	60.45	25,758,013	55.33	2,384,513	9.26
협력형시민문화활동체계구축	808,716	1.74	1,182,174	2.54	-373,458	-31.59
인천문화유산센터	450,000	0.97	785,389	1.04	-335,389	-7.29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188,300	4.70	2,188,300	4.70	-	0.00
통합문화이용권	22,196,520	47.68	19,239,630	41.33	2,956,890	15.37
트라이보울	2,231,384	4.79	2,396,368	5.15	-164,984	-6.88
우리미술관	267,606	0.57	266,152	0.57	1,454	0.55
지속가능성기반문화역량확보	2,093,455	4.50	2,966,965	6.37	-873,510	-29.44
데이터기반정책네트워크확대	1,388,455	2.98	1,957,910	4.21	-569,455	-29.08
한국근대문학관	630,000	1.35	830,600	1.78	-200,600	-24.15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	75,000	0.16	178,455	0.38	-103,455	-57.97
기부금	148,799	0.32	178,799	0.38	-30,000	-16.78
반납금		0.00	1,153,931	2.48	-1,153,931	순감
예비비		0.00	1,089,913	2.34	-1,089,913	순감

출처 :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 2024.07.08.), <https://ifac.or.kr>, 재구성

3) 인천시 문화자원

■ 인천시 문화기반시설 현황

- 「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전국의 문화기반시설 수를 살펴보면, 경기(609개), 서울(449개)로 가장 많음.
- 인천시에는 127개의 문화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 58개

소, 박물관 30개소, 미술관 5개소, 생활문화 센터 10개소, 문예회관 12개소, 지방 문화원 10개소, 문학관 2개소의 시설이 위치함.

- 인천시의 십만 명당 시설 수는 총 4.30개이며 이는 전국 십만 명당 시설 수보다 많이 낮은 수치이며, 대구 다음으로 부산과 같이 전국 하위 두 번째임.

<표-부록-24>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단위: 개)

구분	합계	십만 명당 시설 수	국립·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 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집	문학관
전국	3,248	6.30	1,240	913	286	189	272	231	69	48
인천광역시	127	4.30	58	30	5	10	12	10	0	2
서울특별시	449	4.80	202	135	43	11	29	25	4	0
부산광역시	143	4.30	51	32	9	20	12	16	0	3
대구광역시	95	4.00	44	17	4	11	11	8	0	0
광주광역시	78	5.50	27	13	14	8	8	5	3	0
대전광역시	61	4.20	25	15	5	2	5	5	3	1
울산광역시	46	4.10	20	10	1	3	6	5	0	1
세종특별자치시	26	6.80	15	7	0	2	1	1	0	0
경기도	609	4.50	310	128	59	23	45	31	11	2
강원특별자치도	246	16.00	61	100	21	18	23	18	4	1
충청북도	142	8.90	54	42	11	6	12	11	6	0
충청남도	193	9.10	62	63	10	12	18	15	3	10
전북특별자치도	191	10.80	66	43	20	16	17	14	5	10
전라남도	244	13.40	73	62	41	13	21	22	3	9
경상북도	232	8.90	71	77	11	16	27	23	5	2
경상남도	235	7.20	79	78	10	12	22	20	8	6
제주특별자치도	131	19.30	22	61	22	6	3	2	14	1

출처 :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2023, 문화체육관광부, 재구성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접속:2024.07.11.), <https://kosis.kr>, 재구성

- 인천시의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학관 등으로, 시립미술관이 없는 인천시에도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표-부록-25> 인천시 문화기반시설 현황

시설	시설명	구분	소재지(구/군)	개관설립	시설규모		이용현황(명)
					부지(m ²)	건물(m ²)	
도서관	계양도서관	교육청	계양구	2004	5,500	6,059	234,837
	중앙도서관	교육청	남동구	1983	3,979	5,506	382,521
	청화도진도서관	교육청	동구	1988	2,012	3,604	123,259
	주안도서관	교육청	미추홀구	1990	6,611	4,996	96,284
	부평도서관	교육청	부평구	1982	5,663	3,374	248,300
	북구도서관	교육청	부평구	1991	9,363	8,098	396,880
	서구도서관	교육청	서구	1991	6,609	7,757	231,976
	연수도서관	교육청	연수구	2004	6,354	5,344	217,584
	평생학습관	교육청	연수구	2018	14,815	10,267	57,544
	교육청 소계	9					
	내가도서관	지자체	강화군	2014	179	378	4,216

시설	시설명	구분	소재지(구/군)	개관/설립	시설규모		이용현황(명)
					부지(m²)	건물(m²)	
	강화군립도서관	지자체	강화군	1994	1,528	2,190	71,052
	지혜의숲도서관	지자체	강화군	2022	1,995	1,189	26,520
	동양도서관	지자체	계양구	2010	1,650	1,601	132,946
	서운도서관	지자체	계양구	2009	1,598	1,051	121,988
	임학도서관	지자체	계양구	2021	330	727	100,477
	작전도서관	지자체	계양구	2011	17,043	1,683	202,478
	효성도서관	지자체	계양구	2008	2,149	1,454	150,347
	서창도서관	지자체	남동구	2012	17,518	1,905	73,682
	소래도서관	지자체	남동구	2012	1,929	2,092	90,197
	남동논현도서관	지자체	남동구	2021	41,789	2,378	100,813
	미추홀도서관	지자체(시립)	남동구	1922	5,310	13,100	520,062
	송림도서관	지자체	동구	2011	1,200	1,982	106,326
	이룸청소년도서관	지자체	동구	2021	369	369	14,945
	용비도서관	지자체	미추홀구	2019	29,552	1,840	79,825
	하나래도서관	지자체	미추홀구	2007	1,053	1,248	80,881
	수봉도서관	지자체(시립)	미추홀구	2009	29,856	2,987	222,639
	관교어린이도서관	지자체	미추홀구	2009	992	389	25,456
	송의어린이도서관	지자체	미추홀구	2009	1,197	933	10,248
	쑥골어린이도서관	지자체	미추홀구	2009	1,144	357	31,168
	이랑어린이도서관	지자체	미추홀구	2012	1,347	533	25,060
	독정골어린이도서관	지자체	미추홀구	2009	480	324	9,080
	장사래어린이도서관	지자체	미추홀구	2012	1,158	494	12,680
	갈산도서관	지자체	부평구	2011	1,530	475	26,136
	부개도서관	지자체	부평구	2012	3,130	1,450	127,416
	삼산도서관	지자체	부평구	2012	1,048	1,582	149,088
	청천도서관	지자체	부평구	2013	760	1,083	108,668
	부개어린이도서관	지자체	부평구	2011	319	365	19,751
	부평기적의도서관	지자체	부평구	2006	1,300	926	98,382
	검단도서관	지자체	서구	2004	14,761	1,665	195,891
	검암도서관	지자체	서구	2017	1,760	2,998	226,360
	석남도서관	지자체	서구	2008	840	1,456	111,147
	신석도서관	지자체	서구	2012	1,007	1,669	81,470
	심곡도서관	지자체	서구	2010	765	1,348	151,332
	마전도서관	지자체(시립)	서구	2019	2,501	3,119	193,896
	청라국제도서관	지자체(시립)	서구	2015	23,509	2,218	267,407
	청라호수도서관	지자체(시립)	서구	2015	693,252	4,402	258,514
	해돋이도서관	지자체	연수구	2016	2,929	1,491	470,528
	동춘나래도서관	지자체	연수구	2019	2,876	1,060	267,008
	선학별빛도서관	지자체	연수구	2018	19,468	1,773	200,228
	연수청학도서관	지자체	연수구	2012	1,298	2,599	284,660
	함박비류도서관	지자체	연수구	2020	7,039	1,019	113,827
	송도국제기구도서관	지자체(시립)	연수구	2015	516	516	11,693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지자체	연수구	2011	908	1,702	427,055
	백령도서관	지자체	옹진군	2000	1,203	923	215
	꿈벗도서관	지자체	중구	2013	215	453	23,476
	울목도서관	지자체(시립)	중구	2011	4,016	1,464	105,097
	영종도서관	지자체(시립)	중구	2009	605	2,150	287,341
	영종하늘도서관	지자체(시립)	중구	2015	351,890	2,619	266,802
	지자체 소계	49					

시설	시설명	구분	소재지(구/군)	개관/설립	시설규모		이용현황(명)	
					부지(m ²)	건물(m ²)		
도서관 소계		58						
박물관	강화역사박물관	공립	강화군	2010	14,187	4,364	108,230	
	강화자연사박물관	공립	강화군	2015	4,888	2,712	100,718	
	강화전쟁박물관	공립	강화군	2015	3,475	993	53,095	
	검단선사박물관	공립	서구	2008	10,216	1,970	19,899	
	계양산성박물관	공립	계양구	2020	6,739	1,998	17,588	
	녹청자박물관	공립	서구	2010	4,700	834	32,047	
	부평역사박물관	공립	부평구	2007	17,956	3,109	30,372	
	소래역사관	공립	남동구	2012	1,234	1,424	28,542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공립	동구	2005	58,241	2,045	61,736	
	영종역사관	공립	중구	2018	5,000	2,936	33,258	
	인천개항박물관	공립	중구	2010	983	864	32,769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공립	연수구	1946	11,115	5,831	116,043	
	인천도시역사관	공립	연수구	2009	7,715	8,444	106,028	
	짜장면박물관	공립	중구	2012	582	837	91,384	
	한국근대문학관	공립	중구	2013	1,709	1,973	17,713	
	한국이민사박물관	공립	중구	2008	10,793	4,245	54,438	
	공립소계	16						
	가천박물관	사립	연수구	1995	2,410	2,447	8,425	
	국제성서박물관	사립	미추홀구	1995	948	1,000	5,860	
	범패민속문화박물관	사립	미추홀구	2006	463	225	500	
	심장박물관	사립	계양구	2019	383	2,090	900	
	애보박물관	사립	남동구	2009	3,930	764	37,672	
	옥토끼우주센터	사립	강화군	2007	61,818	5,691	131,490	
	인천어린이박물관	사립	미추홀구	2005	2,525	2,525	35,000	
	인천학생6.25침전관	사립	중구	2004	215	269	4,919	
	재미난박물관	사립	중구	2005	363	884	-	
	초연다구박물관	사립	중구	2015	161	110	1,200	
	한국선교역사기념관	사립	부평구	2008	4,576	9,777	-	
	한국전통음식박물관	사립	남동구	2012	201	142	37,672	
	해명단청박물관	사립	중구	2009	144	963	1,000	
	사립소계	13						
	인하대학교박물관	대학	미추홀구	1976	480	480	1,200	
	대학소계	1						
박물관소계		30						
미술관	송암미술관	공립	미추홀구	1992	14,553	3,685	9,962	
	인천아트플랫폼	공립	중구	2009	6,635	5,593	20,530	
	공립소계	2						
	더리미미술관	사립	강화군	1995	1,600	380	1,590	
	전원미술관(휴관)	사립	강화군	1995	1,157	566	-	
	해든뮤지움	사립	강화군	2013	2,980	1,986	12,000	
	사립소계	3						
미술관 소계		5						
생활 문화 센터	인천생활문화센터	지자체(광역)	중구	2016	-	598.8	15,578	
	계양생활문화센터	지자체(공단)	계양구	2020	-	-	-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지자체	동구	2016	-	-	4,246	
	학산 생활문화센터 마당	민간위탁	미추홀구	2016	-	495	9,114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지자체(기초)	부평구	2017	-	2586	7,297	
	검암경서생활문화센터	지자체(기초)	서구	2020	-	99.6	1,762	
	가정생활문화센터	지자체(기초)	서구	2021	-	363.6	2,340	

시설	시설명	구분	소재지(구/군)	개관/설립	시설규모		이용현황(명)
					부지(m ²)	건물(m ²)	
	진달래 생활문화센터	지자체(기초)	연수구	2017	-	303	6,103
	507문화벽커 생활문화센터	지자체(기초)	연수구	2020	-	297	8,458
	기항장 문화당 생활문화센터	지자체(기초)	중구	2017	-	311.9	2,570
생활문화센터 소계		10					
문예 회관	강화문예회관	지자체(기초)	강화군	1991	-	4,100	3,449
	계양문화회관	지자체(기초)	계양구	1997	-	9,630	-
	남동소래아트홀	지자체(기초)	남동구	2011	-	9,995	32,608
	인천문화예술회관	지자체(광역)	남동구	1994	-	43,313	129,088
	동구문화체육센터	지자체(기초)	동구	2021	-	8,011	18,637
	인천수봉문화회관	지자체(광역)	미추홀구	1982	-	3,895	32,504
	부평아트센터	지자체(기초)	부평구	2010	-	17,236	58,043
	청라복합문화센터	지자체(기초)	서구	2021	-	4,317	19,467
	인천서구문화회관	지자체(기초)	서구	1995	-	14,304	39,189
	트라이보울	지자체(광역)	연수구	2012	-	2,764	26,509
	아트센터인천	지자체(광역)	연수구	2018	-	51,977	62,773
	중구문화회관	지자체(기초)	중구	2022	-	6,878	1,048
문예회관 소계		12					
지방 문화원	중구문화원	-	중구	2002	-	391	5,700
	화도진문화원	-	동구	2016	-	1,254	3,000
	미추홀학산문화원	-	미추홀구	2003	-	777	98,786
	연수문화원	-	연수구	2001	-	1,529	39,860
	남동문화원	-	남동구	2004	-	256	4,800
	부평문화원	-	부평구	1998	-	394	5,000
	계양문화원	-	계양구	2005	-	87	15,621
	서구문화원	-	서구	2002	-	10	93,327
	강화문화원	-	강화군	1947	-	266	1,400
	웅진문화원	-	웅진군	2017	-	141	1,600
지방문화원 소계		10					
문학관	강화문학관	지자체	강화군	2010	3,388.03	755.34	2,100
	한국근대문학관	지자체(광역)	중구	2013	1709	1973	17,713
문학관 소계		2					
총계		127					

출처 :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2023, 문화체육관광부, 재구성

■ 인천시 예술활동증명¹⁹⁾ 현황

-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예술활동증명 현황을 인천 예술인 플랜 주기인 2018년, 2021년, 202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경남시> 인천시> 전북 순으로 많았으며, 인천은 꾸준히 전국에서 상위 5위를 차지하고 있음.
- 인천시 예술인활동증명 예술인은 3년 단위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 비해 2024년에는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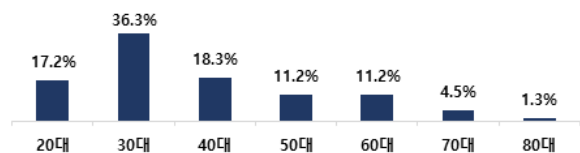
19) 예술활동증명이란 한국복지재단에서 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임. 예술활동증명에는 예술활동 증명(일반), 신진 예술활동 증명, 예술활동증명 특례 3종류가 있음.

<표-부록-26> 전국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현황(2018, 2021, 2024)

구분	2018년(명)	구성비(%)	2021년(명)	구성비(%)	2024년(명)	구성비(%)
전국	55,177	100.0	112,456	100.0	180,465	100.0
서울특별시	24,534	44.5	42,881	38.1	65,007	36.0
부산광역시	3,450	6.3	7,280	6.5	9,849	5.5
대구광역시	1,320	2.4	3,206	2.9	5,448	3.0
인천광역시	2,225	4.0	4,786	4.3	8,163	4.5
광주광역시	948	1.7	2,369	2.1	4,388	2.4
대전광역시	1,087	2.0	2,979	2.6	4,771	2.6
울산광역시	863	1.6	1,616	1.4	2,358	1.3
세종특별자치시	114	0.2	714	0.6	1,042	0.6
경기도	12,804	23.2	25,285	22.5	43,368	24.0
강원특별자치도	844	1.5	2,475	2.2	3,917	2.2
충청북도	607	1.1	1,913	1.7	3,394	1.9
충청남도	610	1.1	1,697	1.5	3,581	2.0
전북특별자치도	1,324	2.4	3,378	3.0	6,065	3.4
전라남도	615	1.1	2,636	2.3	4,267	2.4
경상북도	638	1.2	1,708	1.5	3,386	1.9
경상남도	2,811	5.1	6,036	5.4	8,702	4.8
제주특별자치도	383	0.7	1,497	1.3	2,759	1.5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접속 2024.04.12.), <http://www.kawf.kr> 재구성

- 인천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중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53.9%, 남성이 46.1%로 여성 예술가가 조금 더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가 36.3%로 가장 높고, ‘40대’가 18.3%, ‘20대’가 17.2%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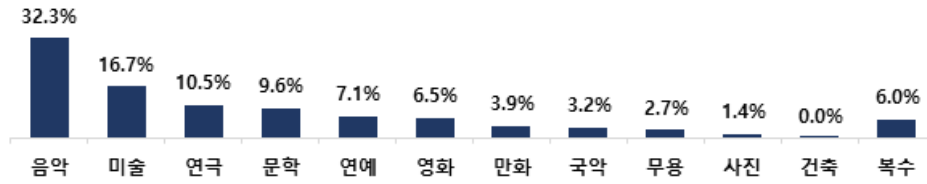


(그림 부록-21) 성별 인천시 예술활동증명 현황

(그림 부록-22) 연령별 인천시 예술활동증명 현황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접속 2024.04.), 재구성

- 인천시 예술활동증명 분야를 살펴보면, ‘음악’이 32.3%로 가장 높고, ‘미술’ 16.7%, ‘연극’ 10.5% 순으로 나타남. 한편 ‘건축’은 0.0%로 인천시에는 건축 관련 예술가로 등록된 사람이 없음이 나타남.



(그림-부록-23) 분야별 인천시 예술활동증명 현황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접속 2024.04.), 재구성

4) 인천시 지역문화종합지수²⁰⁾

■ 지역문화실태조사 개요

-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공동으로 3년에 한 번씩 지역문화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22년에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분석연구」를 발표하였음.
- 전국 24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발표에서는 정책, 자원, 활동, 향유의 네 가지 지수와 더불어 코로나19 특별 현황지수를 적용하여 총 다섯 가지로 관련 지수를 도출하고 있음.

<표-부록-27> 지역문화 종합지수의 하위요소 지수 개념

하위지수	내용
문화정책지수	각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 의지, 정책 수행을 위한 환경 및 그에 따른 지원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 문항을 포함함.
문화자원지수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유산, 기반시설 등 문화적 자원의 조성여부와 활성화 정도를 살피고, 관리 및 보전 노력 등을 파악하여 지역문화진흥의 잠재적 역량 측정함.
문화활동지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채용 혹은 지원하고 있는 문화전문인력 수와 확보율, 지역의 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기업 등 지역내 문화활동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문화향유지수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 여부와 주민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 현황, 대상자 맞춤형 문화복지 실시 여부 등 지역문화향유 정책의 성과를 측정함.
코로나19 특별지수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마련된 새로운 정책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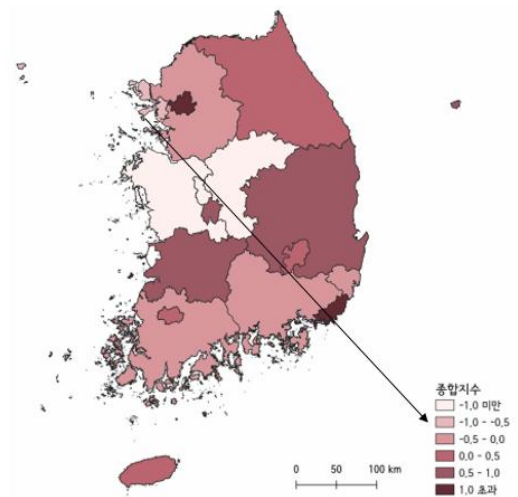
*코로나19 특별지수는 임시지수로서 종합지수 산출에서 제외됨.

출처 : 장훈,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2, 19~172쪽, 재구성

■ 인천시 지역문화 종합지수

20)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의 일환이자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 발전, 문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점검하기 위해 3년에 한번씩 지역문화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문화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 인천시의 지역문화 종합지수를 살펴보면 총 6단계 중 2단계(-1.0~-0.5)에 속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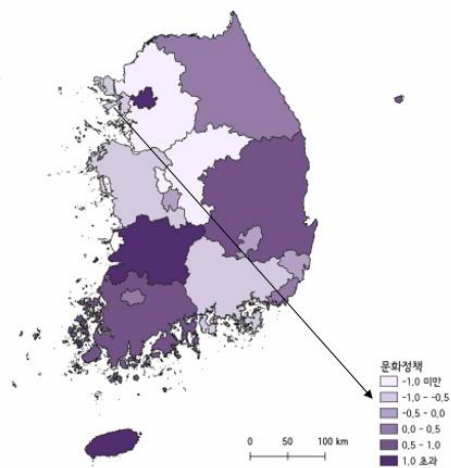


(그림-부록-24) 전국 지역문화 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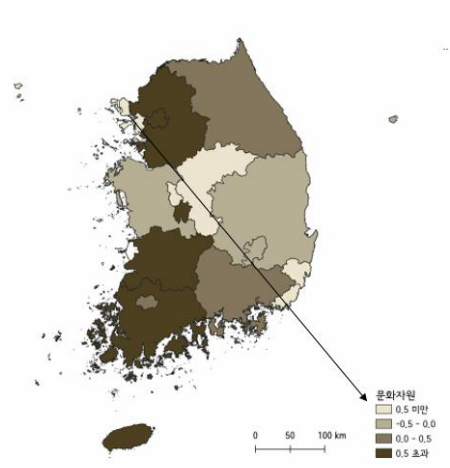
출처 :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내 지역문화실태조사 보도자료, 2022, 11쪽, 재구성

■ 인천시 지역문화 하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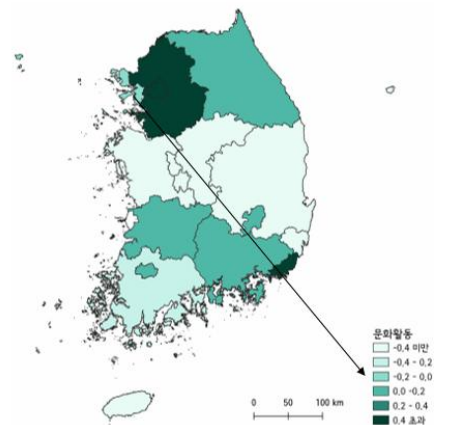
- 인천시 지역문화 하위지수 중 문화정책지수는 총 6단계 중 2단계(-1.0~-0.5)에 속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인천시의 지역문화 하위지수 중 문화자원지수는 총 4단계 중 1단계(0.5 미만)에 속하여 가장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인천시의 지역문화 하위 지수중 문화 활동 지수는 총 6단계 중 3단계(-0.2~0.0)로 보통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인천시의 지역문화 하위지수 중 문화 향유지수는 총 4단계 중 2단계(-0.5~0.0)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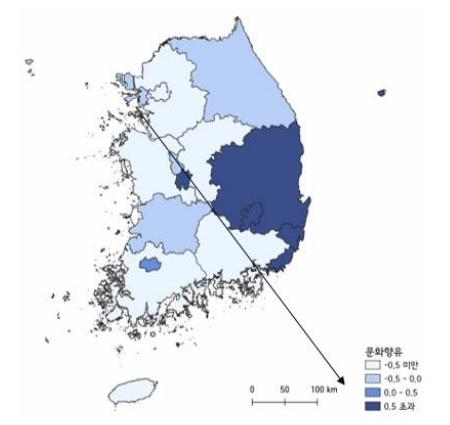
(그림-부록-25) 전국 지역문화 하위지수(문화정책)



(그림-부록-26) 전국 지역문화 하위지수(문화자원)



(그림-부록-27) 전국 지역문화 하위지수(문화활동)



(그림-부록-28) 전국 지역문화 하위지수(문화향유)

출처 :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내 지역문화실태조사 보도자료, 2022, 12쪽, 재구성

5) 인천시 문화자원 특성과 시사점

■ 낮은 지역문화 종합지수

- 인천시의 지역문화 종합지수는 총 6단계 중 2단계(-1.0~-0.05)에 해당하여 낮은 단계로 확인됨.
- 종합지수에는 하위지수로 정책, 자원, 활동, 향유지수가 있는데, 4개 모두 보통이거나 하위권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자원은 최하위 단계로 나타남.

■ 문화정책의 낮은 위상

- 인천의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4.09% 중 문화정책과, 예술정책과, 문화기반과 예산 비율은 0.9%에 해당하며, 같은 국의 체육진흥과 예산 비율은 2.45%에 해당함.
- 특히, 문화정책과는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 예산이 13.1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화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다른 정책에 비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인천 민선 8기 공약 중 문화예산 3% 증액임을 고려하여, 문화정책과와 예술정책과 및 문화기반과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인천 재정자립도 낮음

- 인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상위 4번째로 높게 나타나나, 재정자립도는 하위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인천시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예술인의 꾸준한 증가

- 인천시 예술인은 3년 단위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 비해 2024년에는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음.

■ 청년예술인의 비율 감소

- 청년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인천시임에도 불구하고, 20~30대 청년예술인 비율이 53.5%를 차지함.
- 그러나, 증가 추이를 보면 20~30대 예술인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50대 이상 예술인은 증가하여 고령화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문화기반시설 부족

- 인천시의 십만 명당 시설 수는 총 4.30개이며 이는 전국 십만 명당 시설 수 6.30보다 2.00개 낮은 수치이며, 부산과 동일하게 전국 하위 두 번째에 해당함
- 인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부록2. 델파이 조사지 양식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2025~2027) 수립을 위한

델파이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디자인자리는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의 의뢰로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인천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 및 지위와 권리 보장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입니다. 인천 예술인 플랜의 관계자, 예술가, 연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시에 제3차 예술인 플랜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응답에는 약 1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조사 내용은 통계적인 분석 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문 참여자분께는 소정의 답례로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휴대폰으로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응답자 일반사항에서의 휴대폰 번호를 꼭 기입하여, 6월 28일 18시까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책임연구원 : 문화디자인자리 대표 최혜자

문의 / 안내 : 문화디자인자리 연구원 추일범 (02-2636-5253/churustme@gmail.com)

*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목적 : 참여자 답례용 모바일상품권 제공
- 수집항목 : 휴대폰 번호
- 보유기간 : 델파이 조사 완료 후 파기
- 수집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도 설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 설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문을 종료합니다.
①	②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신 분은 핸드폰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예술인 플랜에 대한 인지

- 198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가 채택되고,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예술인정책의 논의를 본격화하여 2011년 「예술인복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2012년에 이르러,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지원으로 예술 발전에 이바지'를 미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고 2014년 본격적인 예술인 복지정책이 시작합니다.
-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따라 3년마다 인천 예술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표> 인천 예술인 지원 경과

구분	내용	비고
2016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 제정(전국에서 두 번째)
2017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조례」 제정	
2018	제1차 인천시 예술인복지 플랜 수립(실태조사 포함)	1차 예술인 플랜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2020	인천문화재단 내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출범	
2021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실태조사 포함)	예술인과 도시에 관한 종합적 관점의 필요성 제기
2023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진행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문화재단 사업 전반에 청년 의제 강화
2024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	

3. 당신은 인천 예술인 플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다	①
약간 알고 있다	②
거의 모른다	③
전혀 모른다	④
무응답(가급적 응답 추천)	⑤

4. 당신은 인천 예술인들이 예술인 플랜이 매 3년마다 수립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알고 있다	①
약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②
거의 모른다고 생각한다	③
전혀 모른다고 생각한다	④
무응답(가급적 응답 추천)	⑤

5. 만약 예술인이 잘 인지하지 못한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술인 플랜 자체를 몰라서	①
예술인 플랜의 내용을 알 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②
창작과는 관련이 없어서	③
알아도 달라질 것이 없어서	④
무응답(가급적 응답 추천)	⑤

■ 2차 예술인 플랜의 비전과 미션에 대한 의견

- 인천시는 2019년부터 예술인 플랜을 수립하여 예술진흥과 예술인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1차 인천 예술인복지 플랜	2차 인천 예술인 플랜
계획기간	- 2019~2021	- 2022~2024
수립배경	- 예술인 복지 법정계획 수립 필요	- 제1차 계획 종료에 따른 2차 플랜 수립
비전	- 예술인을 위한 기회의 도시 인천	- 예술인이 존중받고 성장하는 도시, 인천
목표	-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 - 예술인이 일하기 좋은 도시 - 예술인이 성장하는 도시	- 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속성 증대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증진 - 예술인의 사회안정망 확대 - 예술인 정책의 기반 강화

6. 당신은 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비전과 사업 방향이 잘 정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설정되었다	①
괜찮게 설정되었다	②
약간 미흡하게 설정되었다	③
잘못 설정되었다	④
무응답(가급적 응답 추천)	⑤

7. 2차 예술인 플랜의 방향의 적절성 여부와 관계없이,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에서 강화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시의 정책 의지와 예산 증액	①
정책 추진 인력의 증원	②
예술인지원센터 조직 위상의 강화	③
현실성 있는 사업 계획 수립	④
인천 예술생태계 구축	⑤
무응답(가급적 응답 추천)	⑥
기타()	⑦

■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추진 과제의 적절성

- 2022년부터 추진하는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은 8대 추진전략 아래 24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추진과제는 다시 70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는 중입니다.

구분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내용	
비전	- 예술인이 존중받고 성장하는 도시, 인천	
목표	① 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속성 증대	②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증진
	③ 예술인의 사회안정망 확대	④ 예술인 정책의 기반 강화
8대	①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 (청년예술인 성장 지원확대/ 인천형 예술인 지원 체계 강화/ 예술활동 공	

구분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내용
추진전략 / 24개 추진과제	① 간 지원 ② 예술인의 예술생태계 정착과 성장 촉진 (장르별 예술생태계 정착 지원/ 예술인 코칭·피칭 프로그램 운영 등) ③ 예술인의 교류 활성화 (예술인 연구 공동체 지원/ 예술인 네트워킹 워크숍 및 캠프 운영/국내외 예술인 교류 지원) ④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향상 (예술인 신고·상담 지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제도 보완 등) ⑤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가치확산 (사회적 참여적 예술기획 지원/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 등) ⑥ 예술인의 삶의 기반강화 (예술인 주거 안정 지원/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지원/예술인 금융 안정망 구축) ⑦ 예술인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 (예술인 지원사업 플랫폼 운영/예술인 패널 구축화 활용 등) ⑧ 예술인 정책 추진기반고도화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위상강화/예술인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예술인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 2차 예술인 플랜은 전반적으로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나, 여러 과제를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일부 사업은 미추진되기도 하였습니다..	
미추진 사업	
- (예술인의 교류 활성화) 예술인 네트워킹 캠프 운영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향상)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전문상담 지원 -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가치확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인천예술로' 추진 -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가치확산) 기업기관 근로자 대상 예술의 사회적 가치 프로그램 운영 - (예술인의 삶의 기반강화) 예술인 대상 매입임대주택 사업시행 - (예술인의 삶의 기반강화) 예술인 협동조합주택 조성 - (예술인의 삶의 기반강화) 생활안정자금 및 창작자금 대출 지원 - (예술인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 예술활동증명 운영방식 개선/인천 예술인 패널 구축 및 활용 - (예술인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 인천시 부서협력형 예술인정책위원회 조직·운영 - (예술인정책추진기반고도화)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예술인정책추진기반고도화) 인천예술인지원센터의 인력·조직·예산·역할 단계적 확대 - (예술인정책추진기반고도화) 광역·기초문화재단 예술인정책 네트워크 구축 - (예술인정책추진기반고도화) 광역 예술인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8. 당신은 2차 예술인 플랜의 추진 과제가 잘 설정된 과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설정되었다	①
괜찮게 설정되었다	②
약간 미흡하게 설정되었다	③
잘못 설정되었다	④
무응답(가급적 응답 추천)	⑤

9. 당신은 2차 예술인 플랜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시의 정책적 지지	①
충분한 정책 추진 인력	②
예술인지원센터의 위상	③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	④
인천의 예술생태계 구축	⑤
무응답(가급적 응답 추천)	⑥
기타()	⑦

■ 2차 예술인 플랜의 전략사업의 효과 평가

- 2차 예술인의 전략별 세부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전략의 경과에 따라 세부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략1)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과 사업

- 청년 예술인 및 인천형 예술인의 지원체계를 다양화하고 예술공간의 조성, 발굴, 기획지원 등을 통해 인천시에서의 예술활동 증진과 예술인의 인천시 유입을 유도합니다.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청년문화창작소 활성화	- 청년문화창작소 (시작공간 일부)
청년예술인 단체·활동지원	- 청년창작활성화지원 (청년예술인창작지원) - 청년문화축제지원 (명때리는 음악축제, 캐릭터 품바 축제 등 지원) - 청년역량강화사업 (창작활동 워크숍, 문화예술로 레벨업, 청년 The 위로 등) - 예술창작생애지원 (원로 예술인 포함 지원)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다각화	-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다각화(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예술활동·연습공간 조성	-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 및 운영 전반) - 공연예술 연습공간 역량강화(2023 PUMP, 즉흥 움직임 워크숍 등) - 공연예술연습공간 기획지원(도화가압장) - 청년문화공간 활성화(강화유니버스 라운지 등 청년공간의 기획 지원) - 인천아트플랫폼레지던시·작가지원 및 홍보 -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창제작프로젝트
창작공간 임대료지원확대	-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연습실 작업실 등 창작공간의 12개월 임대료 50%지원) - 청년문화예술특화거리 청년 점점점 - 청년문화공간 활성화

전략2) 예술인의 예술생태계 정착과 성장 촉진

- 생태계 관점에서의 예술 지원사업 설계와 예술활동 지속 방안의 연구로 예술인의 지역 정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장르별 예술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설계와 추진	- 예술창작 일반지원 - 예술창작 집중지원(2년 연속 지원)
인천문화재단 '인천미술 활성화 기획지원사업' 확대	- 미술활성화 기획지원(인천미술은행 소개와 강화 수장고 운영) - 축제사업-아트마켓*(트라이보울 아트마켓)
인천시·인천문화재단의 '상주예술인 지원사업' 확대	- 레지던시(작가지원 및 홍보,창제작 프로젝트 진행) - 우리미술관(전시, 레지던스, 문화예술교육 진행) - 청년문화창작소(시작공간 일부의 공동운영단 구성 및 청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예술인 직무능력 향상 아카데미 / 예술인 피칭 아카데미 운영	- 교육 및 컨설팅지원 - 청년역량강화 (시작공간일부 공동운영단의 기획 사업 지원)
예술활동수당의 효과와 추진방안 분석	- 예술인 이음카드

10. 당신은 지난 3년간 예술인 활동 증진 사업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 선택)

청년문화창작소 (시작공간 일부)	①
청년창작활성화지원 (청년예술인창작지원)	②
청년문화축제지원 (명때리는 음악축제, 20분 연극 페스티벌, 캐릭터 품바 축제 등 지원)	③
청년역량강화사업 (창작활동 워크숍, 문화예술로 레벨업! 청년 The 위로! 등)	④
예술창작생애지원 (원로 예술인 포함 지원)	⑤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다각화(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⑥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 및 운영 전반)	⑦
공연예술 연습공간 역량강화(2023 PUMP, 즉흥 움직임 워크숍 등)	⑧
공연예술연습공간 기획지원(도화가압장)	⑨
청년문화공간 활성화(강화유니버스 라운지 등 7건의 청년공간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	⑩
인천아트플랫폼레지던시-작가지원 및 홍보	⑪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창제작프로젝트	⑫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⑬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연습실, 작업실 등 창작공간 선정, 12개월 간 임차료 50%지원)	⑭
청년문화예술특화거리 청년 점점점	⑮

11. 당신은 지난 3년간 예술인 예술생태계 정착과 촉진 사업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 선택)

예술창작 일반지원	①
예술창작 집중지원(2년 연속 지원)	②
미술활성화 기획지원(인천미술은행 소개와 강화 수장고 운영)	③
축제사업-아트마켓*(트라이보울 아트마켓)	④
레지던시(작가지원 및 홍보,창제작 프로젝트 진행)	⑤
우리미술관(전시, 레지던스, 문화예술교육 진행)	⑥
청년문화창작소(시작공간 일부의 공동운영단 구성 및 청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⑦
청년역량강화 (시작공간일부 공동운영단의 기획 사업 지원)	⑧
예술인 이음카드	⑨

전략3) 예술인의 교류 활성화 사업

- 예술인 연구 모임, 국내외 네트워킹의 다방면 지원으로 예술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예술적 경험을 확장합니다.

사업 구분	사업 내용
현장 밀착형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획 지원	- 지역기반청년탐구지원(청년동네탐구생활) - 청년역량강화(전략1의 청년역량강화와 통합 추진)
예술인 주도 학습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예술인 연구 모임 활성화 지원	
예술인 네트워킹 워크숍 운영	- 청년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불모지’의 인천소, 화양연화 등) - 공연예술연습공간(전략1의 공연예술 연습공간 역량강화와 통합추진)
국내외 예술인 교류협력 지원	- ※ 아래 예술인교류공간 참조
예술인 교류공간 조성	- 청년문화창작소(전략1의 시작공간 일부와 통합) - 청년문화공간 활성화(전략 1,2의 관련 사업과 연계 진행) - IAP레지던시-작가지원 및 홍보(대만/호주 기관과 작가교환 프로그램) - IAP레지던시-창제작 프로젝트(입주작가 전시 및 발표)

전략4)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향상

-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의 방지와 대응,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보완, 활동증명 및 예술인고용보험 관련 상담으로 예술인이 주도적으로 권리를 증진할 토대를 구축합니다.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전문상담 지원	- 미추진
지역 예술계 불공정·부당행위에 대한 신고·전문상담 지원	- ‘전략과제6) 예술인의 삶의 기반강화’에서의 ‘건강지원’과 ‘권익보호’사업인 ‘상담창구 운영’으로 통합 추진 - 상담창구 홍보운영(분야별 법률상담 지원, 사회보험, 저작권 등 내용과 상황별 맞춤 상담 지원)
예술인 지위권리 보장 관련 미비점 도출	
예술인 지위권리 침해 방지 제도 마련	
예술활동증명 관련 상담 지원	

12. 당신은 지난 3년간 예술인의 교류 활성화 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 선택)

지역기반청년탐구지원(청년동네탐구생활)	①
청년역량강화(전략1의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 진행)	②
청년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불모지’의 인천소, 화양연화 등)	③
공연예술연습공간(전략1의 공연예술 연습공간 역량강화와 통합)	④
청년문화창작소(전략1의 시작공간 일부와 통합)	⑤
청년문화공간 활성화(전략 1,2의 관련 사업과 연계 진행)	⑥
IAP레지던시-작가지원 및 홍보(대만/호주 기관과 작가교환 프로그램)	⑦
IAP레지던시-창제작 프로젝트(입주작가 전시 및 발표)	⑧

13. 당신은 지난 3년간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향상 사업에서 상담창구 운영이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운영되었다	①
괜찮게 운영되었다	②
약간 미흡하게 운영되었다	③
잘못 운영되었다	④
무응답(가급적 응답 추천)	⑤

전략5)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가치확산 사업

- 사회적 이슈 연계 기획,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예술인의 역할 포럼 등 예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예술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예술기획지원	- 전략3의 '지역기반청년탐구지원 청년동네탐구생활'로 통합
시민 대상 예술의 사회적 가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문화정책 네트워크 운영(문화정책 아카데미)
문화기반시설에서의 인천e음 카드 캐시백 비율 상향	- 예술인 이음카드 통합 운영

전략6) 예술인의 삶의 기반강화 사업

-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주거, 건강, 저금리 대출 지원 등 삶의 기반 강화, 인천도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매입임대주택사업, 협동조합주택 조성 등으로 주거 안정을, 심리상담과 의료 지원 확대, 금융 안전망 구축 등으로 생활기반 전반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사업의 확대	- 건강지원(종합건강검진, 심리상담) · 의료기관 협력 포함, 예술인건강검진지원 체계 확립(전국 유일)으로 예술인 종합건강검진 시행 · 맞춤형 심리상담(개인, 가족, 집단) 프로그램 지원→상담 센터 확대 추세
인천예술인 의료지원 사업의 확대	- (2022) 예술인 육아 서로돌봄 지원사업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상담창구홍보운영 · 법률 전문가 위촉 운영으로 불공정, 저작권 등 상담 전문성 확보 · 서면·유선·대면 중 필요 방식 맞춤형 상담 진행 · 예술활동증명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현황 조사 실시

14. 당신은 지난 3년간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가치 확산 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지역기반청년탐구지원(청년동네탐구생활)	①
문화정책 네트워크 운영(문화정책 이슈 관련 토론회 및 시민공개 특강)	②
예술인 이음카드 통합 운영	③

15. 당신은 지난 3년간 예술인 삶의 기반 강화 사업으로 추진된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운영되었다	①
괜찮게 운영되었다	②
약간 미흡하게 운영되었다	③
잘못 운영되었다	④
무응답(가급적 응답 추천)	⑤

전략7) 예술인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 사업

- 예술인 지원사업 정보 플랫폼 운영, 예술인 패널 구축, 예술인이 참여하는 부서협력 정책위원회 조직 등을 통해 정책의 홍보와 예술인 당사자성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예술인 지원정보 플랫폼 운영	- 문화정보화 사업(인천문화재단 통합 포털 구축 중) - 인천문화정보 아이큐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운영

전략8) 예술인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사업

- 인천예술인지원센터의 위상 강화, 중앙-광역-기초 간의 예술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예술인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예술인정책 추진기반을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주기 조성	- 인천 문화 및 문화정책 연구과제 공모 및 지원(2023년 이후 폐지) · 인천학연구원과 협약을 통한 공동추진 - 문화정책연구 추진(2023년 기준) ·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 인천문화재단 조직관리 개선제도 도입방안 연구 · 인천문화재단 홍보 컨설팅 용역 · 인천 대표축제 추진방향 설정 조사.연구
'2023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시행'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문화정책 기획연구

16. 당신은 지난 3년간 예술인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 사업으로 추진된 예술인 지원정보 플랫폼 운영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운영되었다	①
괜찮게 운영되었다	②
약간 미흡하게 운영되었다	③
잘못 운영되었다	④
무응답(가급적 응답 추천)	⑤

17. 당신은 지난 3년간 예술인 정책 추진기반 고도화사업으로 추진된 정책 관련 연구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운영되었다	①
괜찮게 운영되었다	②
약간 미흡하게 운영되었다	③
잘못 운영되었다	④
무응답(가급적 응답 추천)	⑤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방향

- 2024년 2차 예술인 플랜의 종료에 따라, 인천시는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은 2025년을 시작하는 해로 하여 3년 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수립을 위해서는 제1차, 제2차 인천예술인 플랜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한 지속과제와 함께, 인천시의 예술증진과 예술인의 지위권리를 향상할 새로운 구상이 필요합니다.

18. 당신은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생태계적 접근과 포괄적 여건 조성 방향	①
핵심 사업 중심으로 이후 확장하는 방향	②
다양한 예술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소액다건 방향	③
다양성이 확장되는 실험적 방향	④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촉진 방향	⑤
예술인 당사자 참여하는 방향	⑥
무응답(가급적 응답 추천)	⑦

19. 당신은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형평성	①
다양성	②
접근성	③
당사자성	④
효과성	⑤
실험성	⑥
연결성	⑦
기타 ()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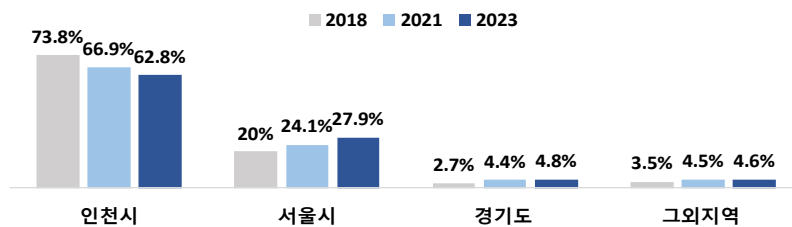
■ 제3차 인천 예술인 플랜의 주요 이슈

-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전국 예술활동증명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 거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의 비율은 전국 5위에 해당합니다.

- 인천시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연령대는, 현재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30대 예술인은 점차 감소하고, 50대 이상 예술인은 점차 증가하여 고령화되는 추세입니다.
- 인천시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연령대는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20~30대 예술인은 점차 감소하고, 50대 이상 예술인은 점차 증가하는 고령화 추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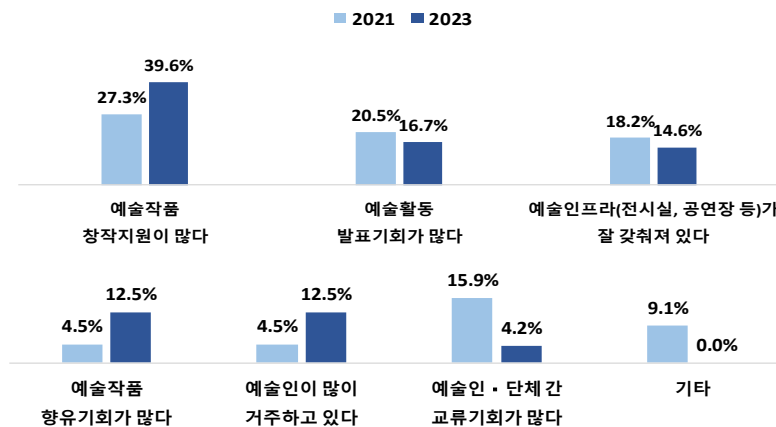
구분	2018년(명)	구성비(%)	2021년(명)	구성비(%)	2024년(명)	구성비(%)
합계	2,225	100.0	4,786	100.0	8,163	100.0
20대	477	21.4	1,007	21.0	1,404	17.2
30대	971	43.6	1,864	38.9	2,967	36.3
40대	418	18.8	902	18.8	1,494	18.3
50대	210	9.4	515	10.8	915	11.2
60대	91	4.1	343	7.2	911	11.2
70대	45	2.0	115	2.4	366	4.5
80대	13	0.6	40	0.8	106	1.3

-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인천예술인은 주로 인천에서 활동하지만 그 추이가 점차 낮아지고 서울시나 경기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예술인 1년간 주요 활동지역 추이

- 타 지역 활동이 높아지는 주요 이유로 '예술작품 창작지원', '예술작품 향유 기회', '예술인 거주' 등 예술생태계와 관련된 것들이 꼽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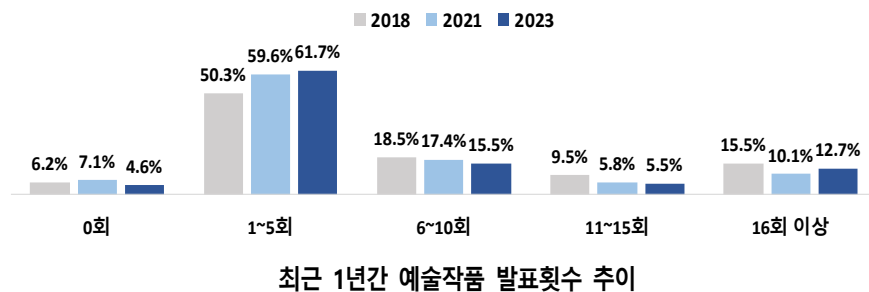
타 지역 활동 희망·계획의 이유 추이

20. 당신은 청년 예술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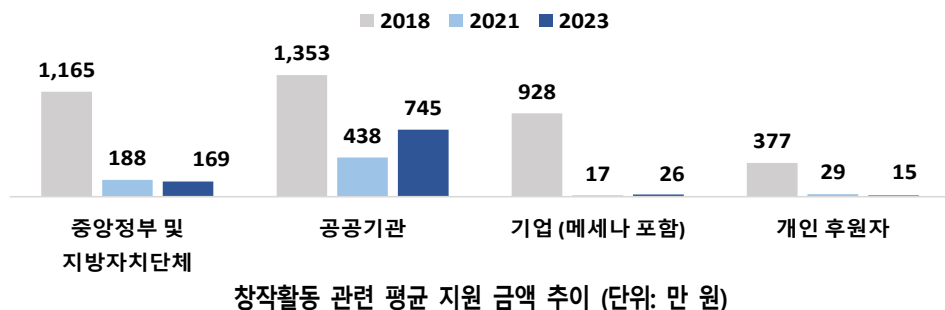
청년 창작지원사업의 확대	①
청년 예술실험 공간 마련	②
청년 창작 랩 설치	③
청년 발표 지원 확대	④
청년 예술가 쌍방향 플랫폼 마련	⑤
인천 예술생태계의 다양성 확장	⑥
무응답(가급적 응답 추천)	⑦

*발표횟수와 지원금액 추이에 따른 예술활동 증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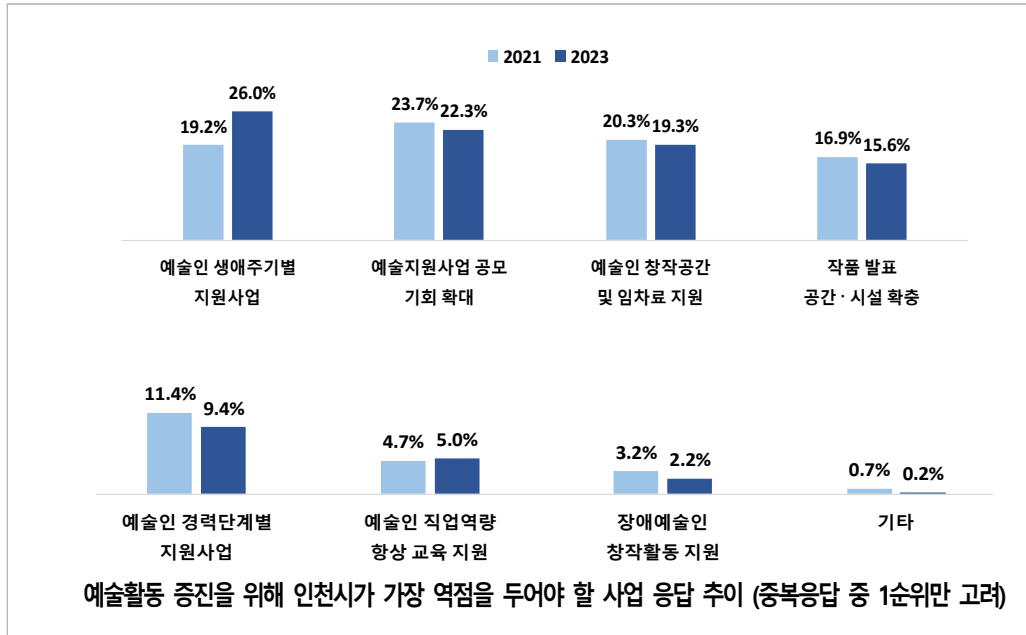
-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1년간의 예술작품 발표 횟수가 '1~5회'와 '16회 이상'이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중간지대인 '6~15회'는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2023년의 창작활동 지원금액이 코로나19 확산 때 소액다건으로 긴급지원 되었던 규모와 크게 다르지 않아, 창작지원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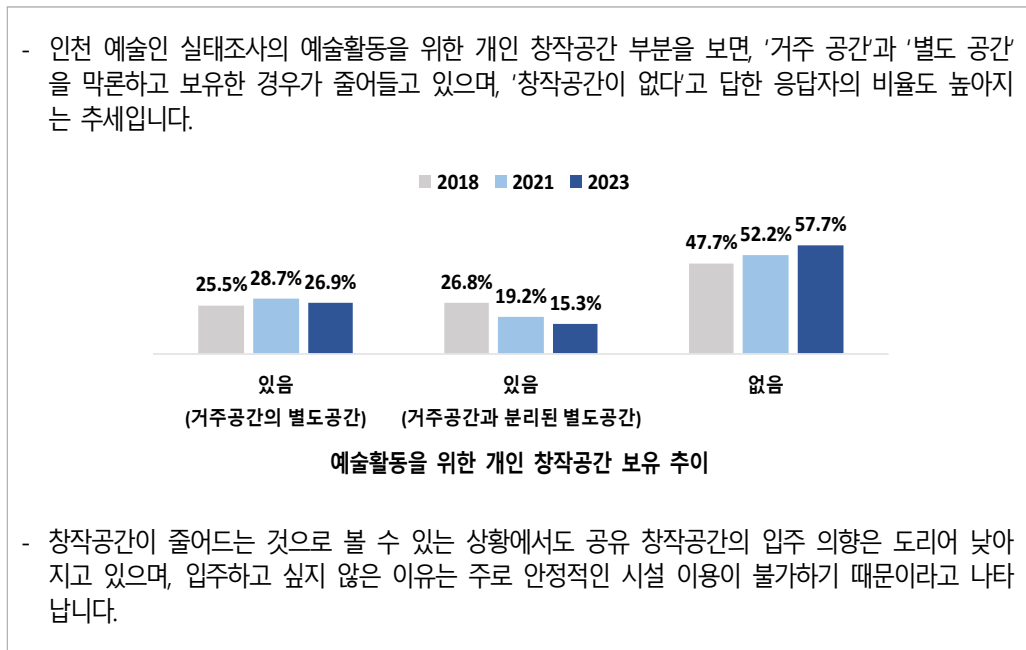
-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에 관해 조사한 결과, 2021년에는 '예술지원사업 공모 기회 확대'(23.7%), 2023년에는 '예술인 생애주기별 지원사업'(26%)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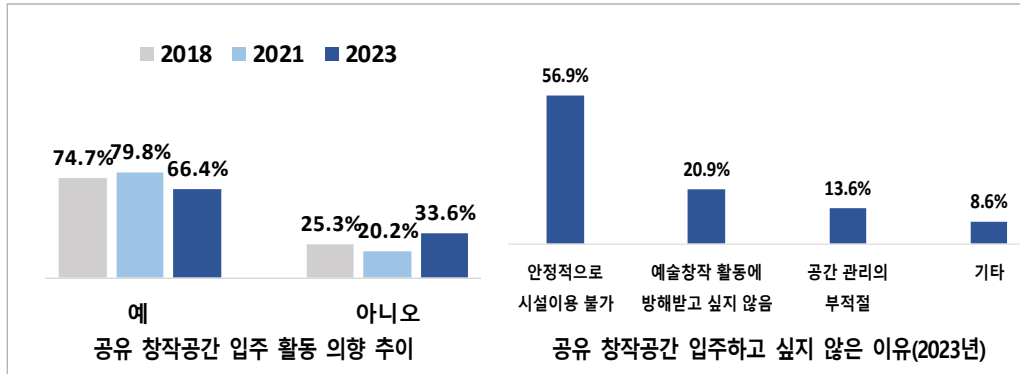


21. 당신은 인천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적지지(지자체장의 정책적 의지와 예산 확보)	①
재단의 사업운영 의지(재단의 사업운영 의지와 예산 확보)	②
예술활동 지원방식 변화	③
인천 예술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지역적 공론화	④
예술인들의 참여 태도	⑤
무응답((가급적 응답 추천)	⑥

*예술인의 창작공간 현안에 따른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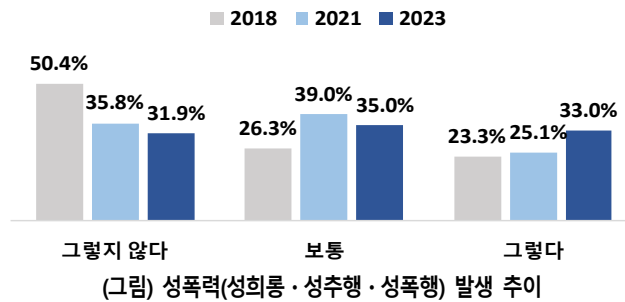


22. 당신은 인천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공간 마련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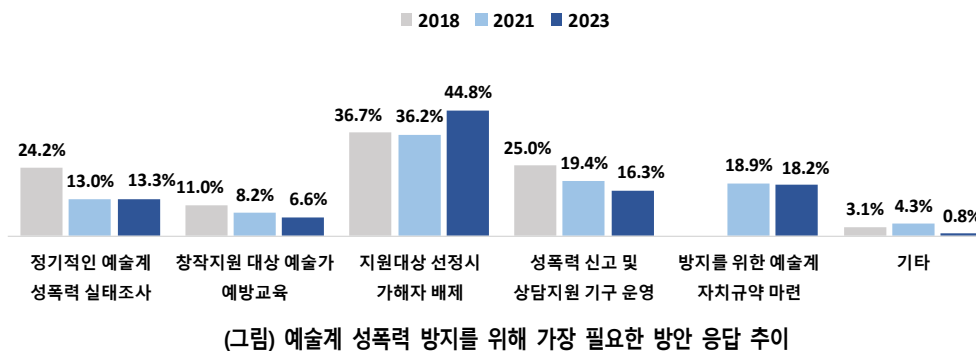
공유 창작공간의 운영 방안 개선	①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사업 확장	②
지역 유휴공간의 매입을 통한 공간 분양	③
공간 매입을 위한 예술인 용자 제도 마련	④
무응답(가급적 응답 추천)	⑤

*예술계 성범죄 인식과 대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예술계 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폭행) 발생 여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건의 증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성폭력에 대한 예술인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예술계의 성폭력 방지를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는 지원 예술인의 선정 시 가해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3차에 걸쳐 가장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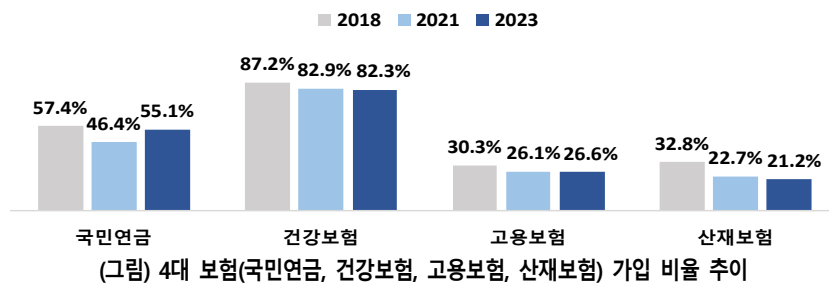


23. 당신은 예술계의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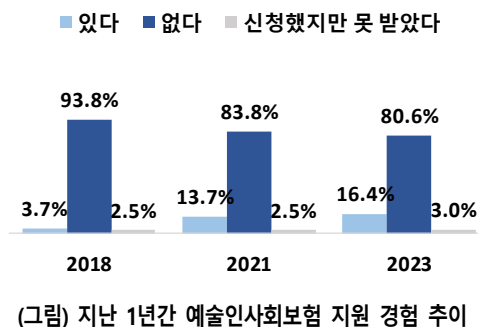
성폭력 예방 교육의 강화	①
신고, 상담, 보호 등 피해 지원체계 강화	②
예술계의 젠더의식을 향상하는 캠페인 전개	③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명 등 철저한 처벌	④
무응답(가급적 응답 추천)	⑤
기타()	⑥

*4대보험 등 예술인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 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여부 비율은 국민연금(55.1%), 건강보험(82.3%), 고용보험(26.6%), 산재보험(21.2%)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가입률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경험 추이에 따르면, 80.6%가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가입의 독려와 예술직업군의 복지처우 개선을 위해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할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산재보험 등이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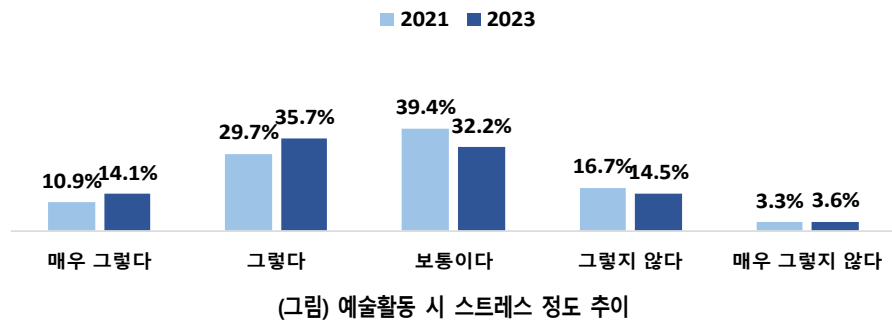


24. 당신은 더 많은 인천 예술인들이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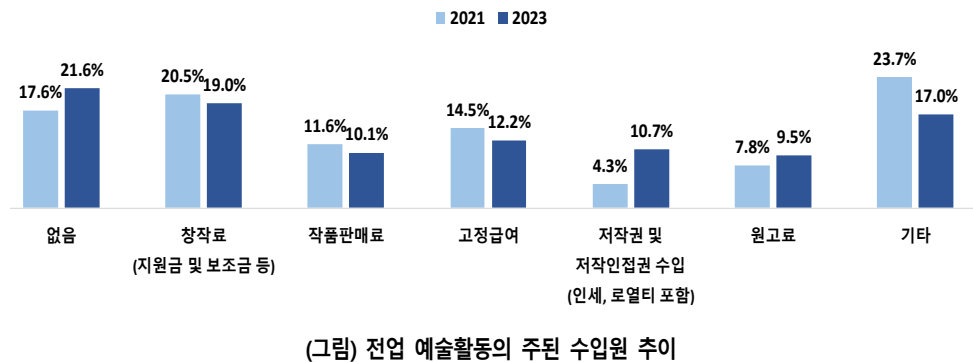
예술인 대상의 정책홍보와 상담 지원	①
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독려	②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예술인의 자발적 활동	③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한 사회보험의 실효성 인식 확산	④
기타 ()	⑤

*예술인의 소득과 예술노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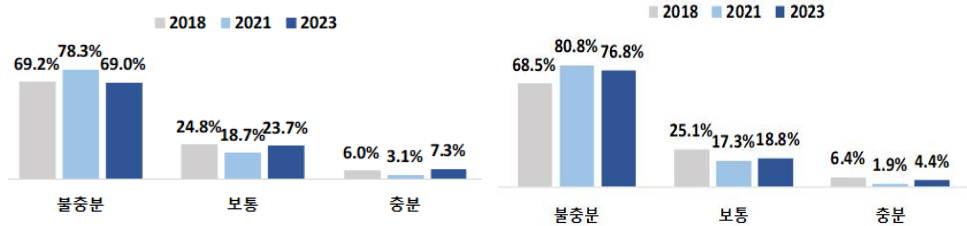
- 실태조사의 예술활동 중 49.8%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었던 2021년에 비해서도 스트레스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창작 활동 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2023년 기준, 전업 예술인의 주된 수입원의 경우 '창작료(지원금 및 보조금)'가 19.0%이며, 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예술인도 21.6%로 나타났습니다.
- 2021년과 2023년의 수입원 추이를 비교하면, 저작권료나 원고료는 상승했으나, 창작료, 작품 판매, 고정급여 등은 감소하였으며, '없음'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 예술(창작)활동의 소득만족도는 2023년 기준,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69%로 가장 높으며, 연도별 추이에서도 응답 예술인의 대다수는 예술(창작)활동 측면에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 생계 및 생활(경제) 측면에서도 2023년 기준,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76.8%로 가장 높고, 연도별 추이에서도 응답자의 대다수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림) 예술(창작)활동의 측면 소득만족도 추이

(그림) 생계 및 생활(경제) 측면 소득만족도 추이

- 예술인 생활안정에 관련한 지원사업은 예술인의 직업 특성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제2차 예술인 플랜에서 제시한 관련 사업들은 미추진 되었습다.

<표> 제2차 인천 예술인 플랜 예술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중 미추진된 사업

성격	사업
예술노동 촉진성격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인천 예술로' 추진
예술인 생활안정 성격	예술인 대상 매입임대주택 사업시행
	예술인 협동조합주택 조성
	생활안정자금 및 창작자금 대출 지원

25. 당신은 인천 예술인의 낮은 소득과 예술노동 기회에 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인천 예술로' 추진	①
예술인 대상 매입임대주택 사업시행	②
예술인 협동조합주택 조성	③
생활안정자금 및 창작자금 대출 지원	④
기타 ()	⑤

■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질문	문항
성별	① 여 ② 남 ③ 무응답
거주지	강화군/ 용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타 지역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직업	예술가/ 기획자/ 연구자/ 예술행정가/ 일반행정가/ 기타 ()
위 직업의 종사경력 기간	① 2년 이하 ② 2년 이상 5년 미만 ③ 5년 이상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 그 외 남겨주실 말씀(주관식)